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 I. 서 론

## 1. 연구의 목적 및 문제

“다른 어떤 분야에서도 탐구하지 않는 체육적 맑의 세계는 존재하는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 만약 체육이라는 이름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이론이나 실기활동에서 추구되는 독자적인 맑의 영역이 없거나,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 탐구와 발견의 방법이나 내용이 다른 활동이나 영역을 통해서도 획득될 수 있는 것이라면, 체육은 그 자체로서의 독자적 존립기반이나 가치를 상실하고 말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른 분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체육 고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체육적 맑’의 문제를 규명하고, 이를 통하여 현 체육학의 지식체계와 체육교육의 목적 및 목표, 그리고 그 교과내용을 재해석해보려는 것이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현 체육학이나 체육교육에서 탐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지식은 어떤 종류의 지식이며, 그것은 체육이 아닌 다른 영역의 지식과 구별할 수 있는 체육 고유의 맑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가?
- 2) 다른 분야와는 다르게 체육의 독자적인 탐구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체육적 맑의 세계는 존재하는가?
- 3) 만약 체육적 맑의 세계가 인정된다면, 그 맑에 근거하여 볼 때 지금까지 인정되어온 체육학의 지식체계와 체육교육의 목적, 목표의 재해석은 가능한가?

## 2.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에서는 체육의 독자적 맑의 세계 즉, '체육적 맑'을 규명하고 현재 체육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과내용과 그 내용에서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뿐만 아니라 체육학에서 추구하고 있는 지식체계와 함께 체육교육의 가치를 재조명하려는 것이다.

체육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과내용은 크게 실기(테니스, 탁구, 축구, 농구, 핸드볼, 야구, 수영, 육상, 검도, 유도, 태권도, 궁도, 춤 등)와 이론(체육철학, 체육사,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체육측정평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상기의 교과목들을 체육이나 스포츠라는 이름하에서 개설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나 설명논리의 당위성이 없다면 오늘날과 같은 다양한 종목의 개설이 체육과 내에서 불가능할 것이다. 만약 이렇게 다양한 이론과 실기종목이라는 '구슬'을 짤 수 있는 '끈'의 논리가 없다면 각 실기와 이론영역은 각자의 독자적인 명칭과 내용으로 독립하여 체육이라는 이름과는 무관하게 개설되고 지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체육과에서는 체육이라는 이름하에 많은 운동종목과 이론을 개설해왔으며 이를 당연한 것으로 수용해온 것을 볼 때, 아마 이 모든 실기와 이론을 꿰는 체육 고유의 맑의 세계가 이미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무심코 인정해 왔던 것은 아닐까? 그러면 체육과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실기와 이론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러한 맑의 세계는 어떤 것일까? 혹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알고 있는 듯한 착각 속에서 지나쳐오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것은 무엇일까? 여기저기 뒤집고 찾아봐도 그 답이 없기에 던져 보는 질문이다.

그것은 우리가 철학이라는 이름하에서 논리학, 형이상학, 인식론, 존재론, 현상학, 동양철학, 언어철학, 실존철학 등을 개설하고 그중 어느 하나를 배우면 철학을 배웠다고 할 수 있듯이, 또 문학을 배울 때 시나 소설, 희곡, 수필, 평론 중 어느 하나를 배우면 문학적 안목을 갖게 되고, 문학의 세계를 좀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문학적 사고나 상상력을 배웠다고 할 수 있듯이, '체육 또한 그래야 하고 아마 그럴 것'이라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체육현상에 대한 깊이의 세계일 것이다. 이런 논리로 본다면 체육에서 개설되고 있는 과목 중에 어느 것을 배우든 간에 그 과목의 내용을 배우면 그 외 다양하게 나타나는 체육적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체육적 상상력과 함께 체육적 움직임의 세계를 설명하고 자기 몸으로 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테니스를 배우면 볼링을 좀더 잘 이해하고 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적어도 그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보다는 좀더 잘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런 유추가 맞는다면 체육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떠한 운동종목이나 이론이든 간에 그들 각각은 체육을 대표하고 있는 셈이 된다. 사실 어떤 깊이의 영역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그중 어느 내용을 학습하든 간에 학습된 내용과 방법이 같은 깊이의 영역에 속하는 다른 어떤 내용을 학습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낱 박제화된 지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기나 이론을 통해서 진정으로 알아야 할 체육 고유의 깊이의 세계는 어떤 것이겠는가? "테니스를 배우면 체육을 배웠다고 할 수도 있고, 그 배움으로 인하여 체육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깊은 과연 어떤 내용이어야 하는가? 그런 내용이 있어야 만이 이를 근거로 비로소 체육학이나 체육교육이 출발할 수 있겠으나 그것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실정이다.

체육의 학문성을 논의할 때에도 이상에서 언급한 체육 고유의 맑의 세계는 매우 중요하다. 1960년대부터 진행된 체육의 학문화 운동으로 인하여 체육교과에서는 실기와 이론 모두를 동등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체육과 같이 이론과 실기가 동시에 요구되는 음악이나 미술의 영역에서는 독자적 맑의 세계와 그 실기에 대한 연구 개발이 진척되어온 반면 체육학이나 체육교과에서는 이미 선행되었어야 할 독자적인 체육적 이론과 실기의 세계에 대한 확실한 토대가 아직도 구축되지 못하고 있었다.

1960년대 이후 체육의 학문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된 이래 여러 학자들은 나름대로 이러한 체육적 맑을 탐구할 수 있는 체육학의 모델을 제시해 왔다. 그 결과 체육계에서는 종래의 체력훈련이나 단순한 운동기술의 지도 등 협의의 개념을 벗어나 운동의 생리학적, 역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역사적, 철학적 연구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체육학 전체의 핵이 되어야 할 체육학의 연구대상이 모호한 까닭에 체육적 지식의 합리적 체계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sup>1)</sup>. 따라서 지난 30여 년 간의 발전을 되돌아보는 현시점에서 볼 때 체육학의 학문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체육학이라는 구조의 허술함과 정체성의 결여이다. 지금의 체육학은 ‘인간 움직임’에 초점을 두고 역사, 철학, 심리학, 사회학, 생리학, 물리학적으로 각각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각 영역들은 그 명칭부터 각 기초학문 명칭 앞에 체육 혹은 스포츠를 덧붙이고 있으며, 그 내용이나 방법론을 모학문으로부터 차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체육학은 체육고유의 영역에 속하기보다는 타학문에의 환원을 자청하고 있는 결과가 되었을 뿐 아니라 각 영역들의 연구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현존하는 영역간의 괴리감은 더욱 깊어만갈 것이다. 이는 마치 체육학이라는 하나의 올타리 안에 공존하지 않을 수

1) 정용근, “체육학의 새로운 접근”, 1991학년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추계 야외세미나 특강, pp. 1-3

없으면서도 공동문제에 따른 상호 노력과 이해가 결여되어 한 지붕 아래에서 살면서 공동체 의식이 전혀 없는 다세대 주택을 연상케 한다. 여기에서 체육학은 ‘하나의 지붕’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인간의 움직임을 과학적 시각으로만 탐구하고자 하는 편견이다. 현대는 과학의 시대로 일컬어지고 있고, 또한 과학이 학문의 발전에 기여한 공헌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들 모두 부지불식간에 이 같은 과학 만능의 사고에 젖어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학만의 안목으로는 ‘인간 움직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곁으로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파악할 수 없다. 우리는 항상 인간의 신체활동이 단지 물리학적이거나 단순한 생물학적 의미 이상의 인간의 총체적 과정임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학문적 탐구에 있어서는 이것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외형적 현상만을 연구하는 체육학이라면 이는 첫번째 문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하나의 지붕’을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체육적 지식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근간이 되는 신체를 보는 시각과도 관련된다. 또한 이것은 인식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어쨌든 상기의 두 번째 문제에서 도출된 것으로서 우리는 체육학의 대상인 인간의 신체나 신체활동을 단순한 생물학적 유기체나 그 물리적 운동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단순한 생물학적 유기체라는 신체의 개념을 비판 없이 그대로 수용한다면 인간의 움직임은 해부학이나 생리학적 연구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체육학의 대상은 될 수 없다. 그러한 시각이라면 인체의 움직임은 기계론적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같은 차원에서의 심리학적, 사회학적 접근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체육적 지식의 세계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데에는 오랜 철학적 배경이 그 저변에 깔려 있다. Descartes적 심신이원론과 이에 기초한 주지주의 영향, 그리고 전통적 과학주의 영향이 그것이다.

주지주의는 역사적으로 체육활동의 경시풍조를 낳았고 이로 인하여 오랫동안 체육의 학문적 가치를 부인하려 하였다. 과거의 체육학자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주지주의적 학문체계를 별 비판 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이를 근거로 체육·스포츠를 연구해 나간 것도 그러한 사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쉽게 편승한 주지주의적 계보에 의해서 지금껏 체육학자들이 주장하는 심신일원론에 기초한 ‘신체를 통하여’라는 의미는 제대로 해석되지 못했던 것 같다. ‘신체를 통하여’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으나 지금까지의 체육학이 ‘신체를 통하여’ 얻어진 현상이나 그 결과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이것을 체육학의 연구방법으로서 주목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인간 움직임의 결과에 치중할 뿐 그 과정은 무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과학주의<sup>2)</sup>는 체육학의 초점(focus)를 혼돈케 하였고 학문적 환원을 자초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래 그 인식방법에 있어서 주체와 객체를 분리시켜 항상 인식의 주체는 인식되는 대상으로부터 일정 거리만큼 떨어져 있음을 강조하는 과학주의는 객관적 세계만을 학문의 대상으로 인정하였고, 행위와 사유가 분리되지 않은 신체적 인식을 주관적이면서 비과학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뒤울 뿐만 아니라 수학적, 원자론적 세계관을 전제함으로써 과학적 법칙의 수식으로 체육을 표현하려 한다. 그리고 체육의 세계를 전체로서가 아니라 부분과 부분들의 합이라는 관념을 앞세운다. 이 같은 인식이 객관적·계량적 지식만을 중시하는 기존의 과학주의적 학문체계를 이루었고 또 이를 세분화, 전문화하는 데 공헌하였음은 물론이다.

‘인간 움직임’이란 그 특성상 의도적이요, 목적적인 것이다. 그러나 체육학은 체육의 독자적인 맛의 영역과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지향할 초점과

2) 과학주의(Scientism) : 인간 최고의 유일한 인식형식을 과학에 두고 있는 입장으로서, 물리학이나 생물학과 같은 과학의 한 분과나 Newton의 물리학과 같은 고전적인 자연과학을 확대시켜 이 점에서 전 세계를 설명하려는 입장이다. 흔히 ‘과학주의’라는 말은 과학철학자들이 과학지상주의를 비꼬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독자적 연구방법론도 결여된 채 스포츠·체육을 기존의 기초학문에 단순히 접목시킴으로써 학문성과 체육의 교육적 가치만을 강조하다가 오히려 자가당착적인 위기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체육이 하나의 학문으로나 가치로운 교과의 하나로서 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육만의 독자적인 깊이의 세계, 즉 '체육적 깊이'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시각으로 인간의 지식을 바라볼 수 있는 '아는 것의 새로운 파악방법'이 필요하다. 코페르니쿠스적인 시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체육은 총체적인 인간 움직임과 관련된 연구영역이자 그 교과의 하나이다. 인간의 움직임은 단순한 인체의 부분적 움직임을 합쳐놓은 것이 아니며 부분으로 환원될 수 없다. 체육은 단순한 기술의 습득이나 이성의 작용에 의한 객관적 지식의 파악에 그치지 않고 의식의 구현체(embodied body)인 몸(soma)에 의한 체험적 깊이(embodying knowing)의 과정<sup>3)</sup>이다.

오늘날 분석철학과 함께 현대철학의 양대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상학에서는 인간의 체험적 깊이(embodying knowing)에 대한 인식론적, 존재론적 기반을 마련해 두고 있으며 인간지식의 암묵적 차원(Tacit Dimension)<sup>4)</sup>이나 인간의식과 물질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양자물리학에서의 배소모델<sup>5)</sup>에서도 체육적 깊이의 특성을 해명한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다.

체육적 깊이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이상에서 살펴본 체육학과 체육교과의 정체성 및 정통성과 가치성 확보에 큰 기여를 하리라고 판단된다.

3) Jeong-Myung Gim, Physical Education as "Artful Knowing",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 1989.

4) Michael Polanyi, The Tacit Dimension, New York : Doubleday & Company, 1966.

5) 프레드 A.올프, 박병철, 공국진 옮김, 과학은 지금 물질에서 마음으로 가고 있다, 서울 : 고려원 미디어, 1992, pp.128-280. 참조

### 3.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체육의 독자적 맛의 영역을 규명하고 이를 통하여 체육학의 지식체계와 체육교육의 목적 및 목표, 그리고 그 교과내용을 재조명하는 데 있다. 이러한 체육적 맛의 영역은 오늘날 체육학과 체육교육의 정체성과 가치성 확보의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살펴보았으며 연구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60년대 이전과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체육의 학문화 운동에 따른 체육학의 지식근거를 1960년대 이전과 이후의 관련 문헌 및 자료를 역사적 시각에서 파악한다. 이것은 현재의 체육학의 지식체계와 체육교육의 교과내용의 지식유형과 그 인식 기반을 파악함으로써 현 체육에서 추구하고 있는 체육적 지식의 실상과 그 문제점을 규명한다.

둘째, 현재 체육분야에서 추구하고 있는 지식을 양산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전통적인 연구방법을 체육의 학문화 운동과 관련된 자료와 과학철학의 방법론적 논쟁, 패러다임론과 관련된 문헌과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셋째, 우리 인간의 맛의 조건과 함께 체육적 맛을 역사, 생물, 진화론, 문화인류학, 의학, 예술, 철학적 인간학 등의 문헌과 자료를 통하여, 그리고 본 연구자가 지난 3년간의 강의를 통하여 수집한 수강생들의 리포트 자료를 근거로 하여 규명해 본다. 이는 전통적인 체육적 지식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넷째, 우리가 체육이라고 이름할 때의 체육현상에 대한 해석과 맛의 주체로서의 몸 개념과 암묵적 지식세계를 Merleau Ponty와 Sartre, 그리고 Michael Polanyi 등의 연구물을 통해 살펴본 다음 이를 기반으로 상기의 체

육적 암의 인식 기반을 규명한다. 이는 체육적 암의 확보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다섯째, 이상의 체육적 암을 토대로 하여 '체육'개념의 재해석과 함께 체육의 본질적 가치를 규명한다.

여섯째, 체육적 암과 함께 전통적인 체육적 지식의 통합가능성을 1960년대 이후의 저널과 문헌 그리고 최근 1990년도 이후 Quest와 Academy Paper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전통적 지식론이라고 할 수 있는 명제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의 내용은 체육적 암의 차원에서 볼 때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이는 체육분야에서의 이론과 실기부분의 통합을 위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일곱째, 이상의 체육적 암을 기반으로 하여 기존의 체육교육의 목적 및 목표 그리고 그 교과내용을 재해석하므로서 체육교육의 이상적 전개방향을 인간의 암의 양식과 상상력,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문헌과 자료를 토대로 하여 살펴보았다.

## 4. 용어의 정의

○ **체육** :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체육이라는 개념은 현행 체육학과 체육교육에서 취급하고 있는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체육활동이라는 실천적 현상에 우선적으로 근거하여 인간의 움직임 현상과 그 움직임의 길을 이해하고 깨달으며, 그 의미를 자신의 암과 삶 속에서 자기 몸의 움직임으로 실천하려는 신체활동의 의미로써 사용한다.

○ **체육적 암** : 광의와 협의에 있어서 인간의 운동과정에서 얻게 되는 총체적인 인간적 암의 양식을 말한다. 이는 체육이라는 활동을 기반으로 할 때 인간의 움직임 현상과 그 움직임의 길을 느끼고 이해하고 깨달으며, 그 의미

를 자신의 앓과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몸으로 실천하는 앓의 상태이자 그 내용이다. 실기의 측면이든지 이론의 측면이든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체육적 앓에 관련된 학문적 연구는 이러한 체육적 앓에 대한 연구일 것이며, 교육적 의미에서는 그런 앓의 내용을 실천과 함께 가르치고 배우며 깨닫는 것이다.

○ 체육적 지식 : 상기의 체육적 앓이라는 용어와의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전통적으로 취급해온 과거와 현재의 체육학이나 체육교과의 지식체계와 그 내용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른 학문영역에서 탐구하고 있는 지식의 세계와 구별될 수 있는 체육 고유의 탐구영역인 체육적 앓의 가능성은 살펴보고, 그 체육적 앓의 근거 범위 내에서 체육적 지식의 구조와 체육교육의 전개방향을 연구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른 분야의 지식세계로부터 유래한 현재의 체육적 지식의 독자성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나, 그 극복의 대안으로써 ‘체육적 앓’의 세계를 제시함에 있어서 체육의 특성상 ‘체육적 앓’이라 이름할 수 있는 세계를 포괄하는 구체적인 구조와 체계는 본 연구에서 자세히 취급하지 못한다.

## II. 전통적인 체육적 지식의 구조와 그 내용

체육적 지식이 오늘날과 같은 양상으로 이루어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1960년대에 시작된 체육의 학문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체육계에서 추구하고 있는 체육적 지식의 정체를 파악하려면 체육의 학문화 운동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그 역사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본 장에서는 체육의 학문화 운동의 발단과 역사적 배경을 먼저 살펴본 다음 그 지식의 유형 및 연구내용의 전개 과정을 체육의 학문성 추구방향(체육학)과 체육의 전문성 추구방향(체육교육)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현재 체육적 지식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내용과 양상을 인식론적 근거와 함께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밝혀본다.

### 1. 체육의 학문화 운동과 체육의 분할

1910년 이전만 해도 체육은 신체문화나 신체훈련으로 불리웠으나 19세기초부터 신체와 교육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 ‘체육’이라는 용어가 문헌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VanderZwaag와 Warren이 1831년에, Pierson이 1840년에 체육이라는 용어를 책이름으로 처음 사용한 이후 1861년에는 Spencer가, 1869년에는 Maclareni이 사용하였으며, 그리고 대략 20세기초에 와서 Gulik, Wood, Hetheronhton 등의 논점을 기반으로 그 사용이 일반화되었다.

당시의 ‘체육’이란 개념은 ‘건강한 몸을 만들’ 목적으로 하는 교육, 혹은 ‘인간의 신체활동을 수단으로 하는 신체의 교육인 동시에 신체에 의한 교육’, 또는 ‘신체구조, 신체발달, 신체의 생리학적, 기계적 기능 및 최대효용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 등으로 정의되었다. 이것은 미국의 대학 프로

그램에 체육을 도입한 사람들이 대부분 의사였고, 그들은 그 당시의 체육이란 단지 건강과 체력의 향상만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1881년 미국의 Hitchcock가 ‘Amherst대학, 일반평의원의 체육과 건강분야의 20세기 실험보고서’를 발표한 후, 체육이 학교교육의 프로그램으로 인정되어 신체발달 및 건강위생을 목표로 신체의 교육(education of the physical)이 체육개념의 핵심을 이루게 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이 당시의 체육지도자들은 학생들의 신체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관심을 가졌던 실용주의적 관념의 영향을 받았다. 또 하나 신체건강을 강조하는 이유는 만약 신체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정신적 학습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판단에 근거하였으므로 당연히 체육은 학교수업이나 사회학습에 있어서 바람직한 교과로 인정되었다. 그리고 신체단련은 보건위생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교육적 가치가 충분한 것 이었다.<sup>6)</sup> 왜냐하면 의학에서 취급하는 병리학적인 방향과는 다르게, 체육선생(physical trainers)들은 학교생활이나 생활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생리적 약화나 불균형을 정정할 수 있는 예방차원의 신체훈련을 장려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적인 의미에서 체육이 교육적이었다’함은 체육활동이 교실에서 실시되었던 인지학습을 강화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참된 심신 일체적인 체험에 의해서 인지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실천의 장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sup>7)</sup>

이때 체육교사들은 직업적 필요성에 의해 자신들의 교육에 대한 토대를 과학적 지식에 두고, 이를 통해 전문가로서 자신들의 입장이 지지를 받을 만하다는 것을 실증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체육의 형성기에 있어서 체육적 지식의 부족을 절감하게 되자, 그들은 과학적인 내용을 토대로 신체의

6) Hartwell, “Physical Training : Its Foundation and Place in Education”, American Physical Education Review, 1987, 3(2), pp.133-151

7) Sargent, “Physical Training in School and College, Shall it be Compulsory?”, American Physical Education Review, 1908, 12(1), pp.1-13

훈련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비용과 시간이라는 문제가 있었다.<sup>8)</sup> 이때 흥미를 끈 것이 바로 운동경기였다.

운동경기는 운동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켜 주었다. 운동경기는 신체적으로 격렬한 활동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성 함양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었다.<sup>9)</sup> 그리고 운동경기는 유럽의 형식적 체조형식에는 부족했던 특징을 갖추고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재미’였다. 체조는 근본적으로 위생학적이었으며, 신체발달을 위한 내적 욕망을 가진 사람에게 매력적이었고, 운동경기는 주로 투쟁적인 내적 욕구에 매력적이었던 만큼 사회적이었다. 더구나 체조가 어린이의 자연적인 성장발달을 위해 운동경기보다 우선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던 곳에서는 체조와 운동경기를 통합한 형태로 개량된 신체단련 프로그램이 모든 수준의 교육기관에 소개되었다. 그리고 그 시기에는 보건학적이고 사회 가치 규범적인 신체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단순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교육적 의미의 체육으로 전환되면서 Williams 등이 주장한 ‘신체를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the physical)’<sup>10)</sup>이 체육의 지배적인 개념적 틀이 되었다.

단순한 ‘신체의 교육’으로부터 ‘신체를 통한 교육’으로의 전환을 이루게 된 사상적 배경에는 Dewey의 실용주의와 Thorndike 등의 행동주의의 영향을 받은 진보주의 교육사상이 자리하고 있다. Hetherington은 몸과 마음은 조화롭게 작용하기 때문에 신체를 발달시키는 체육은 모든 교육의 기초가 된다고 했으며, Wood도 체육을 ‘신체의 교육’이 아니라 신체적 훈련과 관계된 ‘전인적

8) E. Molinraux, "Military Drill", Proceedings of the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Physical Education, 1987, 3, pp.11-16

9) L. Gulick, "The Biological Aspects of Athletic Specialization", American Physical Education Review 8(2), 1903, pp.70-74

10) J. F. Williams, "Education through the Physical", Journal of Higher Education 1, 1930, 279-282.

교육'을 위한 노력으로 간주하면서 체육의 교육적인 면과 과학과의 관련성을 강조했다.<sup>11)</sup>

Williams는 학생들에게 여가시간의 즐거움과 체육활동을 통해서 민주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경험과 인격의 형성, 개인적 가치와 책임의 학습, 자아 성취감 등을 체육의 목적으로 제시하면서, 종래의 딱딱하고 인위적인 체조보다는 놀이, 게임, 스포츠를 강조하는 신체육(new physical education)<sup>12)</sup>을 주장함으로써, 체육활동을 통해 새로운 민주시민의 양성에 주력하였다.

이상과 같은 체육의 교육적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1960년대에는 체육의 학문화 운동이 급속도로 일기 시작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체육교과의 교육내용이 신체활동이라는 전문분야(a profession)에만 머물러 있었으나, 그 논의의 주제가 학문성 자체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체육이 지식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독립된 학문분야(a discipline)로 성립할 수 있음을 증명하려하였다.

“학문분야는 독특한 개념과 탐구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적 가치와는 상관없이 지식추구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갖는 지식의 영역이며, 전문분야는 그 지식의 실제적 적용을 목표로 하는 영역이다”<sup>13)</sup>라는 주장에 비추어 볼 때, 1960년대에 학문화 운동과 함께 시작된 Conant<sup>14)</sup>와 Henry<sup>15)</sup>의 논쟁은 현대 체육의 분할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11) T.D. Wood, "The New Physical Education" in Western, Ed, The Making of American Physical Education, New York : Appleton-Country Crofts, 1962

12) 신체육이라는 용어는 '신체운동을 통한 교육', '사회성의 육성', '인간관계중시', '과학성의 존중', '커리큘럼', '방법', '교내대회', '아동중심의 교육' 등과 같은 뜻을 포함한다.

13) W.P.Kroll, Graduate Study and Research in Physical Education, Champaign, Illinois: Human Kinetics Publishers, 1982.

14) J.G.Conant, The Education of American Teachers, New York: McGraw-Hill, 1963.

15) F.M., Henry, "Physical Education : An Academic Discipline", Journal of Health, Physical Education and Recreation, Vol.97, 1964.

1960년대에 시작된 학문화 운동은 대학체육에 있어서 일대 전환점을 이루었다. 이를 계기로 체육관련 대학의 학사 및 대학원 교과과정은 변화하였다. 미국에 앞서서 소련에서 먼저 발사된 스포트니크호의 충격으로 인하여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수학과 자연과학분야를 강조함과 함께 각급학교에 대한 학문중심의 교과과정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였다. 교육에 있어서 개혁주의자들은 더 많은 과학자들을 양산하고 모든 분야에서 교육 프로그램 수준을 끌어올리려 하였다.<sup>16)</sup> 이러한 일반적인 이데올로기적인 풍토 속에서 1961년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Fisher Act를 통과시키고 그 주(州) 안에 속해 있는 모든 대학이 학문적 기반을 갖출 것을 요구하였다.

그 당시 체육은 학문으로 분류되기보다는 전문분야로 간주되었으므로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체육관련 교수들은 이 문제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sup>17)</sup> 결국 이 문제와 관련하여 체육분야를 가장 위협적으로 공격한 사람은 James B. Conant 였다. 그는 *The Education of American Teachers*(1963)에서 음악이나 미술처럼 체육 또한 운동이나 신체적 기술이 유일한 연구주제이므로 실기에 기초한 분야로 분류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Conant는 이러한 모든 실기 분야는 대학에서 학문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Franklin Henry는 1964년 Conant의 비판에 반향했던 많은 학자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 “Physical Education : An Academic Discipline”에서 그는 하나의 독자적 학문분야로 설립될 수 있는 체육의 학문성을 공언하였다. Henry는 “체육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학문분야가 있을 수 있고, 만약 지금까지 체육의 학문적 조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발명될 필요가 있다”<sup>18)</sup>고 주장하였다.

16) Daryl Siedentop, *An Introduction to Physical Education, Sport and Fitness*, Mountain View, CA : Mayfield, 1990

17) Ibid.

18) F. M Henry, op. cit, p.9

Henry의 논쟁이 처음 시작된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체육이라는 분야는 ‘신체의’, 그리고 ‘신체를 통한’ 교육이라고 정의했었던 전문교육의 영역으로부터 학문적 형태로 탈바꿈을 계속해 왔다. 학문적인 모델의 기본 전제는 체육현상이 다양한 학문적 시각에서 연구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생체역학, 운동생리학, 스포츠 사회학, 운동학습 등과 같은 그러한 하위학문들이 이러한 배경하에서 개발됨에 따라서 새로운 대학이나 대학원에서는 그 하위 학문영역에서 검증된 지식을 교과과정에 반영하였다.

하나의 학문은 그 연구의 독특한 대상과 탐구의 양식에 의해 한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체육의 학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요구였다.

따라서 체육연구의 주제로서 두 가지 초점이 드러난다. 바로 ‘인간 움직임’과 ‘스포츠와 훈련’이 그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체육의 중심이 되어야 할 연구의 주제로서 ‘인간 움직임’을 추천했으며, 다른 학자들은 ‘인간 움직임’은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좀더 구체적인 ‘스포츠와 훈련’을 연구주제로 삼자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주제에 대한 논쟁은 흔히 ‘명분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만한 일을 수반한다. 체육이라는 개념은 확실하게 그 스스로 전문영역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다시 사용하는 대신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실제로 학자들은 그들 자신의 학문적 관점을 반영하는 이름으로 학과의 명칭을 변경해 왔다. 체육이라는 용어 대신에 사용되는 명칭으로는 Kinesiology, Human Movement Studies, Sport Study, 그리고 Sport & Exercise Science Kinanthropology 등이다.

신학문주의자들은 명칭에 관한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체육학과 학교교과로서의 체육교육이 갖는 보다 일반적 의미는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신학문주의자들은 스포츠와 운동에 관

한 연구를 실제에의 적용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그것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는 학문적인 지식의 내재적 측면에서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체육계 내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학문화 운동에 동조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교사교육 전문가들이 그러하였다. 이러한 학문화 운동에 대한 반대논쟁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Lawson(1984)<sup>19)</sup>은 체육계 자체 내에서 그러한 움직임이 일어나게 된 주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신학문주의자들의 주장대로 모든 사람들이 학문적 지식이 그것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이 학교교육의 실제와 관련을 맺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 논리로,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학문적 지식이 체육교육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그것이 체육 교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학문화 운동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체육의 학문적 연구가 학교체육 프로그램이나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학문적 지식은 학교에서 실제 적용되지 않으며, 단지 하나의 '장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반대 이유는 훌륭한 교사나 교사전문가가 될 수 있는 재원들이 학문적 연구에 흥미를 빼앗겨 자신의 현재 지위를 버린다는 것이다.<sup>20)</sup> 그래서 학교교육의 질이 낮아진 것도 이 때문이며, 이것이 그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학문화 반대운동에 박차를 가하게 만들었다.

세 번째 반대 이유는 대학의 교육재정, 시설, 그리고 교구의 분배와 관련되어 있다. 학문화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들 자원 중 대부분이 자동적으로 교사교육에 쓰여졌다. 하지만 학문화 운동으로 인하여 이러한 물자들이 재분

19) Daryl Siedentop, *Physical Education : Introductory Analysis*, Dubugue, IA : Wm. C. Brown Company, 1980

20) Lawson, H., *Invitation to Physical Education*, Champaign, IL : Human Kinetics, 1984

배되었다. 즉, 교육재정이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할당되는 대신에 학문적 연구와 강의를 위한 연구실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다. 대부분의 교사교육 전문가들이 학문적 연구와 신학문주의자들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왜 그들이 그러한 자원의 재분배에 반대하였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체육의 학문화 운동에 반대하는 또 다른 주장은 체육에 과연 어떠한 형태의 학문이 적절한가에 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어떤 교사교육 전문가들은 그들에게 ‘어떠한’ 학문이 적당하고 그들의 전문영역은 ‘어떻게’ 정의하여야 하는가에는 많은 관심을 쏟고 있지만, 체육에서 ‘학문적 접근’이 필요로 한지 아닌지에 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 그 자체를 위한 학문은 반대하지만, 교수와 학습의 과학에 관한 학문은 인정하고 있다.<sup>21)</sup> 학문성은 반대하면서도 체육교수와 학습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학문분야를 ‘체육교육학’(Sport Pedagogy)이라고 부르며, Henry가 주장한바, 이것은 학문적 성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학문화 운동에 대한 이러한 상이한 두 가지 관점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이 바로 이 속에 함의되어 있다. Henry가 주장하는 학문은 ‘응용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체육교육학은 실제에 근거를 두고, 때로는 실제를 안내하며, 그 교육내용도 교사교육 등과 같은 전문적 성격을 띤 여러 개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사태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하나의 학문분야를 두 가지(Henry의 학문과 Sport Pedagogy)로 정의함으로써 두 개의 서로 다른 이론모형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 모형들에 관해서 서로 입장이 다른 견해가 오고 가게 된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Henry와 신학문주의자들은 ‘체육학’을 주장하였고, 교사교육 전문가들은 ‘체육교육학’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전통적인 체육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모형은 체육학이라는 학문분야와 체육교육이라는 분야로 나뉘어 살펴보아야 한다.

---

21) Daryl Siedentop, op. cit.

## 2. 학문성과 전문성에 따른 체육적 지식

### 1) 학문성에 따른 체육적 지식

학문성에 따른 체육적 지식이 나오게 된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체육의 학문적 성격을 규명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체육의 학문으로서의 성격을 제기한 Conant의 주장 이후 체육의 학문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하여 많은 학자들은 체육에도 명제적 지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규명하려고 하였다. 전통적 학문의 구성요소를 체육에서 충족시킴으로써 체육 고유의 학문적 지식이 존재한다고 밝혀내려 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인정된 학문을 구성하는 요소는 첫째, 고유의 연구대상이 존재할 것, 둘째, 독자적인 연구방법이 존재할 것, 마지막으로는 대상과 연구방법에 의해 산출되는 고유한 지식의 본체가 존재할 것 등이다.<sup>22)</sup> 이러한 각각의 구성요소가 체육에서 어떻게 충족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체육의 학문적 지식을 밝혀내 보자.

첫째, 고유한 연구대상을 보자. 체육은 인간의 움직임을 통해 인간을 파악하려는 것이다<sup>23)</sup>라고 볼 때, 이론의 여지없이 운동을 하는 행위주체로서의 인간이야말로 체육의 탐구영역이다.

둘째로 살펴보아야 독자적 연구방법은 체육적 지식의 본체와 관련되어 설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식의 본체를 Saul Ross<sup>24)</sup>는 그림 II-1과 같이 설명하였다.

22) H. Lawson & Morford, "The Crossdisciplinary Structure of Kinesiology and Sports Studies", Quest 31, 1979, p.223

23) Franklin. M. Henry, op.cit. 1964

24) Saul Ross, "The Epistemic Geography of Physical Education: Addressing the Problem of Theory and Practice", Quest, Vol. 33, Human Kinetics Publishers, Inc. 1981, p.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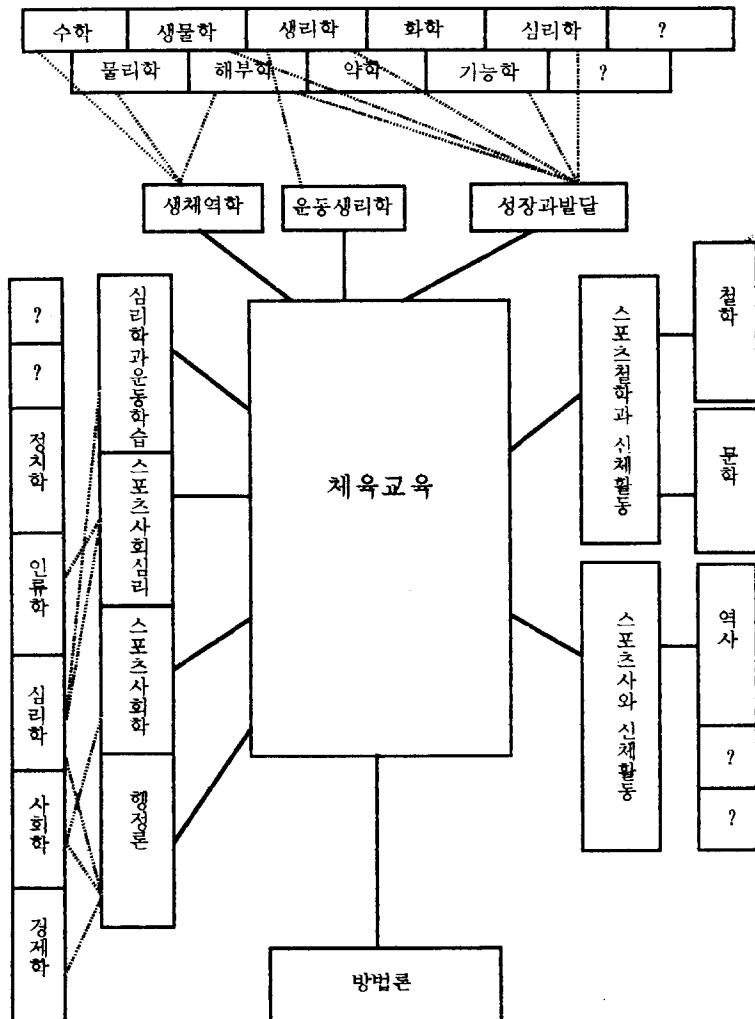


그림 II-1 체육(체육학, 체육교육)의 지식체계도

그림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육이라는 현상을 구성하고 있는 지식은 체육현상을 설명하고 그 관련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다른 학문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론들이다. 이러한 체육교육과 체육학의 하위 학문영역 및 모학문 간의 관계는 위계적이며 수직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Saul Ross가 주장한 것처럼 체육학의 지식이 구성되어 있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각 세부학문

들간의 상호관련성이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상호관계의 방법이 곧 연구방법의 문제이다. 이 관계맺음을 규정하는 체계에서 체육에서의 학제적 접근(interdisciplinary approach)과 교차학문적 접근(crossdisciplinary approach)이 존재한다고들 한다.

세부적인 학제적 접근과 교차학문적 접근의 차이는 체육지식의 구조에서 모학문과의 관련을 중시하느냐, 아니면 체육의 하위 학문영역들간의 관련을 중시하느냐의 차이이다.<sup>25)</sup> 즉, 체육의 지식구조와 관련해서 수평적이나, 수직적이나의 문제이다.<sup>26)</sup> 수평적 관계와 수직적 관계의 차이는 체육학의 지식체계에서 볼 때 각 체육학과 체육학의 하위 학문영역, 그리고 모학문이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학제적 접근은 체육현상을 연구할 때 각 하위 학문영역의 전문분야에서만 연구를 함으로써, 체육은 사라지고 모학문만 남게 된다.<sup>27)</sup> 왜냐하면 체육은 모학문의 입장에서 볼 때 아주 작은 주제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sup>28)</sup> 반면에 교차학문적 접근에서는 각각의 하위 전문분야별 연구를 수평적으로 통합시켜 이루어진다. 이 때 체육적 지식의 본체는 통합적이고, 독자적 영역을 구축할 수 있다.<sup>29)</sup>

이런 의미에서 Henry와 Lawson & Morford는 교차학문적 접근이 체육학의 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체육학이 교차학문적이 되기 위해서는 각 체육학의 하위 학문영역간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무엇인가의 통합요인’이 필요하게 된다. 그렇지 않다면 체육적 지식의 모학문으로의 환원을 막을 수 없다.

---

25) H. Lawson & Morford, op. cit, pp.224-226

26) Ibid, p.223

27) Ibid, p.226

28) Franklin. M. Henry, op. cit.

29) H. Lawson & Morford, op. cit, p.226

Henry는 그러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모학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30)</sup> 학부 1, 2학년에서 모학문을 습득하여 자기의 지식으로 삼은 후에야 상위학년에서 체육과 관련된 심도 있는 교차학문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Henry의 견해는 전통적인 학문과 체육간의 관계를 중도적 입장에서 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31)</sup> 이것은 모학문으로 회귀할 수도 없고, 전통적인 기능 위주의 체육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가운데 취하게 되는 딜레마적인 상황에서 취한 해석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교차학문적 지식을 지향하는 상황에 놓인 현재의 체육적 지식을 Haag는 다음과 같이 체계화하였다.<sup>32)</sup>

표 II-1 체육학의 하위 학문영역

1. 자연 과학	2. 사회 과학	3. 인문학
1) 스포츠 의학 2) 스포츠 생체역학	1) 스포츠심리학 2) 스포츠교육학 3) 스포츠사회학	1) 체육사 2) 체육철학

지금도 거의 모든 체육의 학문적 지식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개의 범주로 나뉜다. 생리적 측면과 사회·심리적 측면, 그리고 역사·철학적 측면이 그것이다. 이것은 당시 만연하고 있던 과학주의적 지식구조를 체육현상을 파악하는 틀로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전술했던 Saul Ross의 내용체계와 크게 다르지는

30) Franklin. M. Henry, op. cit

31) 강신복·최의창, “체육 학문화운동과 체육교과의 성격 : 학문성 강조 체육교과 모형의 탐색”, 서울대학교 체육연구소 논집 제 12권 제 2호, 1991, p.3

32) H. Haag, “Development and Structure of a Theoretical Framework for Sport Science (“Sportwissenschaft”), Quest 31, 1979, p.29

않지만 특기할 만한 일은 Haag은 스포츠 교육학을 세부학문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스포츠 교육학을 스포츠 심리학이나 스포츠 사회학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하나의 세부적인 하위학문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이다.<sup>33)</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육의 학문영역에서는 체육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과학적 지식 및 그 방법을 도입하여 지식의 수직·수평적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교차학문적으로 체육의 지식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아직까지도 그 체육적 지식의 본체는 뚜렷하게 드러내지 못한 상태에서 각각의 하위 학문분야에서는 각각의 입장에 따라 개별적으로 체육현상을 파악함으로써 교차학문적인 체육의 연구방법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당연히 각각의 하위영역에서 양산하는 지식 또한 체육적이기보다는 모학문으로 환원될 수 있는 지식이 되고 만다. 아마 이러한 문제점은 체육현상에 대한 연구방법을 교차학문적으로 바꾸어가는 것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본 전제인 모학문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 또다시 모학문으로의 환원주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결국 진정한 문제해결은 체육현상을 파악하는 체육 고유의 암의 문제와 이를 다룰 수 있는 방법들로 귀착된다.

체육 고유 탐구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암이란 현재 체육이라는 이름 아래에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체육사회학, 스포츠 심리학, 스포츠 역학 등이 아니다. 이러한 영역들에서 생산하고 있는 지식은 다른 모학문의 지식과 다를바 없으며, 결국 체육 고유의 세계를 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영역에서 파악된 모든 지식들은 각각의 가치를 확인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서의 암의 세계가 또다시 요구된다. 따라서 체육의 하위분야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체육적 지식의 본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

---

33) Ibid, 29

한 체육적 지식의 본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체육이 안고 있는 객관주의적, 주지주의적, 과학주의적 지식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체육적 맥의 영역을 찾아야 한다. <sup>34)</sup>

## 2) 전문성에 따른 체육적 지식

전통적으로 체육의 교과내용은 실기와 이론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교육적 의미에서 볼 때 체육교육이란 인간의 움직임을 통해 신체적,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성공적인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인간의 육성에 기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체육교육은 교육목표 분류에 따른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으로 구분된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학습내용으로서 운동역학, 운동생리학, 운동심리학, 스포츠 사회학, 체육사, 체육철학 등의 체육학 지식을 포함시키고 있다.<sup>35)</sup>

그러면 전문성에 따른 체육적 지식양상을 체육학의 지식구조와 관련하여 살펴보자.

체육에 종사하는 교사들이나 지도자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체육의 목표를 실현시키려는 것이므로 체육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체육지도자들이 적당한 학습활동을 선택하고 지도 방법을 모색하며, 평가기술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체육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체육의 지식체계를 이해하고 또한 그것에 관계되는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제 6차 교육과정을 보면 교육활동 내용의 준거를 제시하는 체육교육의 이론적인 목표 개념 모형의 내용이 성장과 운동의 발달, 운동학습, 교수법, 운동

34) 정웅근·오정석, “동·서 체육사상의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연구소 논집 제 12권 제 2호, 1991, p.13

35) 국민학교 1,2급 정교사 자격 연수교재, 서울교육대학 부설 초등교원 연수원, 1992, p.233

생리학, 운동역학 등의 학문적 배경하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예시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첫째는, 성장과 운동발달론의 체계로서 운동행동을 반영하는 본래적인 인간의 성장과정에 관한 내용이다.

둘째는 역학의 영역으로서 신체에 작용하는 내·외적인 힘의 효과에 관한 내용이다.

셋째는 운동생리학의 영역으로서 신체기관의 운동효과에 관한 내용이다.

넷째는 사회심리학적 발달의 영역으로서 인간관계, 개인의 성장, 존경, 그리고 신체활동에 관한 태도에 관련된 내용이다.<sup>36)</sup>

위의 내용들은 교육적 가치를 지닌 체육학의 지식으로서, 이는 체육교육을 통하여 습득된다고 가정되며 이것이 사실상 체육교육의 기본 지식을 이루고 있다.

체육교과를 담당하는 체육교사란 체육교과의 기본적인 지식과 아동의 성장 발달에 관한 전문적인 이론을 기초로 체육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일 것이다. 그러나 체육이라는 분야의 성격상 체육교과에서 취급하는 체육학의 지식들은 일차적인 실기수업을 통해서 학습되고 습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차적일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체육교육은 비주지적 교과, 예능교과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심리학적 발달론과 생리적 가치라는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체육적 활동들은 수단으로 활용됨을 엿볼 수 있다. 결국 체육학의 지식들과 체육적 활동들이 교육의 수단으로만 생각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체육교육과 관련한 교육영역의 지식의 본체나 지식구조는 결국 체육적 활동이라는 인간의 움직임을 통하여 체득할 수 있는 얇은 세계에 근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36) 김용환, 국민학교 교육과정 해설, 서울 : 교육과학사, 1993, pp.419-422

주지하는 바와 같이 체육교육은 심동적 영역의 측면에서 체력 및 신체기관의 발달과 운동기능의 발달을 추구하며, 정의적 영역의 측면에서 협동심, 희생정신, 공정한 경쟁심 등의 사회성의 발달을 비롯한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정신 등의 함양을 추구한다. 또한 인지적 영역의 측면에서 보건 및 건강에 관한 지식의 학습과 다양한 운동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문제해결력, 탐구력, 창의력 등의 함양을 추구한다. 이렇게 볼 때 체육교육은 활발한 대근활동을 통하여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및 지적인 발달을 목표로 하는 전인적 교육이라 할 수 있다.<sup>37)</sup>

결국 이러한 체육교과에서 구체적 학습내용으로 삼는 여러 가지 운동종목과 이론을 아무리 체계화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다시 체육의 목적과 목표에 걸맞는 행동 목표로 다시 구체화될 수밖에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체육적 움직임 그 자체의 맑의 세계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체육수업에서 학생들과 교사의 체육적 행동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육교육의 상위개념인 교육적 영역에서의 체육적 지식의 가치는 그 자체의 목적적 성격보다는 수단적 가치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육교육의 수단적 가치도 결국 체육활동에서 획득할 수 있는 맑에 근거하여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체육교육에서 획득하고자 하는 지식도 체육학과 마찬가지로 체육 고유 영역으로서 탐구할 수 있는 맑의 세계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겠다.

---

37) 문교부, 5차 국민학교 교육과정 해설, 서울: 문교부, 1989, p.504

### 3. 다차원적인 체육적 지식의 혼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육학과 체육적 지식은 학문화 운동을 기점으로 다양한 방향에서 탐구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획득한 하나의 체육현상에 대한 다차원적인 지식은 하나의 고리로 엮어지지 못한 채 체계적 구조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의 혼재현상을 역사적 흐름과 함께 살펴보자.

전술한 바와 같이 체육교과의 교육내용이 신체활동이라는 생각은, 적어도 1960년대에 체육의 학문화 운동이 불붙기 시작할 때까지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자명한 사실로 인정되었다. ‘체육의 학문화 운동’ 이란 그 동안 하나의 전문분야로서만 여겨지던 체육이 지식추구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독립된 학문영역으로 성립할 수 있음을 증명하려는 노력으로서, 대학 및 대학원 체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성하도록 만든 계기가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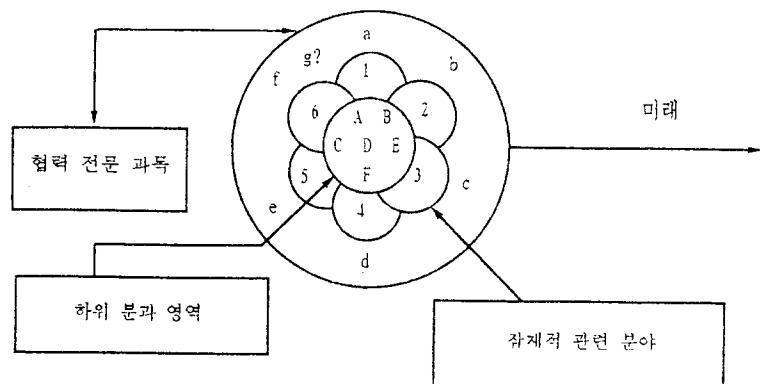
대학 교육과정을 이와 같이 바꾼 후에, 체육학 교수들은 대학원 교육과정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들은 장래에는 이론가들(theorist)과 이론을 실제에 적용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문가들(professionals)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지식체계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기 때문에 교육내용 중 그와 같이 이론과 지식에 더 큰 역할을 부여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Henry<sup>38)</sup>의 견해를 필두로 체육의 학문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1968년에는 Kenyon<sup>39)</sup>이, 그리고 1976년에는 Zeigler<sup>40)</sup>가 계속해서 체육의 학문성에 관하여 연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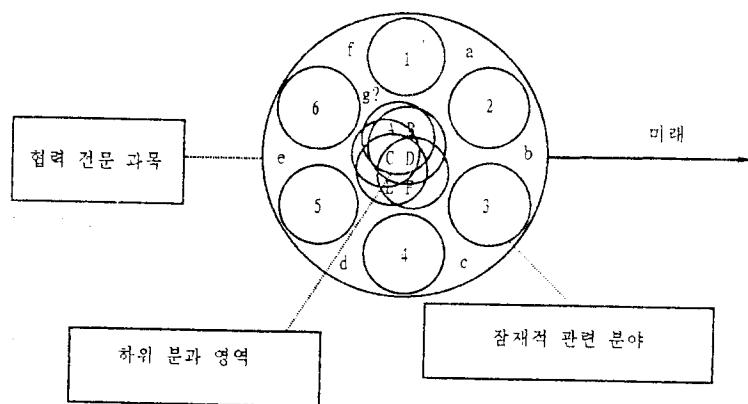
38) F.M. Henry. op. cit.

39) G.G.Kenyon, “On the Conceptualization of Sub-Disciplines within an Academic Discipline Dealing with Human Movement”, Proceedings, National College Physical Education Association for Men, 19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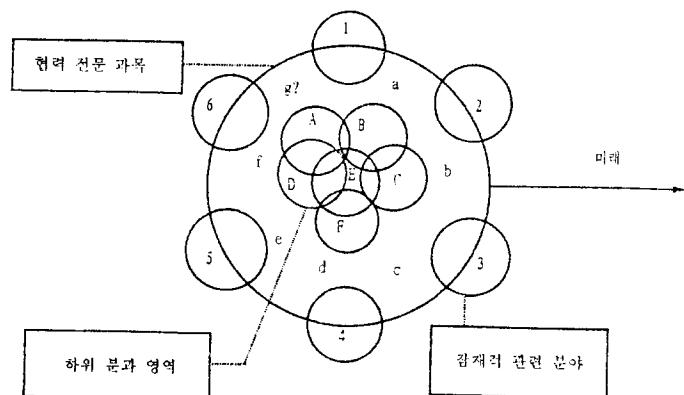
40) E.F.Zeigler & K.J.McCristal, “A History of the Big Ten Body-of-Knowledge Project in Physical Education”, QUEST, No.4, 1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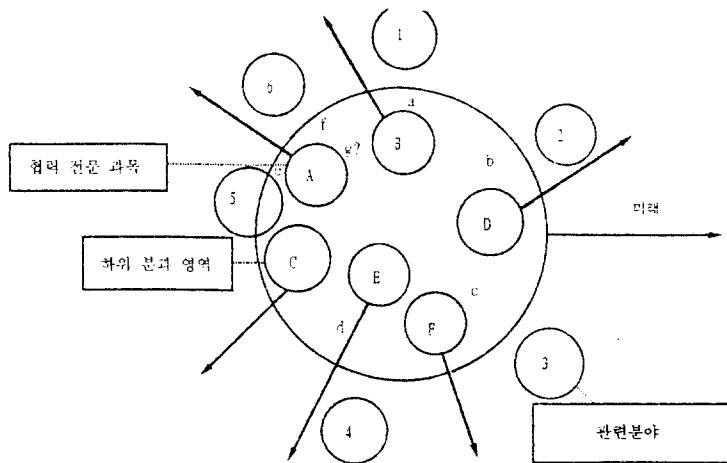
體育의 1단계(1900-1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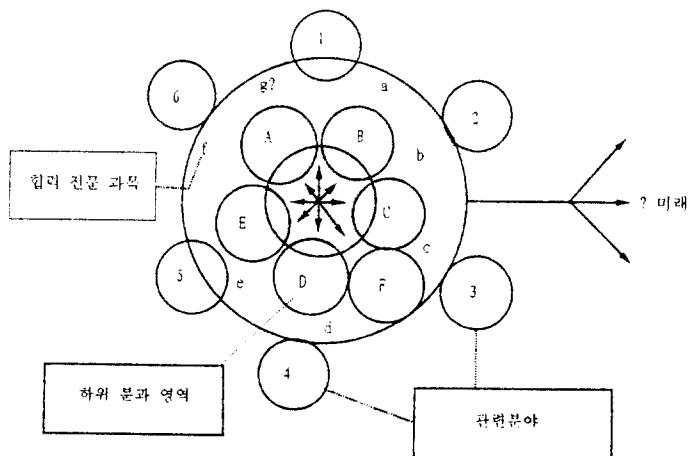
體育의 2단계(1930-1960)



體育의 3단계(1960-1970)



體育의 4단계(1970-1980)



體育의 5단계(1980-2000)

그림 II-2 체육의 학문적 변화의 5단계

협력 전문 과목 (concurrent professional components)	하위분과영역 (subdisciplinary areas)	잠재적 관련분야 (potential allied professions)
a : 행정	A : 생리	1 : 경쟁적 운동경기
b : 관리	B : 역사, 철학	2 : 보건교육
c : 교과과정	C : 심리	3 : 교육무용
d : 교수방법	D : 생체역학	4 : 레크리에이션
e : 비교연구	E : 사회학	5 : 장애 자작용 교육 (물리치료)
f : 측정평가	F : 기타 학문영역	6 : 안전교육
g : 기타		

이러한 체육학의 변천과정을 Zeigler는 영역별로 1) 하위분과 학문영역(subdisciplinary areas), 2) 협력전문 영역(concurrent professional areas), 3) 잠재적 관련분야(potential allied professions)로 나누었고 시기별로는 1900-2000년도까지 5단계로 나누어서 다음과 같은 도표<sup>41)</sup>로 설명했다.

첫번째 단계에서 체육의 하위분과영역은 거의 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재적 관련분야와 협력전문과목들이 모두 존재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서면서 학문영역이 지식체계로부터 서서히 독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잠재적으로 관련된 전문분야들도 체육의 핵심으로부터 떨어져 자신들의 독립성을 찾는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양상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하위분과영역들은 체육의 중심위치로부터 잠재적 관련분야로 더욱 다가서고 있으며 협력전문과목들의 발달과 더불어 잠재적 관련분야는 점점 체육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스스로의 독립성을 확실히 굳혀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학문적 발달의 정도가 강화되면서 기존의 흐름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하위분과영역들은 그들의 모학문(mother discipline)으로 더욱 다가서고 있으며, 이때에는 개별분과학문의 학회가 조직되는 시기이다. 한편 여섯 개의 잠재적 관련분야는 완전히 체육의 바깥영역에서 그 자체의 영역을 굳하게 됐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체육의 새로운 단계를 예측한 것으로서 학제적(interdisciplinary)인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마지막 그림의 가운데 빛금친 원은 스포츠와 신체활동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발전된 지식체(body of knowledge)를 나타낸다. 이 단계의 접근방식은 체육학 전체와 하위전공영역을 상정하여, 관련분야의 균형적 발전을 꾀하고 공동의 연구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통합된 학문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41) E. F. Zeigler,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 an Introduction, Lea & Febiger, 1982. pp.23-45.

이상과 같은 Zeigler가 제시한 학문적 변천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1960년대 학문화 운동 이후부터는 체육학 내 하위분과영역들이 체육학이라는 울타리에서 점점 멀어져 1980년대에 이르러는 모든 연구 경향이 모학문(mother discipline)으로 향하게 됐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1980년대 이후에는 하위분과 영역들이 상호유기적일 뿐만 아니라 체육학의 본질적인 요소로 향해야 함을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내놓았다.

이것과 관련하여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패러다임(New Possibilities, New Paradigms)’이라는 주제하에 진행된 A.A.P.E.(American Academic of Physical Education)의 연례모임에서 Sage는 Kuhn의 패러다임의 개념을 “학문영역 안에서 사용하는 독특한 조작방법 등을 포함하는 연구대상에 대한 기본적인 상(fundamental images)”<sup>42)</sup>을 다음과 같이 확대해석하였다. 첫째, 운동과 체조와 경기를 통한 건강증진과 그 발달을 체육의 패러다임으로 하던 시기와 둘째, 건강증진 대신에 교육적 관심을 패러다임으로 하던 시기, 그리고 셋째, 인간 움직임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확장을 위하여 하위 분과학문(subdiscipline)이 발달하는 패러다임 개방시기로 나누고, 앞으로 전개될 체육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갖는 경향과 주제는 전체로서 총합된 인간에 초점을 맞춘 학제적 연구로서 움직임 속에서 인간(human in movement)을 이해하려는 학문적 연구와 그 성과의 다양한 용용 속에서 그 정체성을 찾아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보았을 때 현재의 체육에서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체육적 지식의 양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다.

첫째는, 다학문적(multidisciplinary)이다. 이것은 체육과 같은 하나의 중심 주제를 통합개념이 없이 따로 분리된 학문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이다. 모학

42) G.H. Sage, op.cit, pp.154-161.

문으로부터 지식을 빌려와서 신체활동 또는 체육이라는 실제적인 문제에 응용을 하는 것으로서 스포츠 과학 또는 체육과학은 이러한 개념 경향을 대변하고 있다.

둘째는, 교차학문(crossdisciplinary) 지향적이다. 이것은 개별학문의 영역을 초월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비록 특정 지식은 전통학문에서 차용하지만 체육이라는 주제를 통합할 수 있는 단일적인 암의 세계가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학문 통합적 입장에서 체육학자들은 모학문의 전제 및 이론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지만 여기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고 언명하고 있으나 현재 체육학이나 체육교육에서도 그런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는, 학제(interdisciplinary) 지향적이다. 여기서는 의사교환을 통하여 여러 분야가 서로 통합이 이루어지는 형식으로 둘 이상의 학문이 상호작용을 해야한다. 스포츠 과학의 개념은 학제적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체육적 지식의 다차원적 혼재양상은 Zeigler가 제시한 체육학의 전개 가능성과도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견해로는 현 체육학이나 체육교육의 지식이 고유의 영역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다. 단지 나타난 현상만을 기술하려고 했기 때문에 인간 움직임의 근본적인 원인이나 그에 따른 사상적 기반으로서의 체육 고유의 탐구영역이 될 수 있는 암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현재의 체육학이나 체육교육의 지식은 다차원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결국 체계적으로 하나의 체육적 암의 세계로서 통합되지 못한 채 혼재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체육학 연구의 미래의 방향이나 그 근거가 되어야 할 체육적 암의 내용은 결국 체육학의 지배적인 탐구방식이라 할 수 있는 실증적, 계량적인 지식추구의 배경이 갖고 있는 인식 기반의 문제점을 비판함으로써 습득될 수 있을 것이다.

## 4. 전통적인 체육적 지식의 인식 기반

학문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단위 지식들로 이루어진 지식체계라고 할 때, 체육적 지식의 인식 기반과 그 성격을 탐색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다. 그렇다면 체육학이나 체육교육에서 지금까지 추구하고 있는 다차원적인 지식만을 체육적 지식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인식 기반은 무엇일까? 여기에서는 현재 체육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지식의 인식기반을 재조명하고 문제점들을 알아보자.

전술한 바와 같이 1960년대 이후 여러 체육학자들은 체육의 학문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왔고, 다양한 체육학의 모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우리 인간이 왜 움직이는가’, ‘인간이 움직일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인간은 어떻게 움직이는가’라는 명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바로 이것 이 현재 우리들이 설명하고 있는 일반화된 체육학의 하위 학문영역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sup>43)</sup>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체육학자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차원의 지식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확대 심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체육적 지식 체계의 가장 바탕이 되는 문제는 바로 인간의 몸에 관한 인식 기반의 문제이다. 이것은 체육학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열쇠와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정신과 신체에 관한 특정한 입장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인간의 움직임을 탐구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체육학은 정신과 신체에 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이 물음은 체육학의 존재에 대한 당위성을 다루는 매우 복잡한 문제에 속한다.

43) 정웅근, “체육학의 학문성과 그 문제점”, 서울대학교 체육연구소보 제 23호, 서울대학교 체육연구소, 1989, p.5.

초기에 Williams나 Nash 같은 학자들은 체육을 ‘신체활동을 통한 교육 (education through the physical)’으로 정의했는데, 이를 통해서 신체활동을 매개로 하는 전인교육이 가능하다는 일원론적 신체관을 주장하게 된다.<sup>44)</sup> 그러나 이때 정의되어진 ‘신체를 통한’이란 정의가 일원론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견해는 정신과 신체에 관한 매우 소박한 믿음에서 기인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신체를 통한’이라는 말에는 이미 ‘정신을 통한’이라는 말도 통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과 신체를 구분지으려는 이원론적 사고가 언어적으로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만일 ‘정신을 통한’ 것을 배제한 ‘신체를 통한’ 만을 앞세우게 될 경우, 그 주장은 일원론적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는 있으나 이를 잘못 해석하면 그것은 자칫 전통적인 유물론적 일원론으로의 환원으로 인정될 가능성 있다.

대부분의 체육학자들은 Platon이나 Descartes의 심신이원론을 거부하고 일원론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심신일원론이든 이원론이든 이 문제가 체육학의 당위성과 연관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을 통해 정당화될 수 있는 체육의 정체가 밝혀져야 한다. 따라서 먼저 신체와 정신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와 함께 오늘날까지 논의되어온 체육적 지식에 대한 내용과 그 방법에 이르기까지의 개괄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sup>45)</sup>

과학주의는 본래 그 인식방법에 있어서 주체와 객체를 분리시켜 항상 객관적 세계만을 학문의 대상으로 인정하였고 행위와 사유가 분리되지 않은 신체적 인식을 주관적이면서 비과학적인 것으로 간주해 왔다. 뿐만 아니라 원자론적 세계관을 전제함으로써 과학적 법칙은 반드시 수식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44) 김정명, “체육학과 과학주의”, 서울대학교 체육연구소보 제 23호, 서울대학교 체육연구소 1989, p. 7.

45) C. A. 반퍼슨, 손봉호 강영안 역, 몸·영혼·정신; 철학적 인간학 입문, 서울:서광사, 1990, p.6.

우리의 세계는 전체로가 아닌 부분과 부분들의 합이라는 개념을 앞세운다. 이 같은 인식이 객관적·계량적 지식만을 중시하는 기존의 객관주의적·주지주의적 학문체계를 이루게 하였고, 이를 세분화·전문화하는 데 공헌했다.<sup>46)</sup>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체육학의 대상인 인간의 신체활동은 단순한 생물학적 유기체의 물리적 운동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생물학적 유기체로서의 신체의 개념을 비판 없이 그대로 수용한다면 어떠한 하위 학문분야이든 인체의 움직임을 기계론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체육학의 인식론적 기반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Descartes적 심신이원론과 이에 기초한 주지주의, 그리고 전통적 과학주의의 영향력 때문이다.

첫째, 주지주의는 역사적으로 체육활동의 경시풍조를 낳았고 오랫동안 체육의 학문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였다. 과거의 체육학자들이 이를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는 데 큰 공헌이 있었음은 인정되지만, 기존의 주지주의적 학문체계를 별 비판 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체육·스포츠 현상만을 연구대상으로 삼게 됨으로써 운동의 생리, 역학적 연구, 체육현상의 사회·심리학적 연구, 체육현상의 역사·철학적 연구 등 체육학이라는 모형을 잘못 이루었다. 이는 현대 체육학자들이 주장하는 심신일원론에 기초한 ‘신체를 통하여’라는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탓이다. ‘신체를 통하여’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왔으나 지금까지의 체육학이 ‘신체를 통하여’ 일어진 현상이나 그 결과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이를 체육학의 연구방법으로서 주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의 현상을 무시해온 결과를 낳았다.

현대 철학자들에 의하면 우리의 신체는 최초의 인식이 이루어지는 인식 주

---

46) 유상건, '체육학 패러다임과 그 전환의 의미',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3. 8. p. 56.

체요, 세계와의 대화의 장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과거 주지주의자들은 신체적 인식의 애매함을 내세워 이를 비과학적이라고 무시하였고, 그 영향으로 체육학에서 체육학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심신은 하나’라는 본래의 개념을 상실한 채 방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인식이 객관적·계량적 지식만을 중시하는 기존의 주지주의적 학문체계를 이루었고 또 체육학 내에서는 이를 세분화·전문화하는 데 공헌하였음은 물론이다.

인간 움직임이란, 그 특성상 의도적이요, 목적적인 것이다. 그러나 체육학은 독자적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별 고민과 노력 없이 스포츠·체육 현상만을 기존의 기초학문에 접목시킴으로써 초점도 없이, 독자적 연구방법론도 확보하지 못한 채 학문성을 강조하다가 오히려 자가당착적으로 학문적 존립위기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 이유는 체육현상에 대한 연구는 기계론적 방식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유기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학적 객관주의의 영향 아래 발달하고 있는 체육학 내의 하위학문영역들은 체육의 핵심인 일원론적 입장의 ‘신체활동을 통하여’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과학의 입장에서 신체와 신체활동은 단지 과학적 연구와 분석의 대상이 될 뿐 연구활동 혹은 인식활동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신체가 인식의 주체로, 신체활동이 인식활동으로 평가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과학주의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객관주의가 어째서 체육과 체육학을 분리시키고, 실기와 이론을 분리시키고 있는지, 또한 체육을 기능인이나 키워내는 분야로 격하시키려는 전통적 과학주의의 그릇된 편견이 무엇인지에 대해 김정명은 ‘체육학과 과학주의’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sup>47)</sup>.

---

47) 김정명, 전계서, 1989, p.7

첫째, 전통적 과학주의의 기본적 인식방법은 주체와 객체의 분리에 있다. 말하자면, 인식의 주체는 인식되는 대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행위와 사유가 분리되지 않는 육감적 인식(embodied knowing)은 비과학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둘째, 전통적 과학주의는 대상의 계량화(quantification)를 분석의 주무 기로 삼고 있다. 객체로서의 신체활동은 계량화될 수 있을지 모르나 신체 활동의 체험(lived experience)은 계량화가 불가능하다.

셋째, 과학주의는 그 본질에 있어서 미시론(atomism)적이고 따라서 끊임없는 전문화를 요구한다. 오늘날 체육학 내의 개별과학들이 갈수록 미분화, 전문화되는 것은 이러한 과학주의의 산물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체육학에서는 전문화는 그 독자성이 결여되어 타 학문에 비교될 때 유리한 고지(vantage point)를 갖지 못하고 있다.

넷째, 과학주의는 체육학을 체육으로부터 분리시키는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신체를 통하여 하는 체육’으로 엄격히 분리되고 만 것이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과학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기존 학문들의 연구방식이 탈육감적(asomatic ; disembodied)이라는 데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체육 고유의 주체적 인간 움직임이라는 암의 세계를 파악할 수 없게 되고 만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학주의는 진리가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만 밝혀질 수 있다는 독단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획일화된 엄격한 틀을 요구한다. 이것은 체육학이 신체활동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법론에 의해 추구될 수 있는 진정한 ‘체육학(somatic science)’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체육 고유의 암의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 결정적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학문활동은 어느 정도 변증법적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해 간다.<sup>48)</sup> 지식의 광장이라는 것은 과거에 한계에 부딪혔던 지식내용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통합

48) 학문활동의 과정은 일정의 학문 공동체내의 특정한 지적 구성물로 파악되며, 이러한 구성물의 의도와 형태는 그것을 구성하는 사람들인 연구자들이 인간과 세계에 대하여 갖게 되는 특정한 관심과 관점을 반영한다. 즉 이러한 관심과 관점들은 연구의 기본틀을 제공하는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는데, 이 패러다임에는 각기 모종의 가치와 신념 및 이데올로기가 내재해있고 이것은 연구자가 속해 있는 사회, 문화, 정치의 맥락내에서 형성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와 개인의 변증법적 과정이 학문활동을 어느 정도 규정하게 된다.(김인용 외 1인역, 포프케비츠, 교육연구의 패러다임과 이데올로기, 부산:광야, 1988, p. 26에서 인용)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특정분야의 패러다임이 봉착한 문제를 인식한 연구자는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내다보는 것이다.

체육학 내 개별 과학자들은 학문적 전문성 획득과 그 세분화란 명목하에 하위 영역별로 자신만의 영역을 향해 끝없이 항해하고 있다. 예컨대, 같은 체육학이란 울타리에 있으면서도 스포츠 생리학자와 심리학자는 전공영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의 전문성을 침해하지 않으려 하며 타 영역에는 깊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 또 같은 스포츠 심리학에서도 자연과학적 실험심리영역과 정신과학적 심리영역간에도 이질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어 간다면 현재의 체육학은 타 학문에의 환원을 자청하고 있는 결과가 되고 말 뿐만 아니라 체육학 내 현존하는 각 하위영역간의 이질적 골은 더욱 깊어만 갈 것이다. 이는 마치 체육학이라는 울타리 안에 공존을 하면서 상호 이해와 공동체 의식이 전혀 없는 다세대 주택를 연상케 한다.<sup>49)</sup>

따라서 현재의 체육적 지식이나 그 핵심이 되는 연구내용 및 방법으로는 체육학자들간의 공통적 언어란 있을 수 없고 체육의 학제적(interdisciplinary) 연구뿐만 아니라 교착학문적(crossdisciplinary) 접근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것은 분명 체육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의 한 단면이다. 체육에 있어서 어떤 연구자도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 자신이 잘 알고 있다는 신념은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리고 자신과 관련된 연구의 의미기반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것의 장점과 단점을 적절하게 알아차리긴 쉽지 않다.

체육에서는 이상과 같은 인식론적 이원론(epistemological dualism)을 버리지 않는다면, 현 체육이 직면한 정체성 문제, 즉 체육학이 본래적으로 추구했던 ‘인간 움직임’이라는 꿈의 영역을 밝혀내기는 어렵다. 혹 체육학 내 하위학문분야에서 이루어진 전문적인 지식을 모두 모으면 그것이 곧 ‘인간 움직임’의 종합적 지식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

49) 정웅근·오정석, 전개서, 1991

매우 소박하면서도 위험한 믿음이 될 것이다. 어느 누가 수많은 개별과학의 지식내용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가? 전체는 단순한 부분들을 모든 부분들의 총합이 아니라는 점에서 볼 때 체육의 현재 상황에서 이 점을 기대하기는 더욱더 불가능하다.

본 장에서는 1960년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체육의 학문화 운동에 따른 체육학의 지식구조와 그 근거뿐만 아니라 체육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과내용의 지식유형 및 그 인식 기반을 파악함으로써 현 체육에서 추구하고 있는 체육적 지식의 실상과 그 문제점을 밝혀보았다.

1960년대의 학문화 운동으로 제기된 체육의 학문성 문제에 대한 Henry의 학문적 정당성 논리와 함께 체육은 체육학과 체육교육으로 나뉘어졌다. 그리고 각각의 영역은 독자적인 연구내용이나 방법을 개척해나가기보다는 각각 인간 움직임을 설명하는데 용이한 다른 학문의 내용을 차용하여 그 전문성이나 학문성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해왔기 때문에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이라는 다차원적인 지식으로 다양하게 채워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다차원적인 지식은 체육현상에 대한 하나의 체육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리로서 새롭게 엮어지지 못한 채로 머물고 있다. 이러한 체육적 지식의 혼재현상은 인간 움직임이라는 연구주제의 특성 때문에 야기되는 체육적 지식의 다학문적이고 교차학문 지향적이며, 학제 지향적인 성격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전체는 단순한 부분의 합이 아니라는 점에서 볼 때 현재의 혼재된 지식체계와 구조로서는 체육의 정체성을 찾을 수도, 다양한 현 체육적 지식을 하나의 체육이라는 암의 영역으로 탄생시킬 수도 없다. 따라서 하위학문영역의 지식내용을 통합하는 방법과 체육의 정체성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체육연구자들이 기반으로 삼아야 할 탐구영역이라 할 수 있는 체육 고유의 암의 영역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를 위해서는 현 체육학의 지식세계가 근거하고 있는 Descartes적인 인간관을 극복할 수 있는 인식론적 근거가 요구되며, 이것은 체육의 특성상 이론과 실기를 통합할 수 있는 암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것이다.

### III. 전통적인 체육의 연구방법

#### 1. 체육의 학문화에 따른 체육 연구방법의 과학화

모든 학문은 하나의 독립된 분야로 인정받게 되기까지 수많은 과정을 거쳤다. 체육 역시 마찬가지의 노정에 놓여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처음에는 주로 교육적인 영역에 중점을 두게 되었던 체육은 건강과 신체적 성의 향상만을 의미하는 ‘신체의 교육’이라는 개념정의가 전부였으나, 점차 그 의미를 확대하여 인간의 전인적 교육이란 측면이 강조된 ‘신체를 통한 교육’이라는 개념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학문성 강조와 함께 단지 신체단련 및 건강의 함양과 운동기능의 발달과 같은 전문성에 바탕을 두었던 체육은 급격하게 학문성 중심으로 흐르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긴 체육학은 다양한 타 학문분야와 연결하여 자신의 학문적 지식체계를 정비해 나아갔으며, 체육현상과 관련된 체육학의 하위 학문영역인 개별과학들은 체육학이란 울타리에서 미분화된 상태로 존재하면서 상호보완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점차 과학적 사고가 근거하고 있는 분할의 원칙에 따라 체육의 하위영역들은 점점 세분화되어 갔으며 학문의 진보라는 믿음 속에서 다양한 갈래로 나뉘어진 상태에서 각각의 영역을 구축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체육학의 분할적 패러다임이 정착되었다.

이러한 체육학은 대부분 실증적이고 계량적인 지식을 탐구하려는 사고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체육 고유의 탐구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체육적 맑의 세계에 관한 본질적인 질문들은 자연히 체육학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고, 결국 체육의 정체성을 회의적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말았다.

학문분야는 독특한 개념과 탐구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적 가치와는 상관없이 지식추구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갖는 지식의 영역이며, 전문분야는 그 지식의 실제적 적용을 목표로 하는 영역이므로 어떤 학문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실제적 적용이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정웅근<sup>50)</sup>은 체육계에서 팽배해 있는 잘못된 과학 이데올로기를 과학주의로 칭하면서 이것으로 인하여 체육학의 초점(focus)은 혼돈케 되었고 체육학 스스로 모학문으로의 환원을 자초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같은 객관적, 계량적 지식만을 중시하는 기존의 주지주의적, 과학주의적 인식이 체육학의 학문체계를 이루어 왔을 뿐만 아니라 이를 더더욱 세분화, 전문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견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분명하다. 그것은 체육학 내 개별과학적 탐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만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사고가 위험하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동양적인 세계관 및 서양에서 대두되고 있는 Somatics에서 강조하는 인간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새로운 체육학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sup>51)</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육은 초기의 학문화 과정에서 과학적 연구방법을 그 학문적 준거틀로 삼고 발전하였으나, 지나친 과학화로 인하여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는 현상을 낳기도 했으며, 체육 고유의 탐구영역에 다다를 수 있는 주관적인 체험 같은 것은 거의 무시된 채 오늘에 이르렀다. 따라서 최근의 체육이라는 학문화 노정은 체육의 과학화를 비판함으로써 참된 체육의 독자적 탐구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체육적 맥에 도달하는 방법과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0) 정웅근, 전개서, 1991, pp.1-3

51) 정웅근, 오정석, 박현우, “Somatic Education으로서의 체육의 가능성”, 한국여성체육 학회지 제 6권, 1992, pp.21-31

## 2. 연구방법의 편향적 수용과 환원주의

모든 지식에 있어서 그 지식에 이르는 길에 관련되는 문제는 항상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관하여 논의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논의가 일정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연구방법론적 틀이 필요하게 된다. 방법이란 어원상으로 볼 때 '(바르게)길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체육에 있어서의 연구방법론은 체육적 암과 그에 관한 체육적 사유를 바르게 할 수 있게 하는 길(틀, 기준, 준거)을 제시하려는 논의이어야 한다.

오늘날의 체육의 영역에는 연구방법론에 관한 방법론적 논의, 즉 연구방법론의 이론이 하나의 중요한 분야로 인정되고 있다. 학문적 이론은 학문적인 논의가 가능한 문제설정과 그 문제해결방법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Fichte는 그의 지식론을 학문일반에 관한 학문으로 정의하면서, '인간이 그 실존의 현재적 상태에서 뿐만 아니라 가능한 모든,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단계들에 있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를 규정'하려고 시도하였다. 다시 말하면 학문이론은 그 지식의 가능성과 그 한계를 연구한다. 그리하여 일찍이 Aristotle는 바른 여행을 하려는 사람들은 막힌 길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일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막힌 길을 미리 안다면 우리는 그 길을 피해서 가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체육에 있어서의 학문방법론은 막힌 길을 미리 드러내어 올바른 체육적 지식을 제시하고, 또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체육적 지식의 한계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작업을 해야 한다.<sup>52)</sup> 학문방법론은 체육적 지식에 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기준을 마련하려고 한다. 그리고 어떤 체육적 지식을 가능하게 하는 연구방법론의 한계가 바로 체육학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52) 김진, 생활속의 철학, 서울 : 자유사상사, p.60

오늘날의 체육학자들은 나름대로 학문방법론 속에 놓여 있는 막힌 길을 제거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다. 체육학에서 가장 현격하게 모습을 드러낸 방법은 바로 자연과학적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체육 고유의 맑의 세계는 체육학 연구방법의 핵심인 과학방법론으로 인하여 오히려 감춰지고 은폐되었던 것이다. 물론 체육적 문제에 대한 가장 명확한 답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과학적 방법이라고 확고하게 신뢰했던 시대도 있었다. 그것은 15-17세기에 인간의 세계관과 사고방식에 극적인 변화를 시켰던 일련의 학자들로 Copernicus, Galilei 및 Newton에서 출발하여 Bacon의 새로운 학문적 탐구방법 및 Descartes의 추리방법에서 기인한다. 이들에 의해서 형성된 방법론에 따라 아무리 복잡한 현상이라도 단순화시킴으로써 그 실체를 언제나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특히 Descartes의 물질적 기계관은 인간의 육체까지도 기계적 조작으로 환원시킬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확신은 수세기 동안 학문계에 그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며 과학이라는 이름하에 모든 학문을 거의 지배해 왔다. 과학에 대한 이러한 신뢰는 단지 어느 한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전문영역에까지 침투되어 오로지 과학만이 세계이해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것처럼 판단했던 것이다.

과학주의의 기본 가정 및 방법은 어떤 연구대상이든 객관화함으로써 인과론에 의해 설명과 예측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연구대상을 객관적인 관찰과 실험이라는 방법을 통해 수량화함으로써 절대적 객관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지금껏 체육학에서는 인간 움직임을 규명하기 위하여 그 학문적 전개를 일반 학문분야와 그 이론적 접목을 통해 이루어 나갔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각 하위 학문영역은 체육학이란 이름하에 연구를 수행하지만 실제적으로 다양한 모학문의 지식체계에 종속되어 있을 뿐 신체활동의 고유한 맑의 세계

를 해명해 갈 수 있는 독자적 방법을 갖추지 못한 채 오랜 기간을 보내왔다. 특히 각 하위학문분야의 연구성과를 통합하여 인간의 움직임의 전체적인 모습을 제시해줄 수 있는 공통적인 맥의 세계의 통로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분야별 유기적 관계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체육학이라는 연구영역에 나타나는 세분화와 전문화 현상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실증적인 지식만을 맥의 영역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학주의가 낳은 문제는 다음의 과학의 발전과정과 연구방법론에 대한 탐색을 통해 보다 잘 드러난다.

근대 과학혁명 이후 이루어진 자연과학적 성공은 우리로 하여금 과학이야 말로 가장 신뢰성 있고 합리성이 확보된 최고 학문의 구현체라고 인정하도록 하였다.

지식형성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탁월성을 과학만이 누리고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과학은 참된 지식을 발견하는 올바른 방법을 갖추고 있으며, 그렇게 산출된 지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연구방법이 올바르다는 것이 입증한다. 이렇게 볼 때 과학에 대한 신뢰는 과학방법의 신뢰와 그 결과의 신뢰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미 체계적인 객관적 관찰과 실험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근대적인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터져나왔다.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은 오늘날의 과학적 연구방법론 및 그 패러다임과 관련하여 Russell과 Wittgenstein의 논리적 원자론 이후 Popper의 비판적 합리주의, Kuhn의 비합리주의, 그리고 Feyerabend의 방법론적 무정부주의 등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sup>53)</sup> 인간은 어떠한 방법론으로든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태들은 모두 관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논리실증주의자들이 제시한 검증 가능성의 원리와 귀납주의가 근본적으로

---

53) 브라운, 신중섭 역, 새로운 과학철학, 서울 : 서광사, 1988

가지고 있는 한계를 비판한 사람은 Popper이다. 그는 우리가 경험한 특수 명제들로부터 아직 경험하지 못한 특수 사례들까지를 일반화하는 것은 부당하다. 여기에서 그는 검증이론과 귀납주의를 배격하고 반증이론을 그 대안으로서 어떤 보편이론이 구체적인 경험 사례에 의하여 완전하게 검증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것이 앞으로 언젠가는 거짓으로 판명될 수 있다는 반증이론을 제시한다. Popper에 의하면 모든 연구방법들과 이론들은 폐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과학적 이론은 반증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학명제들은 ‘추측’과 ‘반박’을 통하여 객관적 진리에로 접근해 간다. 여기에서 Popper는 객관적 지식의 성장을 진화론적으로 설명한다. 모든 과학명제들은 문제발견-가설-비판의 과정을 거쳐서 진화론적으로 축적, 발전된다. 가설이란 우리가 문제해결을 위하여 최초로 도달한 잠정적인 해결 방식이다. 그리고 이것은 비판에 의하여 폐기되거나 또는 잠정적으로 인정되며, 이를 기점으로 또 다시 제기되는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과학적 지식은 보다 합리적으로 성장하며 진리에로 접근할 수 있다는 Popper의 ‘점증이론’<sup>54)</sup>이 성립된다.

그러나 Popper의 비판적 합리주의가 제시한 반증이론과 점증이론은 다시 Kuhn의 패러다임이론에 의하여 비판되기 시작한다. Kuhn은 과학사의 본질 규명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과학의 발전은 Popper가 말한 것과 같이 과학지식의 계속적인 축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직선적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과학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존 과학이 새로운 과학에 의하여 교체되는 ‘과학혁명의 구조’ 즉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 Kuhn이 말하는 패러다임이란 어떤 과학자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념과 가치체계이다. 과학자들은 경쟁적인 과학활동을 통하여 부각되는 가장

---

54) 브라이언 매기, 이명현 역, 칼 포퍼, 서울 : 문학과 지성사, 1983

포괄적인 이론체계를 패러다임으로 확정하여 ‘정상과학’을 결정하게 된다.<sup>55)</sup> 그리고 모든 가설들은 정상과학의 체계 속에서 설명하고, 이로써 해결되지 않는 남는 수수께끼들만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수많은 ‘異常現象들’이 출현하고 그것을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게 될 때, 수많은 이론들이 난립하게 되면서 정상과학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기존의 연구방법들을 수정하여 출현된 이상 현상과 모순들을 가장 포괄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정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교체는 과학자들의 집단적 동조와 개종을 바탕으로 ‘혁명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Kuhn은 전통적인 귀납주의나 Popper의 점증이론을 부정한다. 결국 과학적 지식이란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서 일반화한 결과가 아니고,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Kuhn에 의하면 중립적인 관찰 명제란 있을 수 없으며 과학이론의 검증을 위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패러다임은 반증에 의하여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반증되기도 전에 이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교체되어 버린다.

지금까지도 Popper의 비판적 합리주의와 Kuhn의 비합리주의의 이론적 격차를 상대화하려는 시도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Lacatos는 ‘연구계획’의 방법론을 하나의 가능한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Popper의 반증주의가 가지고 있는 완고성과 Kuhn의 과학혁명론에서 주장하는 패러다임 사이의 문제를 각각 극복하려고 시도한다. 이와는 반대로 Feyerabend는 ‘방법론적 무정부주의’를 표방한다.<sup>56)</sup> 그는 과학의 합리성 그 자체에 대하여 깊은 회의를 나타낸다. 그는 과학이 과연 무엇이며, 오늘날의 과학지식이 Aristotle의 이론체계나

55) 토마스 쿤, 김명자 옮김, 과학혁명의 구조, 서울 : 정음사, 1984

56) 엘런 차머스, 신일철 신중섭 옮김, 현대의 과학철학, 서울 : 서광사, 1988

인디언의 것보다 더 나은 것인가를 묻는다. 그리하여 그는 과학이란 수많은 역사전통의 일부이며 여러 신화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과학연구는 특정한 방법론적 원리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무정부주의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과학자는 어떤 방법이나 마음대로 채택할 수 있다. 과학연구의 방법론에 있어서의 유일한 법칙은 “아무렇게 해도 좋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의 배후에는 Hanson이 주장한 ‘관찰의 이론 의존성’<sup>57)</sup>에 관한 논리가 깔려 있다.

Hanson은 우리의 모든 관찰은 반드시 어떤 이론에 근거하고 있으며, 따라서 주관성으로부터 독립된 객관적 관찰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동일한 사태를 두 개의 서로 다른 관점에서 관찰할 경우에 그 관찰 결과는 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론들을 비교하기 위하여 관찰 사실들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원리는 Kuhn의 패러다임 이론에서도 적용되고 있으며, 과학자들의 집단적 합의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정하는 기준이 된다. Feyerabend는 이와 같은 Hanson과 Kuhn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과학활동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와 창조력을 보장하고 방법론의 선택에 있어서 강요받지 않는, 이른바 방법론적 무정부주의를 제시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과학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우리는 과학적인 실험 또는 관찰결과들과 과학이론들 사이에 명백하고 단순한 어떤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Brown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론과 관찰 사이의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새로 제안된 이론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은 기계적인 규칙의 적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이성적인 판단과 과학자 공동체 내부의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명백히 오

---

57) 상계서, pp.55-75

류를 저지를 수도 있지만 이 과정은 합리적인 결정절차와 패러다임으로 제시된다.<sup>58)</sup>"

이렇게 과학 내부의 형식적 합리주의의 봉괴와 상대주의의 주장이 체육학에 던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은 체육학자들로 하여금 어떠한 방법으로든 체육적 연구를 수행해도 좋다는 것인가?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체육학자는 자신의 연구수행의 의지 기반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이다. 귀납주의든, 반증주의든 아니면 상대주의든, 자신의 방법적 무기가 어떤 위치에 놓여 있으며, 그것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를 파악함으로써 체육 고유의 탐구영역이 될 수 있는 삶의 세계에 이르는 새로운 발견에 도전하는 것이 체육적이며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합리성의 초석이 될 것이다.

따라서 명제적 지식추구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체육학은 그 연구방법의 변화역사를 토대로 자신의 방법론적인 위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근거로 참된 체육적 지식을 보다 체계적으로 형성시켜 줄 수 있는 체육 고유의 삶의 세계를 추구해 나가는 일을 하나의 체육학 연구와 그 방법의 임무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때의 체육 고유의 삶의 세계는 어떤 특정 방법론을 지지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양한 방법 가운데 각각의 강점과 약점이 체육적 삶과 어떻게 부합하는가를 고려하고 새로운 체육적 삶의 세계에 걸맞는 이론을 형성해줄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것은 과학적 합리성의 근간이 될 수도 있으며, 아니면 다른 새로운 방법론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 그 방법이란 연구문제에 의해 결정되는 까닭에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다차원적인 지식의 집합으로 보이는 체육적 지식의 핵심적 지식이 될 수 있는 체육 고유의 삶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할 것이다.

---

58) 브라운, 신중섭 역, 전계서, 1988, p.268

### 3. 다차원적인 연구방법론의 통합 가능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의 과학주의적 방법론의 편향적 수용으로 나타난 체육의 연구방법은 사실상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이라는 다차원적인 영역으로 나뉘어질 수 있으며, 그 양상 또한 양과 질의 연구라는 구분에 의해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러한 체육학의 연구방법이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전술한 바와 같이 여러 과학적 견해를 고찰을 통해 드러난 것은 논리실증주의에 기초한 전통적인 과학주의적 연구방법은 실제 체육적 현상을 기술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체육적 지식은 체육활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인간의 움직임에 대한 깊이의 구조는 단일한 과학적 법칙이나 단일한 논리적 추리양식에 의해 손쉽게 밝혀질 수 없다. 결국 이는 논리적 합리성만이 아닌 다양한 추리방식에 의하여 그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

체육적 지식에 확실성을 부여해 준다고 믿었던 경험적 사실은 매우 빈약하며 또한 지나치게 이론 의존적이었다. 현재의 체육적 지식이란 과학적으로만 관찰된 감각적 경험적 관찰자료의 확실한 기초 위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역사적, 사회적 가정들, 특히 연구자의 사회가 암묵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패러다임이나 연구 프로그램의 가정들 위에서 특정한 이론적 틀을 가지고 선택적으로 체육적 사실을 관찰하고 이를 범주화하며 연결지워 해석하는 것임이 드러났다. 상대주의적 세계관의 입장에 따른다면, 결국 체육에 있어서 과학적 사실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되며 발명되는 것이다. 지나친 상대주의는 배격하고 실재론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경험적 관찰 사실이 확고부동한 진리를 확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힘들다. 실험 연구결과, 특정 경험적 자료가 체육의 특정이론을 지지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체육적인 문제의 설

정에서부터, 그 개념의 선택, 이들을 연관지우는 상위이론과 형식의 선택, 관찰대상의 선택, 관찰과정, 그리고 그 언명화 등의 배후에 놓여 있는 가정들과 전제들을 재조합한다면, 동일한 자료를 충분히 다른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체육적 경험적 자료 자체에 의해 이론을 검증 또는 확인한다는 것도 상대적이게 된다. 이러한 상대적 특징은 전통적 관점이 주장하는 단순한 귀납적 추리와 연역의 논리에 의해 극복될 수는 없다.<sup>59)</sup>

또한 다른 문제는 전통적인 체육적 과학관의 입장에서 추구하는 바는 S->R 또는 S->O->R식의 단순한 확률적, 함수적 인과관계 법칙의 확인이었다. 그러나 Manicas 등이 지적하였듯이, 이러한 법칙은 폐쇄된 체계 내에 한하여 적용된다. 그리고 그 법칙은 자연의 현상이 그러한 단일법칙으로 이루어졌다는, 아니면 모든 복잡한 현상을 그러한 단일 단순법칙으로 환원 가능하다는, 전제 위에서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전제가 적용될 수 있는 자연현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 및 전제는 자연현상을 단순화시켜서 본 경험주의자들의 ‘소박한 소망’이었을 뿐 인간의 체육적 현상에서는 그에 대한 보편적 타당성을 주장하기 힘들다. 따라서 인간의 운동현상에 대한 설명은 여러수준에 접근되어야 하며 여러 계층의 국면들이 상호작용하는 통합적인 방법에 의해서 설명되어야 할것이다. 따라서 단일한 인과관계 법칙으로 인간의 체육현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맹신은 피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볼 때 과학에 있어서 이론의 일차성의 문제는 중요하다. 이는 과학적 연구의 본질이 이론의 발견에 있으며 실제를 통한 이론의 정당화는 차선임을 뜻한다. 과학의 목표가 이론을 통한 지식의 체계화에 있고 확실한 지식의 획득에 있지 않는 한, 체육의 과학적 연구의 가치는 확고한 사실의 집적

---

59) 이정모, “과학적 물음의 본질 : 과학철학적 관점들과 그 시사점”. 실험심리 연구법 총론, 서울 : 도서출판 성완사, 1988, pp.61-69

여부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새로운 이론, 새로운 지식, 새로운 물음을 제기하는 효율성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 결국 체육의 과학적 진리란 우리가 추구하면 도달할 수 없는 지평선이 아니다. 과학적 진리란 과학자가 계속 물음을 던지고 새로운 물음들을 이론적으로 계속 형성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딛고 가는 대지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체육의 다차원적 연구방법은 모두 과학적이라고 이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학의 본질이란 인간의 인지과정과 상응시켜 생각할 수 있는 점이 많다. 체육의 과학적 지식이 인간에 의해 형성되고 그 지식의 과학적 체계가 인간의 지적 업적인 한, 과학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인간의 인지과정의 본질, 특히 그 비논리적인 합리성과 구성적 특성이 충분히 참조되어 새로운 체육적 연구방법 및 내용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서술한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까지의 전통적 과학관을 고집하고 있는 체육의 과학적 연구방법론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체육의 과학적 방법론의 혁명이 아니라 과학적 방법을 규정하는 이론의 혁명이 있어야 한다. 이는 과학적, 경험적 연구방법의 엄밀성이나 실험연구법을 버리자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다. 잘못 노정된 체육적 지식을 찾는 실험연구법의 오용을 교정하자는 것이다. 단지 과학적 실험연구법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체육의 객관적 자료를 획득할 수 있고 그에 의해 체육의 다차원적인 이론적 의견차이를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입장과 실험방법만이 최선의 체육적 연구방법이라는 독단론을 버리고 진정한 체육적 맑의 세계를 찾을 수 있는 연구방법으로 체육의 방법론을 교정하자는 것이다.

체육을 역사적으로 검토해 볼 때 초기에는 체육학이 하나의 학문영역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다른 어느 것보다도 과학적 방법론적 엄밀성, 실험방법의 절대적 우월성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 단계는 지났다. 하나의 학문으

로서 체육학은 이미 확립되었다고 하겠다. 현 단계에서의 체육학의 과제는 넓은 전통적인 과학주의와 주지주의적 지식론에 따른 방법론의 높에서 벗어나서 체육 고유의 탐구영역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찾는 일이다.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체육적 방법론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에야 비로소 현재 체육학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 정체성의 문제 및 실기와 이론의 괴리 등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영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길이 열릴것이다. 그러면 그 출발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 그것은 아마 다른 영역의 지식과는 구별될 수 있는 인간 움직임에 대한 암의 영역에 대한 탐구로부터 일 것이다.

본 장에서는 앞 장에서 알아본 다차원적인 체육적 지식을 양산하게 된 결정적 역할을 해온 전통적인 체육의 과학주의적 연구방법론의 정체와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체육은 초기의 학문화 과정에서 그 당시의 과학적 연구방법을 그 학문적 기준으로 삼고 발전하였으며, 그 방법론의 양상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그리고 인문과학이라는 다차원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전개과정에서 지나친 과학주의의 편향적 수용으로 인하여 체육 고유의 탐구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 움직임이라는 암의 내용을 밝혀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때문에 모학문으로의 환원을 자초하고 있는 결과를 낳고 있다.

과학주의의 기본 가정 및 방법은 어떤 연구대상이든 이를 객관화함으로써 인과론에 의해서 설명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그러한 객관적 관찰과 실험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전통적인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부정적인 결론들이 터져나왔다. Popper의 비판적 합리주의, Kuhn의 패러다임론, Feyerabend의 방법론적 무정부주의 등이 그것이다.

이제 체육현상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연구방법론의 변화를 토대로 연구방법론의 현 주소를 재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참된 체육적 지식을 찾을 수 있는 연구방법론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 연구방법이란 연구문제에 의해서 결정되는 까닭에 현재 다차원적인 지식의 집합체로 보이는 체육적 지식들이 지향하고 있는 체육 고유의 탐구영역의 마련이 선행된다 하겠다. 아마 이 영역은 다양한 모학문으로 환원되어 버리고야말 그려한 체육적 지식이 아니라, 다른 학문영역에서 추구하는 지식과 구별될 수 있는 얇의 세계일 것이며 참된 체육현상으로서의 인간 움직임을 규명해낼 수 있는 내용일 것이다.

## IV. 체육적 삶의 재발견

앞 장에서 살펴보았던 전통적인 체육적 지식의 불합리성과 그것이 갖는 비정체성을 타파하고, 체육학이나 체육교육이 처음부터 체육의 독자성을 갖고 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체육 고유의 탐구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의 세계가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해야만 비로소 체육의 교육적 가치나 체육이라 이름 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야만이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현재의 체육적 지식의 구조와 그 지식구조의 연계가 가능하다.

본 장에서는 상기의 문제와 관련하여 인간의 삶의 조건과 체육에서의 삶, 인식주체적인 우리의 몸과 암묵적 지식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체육 고유의 탐구영역인 체육적 삶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 1. 인간의 삶의 조건과 체육적 삶

인간의 삶이 있는 곳에는 언제 어디든지 체육적 활동은 있었다. 자라나는 어린이가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부터 가장 단순한 생활도구를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까지,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무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자신의 움직임 속에서 자기 자신과 세계의 의미를 깨닫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인간의 필연적인 삶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오늘날의 체육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생동적이고 총체적인 삶의 표현이다. 체육적 활동은 인간의 삶 속에서 나타났으며,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삶과 관련하여 발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삶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체육 고유의 탐구영역으로서의 삶의 영역을 살펴보기 위한 확실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체육을 인간의 삶과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삶'이란 의미는 개인적

인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삶의 형태도 포함하는 뜻이다. 그럼 먼저 인간의 움직임에 내재된 의미와 함께 그 세계가 체육이라는 세계와 갖는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인간의 삶의 조건과 함께 체육적 삶을 살펴보자.

### 1) 인간의 움직임과 그 의미

움직임이란 모든 동물의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동물의 움직임이란 내적 또는 외적 환경의 자극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동물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나 동물의 움직임과 인간의 움직임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전자는 외부와 내부로부터 오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 즉각적이며 직접적인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그 대답이 유보적이다.<sup>60)</sup> 자극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느리고 복잡한 사고의 과정에 의해서 지연되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 움직임은 인간이 스스로의 움직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다는 면에서 다른 동물과 다르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움직임에 대한 자신의 운동지각을 개념화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인간적 의미와 가치라는 구조의 맥락에서 인간의 움직임을 생각함으로써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인간이 동물의 영역에 속하면서도 행동의 양태에 있어서 다른 동물의 움직임과 구별되는 원인을 살펴보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찾아보자.

첫째로 인간과 다른 동물의 움직임이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점은 물체적 기능에 있어서 동물이 인간보다 특수한 환경조건에 알맞도록 잘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다. 동물의 몸은 그 동물의 특수한 생활조건과 꼭 알맞게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동물의 감각기관도 그 동물의 일정한 생활조건과 환경에 알맞게 되어 있다. 따라서 동물들은 일정한 상황 아래서 일정한 자극조건이 이루어지면 그 자극에 대한 행동반응이 거의 정해져 있다.

60) Eleanor Metheny, *Moving and Knowing in Sport, Dance, Physical Education*, Library of Congress Catalog, 1975, p.1

동물에 비하면 인간의 몸은 훨씬 불완전한 상태로 태어난다. 예를 들면, 동물의 치아는 육식이나 초식에 알맞게 되어 있는데 반하여 인간의 치아는 육식이든 초식이든 그 어느 쪽에도 꼭 알맞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동물과는 달리 인간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본능적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인간 자신이 결정할 문제일 뿐 자연적 본능이나 육체적인 구조에 의해서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sup>61)</sup> 이것은 먹는 방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잣새에게는 식사 때 수저나 젓가락이 필요 없다. 식기로는 매우 교묘하게 전나무 열매송이를 벌리고 씨를 파낼 족집게 같은 것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잠잘 때에도 잣새는 그 식기를 몸에서 떼는 일이 없다. 바로 부리가 그 식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부리는 전나무 열매에 대해서만은 매우 편리하게 되어 있다. 이는 마치 병마개 뽕이가 병마개에 알맞게 생긴 것과 꼭 같다. 다만 그 차이는 병마개 뽕이의 연장은 인간이 병마개를 쉽게 열게끔 교묘하게 고안해서 만든 것이지만, 잣새의 부리는 전나무 숲에서 전나무씨를 파내는 데 가장 편리하도록 몇천 년 동안을 걸쳐 잣새 스스로 변형시키고 적용해 왔다는 점뿐이다. 따라서 전나무 숲에 잣새가 살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필요성에 의해서이다. 그러므로 잣새는 전나무 숲에 사는 한 굶주림은 없으나 자유 또한 없다.<sup>62)</sup>

우리의 지구에는 대략 백만 종 가량의 동물이 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제각기 적합한 자기의 세계에 잣새처럼 살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어디에서나 살고 있다. 즉 인간이란 자체가 말한 것처럼 고정화되지 않은 동물인 것이다. 인간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문화를 창조해나감으로써 스스로의 본질을 이룩해나가고 변화시켰던 것이다. 여기서 체육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인간의 본능이나 천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인간의 문

61) 이규호, 교육과 지식, 서울 : 교육과학사, 1974.

62) 일리인, 중완역, 인간의 역사, 서울 : 동서문화사, 1978, pp.26-27

화적이고 교육적인 작용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라는 점이다. 인간이 직립보행하는 것도 자연으로부터 주어진 불변의 기능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인간이 습득한 기능이며, 오늘날 스포츠라고 불리우는 운동은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상과 같은 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첫째, 이것은 바로 인간이 다른 동물과는 달리 신체적으로 미완성이 된 상태로 태어난 대신에 그 보상으로서 모방하고 생각함으로써 자신의 움직임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때의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은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는 고전적 인간관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람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육체와 정신을 구분하는 이원론을 극복한지 이미 오래다. 우리는 이미 유물론이나 관념론을 극복하고 인간을 육체와 정신으로 분리시킬 수 없는 하나의 살아 있는 형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인간의 행동양식이 동물의 움직임과 구별되는 점은 바로 인간의 몸은 미완성인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오랜 성장기간을 통하여 모방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학습을 통하여 제 2의 천성을 만들 수 있으며, 그 천성을 통해 자신의 움직임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어린아이는 그의 표정 및 몸짓 등 가장 단순한 동작에 있어서 이미 주위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다. 미완성 상태로 태어난 어린아이는 모든 것을 태어남과 함께 모방하고 생각하고 활동하면서 배우고 익혀나간다. 숲에 묶여진 우리들의 조상이 그 사슬을 끊고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걷는 일을 했던 것처럼 아이들도 그렇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인간이 걷기를 익히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세상에 태어난 어린아이는 얼마 후 기어다니다가 몇 달이 지나면 이윽고 걷게 된다. 그러나 두손을 땅에 의지하지 않고 주위의 물체에 의지하지 않은 채 땅 위를 걷는다는 일이 과연 쉬운 일이 아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가 자

라서 자전거를 익히는 것보다 어려운 일일 것이다. 아이는 넘어지면서도 계속 일어서며 다시 걷는다. 가끔 우리는 동물들이 두서너 걸음을 뛰어 놓는 것을 본다. 그러나 그것은 어린아이가 50보 혹은 100보씩 걷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그것을 위해서 아이는 끈질기고 오랜 연습을 한다.<sup>63)</sup> 이것이야말로 인간성의 표현이다.

어린아이는 걷는 일이 완성되면 손이 해방된다. 즉 발은 손이 다른 일을 하도록 해방시켜 준 셈이다. 이때 인간은 그 움직임에 있어서 인간성을 갖게되며, 동물의 폐쇄적 움직임과는 다른 개방적 행동양식을 갖게 된다. 이것은 미분화된 인간의 몸이 그 가능성과 함께 세계를 향하여 개방되어 있다는 뜻이다. 인간의 개방성으로 인한 발전 가능성 때문에 인간은 필연적으로 오늘날의 문화를 창조하였고, 그 문화는 다시 인간의 제2의 천성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육체적 약점을 보완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은 자기 자신의 삶의 과정에서 객관적인 세계를 자신의 삶과 관련시키면서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환경을 만들 수 있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바로 인간의 행동양식, 즉 움직임의 변화에 기인한다.

인간은 자신의 미완성적인 몸과 함께 태어나 자신의 움직임의 변화와 함께 많은 가능성을 갖고 열린 세계로 나아가게 되었으며 많은 인간적 발전을 이루었고, 그 변화는 다시 더욱더 타고난 자신의 움직임의 가능성을 발전시켜 나아가게 된다. 즉 인간은 고정 불변의 행동양식을 갖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환경과 끊임없는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움직임을 형성해나갔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은 나면서부터 사람이 아니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제2의 천성을 통한 인간의 새로운 움직임의 가능성이란 바로 이런 의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인간은 행동하는 존재이지만 동물과는 달리 자극에 대

---

63) 일리인, 전계서, p.43

한 반응이 유보적이며 어떠한 상황에서 스스로의 행동을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창조적 자유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과 행동방식을 생각하고, 자유롭게 스스로의 행동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인간의 몸이 이루어낼 수 있는 움직임의 가능성은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인간의 체육활동과 본능적인 동물의 움직임은 바로 그런 차이이다. 이것은 아마 자연물을 그대로 이용해서 만든 동물의 집과 인간이 만든 건축물의 차이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기술적인 차이가 아니라 지적 수준의 차이이다. 이것은 바로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분해하고 결합하는 놀랄 만한 인간의 타고난 능력 때문이다. 인간이 자신의 생활을 위하여 뛰고 달리고, 구르고, 걷고, 헤엄치는 등의 움직임을 하는 것은 꽤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손으로 악기를 연주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움직임을 이용하여 다른 기능을 해낸다. 인간만이 자연 상태의 움직임을 이용하여 체육적인 새로운 움직임 형태를 창출해낼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사물에 라기보다 자신에게 숨겨져 있는 능력을 구현할 수 있는 영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그러한 움직임은 시행착오가 없이 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오늘날 인간들이 다양한 신체활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정교함의 완벽성에 크게 감탄하게 되는 것은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낸 신체 움직임을 만들어낸 경험이 다음의 신체 움직임으로 이어지면서 그 정교함과 아름다움이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인간은 이렇듯 자신의 신체적 능력을 제어할 수 있게 되자 바로 인간 능력의 한계에 도전하게 되었다. 그들은 인간의 내적·외적 조건을 연구하고 중력이라는 자연의 법칙에 준거하여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넓혀갔다.<sup>64)</sup> 마치 자연물의 움직임이 자연력에 의해 움직이듯이 인위성 속에서 자연스러운 동작을 창출해 갔다. 자연의 움직임을 분해하고 이를 다시 더없이 훌륭하게 종합해서 새로운 움직임의 구조를 창조해낸 것이다. 오늘날 운

64) 브로노브스키, 이종구 역, *인간 역사*, 서울 : 삼성문화재단, 1976, p.82

동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나 운동을 하는 사람은 바로 오래전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운동형태를 만들어 간 사람과 같은 마음이다.

인간은 폐쇄적인 동물과는 달리 타고난 개방적 재능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술을 한없이 발전시키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으며, 그 실현을 기뻐하고, 그 움직임의 의미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발견이란 분석과 종합의 이중적 관계이다. 발견은 한쪽으로는 종합하는 행위로서 부분을 모아서 하나의 형태를 추상하면서 이 과정에서 창조적인 마음은 눈에 보이는 한계를 넘어서서 그 형태를 구체화하는 것이다.<sup>65)</sup> 그러나 운동의 세계는 행위에 의해서 파악되는 것이며, 상상에 의해서 파악되는 것만이 아니라 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인간은 행동적이다. 인간의 두뇌는 인간이 움직이기 위해서 생겨났으며,<sup>66)</sup> 그 진화는 인간의 손이 해방됨으로써 가능했던 손의 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우리 인간은 아직 인간이기 이전부터 연장을 갖고 있었으며, 이 연장이 정교해지고 정교하게 다룰 수 있게 되면서 인간은 인간화 되었음을 알고 있다. 인간의 손이 발명의 연장인 것이며, 인간의 움직임이야말로 가장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에게 한 것이다. 우리는 어린이가 장난감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 점을 볼 수 있다. 연을 날리거나 바늘에 실을 끼거나 구두끈을 매는 데에 어린이가 열중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손이 능숙해짐에 따라서 회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sup>67)</sup>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이란 바로 인간의 몸이 움직이는 과정이며, 그 산물이다. 인간은 놀이를 하면서 놀이하는 방법을 배웠고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움직이는 기술을 배웠다. 그리고 그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삶을 즐겼다. 단순히 환경에 적응하든 아니면 자신을 표현하든, 다른 어떠한 활동을 하든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바로 몸의 움직임이며, 그 움직임이야말로 인간의 삶의 수단이며 목적이자 인간성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

65) 상계서, p.87

66) 오오키 고오스케, 박희준 옮김, 알고 싶었던 뇌의 비밀, 서울 : 정신세계사, 1991, p.14

67) 브로노브스키, 이종구 역, 전계서, p.88

다. 인간의 움직임은 바로 언어 이전의 언어이며, 그 체험은 바로 삶을 풍요롭게 해주며, 자신의 움직임에 대한 깊은 자신의 삶의 체험을 가치롭게 만들어 준다. 오늘날 체육이 추구하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움직임이며, 이것이야 말로 움직임이 갖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런 움직임은 전술한 인간의 사고능력과 자기 움직임의 통제능력으로 인하여 결국 삶의 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그럼 인간 움직임의 토대인 삶의 세계와 체육의 관련성을 살펴보자.

## 2) 삶과 체육

인간의 움직임과 동물의 움직임이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다른 생물체와는 달리 인간은 자신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현상의 변화 원인을 알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다. 이러한 욕망은 인간이 삶을 영위해오는 동안 환경에 적응해오면서 생겨난 것일 수도 있고, 인간으로서 태어난 호기심의 발현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떤 모르는 현상의 배후 원인을 완전한 삶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삶의 능력이라고 하겠다.<sup>68)</sup> 이러한 인간의 능력이 발현된 과정이 바로 인간의 삶의 역사이며, 오늘날 소위 우리가 ‘삶의 세계’라고 하는 것도 모두 그러한 배경의 산물이라 하겠다. 이렇게 볼 때 삶은 삶의 기본 구조이며, 삶은 또한 삶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삶의 기본 구조인 삶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행동과 인식이 출발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체육이 추구해야 하는 삶이란 인간의 삶과 유리되지 않는 삶이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서 삶과 체육의 관련성을 살펴보자.

우리가 소위 지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현재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어떤 지식은 관습이나 합의의 결과에 지나지 않으며, 어떤

68) 소홍렬, 과학과 사고, 서울, 경문사, 1983, p.1

지식은 정의나 상관관계의 논리에 의해서 그 일관성이 검증된 결과로 얻어지는 것도 있으며, 또 어떤 지식은 수많은 관찰과 실천이나 과학적인 방법론을 통해 얻어진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지식이든 그것이 지식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그 선택의 방법과 기준이 요구된다. 바로 서양철학적 입장에서 볼때 경험을 맑의 유일한 원천으로 생각하는 경험주의와 경험보다는 추리적 맑과 직관적 맑으로 구별하여 이성적 기능을 강조하는 합리주의적 방법이 있다.

경험주의든 합리주의든 모두 맑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맑의 근원을 경험으로 보든 이성으로 보든 존재하고 있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맑은 우리의 주관적 개입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일일 뿐이다. 이런 종류의 맑의 방식을 모사론이나 맑의 수동주의라고 부른다. Kant의 비판이론은 바로 이러한 맑의 수동주의에 대한 비판적 산물로서 맑의 능동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확실한 맑을 이루기 위해서는 감각자료를 질서 있게 배열하고 체계화하고 일반화하는 작업을 우리 자신이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근대 이후 대다수 사람들이 존중해온 과학적 실험과 경험적 관찰을 통해 연구해온 귀납주의가 있다. 전술한 체육의 과학주의는 바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는 주로 자연의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맑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맑의 이론이 단순히 자연의 세계가 아닌 인간의 삶의 세계나 정신세계에까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의미나 가치가 전제되어 있는 인간의 삶의 세계를 맑의 중심 과제로 삼았을 때에는 새로운 현실과 문제가 나타난다. 삶의 세계는 자연의 세계와는 구별된 인간의 정신에 의해서 창조되고 영위되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삶의 세계가 자연의 세계와 어떻게 다른가를 잘 보여준 것이 현상학이다.

반면에 서양인들과 다르게 동양인들은 맑 그 자체보다도 맑을 실천의 문제와

의 관련 속에서 이해하려 하였다. 동양의 방법은 인간과 사물의 본성을 인간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맑의 방법으로서 배우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을 중요시하였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 행동은 이론에서 유출되는 것인가? 아니면 행동에서 이론이 생겨나는 것일까? 우선 우리가 '~을 안다'라고 주장하는 다음의 예를 근거로 살펴보자.

- ① 나는 테니스를 칠 줄 안다.
- ② 나는 저것이 장미임을 안다.
- ③ 나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안다.
- ④ 나는 철수가 옳다는 것을 안다.

이상의 예들은 모두 똑같이 '~을 안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으나 다른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수 있다.

①의 '~을 안다'는 테니스라는 운동을 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때의 '~을 안다'라는 말은 어떤 신체적 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테니스라는 환경 안에서 자신의 몸으로 실제의 공을 쳐낼 수 있다는 뜻이다. 이때의 맑은 단순히 객관적으로 무엇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된 현상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라는 방법적 지식을 실현할 수 있는 맑이라고 할 수 있겠다. ②의 '~을 안다'라는 의미는 '어디어디에 피어 있는 장미를 보았을 때 그것이 장미라고 불리운다는 것을 안다'라는 의미이다. 이때의 맑은 모든 사람에게 약속된 용어에 관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③의 '~을 안다'라는 의미는 ①②와 같이 어떤 능력이나 기술을 이해하거나 사물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는 뜻으로서 어떠어떠한 현상을

어떠어떠한 정보를 근거로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④의 ‘-을 안다’라는 의미는 어떠어떠한 상황에서 철수가 취한 판단이나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을 가졌고 그것에 근거해 볼 때 그 판단이나 행위가 옳음을 안다는 뜻이다. 이때의 ‘-을 안다’라는 의미는 가치나 도덕적 판단이나 그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상기의 ‘-을 안다’라는 의미가 완전히 서로 상관없이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흔히 ①과 같은 기술 능력을 안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맑은 사실 어떠어떠한 상황에 대한 정보로서의 맑이나 객관적으로 파악된 사실적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어떤 행동을 어떠한 방법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만들려면 먼저 그 행동방법과 그 행동상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테니스를 칠 줄 안다’라고 할 때는 먼저 테니스에 관련된 어떤 맑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을 안다’라는 말은 크게 ‘무엇을 어떻게 실제로 해야 한다’라는 ‘방법적 지식’과 ‘어떤 사물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한다’는 ‘명제적 지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유형의 맑의 문제를 체육과 관련지어 살펴보자. 우선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방법적 지식은 사실 명제적 지식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왜냐하면 만일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는 이미 이전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그 방법을 설명해줄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때 그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내용은 명제적 지식이다. 예를들어 테니스라는 운동기술과 그 게임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테니스라는 운동기술과 그 게임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설명과정에서 테니스의 다양한 품의 변화와 사용법 및 게임방법을 그가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것이다. 그러나 항상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모

르고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자전거를 탈 줄 안다. 그러나 어떻게 균형을 잡는지는 얘기할 수는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동작이 어떤 근육과 에너지 기전과 관계되는 것을 알고 있을 수도 있으나 그러한 명제적 지식들은 나중에 알아도 상관없으며, 사실 나중에서야 알 수 있다.

체육을 제외한 다른 삶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방법적 지식과 명제적 지식간의 관계가 확실하게 구별되어 있다. 그러나 체육의 경우는 모든 지식이 인간의 신체적 행동이 전제되어 있는 까닭에 특별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즉 어떠한 명제적 지식이라도 방법적 지식과 함께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때의 방법적 지식이란 단지 “스위치만 올리면 불이 켜진다는 정보를 갖고 있으며 그 스위치가 있는 장소와 스위치를 올릴 수 있는 동작을 안다는 것만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객관화된 방법적 지식 그 자체를 자신의 몸으로 실현해낼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삶의 세계와 체육의 관련성을 찾는데 있어서 ‘행동이 먼저냐 이론이 먼저냐’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즉 ‘이론적인 이해가 먼저인가 아니면 실제적인 행동이 먼저인가’라는 문제를 접하게 된다. 과연 우리의 행동은 이론에서 생기는 것인가 아니면 행동에서 이론이 유추되는 것일까?

인간의 인식문제를 다룬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이론을 앞세우고 그 이론을 근거로 하여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르므로 이론이 실천적 행동보다 우위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삶의 현상이 근원적으로 볼 때 이론보다 실천적 행동에 있음을 주장한 사람도 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의 삶의 세계안에 살면서 이미 합목적적으로 행동하고 모든 도구와 물건을 옮바르게 그 용도에 따라 이용한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생각하고 이론을 전개하기보다는 공작하고 행동하는 존재이며, 놀이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관찰하고 생각하기 전에 이미 실천적인 경험을 통해 알게 되므로 이론보다 실천적인 행동이 더 본원적이라는 말이다.

지금까지 체육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론의 우위성을 믿어왔다. 우리는 먼저 바르게 인식하고 그 인식을 통한 지식을 기반으로 합목적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현대 체육과학의 이론은 실제적인 용용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체육은 다른 여타 분야와는 달리 인간이 자기 자신의 움직임으로 행동하는 것이 첫째다. 그리고 이론이란 다만 인간행동에 나타나는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다. 인간의 행동이 어떤 상황에서 난관에 부딪히지 않으면 그 문제에 대하여 생각할 필요도 이론을 전개할 필요도 없다.<sup>69)</sup> 인간의 행동이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어떤 난관에 부딪힘으로써 사유는 나타나게 된다. 체육에 있어서 사유(思惟)의 본질은 이런 실천적 행동을 위한 사유의 기능을 통해 정의되어야 한다. 즉 ‘체육에서의 앎이란 인간의 움직임을 위한 앎의 기능을 통해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술했던 바와 같이 단순히 객관화된 대상을 파악하려는 앎의 형식이나 이론과는 달리 자기 스스로의 실천 세계를 근거로 하고 있는 체육활동에서는 앎과 실천이 구분되지 않는 세계이므로 다른 분야와는 달리 체육의 모든 개념과 지식들은 체육적 실천기능을 통해 정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동의 세계, 실천적 삶의 세계를 마련하는 체육, 즉 운동의 세계는 인간의 실천적 앎을 중대 심화시키는 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

흔히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을 안다’라는 것은 실제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정도에까지 과장해서 생각하기 쉽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과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 스스로의 몸으로 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말은 자주 구별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다른 어느 부분보다 체육에서는 구별되어야 하며 어느 때건 실천이 먼저 온다. 이 사실은 고유의 탐구영역으로서의 체육적 앎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69) 이규호, 앎과 삶 : 해석학적 지식론, 서울 :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8, p.65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이 사실이야말로 동물의 세계에 속해 있다고 할 만큼 원시적인 형태의 체육적 활동이 어떻게 인간의 현대적 삶의 세계로까지 발전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치게 과장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실천을 이론화하는 단계에 이르면, 그 이론은 이론 자체를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의 구조에 근거한 삶의 순환성의 원리가 체육에서도 적용된다. 이론과 실천, 지식과 행동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더욱더 우위성을 갖는다기보다는 사실은 서로 순환적으로 제약하고 보충하면서 발전하는 것이다.

체육에서 추구해야 할 삶의 세계는 행동과 이론이 괴리된 영역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구조에 근거한 명제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이 인간의 주체적 움직임 속에서 함께 합쳐되어 개화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다.

### 3) 체육적 삶

그러면 상기의 인간 움직임의 의미와 삶의 세계, 그리고 그 삶의 세계와 체육의 관련성을 살펴볼 때 구체적으로 체육에서 추구해야 할 체육 고유의 탐구영역인 삶의 세계는 어떤 것이겠는가? 이것을 현재의 체육교과 내용과 관련시켜 가면서 살펴보자.

체육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과내용을 살기면에서 보면 테니스, 탁구, 축구, 농구, 핸드볼, 야구, 수영, 육상, 검도, 유도, 태권도, 궁도, 춤 등이며, 이론면에서는 체육철학, 체육사,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 심리학,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체육측정평가 등이다(물론 이외에도 많은 영역이 있다). 이 모든 교과목들이 체육이나 스포츠라는 이름하에서 개설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무엇일까? 만약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설명논리의 당위성이 없다면 체육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다양한 종목의 개설이 불가능할 것이다. 아니 오히려 체육이라는 '끈'으로 많은 이론과목과 스포츠 종목이라는 '구슬'을 짤 수 있는 논리가 없다면 각 스포츠

종목과 이론영역은 각기의 독자적 명칭과 그 내용으로 체육과는 무관하게 개설되고 지도되어야 할 것이다. 아마 그 이론적 근거는 우리가 철학이라는 이름하에서 논리학, 형이상학, 인식론, 존재론, 현상학, 동양철학, 언어철학, 실존철학 등을 개설하고 그중 어느 하나를 배우면 철학을 배웠다고 할 수 있듯이, 또 문학을 배울 때 시나 소설, 회곡, 수필, 평론 중 어느 하나를 배우면 문학적 안목을 갖게 되고, 문학의 세계를 좀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문학적 사고나 상상력을 배웠다고 할 수 있듯이, '체육 또한 그래야 하고 아마 그럴 것'이라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체육적 암의 세계일 것이다. 따라서 체육에서 개설되고 있는 과목 중에 어느 것이든 그 과목의 내용을 배우면 좀더 체육이라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체육적 안목과 체육적 상상력과 사고와 움직임의 세계를 갖게 되어야 한다. 이런 논리로 보면 어느 누구든지 '테니스를 배우면 볼링을 좀더 잘 이해하고 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이상에서 나열한 어떠한 운동 종목이든 각 종목들은 체육을 대표할 수 있으며 이론영역 또한 그렇다. 사실 어떤 암의 영역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그중 어느 내용을 학습하든 학습된 내용과 학습방법이 같은 암의 영역에 속하는 다른 어떤 내용을 학습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거의 죽은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럼 이러한 체육적 암이란 무엇인지를 현 체육교육의 목표와 함께 살펴보자.

흔히 "체육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인간의 신체활동을 통하여 개인의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잠재능력을 최적의 상태로 발달시키는 것"이라고들 한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 목표는 다음 4가지 영역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신체기관의 발달영역이다. 이 영역은 인간이 활발한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강과 생활력에 관계되는 신체기관의 발달을 도모한다는 측면이다. 이 영역에서 이루고자 하는 체육적 내용은 체력단련이나 신체적성을 뜻한다.

둘째는 심동적 발달 영역이다. 이 영역은 체조, 스포츠, 놀이 등의 각종 운동

기능에 관련된 영역으로서 인간의 운동동작을 우아하고 용이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인체조정력의 발달을 도모한다는 측면이다.

셋째는 지적 발달 영역이다. 이 영역은 스포츠, 게임, 놀이 등의 각종 운동과 관련된 지식과 그 이해를 포함하는 지적 발달의 측면으로서 운동기능에 관련된 사고와 규칙, 기술, 작전, 용어 등에 관련된 지적 학습내용, 그리고 건강습관 및 생활양식으로서의 운동원리 등에 대한 이해를 뜻한다.

넷째는 정의적 발달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는 개개인의 감정과 가치 체계의 발달 등과 관련된 영역을 함양한다는 측면이다. 이러한 정의적 영역은 사회성의 측면과도 상호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적응력까지를 포함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체육교과에서 제공되고 있는 여러 가지 운동종목이나 이론과목이라는 것은 바로 이상의 목적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체육의 구체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처음의 논의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체육에서 제시되고 있는 운동종목이나 이론교과에는 어떤 암의 세계를 담고 있기에 그 내용을 배우면 이상에서 말한 체육의 목적이나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걸까? 이것이 즉 체육의 목적과 목표에 비추어 마련된 그 구체적인 실천내용이라면 그 어느 종목이나 이론 중 어느 것이든 그것만 학습하면 그 목적이 달성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거꾸로 목적이나 목표가 잘못되어 있다고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니 어쩌면 그 목적이나 목표 그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결국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근거는 전술한 체육적 암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 것은 체육의 교과내용을 통해서 달성되어야 하며, 그 암은 다시 체육교육의 목표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체육교육이 어떻게 펼쳐지든 체육 그 자체의 암을 확보하지 않는 한 체육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

적과 목표는 사상누각이 되고 만다.

그러면 먼저 이상의 목표를 이루면 체육의 목적이 달성된다는 차원에서 체육 교과의 내용을 실기와 이론으로 나누고 이를 통해서 진정으로 체육의 목표가 달성되는 근거가 있는지를 살펴보자. 먼저 실기 중의 하나인 테니스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해 보자.

테니스를 하면 신체기관이 발달되는가? 답은 ‘그렇다’이다. 운동에는 여러 가지 신체기관의 활동이 동원되며, 그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정히 체육이라고 이름하는 활동을 통해서만 가능한가? 물론 이것이 모든 운동의 기본 전제이긴 하지만 체육, 즉 운동의 목적은 아니다. 그리고 신체기관의 발달이 되었다고 해서 도대체 우리가 체육적으로 밝히는 내용은 무엇이란 말인가? 만약 이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테니스라는 운동을 하지 않고 동네 한바퀴를 천천히 자신의 능력에 알맞은 속도와 강도로 뛰면 그뿐이다. 그리고 육체노동을 해도 그 효과는 획득할 수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비록 신체기관의 발달은 체육 고유의 탐구영역인 체육적 맑을 찾는데 있어서, 아니 체육이라는 내용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필요조건이긴 하지만 충분조건이 아니며, 목적적 성격보다는 수단적 성격을 지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둘째 목표인 심동적 영역은 테니스를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는가? 즉, 테니스를 하면 인간의 운동동작이 우아하고 용이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인체의 조정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가? 물론 여기에도 답은 ‘그렇다’이다. 우리가 처음 테니스를 배우면 아주 어색한 느낌으로부터 움직임을 시작하지만 서서히 그 동작에 익숙해질 수록 편안하게 힘을 덜 사용하면서도 좀 더 우아하게 테니스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때 우리는 심동적으로 발달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여기에도 큰 문제가 있다. 테니스라는 종목은 체육이라는 이름하에서 다른 종목과 함께 개설되어 있는 하나의 교재인 까닭에 테

니스를 통해 체육을 가르쳐야 하므로 테니스를 배운 사람은 결국 테니스를 통해서 심동적인 체육적 맛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서 테니스라는 운동은 체육의 심동적 영역의 맛을 밝혀주는 대표종목이 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테니스를 잘하면 같은 심동적 영역에 속하는 다른 운동종목 또한 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아마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혼히들 말하는 전이는 비슷한 동작에서만 일어난다는 논리에서 본다면 도저히 그럴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 적어도 '테니스를 알면 볼링을 잘할 수 있다'는 그런 공통적 심동적 영역을 밝혀주는 그러한 맛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셋째는 지적 발달의 영역으로서 "테니스를 하면 지적 능력이 발달되느냐"는 문제이다. 물론 답은 '그렇다'이다.

모든 운동이 그렇듯이 테니스를 구성하는 규칙이나 기술, 작전, 용어 등에 관련된 지적 학습내용으로 인하여 우리는 혼히 그런 내용을 알면 체육의 지적 발달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리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도 책으로만 운동을 배울 수 없으며, 경기규칙이나 기술, 그리고 작전이나 용어를 이론적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체육을 알고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체육은 궁극적으로 움직임의 실천이기 때문에 그 어떤 개념적인 맛일지라도 궁극적으로 체육적 맛이 되려면 실제 움직임으로 체득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 경기규칙이나 기술, 작전이나 경기용어 등은 그 자체가 체육적인 맛이기보다는 그 맛을 위한 전제적 조건일 가능성이 많다. 그런 까닭에 체육은 주지주의 교과가 아닌 비주지주의 교과라는 범주에 속하는 것일 것이다. 따라서 테니스를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지적발달의 내용은 바로 체험적인 테니스의 맛이며 그 테니스의 맛은 체육적인 것이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테니스를 통한 정의적 영역의 합양 가능성이다. 물론 여기에서도 답은 그럴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인간의 움직임이란 심리적 활동과 함께 이루어

지며 한 인간의 가치와 신념의 체계가 즉각적으로 움직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끝없는 수양이 운동수행 자체 내에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체육에서 이루어내고자 하는 정의적 목표 즉, 개개인의 감정과 가치체계의 발달 등에 관련된 내용의 영역 또한 근본적인 체육적 맥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하겠다. 설사 체육활동을 함으로써 그런 목표가 함양되었다고 하더라도 구태여 그런 정의적 요소라면 체육활동이 아닌 다른 활동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으며, 오히려 체육을 하면 그 역기능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 또한 테니스를 통해서 학습될 가능성은 있으나 단지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정의적 해석으로는 곤란한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해석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이상에서 말한 정의적 내용을 아무리 알고 있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체육을 알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체육의 목적과 목표를 근거로 살펴본 결과, 체육의 목표로서 이루어낼 수 있는 체육적 맥의 모습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상기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인가를 그 속에 감추어 놓고 있는 상자의 겉포장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체육적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현상관계를 맺고는 있으나 직접 그 체육 그 자체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기나 이론을 통해서 진정으로 알아야 할 체육 고유의 탐구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맥은 어떤 것일까? “테니스를 배우면 체육을 배웠다고, 체육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겠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맥은 과연 어떤 내용이어야 할까?

우리가 테니스를 배울 때, 즉 체육에서 제공되는 모든 실기종목이나 이론과목을 배울 때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로 ‘인간의 몸의 길’이다. 이때의 몸의 길이란 ‘인체의 움직임의 원리를 체득하는 것’이며, 우리 몸으로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환경 속에서 몸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란 ‘불필요한 움직임이 없는 움직임’을 뜻한다.

체육교육의 목적이나 목표로서 제공하고 있는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신체기관적 발달의 내용은 모두 이러한 인간의 움직임이라는 단일 목표를 향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인간 움직임을 위한 전제조건일 뿐이다. 따라서 기존의 Bloom<sup>70)</sup>이 제시한 교과분류학상의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영역의 분류는 다른 교과와는 달리 체육의 영역에서는 다시 몸의 움직임으로 표현되어 나타나고 완성될 수 있는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영역이 되어야 한다.

아마 우리가 이러한 몸의 움직임을 추구하고 실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는 전술한 인간의 삶의 세계와 인간 움직임의 의미가 기반하고 있는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영역에 속하는 생리적 반응과 건강, 체력, 체격, 사회적 행동변화, 자아실현, 운동문화의 계승발전, 그리고 심미성 함양 등과 같은 내용일 것이다. 그리고 아마 이상의 효과들의 정도는 성과 연령, 그리고 기술수준이나 신체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아무리 이상의 효과들이 우리가 신체를 움직임으로써 얻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는 위에서 언급한 체육적 삶은 아니다. 다만 이런 내용들은 체육적 삶을 위해 전제된 내용이다.

체육적 삶을 실천지(實踐知)라고 할 때 우리가 몸을 움직임으로써 생기는 부수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가 바로 소위 현재의 이론적 체육학문이며, 그 근본을 이루는 인간의 움직임의 구조가 바로 운동과 스포츠와 놀이 등일 것이다. 그러면 결국 이러한 체육적 삶에 이르는 길이란 ‘인간의 움직임 그 자체의 실천’이며, 그 움직임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가 바로 체육적 삶일 것이다. 즉 테니스라는 움직임의 길을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볼링이라는 움직임을 이해하고 그 움직임의 길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체육적 삶을 얻음으로써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인간 움직임의 가능성을 확대, 심화하는 것이다. 결국 그 가능성이라는 것은 ‘움직임의 길’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다.

70) B. S. Bloom, 임의도 외 2인 역, 교육목표 분류학, 서울 : 배영사, 1972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체육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암의 세계이다. 다른 모든 이론적 지식의 영역들은 단지 이 움직임을 실현하는 데에서 생기는 역사적 현실이자 전제조건일 따름이므로 우리가 체육에서 개설되고 있는 여러 교과목을 관통할 수 있는 논리는 바로 이 움직임의 길에서 찾아야 한다. 사실 체육교육의 목적이나 목표는 모두 ‘인간 움직임 가능성의 확대, 심화’라는 주제에 종속된다 하겠다.

동양에서는 ‘心身一如’의 상태를 실천적 훈련의 목표로 여겨왔다. ‘심신일여’라는 말은 마음과 신체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신훈련에 의하여 ‘의식의 높은 변용의 상태’ 즉 깨달음을 경험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실천적 훈련을 통해 달성되는 높은 ‘의식의 변용’의 경험에서는 이원론적 패러다임은 타당성을 잃게 되고, 인식에서의 주관·객관의 구별도 의미를 잃는다. 실천지로 파악된 체육적 암이란 바로 이러한 실천에 수반되는 이원성의 경험으로부터 일원성의 경험으로의 인식양식의 변용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의 변용이야말로 바로 ‘동양적 직관’<sup>71)</sup>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용에 관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동양적 체육이라고 할 수 있는 동양의 수행법이다.

명상훈련을 위주로 하는 동양수행법의 전통에서는 전술했던 무의식적 준신체의 존재가 전제되어 있다. 명상이라고 하면 혼히 좌선과 같이 신체를 완전히 정지한 상태로 둔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와 달리, 신체를 끊임없이 운동 상태에 두는 명상방법도 있다. 고대불교의 수행법에 관한 책으로서 유명한 천태

71) 인류의 인식의 역사는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제 1단계는 ‘이성이전의 단계’이며, 제 2단계는 ‘이성적 단계’이고, 3단계는 ‘초이성적 단계’이다. 제 3단계가 바로 ‘동양적 직관’의 단계로서 2단계에서 분리되었던 주객을 다시 합일시키어 전체에 관한 의식을 갖게 한다. 스즈끼(鈴木大龜)는 불교용어로 이를 ‘prajna·직관’이라고 하였고 이런 직관을 얻는 경험을 空이라하며, 이것이야말로 불교의 실체가 되고있다. ed. Charles A. Moore, Essays in East-West Philosophy, Honolulu; Univ. of Hawaii: Press, 1951, p.28

의 마하지관(摩訶止觀)에서는 명상법을 ‘상좌삼매(常坐三昧)’와 ‘상행삼매(常行三昧)’로 나누고 있다. 상좌삼매는 ‘계속 앉아 있는 명상’으로서 완전히 정지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명상법인 데 비하여 상행삼매는 ‘계속해서 운동하는 명상’이라고 할 수 있다.<sup>72)</sup> 일정한 신체운동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것은 일정한 내면적 이미지에 의식을 집중하여 ‘높은 의식변용’의 상태에 이르는 수단으로서 이용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운동에 의한 의식변용’ 또는 ‘운동에 의한 명상’이라고도 할 만한 경우를 고려해 보면 이원성에서 일원성이라는 인식의 변용이라는 의미는 쉽게 설명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신체는 일단 일종의 객체, 즉 외계 사물의 질서와 연속되어 존재하고 있는 물체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즉 신체는 객체로서의 물적 세계의 시스템에 편입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마음이나 의식은 주체적 활동을 나타낸다. 그러나 상식적인 이해에 따르면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마음과 신체는 어떤 형태로건 연결되어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신체에 있어서 주체임과 동시에 객체이기도 하다는 양의성을 갖고 있다. Merleau-Ponty의 표현을 빌자면 인간은 신체에 있어서 ‘보는 자’임과 동시에 ‘보이는 자’이다. 이와 같이 주체임과 동시에 객체라는 사실은 일상적인 상태에서는 일단 서양적 인간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원적인 것으로 경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스포츠 경기의 연습에서 운동기관의 훈련을 하는 경우로서 살펴보면, 초보단계에서는 요구되는 그 운동에 있어서 손발을 움직이는 법, 도구를 사용하는 법, 또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 법 등은 교습을 받아도 생각처럼 되지는 않는다. 마음은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하여도 신체동작은 여간해서는 그대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의 신체는 의식의 주체적 활동에 저항하는 객체로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 오랜 훈련을 계속해 가면 점

72) 湯淺泰雄, 전계서, 1988, p.263

차로 마음의 움직임과 신체의 움직임이 일치되어 간다. 이 단계에서 더욱 더 기능이 숙련되면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마음의 움직임과 신체의 움직임이 일치하게 된다. 사실 명선수라고 불릴 수 있는 정도에 이르게 되면 객체로서의 신체를 뜻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 이때의 신체는 객체로서의 무게를 잊지 않으면서 완전히 주체로서의 마음의 움직임 그대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다.<sup>73)</sup> 이것이 바로 동양적 사고의 특질로서 ‘인간이 그 스스로 그려함’을 발전적으로 변양시키는 연속성, 즉 스스로 그러한 자연과 스스로 그려하지 않는 인위가 연속적 관계속에서 발전적으로 연계된다는 것이다. 김용옥이 이 내용과 관련하여 “무술의 고단자가 될려면 반드시 그 천리길을 스스로 그려함을 변양시키는 매우 특수하고 효율적인 몸의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한다. 이러한 특수하고도, 효율적인 몸의 길의 반복을 나의 몸 안에 축적하는 것을 우리는 ‘덕(德)’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바로 노자가 도는 생겨난대로의 것이고, 덕은 축적한 것이다”(道生之, 德畜之)라고 말한 의미의 본뜻인 것이다. 중국말에 있어서 쿵후(功挾)는 인간의 몸<sup>74)</sup>의 달인적 경지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두루두루 쓰이는 표현으로서, 지게를 잘 지는 노인의 지팡이질도 쿵후요, 빨래터 아낙네의 방망이질도 쿵후요, 호리병에 한방울도 흘리지 않고 기름을 떠넣는 기름장수의 손놀림도 쿵후요, 한석봉의 붓글씨의 손놀림도 쿵후이다. 같은 힘을 가졌어도 지게를 잘 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지는 사람이 있고, 같이 앉아 다듬잇돌을 방망이로 때리는데도 달인이 있고 서투른 자가 있다. 이러한 인간의 몸의 동작에 있어서 고수와 하수의 차이를 쿵후라고 표현하며, 이 쿵후는 오랜 시간

73) 湯淺泰雄, 상계서, p. 264-265 참조

74) 김용옥은 20세기 서양문물이 흡수되면서 왜곡된 ‘심신이원론’의 체계를 무시하고 ‘氣’라는 인식체계속에서의 ‘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때의 ‘몸’은 하나도 둘도 아니며, 둘이 하나된 하나도 아니며, 하나가 둘이된 둘도 아니라 몸은 오로지 몸일 뿐이라고 하면서 기존의 심신개념의 파기를 김용옥은 요구한다. 김용옥, 태권도철학의 구성원리, 서울 : 통나무, 1990, p.45 참조.

의 훈련을 통해 축적된 고수의 몸이 얹은 덕(德)인 것이다. 이러한 ‘도(道)에 대한 덕(德)의 성취나 덕(德)의 발견이야말로 궁후였으며 이 공부를 몸의 운동으로 발전시킨 것이 무술(武術)의 궁후였다<sup>75)</sup>라고 하였다.

‘예를 지난 경쟁’이란 모호한 개념을 지난 이 문장은 활쏘기를 스포츠와 도로서 모두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sup>76)</sup>

주체-객체의 양의성에 입각해서 말하면,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함으로써 점차로 마음과 신체의 움직임이 일치되어 운동기관의 훈련은 신체라는 객체를 주체의 지배하에 두고 객체로서의 신체를 주체화 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과정을 시점만 바꾸면 마음이라는 주체가 객체화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예를 들자면 달인의 경지에 이른 명운동선수의 활약을 보고 있을 때, 그때 그 선수의 마음의 활동은 온몸의 구석구석까지 미치며, 내심의 미묘한 움직임이 그대로 신체의 움직임으로서 밖으로 표현된다. 그때의 물체로서의 그의 신체는 물(物)로서의 이상적 극한 상태에 접근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체라고 하는 물체의 움직임은 그 순간순간의 이상적 배치 상태의 흐트러짐이 없는 연속으로서 나타난다. 그와 같은 상태는 우리에게 일종의 미적 감동을 환기시켜 준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아름다움이란 물(物)에 있어서 ‘물(物)과 완전히 일체화된 마음이 개화(開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신체라고 하는 하나의 물체가 물체로서 본래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개화되고 있는 것이다. 즉 물(物)은 완전히 심(心)이 되어 있으며, 심(心)은 완전히 물(物)이 되어 있다. 이런 상태를 동양에서는 심신일여(心身一如)가 빚어낸 경지라고 하는 것이다.<sup>77)</sup> 이와 같이 높은 의식의 변용상태를 동양에서는 ‘무심(無心)’이라고 표현

75) 김용옥, 상계서, pp. 48-49

76) 나영일·오정석, “조선조 무사들의 활쏘기와 기타 체육적인 활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연구소논집 제 12권 제 1호, 1991. 6. pp. 52-53

77) 湯淺泰雄, 전계서, 1988, p. 265

하는데, 그 의미는 행동에 수반되는 의식적 노력이 없는 상태로서 목표에 도달한 상태를 뜻한다. 예를 들면 무심이란 신속하게 회전하고 있는 팽이의 중심이 정지해 있는 것과 같은 상태이다.

나는 가끔 우리가 우리의 체육적인 인체의 움직임에 대하여 그 동안 잘못 접근해 왔다는 생각을 해본다. 바이올린 연주자가 바이올린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소리 자체의 세계에 이르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은 이미 음의 세계에 이르기 위한 전제가 되어 있을 뿐이므로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 자신의 몸에 일어나는 생리적, 심리적, 인체기능학적 해석에 집중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가 책을 통하여 지식을 학습할 때 우리의 뇌에는 학습에 집중함으로써 생리학적인 현상이 일어나지만 그것 또한 인간의 학습능력에 전제가 되어 있을 뿐이다.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 그의 온몸은 자신의 소리를 향해 있다. 서 있는 자세, 몸의 움직임, 표정, 호흡 등이 모두 자신의 소리를 향해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때도 역시 그 노래함의 부수적 효과로서 건강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노래의 세계에서는 그것에 관한 생리적, 역학적 연구에 집착하지는 않는다. 설사 그 연구를 한다 해도 모두 소리라는 앎의 가능성을 확대, 심화시키기 위한 부수적인 노력일 뿐이며 그 모두가 소리에 종속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인간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자연에 역행하는 방향이든, 순응하는 방향이든, 우리 모두는 우리 인간의 가능성을 확대, 심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체육은 바로 인간의 몸의 움직임이라는 앎을 축으로 하여 그 실천적 가능성을 확장함으로써 인간 움직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우리 몸의 움직임의 가능성을 확대, 심화시킬 수 있는 체육적 앎이다. 전술

했던 모든 신체기관적,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영역에서 취급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바로 이러한 체육적 맑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다.

체육활동이란 인간의 움직임 세계에 발휘되는 자유활동이다. 그러나 그 운동은 아직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단지 가능태(可能態)로서 있을 뿐이다. 그 움직임이란 허구에 속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운동이 구체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과 공간속에 펼쳐져서 하나의 움직임으로 나타나야 한다. 무한하게 많은 가능성은 가진 인간의 움직임의 세계에 대한 자유 활동이 하나의 운동현실로 나타남으로써 우리는 움직임을 할 수도, 볼 수도 있는 그 무엇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체육적 맑을 통하여서 걸려져 나온 운동기술이나 운동종목이란 인간 움직임의 가능성이 체육적 맑을 통해 발현된 인간의 가능성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의 흔적은 한편으로는 닫혀 있으나 한편으로는 무한히 다양하게 열려 있다. 즉, 그것은 계속 변해가는 과정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운동기술과 운동종목이라는 것의 존재방식은 닫혀 있으나 그 근본되는 것은 열려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변해가는 체육적 맑의 과정은 역사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되어감의 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 따라서 체육적 맑을 통한 인간의 움직임은 되어감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전술하였던 인간의 움직임의 의미와 맑의 능력으로 인하여 다양한 자유로운 움직임의 활동을 위해서 새로운 되어감을 계속한다. 이렇게 체육적 맑이 되어감을 계속한다는 의미에서 체육이란 역사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스포츠나 레포츠 형태의 운동종목이 생기거나 과거보다 훨씬 홀륭한 운동기술이 개발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열려 있는 인간 움직임의 가능성이 체육적 맑의 구조에 근거하여 확대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체육이라는 이름하에서 제공된 다양한 실기와 이론을 배움으로써 ‘체육적 맑을 알고 체득했다’는 말은, 즉 우리가 체육적 맑을 전제로 하고 체육이라는 이름하에 여러 가지 운동종목과 이론을 학습한다는 것은 바로 움직임을 운동상황에서 이해하고 실천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다. 처음에는 어렵겠으나 신중한 태도로 운동을 깨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움직임에 몰두하여 수행했을 때, 체육적 맑도 자연스러운 움직임도 체득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체육을 알게 되고 이것을 학습한다는 것’은 ‘체육적 맑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체득하게 되어 움직임 자체를 아끼는 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성악가가 자신의 소리를 아끼고 작가가 글을 아끼고 화가가 표현을 아끼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이러한 몸이 움직이는 길을 체육이라는 이름하에서 제공된 하나의 운동종목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게 될 때 다른 어떤 운동을 하든 그 운동의 현상을 이루는 기본상황과 원리를 내 몸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금방이라도 그 운동에 필요한 동작을 능숙하진 않겠지만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체육적 맑이라고 할 수 있는 몸의 길과 움직임의 원리를 체득하는 과정은 바로 ‘깨어 있음’과 ‘반복훈련’에 의해서이다. 이는 체육이라는 활동을 기반으로 할 때 인간의 움직임 현상과 그 움직임의 길을 자신의 움직임에 깨어 있는 자세로 항상 새로운 단계에서 시작되고 있는 체득이라는 반복훈련의 과정에서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자기 자신의 몸으로 실천하는 맑의 상태이자 그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 자주 언급된 체육학과 체육교육에 있어서 실기의 측면이든지 이론의 측면이든지 체육적 맑과 관련된 체육의 학문적 연구는 체육적 맑에 관한 연구일 것이며, 교육적 의미에서는 그런 맑의 내용을 실천과 함께 가르치고 배우며 깨닫는 것이겠다.

## 2. 체육적 앎의 발견을 위한 단서 : 인식 주체로서의 신체와 암묵적 지식

체육은 체육적 지식을 내용으로 하며, 그것을 연구하여 탐구된 내용을 습득하고 전달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이다. 따라서 체육에서 탐구하며 가르치고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체육적 지식이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습득되며 전달될 수 있느냐는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술하였던 ‘체육적 앎’에 관한 인식론적 기반과 지식론의 도움이 요구된다.

지식에 대한 문제는 전통적으로 철학에서 다루어 왔으며 그 성과는 지식을 다루는 여타 분야에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지식론은 세계관의 입장에 따라 지금까지도 달리 규정되고 있으므로 교육에 주는 영향도 그 양상이 다르다. 지금까지 철학에서 논의되어 왔던 지식론은 크게 나누어 Kant 이전과 Kant 이후로 구분될 수 있다.

인식론의 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고대 그리스 철학은 이미 구성되어 있는 개별적 지식을 전체적으로 조직 체계화하는 동시에 그를 완전히 일관하는 항구 불변의 법칙을 찾아내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인간의 감각이 도리어 모든 착오의 원인이라고 여겨졌고, 이성의 순수 사유만이 유일한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합리주의는 인간의 이성에 대한 지나친 믿음으로 개인간의 견해차를 인정하지 않는 독단론의 기반이 되어 근대에 이르기까지 인식이론의 주류를 형성하여 왔다. 그러다가 영국을 발상지로 하는 근대의 경험론이 신흥 자연과학의 빛난 성과의 지지를 받으면서 대두되자 사유에 대한 감각의 우월을 주장하며 “먼저 감각 속에 존재하지 않았던 아무것도 사유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고까지 부르짖게 되었다.

Kant에 이르러 수동적 감성과 능동적 오성, 직관과 사유는 인식의 두 원천이

었고 이 양자결합의 선천적인 가능성을 밝히려고 한 것이 그의 선형적 인식논리학의 핵심적 과제였다. Kant에게 있어서 정신은 경험 속에 언제나 있는 하나의 요인이고, 유일한 요인이고 그것은 감관에 나타나는, 그리고 판단에서 인식되는 모든 대상 대해서 규제하는 입법적 역할을 한다.<sup>78)</sup>

Kant가 비판철학을 통하여 대륙의 합리론과 영국의 경험론의 통합을 도모했다고 하지만 그의 선형적 인식론에는 여전히 전통적인 합리사상이 그 기조에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Kant에 이르러 지식을 인간중심적으로 바꾼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 외부에 존재하는 실제와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를 가졌으며, 이성과 감성 외에 감정 및 도덕적 요소와 가치의 문제는 지식과 별개의 것으로 다름으로써 기존의 이분법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Kant 이후에는 Husserl의 본질직관이라는 태도를 내세워 인간의식에서 구성된 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형상학을 창시하였으며 Dilthey가 이해와 해석을 방법으로 하는 정신과학을 출범시키는 등 자연과학적 지식 외에 다양한 지식을 인정함으로써 지식의 범위를 확장하고 지식의 형성에 있어서 인식의 태도가 중요함을 주지시키는 변화를 가져왔다.

진리의 가치를 따르는 지식은 인간만이 가진다는 점에서 인간구속적이며, 이러한 점에서 지식의 발달은 인간의식의 발달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 주목하면서 최근에 와서 지식연구는 이미 형성된 지식의 양상, 성질을 재구성하는 종전의 접근과는 달리 실제로 지식이 발전되어 왔던 과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과학적 지식을 직접 다루고 발전시키는 과학자와 교육자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활동을 통해 터득한 지식에 대한 생각을 발전시켜 지식론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영역에서의 지식연구는 전통적 철학적 방법과는 다른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다. 예컨대, 실제 과학활동을 더듬어 지식이 과학자들의 합의에 의한다는 것을 밝혀낸 Kuhn이라든지 과학자들의 활동을

78) Lamprecht, 김태길 외 1인역, 서양철학사, 서울 : 을유문화사, 1992

역사적이고 사회학적인 분석으로 접근하여 과학적 의사결정이 심미적 감식에 가깝다는 결론을 내린 Feyerabend가 이에 속한다.

교육분야에서 기존의 철학적 지식론에 의존하지 않고 지식의 획득과정을 중심으로 지식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한 예는 Dewey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Dewey는 배운 내용이 행위와 아무런 관련도 짓지 못하는 결과를 놓는 암기식 학습, 주입식 교육의 폐단을 종래 철학자들의 그릇된 지식관에 근거한 교육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그는 지식을 행위에 의해서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얻어지는 것, 그리하여 아동의 경험에 완전히 흡수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재정의하였다.<sup>79)</sup> 그에게 있어서 교육은 곧 경험의 재구성이요, 그것이 다루는 내용은 경험이다. 그러므로 그가 보기엔 참된 지식은 바로 경험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은 계속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결이란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의 교육이론은 가르침 없는 배움을 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Dewey의 지식론은 종래 철학자들이 규정한 지식을 부정하고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철학적 지식론을 교육에 도입한 것이 아니라 가장 교육적이라고 할 수 있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지식을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Dewey 이전에 루소에서부터 있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육분야 자체 내에서의 지식론에 대한 접근은 그것이 실제 교육활동과 유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탐구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식론이 교육 이론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론이 지식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 을 보여준다. 이렇게 지식론에 대하여 비철학적 접근이 가능하게 된 데에는,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학문이 철학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지식이 무엇이냐에 대한 문제보다는 각각의 학문에서 다루는 고유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진하여 왔던 반면, 이제는 그 동안 양적 질적으로 축적되어 온 지식을 토대로 자신들의 직접적인 지식추구 활동을 되돌아보면서 지식 자체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여유

---

79) Dewey, 이홍우 역, 민주주의와 교육, 서울 : 교육과학사, 1987

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 하나의 원인을 돌릴 수 있다. 이것은 철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질문을 비철학적 기반을 토대로 던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동시에 여러 학문이 철학에 대하여 공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철학에서 분리독립하여 나온 제과학들이 다시 부분적으로 철학에 편입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과학과 철학의 구별이 점차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식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광범위한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식론 자체가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면에서 낙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철학 외적 접근에 의한 지식론 중에서 지식에 대한 문제를 가장 포괄적이고도 깊이 있게 다룬 사람 중의 하나가 Polanyi의 지식론이며, 그러한 지식의 가능성을 심신문제와 관련시켜 밝힌 사람으로는 Merleau Ponty와 Sartre를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체육적 앎의 배경으로서 먼저, 인식주체로서의 신체와 대자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개념을 Meuleau Ponty와 Sartre를 통해서 살펴본 다음 Polanyi의 지식론을 전술한 체육적 앎과의 관련 속에서 살펴봄으로써 이들을 본 연구의 핵심개념인 체육적 앎을 발견하기 위한 단서로 삼으려 한다.

### 1) 인식 주체로서의 신체(the body – Subject)<sup>80)</sup>

Meuleau Ponty는 우리의 몸을 인식의 주체로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몸을 객체로서 바라보는 시각과 구별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식 주체로서의 몸이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누군가 인간의 본질은 이성과 사고에 있다고 한다면 그는 Descartes적 이원론을 토대로 하고 있다. Descartes에 따르면 정신의 기능은 사고하는 것이며, 신체의 본성은 물리적 기능이다. 따

80) 체육적 현상과 관련하여 Maurice Merleau-Ponty의 인식주체로서의 신체에 관한 연구는 정웅근, 메를로-퐁띠의 인식주체적 신체가 갖는 체육적 의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0. 참조.

라서 인간의 몸은 물리학과 생리학의 대상인 객관적 물체이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외부의 자극에 의하여 주체적인 의식으로서 반응하는 인식주체로서의 몸이며, 인간적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능동성을 갖추고 있다.

우리는 사물에 다양한 의미를 준다. 인간은 인식의 주체로서 객관적 세계를 인식하고 있는 의미의 수여자로서 존재할 뿐 아니라, 우리의 몸은 인식과 행동의 주체로서 모든 공간 내에서 움직인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방안에 있을 때 머리 위에는 천정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바닥에 눕게 되면 우리의 몸에 대한 우리는 방향은 벽의 측면으로 바뀐다. 결국 방 안의 방향은 우리 몸의 위치에 따라 변한다. 결국 공간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은 우리 몸이다. 결국 과학적 연구대상인 객관적 대상으로서의 몸과는 반대로 현상학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인식의 주체로서 우리의 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의미 부여자이며, 또한 그것은 공간의 방향 정립자이기도 하다. Meuleau Ponty는 이러한 우리 몸의 주체성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감각운동회선(sensory-motor circuit)이라는 개념<sup>81)</sup>과 신체영상(body image or body schema)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sup>82)</sup> 그것은 우리 몸의 존재현상을 지극히 잘 설명하고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내가 만약 눈을 감고 내 담배 파이프를 쥐고 서 있다면, 내 손의 위치는 앞 팔에 의해 결정되는 팔의 각도에 따라 결정되지 않으며, 앞 팔은 위 팔에 의해서, 위 팔은 내 몸에 의해서, 그리고 내 몸은 다리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이미 나는 내 손과 내 몸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그것은 마치 사막에 있는 원시인이 항상 출발 때 자기가 간 거리와 각도를 계산하거나 마음 속으로 헤아리지 않고도, 즉시 자신이 가야하는 방향을 취할 수 있는 것과 같다.<sup>83)</sup>

81) Maurice Merleau-Ponty, *Phenomenology of Perception*, Trans. by Colin Smith, New Jersey : The Humanities Press, 1978, p.8

82) Ibid., p.98

83) Ibid., p.100

만약 내 손에 파이프 하나를 쥐고 서 있다면 나는 내가 특별히 그것에 주의를 주지 않아도 그 손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따라서 내가 그 담배를 피우려고 할 때면 언제든지 거의 자동적으로 나는 나의 입으로 그 파이프를 가져갈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확실히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나의 몸과 나의 손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결국 그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내 몸과 손이 있는 곳을 알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나는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이미 내게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그 움직임을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내 몸은 처음부터 완전한 움직임과 함께 있으며 그 목적으로 나아간다.<sup>84)</sup>

내 손의 구조와 공간은 어떤 특별한 가치로 짜여진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손을 내 몸과 나눌 수 없는 것으로 지니고 있으며, 내 몸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몸의 영상으로 하여 이미 나는 나의 사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sup>85)</sup>

이러한 우리 몸의 맑은 결코 과학적 방법으로는 객관화되어 분석될 수 없다. Meuleau Ponty가 말한 몸의 영상은 한 인간의 움직임과 그의 몸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물인 것이다. 인간의 의사결정과 몸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움직임은 마술적인 것이다.<sup>86)</sup>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살아 있는 몸'(lived body)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이다.

몸의 영상(body image)은 어떤 목적에 상용하는 또는 유기물의 계획을 위한 가치에 있어 비례하여 인간의 몸을 조직하고 통합하는 것이다. "나의 몸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것을 지금 하고 있거나 하려 하는 행동가능한 임무로 향하는 하나의 태도로 나타난다."<sup>87)</sup> 만약 내가 나의 손으로 파이프를 내 입까지 가져

---

84) Ibid., p.94

85) Ibid., p.98

86) Ibid., p.94

87) Ibid., p.100

오려 한다면 내 몸의 임무는 나의 손을 나의 입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러한 동작을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 몸의 다른 부분이 내 손이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결국 나의 모든 몸은 나의 손을 나의 입에 가져가는 임무에 맞도록 조직되고 통합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바로 나의 몸의 영상을 통해서 이므로 우리 몸의 공간성은 공간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공간<sup>88)</sup>에 있는 것이 된다. 바로 이 점에서 몸의 공간성과 운동성은 몸의 영상을 통해서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것이 명백하다.

Meuleau Ponty는 이러한 공간적 인식을 한 인간의 몸으로 이루어지는 운동성으로 이해하였다. 몸의 영상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몸이 놓인 공간성을 파악함과 동시에 우리의 몸을 의식하지 않고도 그 몸으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몸의 운동성은 인간의 기본적 지향성(intentionality)이다.<sup>89)</sup> Meuleau Ponty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의 동작은 몸이 그것을 이해하였을 때 학습된다. 즉 하나의 동작이 그 세계 속에서 체득되었을 때를 말한다. 인간의 몸을 움직이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어떤 요구에 응하도록 스스로를 허락하는 것으로서, 독립적으로 어떤 표현을 만들어 낸다. 이때 운동성은 의식의 하인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나타내려고 했던 공간의 지점에서 주인으로서 우리의 몸을 옮기는 것이다. 우리는 나의 행동대상으로 향하는 우리 몸을 움직이기 위하여는 그 대상이 우리 몸의 움직임을 위해 먼저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sup>90)</sup>

그러므로 Meuleau Ponty는 인간의 기본적 지향성으로서의 운동성과 관련하여 운동의 공간성을 생각한 것이 자명하다. 즉, Meuleau Ponty는 공간이해라는

---

88) Ibid., p.100

89) Ibid., p.137

90) Ibid., p.139

면에서 우리 몸이 갖추고 있는 운동능력의 우위성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성과 운동능력은 다음과 같은 실재 운동상황에서 나타난다.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들의 활동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이 평상시와는 다르게 공간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선수가 다른 선수에게 볼을 발로 패스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이 상황에서 그의 임무는 축구볼을 적당히 차서 그 볼을 받을 선수에게 보내주는 것이다. 그는 자기 자신과 볼을 받는 사람의 실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듯이 그 볼을 발로 차서 전달한다. 그는 결코 그 거리를 합리적인 사고로서는 알지 못한다. 오히려 그는 즉각적으로 자신의 몸으로 자기에게 놓인 그 공간적 거리를 파악한다. 또한 볼을 받는 선수는 이성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그 볼을 잡는 장소에 도달할 수 있다. 즉, 이런 행동을 하는 동안에 그들은 결코 떨어지는 볼의 포물선 운동이나 속도 같은 그런 물리적 법칙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선수들은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몸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인간이 어떤 목적에 따라 자신의 몸을 조직하고 통합하는 몸의 영상으로 공간성과 자신의 운동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선수가 자신의 운동세계와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써 ‘몸의 영상으로 내 몸이 세계 내에 존재함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이러한 몸 영상이라는 개념은 인체의 습관이라는 특성과 함께 생각하면 더욱 분명해진다. Meuleau Ponty는 습관의 수련은 몸영상의 재배열이며, 이를 다시 새롭게 하는 생생<sup>91)</sup>이라고까지 하였다. 그에 있어서 습관의 수련은 우리의 몸 그 자체가 움직임을 이해하고 그 움직임을 습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것은 우리 몸의 운동적 파악이다.<sup>92)</sup> 이러한 움직임 습관의 배양은 거의 목적화 단계에까지 이

---

91) Ibid., p.143

92) Ibid., p.142

르는 운동능력이다. Meuleau Ponty는 이것을 타자수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단어를 만드는 글자가 있는 키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할 수는 없어도 타이프를 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가능하다. 그때 타이프를 치는 방법을 아는 것은 글자키의 각 글자의 위치를 아는 것도 아니요, 각각의 글자에 대한 조건적 반사작용을 습득하는 것도 아니라, 그것은 나의 눈앞에 나타날 움직임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것은 나의 손에 있는 암이며, 우리의 몸의 노력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며, 결코 그런 노력이 없이는 형성될 수 없는 것이다. 객관적 공간에 우리를 위치시켜 보는 친숙함에서 생긴 암을 통하여 우리의 사지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타자기 위의 자판이 있는 곳을 타자수는 안다.<sup>93)</sup>

이러한 방법으로 훈련된 타자수는 이미 손이 알고 있는 암을 통해서 글자 키의 위치를 파악한다.<sup>94)</sup> 이러한 지식은 단지 우리 몸의 직접적인 노력으로서만 습득된다. 즉 만약 타자수가 A B C를 타이프한다면 그는 매번 그 키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단지 A, B 그리고 C를 치려고 한다는 의도를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타자기에 앉았다. 운동공간은 나의 손 아래 놓여져 있고 그 안에서 나는 내가 읽은 것을 지금 막 치려고 한다.”<sup>95)</sup> 이런 상태는 타자수가 글자판의 공간을 그 자신의 몸 공간으로 체화(embodied)시켰다<sup>96)</sup>고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예를 운동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가 테니스를 할 때 우리는 흔히 기술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며, 매번 라켓이 거북스러움을 느낀다. 그러나 열심히 훈련하는 동안에 어느 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매우 편안한 느낌으로 테니스장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음을 발견한다. 우리는 우리 손안에 있는 라켓의 위치를 알고 있고, 자유롭고 편안하게 라켓을 조절한다. 그것은 우리가 그 라켓을 우리의 몸 안에 합치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어떤 기술

93) Ibid., pp.143-144

94) Ibid., p.144

95) Ibid., p.144

96) Ibid., p.145

을 습득한 후에 우리가 테니스를 쉽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그 전에는 어색하게만 느껴졌던 라켓을 마치 그것이 우리의 우리 몸의 일부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자유롭게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체화된 습관은 신선한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세계 내의 우리의 존재를 펼치거나 우리의 실존을 변화시키는 힘을 표현한다.

습관으로서 몸 영상의 현상은 명백히 스포츠의 상황에 나타난다. 우리가 움직임을 하려고 할 때, 외부지각에 접근하여 미리 그 행동을 취하고, 자기 몸에 합치시키고, 그때마다 우리 몸으로 하여금 어떤 움직임 습관을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몸의 영상이다. 따라서 우리의 몸은 몸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움직임의 새로운 의미를 파악한다.

이러한 운동습관의 변화는 인간의 몸을 새롭게 사용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며, 우리 몸의 영상을 풍부하게 개조하는 것이다.<sup>97)</sup> 그러므로 몸의 영상은 몸의 움직임 변화와 개조, 그리고 재조직을 통하여 더욱 풍부해진다. 이것은 또한 우리 몸의 세계가 새로운 움직임을 갖춤으로써 확대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면에서 Meuleau Ponty는 “습관은 사고나 객관적 신체에 남겨지는 것이 아니고 세계의 매개물로 우리의 몸에 남아 있는 것이다.”<sup>98)</sup>라고 했으며, “몸의 영상은 단지 우리 몸의 공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세계에까지 확장된다는 면에서 그것은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체계이다”<sup>99)</sup>라고 한 것이다.

이 점에서 몸 영상이라는 개념이 전술한 체육적 깊과 관련하여 갖는 중요성은 분명하다. 체육활동은 우리 몸의 모든 지각을 포함한다.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우리 몸의 개인적 의미를 확보하고 자신의 세계에 참여하며, 우리 몸의 세계에서 살게 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몸의 영상이다. 몸의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체육적 깊의 세계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다.

---

97) Ibid., p.153

98) Ibid., p.145

99) Ibid., p.14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Merleau Ponty의 인식 주체로서의 몸이라는 개념은 본 연구의 주제인 체육적 맑이라는 영역에 많은 기반을 제시한다. 특히 우리 몸의 운동능력은 나의 신체가 세계 내에 존재하며 세계에로 통하는 길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며, 운동습관의 육성은 이러한 몸을 새롭게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몸의 영상을 개조하는 것이라고 볼 때 더욱 그렇다. 따라서 몸의 영상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체육적 맑의 세계에로 향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열려 있는 하나의 인간적 체계라고 할 수 있다.

## 2) 대자존재로서의 인간의 몸

Sartre는 우리의 몸을 매우 독특한 시각으로 바라본다. 그는 즉자(即自)와 대자(對自)적 존재<sup>100)</sup>로서의 몸에 근거하여 우리 몸의 삼차원적 존재방식을 제시한다. 그가 제시한 몸의 대자적 존재방식은 우리 몸의 의미와 함께 체육적 맑의 가능성을 통찰할 수 있게 해준다.

원래 Sartre에게 있어서 인간이란 의식존재로서의 인간이다. 그러나 의식은 그 자체로서의 실체가 없고, 존재와의 관계에서만 존재한다. 따라서 자아존재 그 자체는 '무(無)'이다. 그러면 '무'로서 나타나는 의식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인간의 몸은 의식과 존재 사이에 있는 매개체가 아니라, 바로 의식이 구체적, 개체적, 시간적으로 존재와 관계하는 근원적인 존재방식이다<sup>101)</sup>라고 볼 때 의식은 몸의 방식으로 존재하고 관계한다. 의식은 몸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100) Sartre 철학의 근본문제가 인간존재의 해명이며, 그는 인간의 근원적인 존재양식을 의식의 구조분석을 통해서 해명하였다. 인간의 의식을 넘어서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 즉 자체 동일성으로 존재하는 존재를 Sartre는 즉자존재라고 표현하였고, 반면에 대자존재는 자체로서 완결된 존재가 아니라 존재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방식을 부단히 선택하는 존재의 성격을 말한다. J. P. Sartre, *Being and Nothingness*, Trans. by Hazel E. Barnes, New York : Washinton Square Press, 1956, pp.28-29 참조

101) Ibid., p.390

몸 그 자체로서 존재한다.<sup>102)</sup> 의식과 몸의 이런 관계를 Sartre는 실존적 관계라고 부른다. 그리하여 현실적으로 존재의 의식일 수밖에 없던 인간 의식은 결국 몸의 의식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대자가 존재한다고 일컬어지는 것은 대자가 인간존재에 있어서 즉자, 즉 몸과 불가분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sup>103)</sup> 이때 '존재의 의식'이란 의식이 몸의 방식으로 존재와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몸의 의식인 것이다. 의식은 몸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며, 나머지는 허무와 침묵일 뿐이다.

Sartre는 지금까지 몸과 영혼의 문제를 객관적 대상의 차원에서 접근해 온것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보여주려고 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을 생리학적인 연구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였다.<sup>104)</sup> 따라서 인간의 주관성조차도 객관적인 자료로 취급되었다고 Sartre는 주장하였으며 이 점에 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몸의 문제 및 몸과 의식과의 관계의 문제가 빈번히 모호하게 되고 있다. 그 사실은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의 몸을 일종의 사물로, 즉 그 자신의 법칙을 가지고 있고 외부로부터 파악 규정될 수 있는 하나의 사물로 간주하는 한편 의식은 그 자체에 대한 특유한 일종의 내적 직관에 의해서 포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생각한 데에서 비롯된다.<sup>105)</sup>

Sartre는 이러한 비판을 확대하여 객관적 대상으로서의 몸에 대한 지식은 인간의 몸이 갖추고 있는 주체성을 파악하지 못한 전제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인간의 몸은 주체성으로 작용하며 이 주체성 가운데에서 비로소 살아

102) Ibid., p.394, 422, 461

103) 한전숙, 현상학의 이해, 서울 : 민음사, p.39

104) 한전숙 외, 현대철학,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1, p.119

105) J. P. Sartre, The Transcendence of Ego, Trans. by F. Williams & R. Kirk Patrick, New York : Noonday Press, 1957, p.303

있는 몸으로서 자기의 본모습을 찾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Sartre에게 있어서 인간의 몸은 더 이상 생리, 물리, 해부학적 사물이 아니며 이러한 몸을 통해서 인간의 세계-내-존재가 가능하게 된다. 인간의 생활 세계가 갖는 의미는 단지 이러한 살아 있는 몸으로서만 가능한 것이다.

대자존재로서의 몸은 세계 내에 존재하는 개인적인 몸의 존재<sup>106)</sup>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은 개인적인 존재차원과는 다른 존재의 차원을 갖는다. 가령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볼을 보고 만질 때 대상으로서의 불과 함께 이를 보고 만지는 주관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살아 있는 몸’은 대상이나 타인 및 세계를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즉 내가 나와 마주해 있는 세계를 향해서 열려 있을 때 나의 몸이 반사되어 나타난다.<sup>107)</sup> 이것은 나는 현재 나의 몸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나 자신을 유일한 존재로서 이해하지만 나의 몸은 또한 타인에 의해서 파악된 존재로서 생활하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체험된 우리의 몸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대자존재로서 의도적으로 세계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Sartre가 이상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은 신체와 의식이 분리될 수 없으며 또는 그들이 결코 다른 특질로서 파악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신체가 사물로 취급되고 이를 생리학이나 물리학에서의 인과론적 법칙에 의해 설명하려 할 때 그것은 이미 나의 몸도 아니요, 살아 있는 몸도 아닌 그것은 타인을 위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Sartre는 인간 신체에 존재하는 두 가지 다른 수준을 기술했다. 나아가 다른 존재의 수준으로서 그는 ‘타인에 의해서 알려진 신체로서의 나의 신체’를 제시한다. Sartre가 제시한 세 가지 차원의 주요성격은 다음과 같다<sup>108)</sup>.

---

106) Ibid., p.339

107) 한전숙 외, 전계서, p.139

108) J.P. Sartre, op. cit, 1957

첫째,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신체(the body as being for itself)  
둘째, 타인을 위하여 존재하는 신체(the body as being-for-the other)  
셋째, 타인에 의해서 알려진 신체로서의 나의 신체(my body as  
body-known-by-the-other)

첫번째 차원인 그 자신을 위한 존재로서의 몸은 “내가 나의 몸에 의해서 존재하는 몸”<sup>109)</sup>이라고 했으며, 이것을 그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그 몸은 몸 그 자체 이상의 그 무엇도 아니다. 사실 그 자체를 위한 것은 그 자신의 토대가 없다.<sup>110)</sup> 그 자신을 위한 신체는 결코 내가 알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다.<sup>111)</sup> 그것은 초월되는 것으로서 존재한다. 그것은 단지 내가 나 자신을 무화(無化)함으로써 탈출할 때만 존재한다.<sup>112)</sup>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몸은 즉각적인 나의 존재함이며, 다른 의미에서 나는 세계의 무한한 웅집에 대해 그것으로부터 분리된다.<sup>113)</sup>

VandenBerg는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의 몸은 그 스스로 존재한다”<sup>114)</sup>고 표현했다. 내가 나 자신의 몸에 대하여 더 이상의 관점을 취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내가 다른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나의 몸을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때의 내 몸은 인간이 완전히 몸에 흡수되고 그것에 관하여 망각하는 몸인 것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설명이나 가치판단이 필요 없는 순수한 존재인 것이다. 여기에서 첫번째 차원의 주요 특징이 있다. 이 몸은 인간이 완전히 자신의 몸에 몰두되어 그 몸을 망각한 채 존재하는 신체이다.

신체의 두 번째 차원은 ‘타인을 위한 신체’이다. Sartre는 이와 같은 신체의

109) Ibid., p.460

110) Ibid., p.408

111) Ibid., p.409

112) Ibid., p.409

113) Ibid., p.420

114) VandenBerg, "The Human Body and the Significance of Human Movement" In H. Ruitenbeek(ed.), Psychoanalysis and Existential Philosophy, New York : E. P. Dutton, 1962, p.408

존재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 몸은 타인을 위하여 존재한다.<sup>115)</sup> 타인을 위한 몸의 구조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타인의 존재와 동일하다.<sup>116)</sup> 나에게 타인의 몸은 근본적으로 내가 어떤 관점을 취하고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관점으로서, 그리고 내가 다른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나타난다.<sup>117)</sup> 타인의 몸은 나의 세계에 병합되며 나의 몸을 나타낸다.<sup>118)</sup> 타인의 몸은 내가 존재하는 몸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연장이다.<sup>119)</sup> 타인은 근본적으로 나에게 상황에 있어서 물체로서 주어진다.<sup>120)</sup>

이 관점은 타인의 눈에 비친 나의 몸이나 나의 눈에 비친 타인의 몸으로서, 이때의 몸이 갖는 개인적 의미는 이 몸을 바라보는 사람의 생각에 종속된다. 이 몸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될 수 있는 대상, 즉 객체인 것이다.

몸의 세 번째 존재방식인 ‘타인에 의해서 알려진 몸으로서의 나의 몸’은 다음과 같다.

나는 타인에 의해서 알려진 몸으로서 나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sup>121)</sup> 타인의 모습이 나타남과 함께 나는 객체로서의 존재의 드러남을 체험한다. 즉 초월된 것으로서 나의 초월성을 드러낸다.<sup>122)</sup> 우리는 단념하고 타인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알려고 시도하는 것을 뜻한다.<sup>123)</sup>

세 번째 차원은 단지 공허하게 체험될 뿐이며 내가 타인에 의해 인식된 존재를 인식하는 몸이다. 몸의 거북함이나 어색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타인에게

115) J. P. Sartre, op. cit. 1956. p.445

116) Ibid., p.445

117) Ibid., p.447

118) Ibid., p.447

119) Ibid., p.447

120) Ibid., p.460

121) Ibid., p.460

122) Ibid., pp.463-464

123) Ibid., p.464

인식되고 있는 우리의 몸을 인식하고 있다는 표현이다.<sup>124)</sup> 이때의 몸은 개인적인 현실의 근본적 뿌리로서 주체로 나타나는 몸이며 이것이 자아이다. 이때의 몸은 객관적 관점이나 주관적 관점에서 표현될 수 있다. 객관적 관점에서 본다면 ‘나는 몸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할 것이고, 주관적 태도에서는 ‘나는 나의 몸이다’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주관적으로 말하자면 ‘나의 몸은 나 자신일 것이며, 나는 구체화된 몸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세 가지 존재차원은 체육적 앎과 관련된 인식의 전망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그러면 신체의 세 가지 존재의 차원이 어떻게 체육적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 가장 좋은 예는 등산하는 체험에 잘 나타나 있다.

VandenBerg는 Sartre가 분석한 인간의 몸의 삼차원적 존재, 즉 그 자체를 위하여 존재하는 몸, 타인을 위하여 존재하는 몸, 그리고 타인에 의해서 알려진 몸으로서의 나의 몸을 다음과 같이 등산활동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전날 자신의 등산 계획을 작성하고 친구와 함께 등산하기 어려운 산의 정상을 오르고 싶은 욕망을 토론하였던 등산가는 그가 오르기 어려운 곳에 첫 발을 딛자마자 자신의 의사를 상실한다. 그는 더 이상, 한 시간 전에 그토록 크게 주의를 기울였던 자신의 신발을 생각하지 않게 되고, ...또한 그는 이번 여행을 목적으로 미리 친구와 함께 여러 날 단련했던 그의 몸을 무시한다. 전날 그토록 그를 강력하게 사로잡았던 치밀히 계산된 계획을 그의 사고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다. 어떤 의미에서 단지 계획과 몸을 잊음으로써 그는 그가 수행하고 있는 힘든 일에 몰두할 수 있을 것이다. 심리학적으로 말하자면 꼼짝 않고 거기에 있는 것은 단지 산일 뿐이다. 즉 그는 산의 구조에 몰두하고 있고 그의 생각은 완전히 그 산의 구조에 파묻혔다. 바로 그는 그의 몸을 잊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은 살아 있는 몸으로서, 몸 그 자체를 실현할 수 있다. 그의 몸의 길이는 손으로 잡고 또 잡을 때 직면하는 어려움으로 나타난다. 몸을 설명하는 것은 단지 행동, 움직임 뿐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풍

---

124) Herbert Spielgelberg, "The Phenomenology of Jean-Paul Sartre", In The Phenomenological Movement, Vol.III,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65, p.526

경은 인간 행동의 중요성이 놓여 있는 것이다. 등반가가 움직임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바로 풍경을 향해서이고, 그의 몸의 움직임이 중요성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이 풍경 속에서이다.<sup>125)</sup>

이 서술 속에서 몸의 삼차원적 존재는 등반가, 그의 친구, 그리고 풍경이라는 용어로 분명히 나타난다. 첫번째 차원의 몸(그 자체를 위하여 존재하는 몸)은 등반가가 등반하기 어려운 곳을 오르려고 하자마자 나타난다. 그는 이때 등산활동에 완전히 몰두해서 그의 몸을 완전히 잊거나 무시한다. 그러므로 그의 몸이 존재하는 것은 투사하는 움직임 속에서 뿐이다. 즉 이러한 몸은 단지 움직임으로서만 설명될 수 있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이 첫째 차원의 몸은 타인에 의해서 도구로 이용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Sartre의 첫번째 차원은 운동선수와 그 몸 움직임의 체험을 하나이게 한다.<sup>126)</sup> 이런 의미에서 Kleinman은 과학적 분석과 같은 방법으로는 우리 몸의 깊이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고 하였다.<sup>127)</sup> 이러한 인체의 특질은 타인에 위하여 결코 객관적 도구로서 이용될 수 없다.

두 번째 몸의 차원인 타인을 위한 존재로서의 몸은 등반가의 동료의 시선에 관찰되고 비춰진 몸이다. 타인의 시선 아래에서 등산가는 타인에 의해 그가 관찰되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몸의 차원은 타인의 관찰대상으로 이용된다. 여기에서의 변화는 등산하는 사람이 산을 오를 때 자신이 일에 몰두한 나머지 타인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게 된다는 것이다. 관찰자(등산자의 친구)는 등산자 그 자신이 이미 초월하고 있는 몸을 보고 있는 것이다. 즉 그는 지탱해 주는 등산화와 스틱과 그가 하고 있는 움직임, 다쳐서 피를

---

125) Ibid., pp.177-178

126) Carolyn E. Thomas, *Sport in a Philosophic Context*, Philadelphia : Lea & Febiger, 1983, p.101

127) Seymour Kleinman, "The Significance of Human Movement : A Phenomenological Approach", in *Sport and The Body*, edited by Ellen W. Gerber & William J. Morgan, Philadelphia : Lea & Febiger, 1979, pp.175-178

흘리고 있는 상처 등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때 그 몸은 관찰자에게는 단지 하나의 살아 있는 관찰대상일 따름이다.

이 두 번째 차원에서 볼 때 스포츠 경기의 관중들은 운동경기의 전술에 사용되는 기술과 도구, 그리고 운동선수의 운동상태를 관찰하며 눈에 띄게 의식적으로 운동선수의 몸을 활동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유기체로 취급한다. 따라서 이 몸은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체육현상에 대한 객관화된 지식의 범주에 속할 수 있을 것이다. Kleinman은 “체육은 이러한 객관화된 차원에서 인간의 움직임에 관한 연구를 제한시켜 온 것에 만족해 왔다”<sup>128)</sup>고 지적했다.

세 번째 차원의 존재방식인 ‘타인에 의해 알려진 몸으로 존재하는 나의 몸’은 등산자가 타인에 의해서 자신의 몸이 관찰대상으로서 간주되고 있음을 인식할 때 발생한다. 이때 등반자는 화가 나게 되고 불편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sup>129)</sup> 이러한 상황 아래 놓일 때 운동선수는 흔히 실수를 연발하게 된다. 확실히 운동세계에서 이러한 느낌은 자주 갖게 된다. 특히 관중들의 관심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려는 선수들은 이런 느낌을 받게 되며, 누구든 새로운 운동상황을 직면할 때 갖게 되는 느낌이다.

Sartre는 이러한 타인의 시선은 항상 공허함을 경험하게 하여 소외를 낳는다고 한다. 이러한 소외, 즉 혼자 존재한다는 것은 몸의 고립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타인과 함께 있으나 나는 작은 방에 갖혀 있다는 의미이다.<sup>130)</sup> VandenBerg는 그곳에 바로 이해와 동정, 우정, 그리고 사랑의 관점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이 견해를 긍정적으로 해석했다.<sup>131)</sup> 이 세 번째 차원에 있어 인간

128) Seiji Inoue, A Phenomenological Approach of The Sport Experience,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1984, p.50에서 재인용.

129) Seymour Kleinman, op. cit, 1979, p.178

130) William A. Haper "Man Alone", Quest, Vol. 12, May, 1969, p.57

131) Seiji Inoue, op. cit., 1984, p.50

움직임이 갖는 중요성은 시선에 있다. 인간이 움직이는 곳에는 항상 시선이 있다. 타인의 이해와 동정, 우정, 그리고 관람의 시선 속에서 타인이 내 편에 존재하고, 나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해와 확신 속에서 돋는 일을 가능하게 된다. 이것은 여러 스포츠 종목에서나 또는 매일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어떤 일이든지 상호신뢰로써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인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의 인간의 몸의 대한 이해는 체육적 깊과 관련된 스포츠 체험을 말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

더욱이 위에서 살펴본 Merleau Ponty, 그리고 Sartre의 신체에 대한 3차원적 존재의 분석은 체육적 깊을 연구하는 데 매우 유용한 분석이다. 특히 체육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어느 차원의 관점에서 학생들을 보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변화하게 된다. 인간의 객관화된 지식이 갖는 모순된 관점을 극복하려 했던 대자적 존재로서의 몸의 관점은 살아 있는 지식으로서의 체육 고유의 탐구영역이 될 수 있는 체육적 깊의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 3) 암묵적 지식<sup>132)</sup>

우리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Polanyi의 지식론에 있어서 가장 선언적인 명제라 할 수 있다. Polanyi는 지식의 본질에 대한

132) 원어는 'tacit knowing' 이기 때문에 '암묵적 깊'이라고 옮기는 것이 보다 정확하지만 기존의 '지식'이라는 보편적인 용어를 사용했다. 그의 저서 몇 군데에서 Polanyi는 'tacit knowledge'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는데 'tacit knowing'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지식의 내용과 방법, '하는 것'과 '아는 것'을 분리할 수 없는 지식의 작용상태를 일컬을 때 그는 주로 'tacit knowi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tacit knowing'을 이용걸은 Polanyi의 'Meaning(1975)'을 번역하면서 '목지'라고 옮긴 바 있고, 이은봉은 Polanyi의 'Science, Faith, and Society,(1946)'를 번역하면서 '암묵지'라고 옮긴 바 있다. 여기서는 '암묵적 지식'으로 옮겼다.

설명을 이러한 명제로부터 출발하면서 지금까지 주를 이루었던 지식론에 대한 재고를 요구한다. 그는 다음의 예를 들어 이 명제를 뒷바침한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아는 어떤 사람의 얼굴을 알아볼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지는 말할 수 없다. -중략- 최근에 경찰에서는 이러한 지식의 많은 부분을 통해 목격자는 우리가 아는 얼굴의 부분을 선택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끼워맞춰 상당히 닮은 얼굴을 형성해낼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는 적절한 수단만 주어진다면 얼굴에 대한 지식도 상호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방법을 적용할 때도 역시 그 순간 드러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는 사실을 바꾸어 놓지는 못한다. 게다가 우리가 기억하는 요소와 수집된 그림파를 어떻게 대응시켜 나가는지를 앞으로써 경찰의 방법을 사용할수가 있는 것인데 여전히 우리는 그 방법을 정확히 말하지 못한다<sup>133)</sup>.

우리는 어떤 얼굴상을 그 세부요소들이 무엇인지 규명할 수 없으면서도 그 요소들에 대한 우리의 맘을 통합함으로써 알아본다. 이 점에서 Polanyi 지식론은 게쉬탈트 심리학의 관점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그는 지식을 추구 할 때 수행된 경험을 ‘능동적으로’ 조직한 결과로 본다<sup>134)</sup>.

Polanyi는 이러한 사항에 주목하여 지식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구조를 밝혔다. 그것은 주체의 주관하에 의식을 세부요소와 전체를 합성해 내는 초점에 이중으로 둠으로써 지식이 통합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의식은 동일한 종류의 것이 아니라 하나는 종속적이고 하나는 초점적인 성격을 띠므로써, 그리고 이 두 가지 의식이 동시에 각각에 주어지는 가운데 지식이 통합되는 것이다. 이렇게 통합된 지식은 무엇을 ‘하는’ 혹은 ‘아는’(혹은 ‘보는’)데 있어서 도구의

---

133) M. Polanyi, op. cit. 1966, pp.4-5.

134) Ibid, P. 6

역할을 한다. 이 말은 Ryle의 분류처럼 ‘---라는 것을 안다(knowing that)’ 와 ‘---할 줄 안다(knowing how)’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라는 것을 안다’는 형태의 지식도 결국 ‘---할 줄 안다’는 지식의 형태를 띤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로 Polanyi가 자주 드는 예를 하나 들어보자.

장님이 길을 갈 때는 지팡이로 땅을 더듬어 지면의 높낮이와 전방에 장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가 의존해야 하는 것은, 손바닥에 느껴지는 지팡이가 주는 가벼운 충격들뿐이다. 그 충격의 위치나 강도를 물체의 위치와 정체로 대응시킴으로써 그는 사물을 파악한다. 이 두 가지의 대응은 마치 포도주 감별사와 같이 수없는 수행에 의한 감식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낱낱이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장님은 이 두 가지를 대응시킴과 동시에 사물을 파악한다. 이러한 면에서 ‘---라는 것을 안다’ ‘---할 줄 안다’는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Polanyi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눈으로 사물을 지각하는 것을 포함한 감각 지각도 수동적이거나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부요소를 전체로 통합하느냐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본다. 실제로 갓 태어난 아기에게 눈을 통해 들어오는 것은 빛의 잡동사니일 뿐이다. 그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주의 깊은 수행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지식은 하나의 실천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글에는 이러한 관점이 잘 나타나 있다.

나는 아는 것을, 알려지는 사물의 능동적 파악, 즉 능동적 기능을 요구하는 활동이라고 보고 싶다. 기능을 가지고 ‘아는 것’과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그것은 한 무리의 세부요소를 하나의 도구로써 기능적 성과 · 실제적인 것인 것인 이론적인 것인 것 · 의 형성에 종속시킴으로써 완성된다.<sup>135)</sup>

---

135) M. Polanyi, Personal knowledg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5.

그렇다면 지식이 암묵적인 부분을 포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Polanyi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예로 심리학 분야에서 1949년에 Lazarus와 McCleary에 의해 시행되었던 실험을 든다. 그들은 피험자에게 무수한 무의미 철자를 제시하면서 특정한 철자군(鐵字群)을 제시한 다음에만 전기충격을 주었다. 그랬더니 피험자는 전기충격을 가하기로 되어 있는 철자를 보여주자 충격을 예상하는 징후를 보였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했다. Lazarus와 McCleary는 이러한 능력을 ‘하부의식(subception)’의 과정으로 불렀다.<sup>136)</sup> 이러한 현상은 그 후 1958년에 행해진 Eriksen과 Kuethe의 실험에서도 보인다. 피험자가 특정한 연합의 단어를 말할 때마다 전기충격을 주었더니 피험자는 그러한 연합의 단어를 피함으로써 전기충격을 예견하게 되었다. 이 경우에도 여전히 피험자는 어떻게 이러한 행동을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 했다.<sup>137)</sup>

두 경우 모두 피험자는 전기충격을 유발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암묵적인 것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그것에 의거해서 전기충격을 예견했다. 여기서 우리는 암묵적 인식의 구조를 본다. 암묵적 지식은 두 가지 항을 포함한다. 하나의 항은 위의 실험에서 보면 전기충격을 가져오는 무의미 철자와 단어의 특정연합이다. 두 번째 항은 전기충격이다. 피험자는 두 가지 항을 연결시킴으로써 전기충격을 예견했다. 그러나 이 연결이 그들에게는 암묵적으로 남아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주의를 전기충격에 끌어 모았기 때문이다. 전기충격을 일으키는 요소들은 그것이 전기충격을 가져온다는 견지에서 종속적으로만 의존했다. 즉 둘째 항에 주의하기 위해 첫번째 항에는 우리의 의식을 종속적으로만 둔다. 여기서 우리는 의식의 두 가지 차원을 본다. 첫째는 종속적 의식(subsidiary awareness)이요,

---

136) M. Polanyi, op. cit. 1966, pp.7-8

137) Ibid, p.8.

둘째는 초점적 의식(focal awareness)<sup>138)</sup>이다. 이 두 가지 의식이 앞의 두 가지 항에 각각 부여됨으로써 첫번째 항은 종속적 요소가 되고, 두 번째 항은 초점적 전체가 된다. 여기에 한 항을 더 보태서 Polanyi는 지식의 세 차원이라고 한다. 그 세 번째 차원은 인식의 주체이다.<sup>139)</sup>

앞에서 언급한 실험의 예를 통해 보면 피험자가 전기충격을 싫어하므로 그것을 피하기 위해 전기충격을 주는 요소와 전기충격간의 연결을 학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결은 곧 지식의 통합이며, 이것은 특정한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을 때만이 인식은 통합된다. 그러므로 주체 없이는 인식도 없다고 보겠다.

주체라고 할 때, 그것의 핵심은 특정 의도와 목적하에서 기울이는 주의력이다. 특정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면 결국 새로 출현한 '전체'에 '초점적 의식'이 가해지고 '세부요소'에 '종속적 의식'이 가해지면서 결과적으로 의도와 목적이 달성된다.

Polanyi는 전면에 보이는 관객을 의식하여 평소에 능숙하던 연설이나 연기를 펼치지 못하고 당황해 하는 '무대공포증'은 의식을 정작 당면한 목적인 연설이나 연기의 수행에 두지 않고 청중이나 관객의 '눈'에 둠으로써 생기는 현상이다. 결과적으로 연설과 연기를 가능하게 하는 종속적 요소와 초점적인 전체의식에 가해두어야 할 의식이 적절하게 가해지지 않은 데 원인이 있는 것이다.<sup>140)</sup> 이것은 다시 말하면, 주의를 당면한 목적과 관련된 것들이 아닌 관련이 없는

138) 여기서의 의식은 awareness로서 consciousness와 구별할 것이 요구된다. awareness는 맑, 자각, 인식으로도 옮길 수 있는데 각각의 단어가 기준에 가지고 있는 의미에 의해 오염될 것을 염려하여 여기서는 의식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의식'으로 옮겼을 때에도 의식과 무의식을 구분할 때의 의미라든지 인간의 깨어있는 정신 전부를 일컬을 때의 의미와 혼동할 우려가 있다.

139) M. Polanyi, *Knowing and Being*, edited by Marjorie Green, Chicago : the univ. of Chicago Press, 1969, p.181.

140) M. Polanyi, op. cit. 1985, p.56.

것에 두거나 혹은 종속적으로 주의를 두어야 할 부분을 초점적으로 의식하므로 써 필요한 인식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의식은 두서너 곳에 분산될 수가 있다. 학습함에 따라서 더 많은 곳에 분산이 가능하기도 하고 주의의 전체량이 증가하기도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지식은 매우 역동적이다.

암묵적 지식은 어떤 것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의식<sup>141)</sup>을 끌어당김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것에 의존함으로써 초점적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의식이 초점적으로 모아지는 부분이 우리로부터 좀더 멀다. 장님이 지팡이로 주변을 인식할 때의 예를 다시 상기해 보자. 장님은 솔에 느껴지는 지팡이의 가벼운 충격으로 그 지팡이와 맞닿은 지면의 상태나 물체를 인식한다. 지팡이의 충격은 우리의 몸에 그대로 전달되므로 그것은 우리의 몸에 더욱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팡이에 의해 파악되는 지면과 물체들은 우리로부터 좀더 멀다. 그래서 Polanyi는 앞의 것을 근위항(proximal term), 뒤의 것을 원위항(distal term)이라고 한다. 이 근위항과 원위항은 단순한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그것에 의거하는 것이냐 파악되는 것이냐에 의한 구분이므로 곧 종속적 요소와 초점적 전체를 가리킨다. 이때 우리가 말로 명확히 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와 가까운 근위항과, 그것이 원위항과 맷는 관계이다.

종속적 의식은 초점적 의식으로 향해서 통합되어 있고 그것 자체로는 초점적으로 의식되지 않음으로써 비로소 인식전체는 합성되는 것이다. 초점적 의식

141) 의식은 약간의 시차를 두고 여러 군데 분산될 수가 있다. 심지어는 동시에 몇 가지에 분산될 수도 있다.(Wessells,M.G., 김경린역, 인지 심리학, 서울, 중앙 적성 출판사, 1984) 그중 특정한 지식에 할애되는 주의가 폴라니가 말하는 두가지 의식(awareness)이라고 할 수 있고 그중에서 초점적으로 향하는 부분이 전체이고 종속적으로 행하는 부분이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논자의 분석으로는 폴라니가 말하는 의식(awareness)은 주체의 관여의 양과 관여하는 대상의 수에 따라서 아주 느슨한 상태에서 가장 몰두된 상태의 연속선상에 놓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은 그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하며, 반드시 종속적 요소들에 의해서만이 출현되는 것이다. 그리고 종속적 요소들의 병렬적 난립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고, 반드시 초점적 의식에 통합되어야 온전한 인식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종속적 요소로부터의 초점에의 통합이라고 부른다. 이것을 ‘--부터 --으로(from - to)’의 관계라고 부른다<sup>142)</sup>.

인식이 순조로운 통합을 이루고 있을 때, 만약 종속적 요소에 의식을 돌린다면, 곧 그 종전의 인식은 파괴되고 과편의 한 조각만이 인식의 대상으로 남게된다. 종속적 요소 모두에 주의를 돌릴 수는 없다. 예컨대 쇼팽의 즉흥환상곡을 열광적으로 연주하던 피아니스트가 자기 의식의 초점을 명곡의 연주에서 자신의 손가락으로 돌리게 된다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던 아름다운 선율은 갑자기 어색한 전반의 두드림으로 한 순간에 전락하고 피아니스트에게는 둔탁한 전반의 느낌만이 남을 뿐이다.

그러나 피아니스트는 때로 부분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 피아노의 전반을 어느 정도 세기와 지속도를 가지고 압력을 가하느냐에 따라 음의 크기와 올림이 달라지는가를 검토하면 좀더 폭넓은 변화를 가진 연주를 구성해낼 수 있다. 종속적 요소에 대한 검토와 전체에의 통합을 교대로 하면 점차 전체적 실체에 대한 좀더 깊은 이해를 가져다 준다<sup>143)</sup>. 이 점을 들어 Polanyi는 분석과 종합을 독립된 별개의 것으로 보지 않는다<sup>144)</sup>. 다만 종속적 요소를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명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Polanyi는 주체, 종속적 요소, 초점적 전체가 이루는 암묵적 지식구조의 특징을 네 가지 측면으로 설명한다.<sup>145)</sup>

142) Austin Farrar는 의지의 자유에 관한 그의 책에서, 다른것에 주의하기 위해 어떤 것에서 주의를 거두어야 하는 국면을 말한 바 있는데 이것을 Polanyi가 자신의 암묵적 지식을 설명하는 데 적용했다.(The Tacit Dimension p.10)

143) M. Polanyi, op. cit. 1969, p.125

144) M. Polanyi, op. cit. 1985, p.115.

우리는 특정 기술의 수행에 주의하기 위해 근육활동의 조합에 종속적으로만 의존한다. 즉 목적 달성을 위해 세부적 운동에 종속적으로만 의존함으로써 그것의 조합의 이루어내는 목적을 달성한다. 이것은 암묵적 지식의 첫번째 측면인 기능적 측면이다. 또한 암묵적 지식의 구조는 주위를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끌 어오면서 나중 것을 생성해낸다. 다시 말하면 종속적 의식은 초점적인 것의 '출현'을 가져온다. 이것이 둘째로 지적할 수 있는 현상적 측면이다. 우리가 외국어가 아닌 모국어로 쓰인 문장을 읽을 때 글자의 외형은 사라지고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만이 투명하게 남는 경우가 이러한 측면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세 번째의 측면은 앞서의 무의미철자에 관한 심리실험에서 잘 드러난다. 특정한 무의미철자가 우리로 하여금 전기충격을 기대하게끔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전기 충격의 다가옴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의미적 측면이다. 이러한 여러 측면은 암묵적 지식을 두 가지 항이 서로 어울려 구성하는 전체에 대한 이해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해낸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존재론적 측면이다. 인식자와 인식대상의 관계가 세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는 이유로 Holbrook<sup>146)</sup>은 Polanyi의 관점을 존재론적·현상학의 접근을 취했다고 말하고 있다.

몸과 정신의 관계를 보는 Polanyi의 관점은 Husserl, Meuleau Ponty가 주장했었던 관점이며, 이러한 관점들은 근래에 이르러 Van Peusen에 의해 종합 정리된 바 있다.

Polanyi는 다음의 다섯 가지 범주에 모두 암묵적 지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sup>147)</sup>. 첫째는 보는 데 포함된 단순한 감각지각이고, 둘째는 상황이나 사람의 인상처럼 매우 복잡한 것을 감지하는 지식이다. 여기에는 포도주 감식, 생물학

145) M. Polanyi, op. cit. 1966, pp.10-13.

146) Holbrook,D., Furthur Studies in Philosophical Anthropology, Aldershot:Gower Pub. Co., 1988, p.189.

147) M. Polanyi, op. cit. 1969, pp. 164-165.

적 분류, 의학적 진단, 문학 및 예술에 대한 이해가 포함된다. 셋째는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발달하는 지식이다. 이것은 스포츠, 숙련된 노동자의 수행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지식이다. 넷째는 도구를 이용한 지식이다. 앞에서 예를 든 탐침, 망치의 사용이 여기에 속한다. 다섯째로 문법에 의한 언어의 사용 등 추상적 상징과 관련된 지식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들의 본질과 그 형성 방식은 앞에서 진술한 단순한 하나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Polanyi에게는 신화나 종교, 예술 모두가 의미 있는 지식이다. 시는 운율, 각운, 문법적 구조 등을 종속적으로 의식하고 전체적인 의미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비로소 음미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들의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지만 그 것의 의미는 전체 속에서만 드러난다. 우리는 편평한 캔버스를 종속적으로 의식하고 그 위에 펼쳐진 선과 면의 의미를 초점적으로 의식함으로써 미술작품을 이해한다. 이러한 종류의 의미에 있어서 Polanyi는 특히 인간이 갖는 상상적 힘<sup>148)</sup>을 강조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보았을 때 다른 어떠한 지식론보다도 Polanyi가 제시하고 있는 암묵적 지식 또는 개인적 지식의 개념은 체육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술하였던 체육만의 독특한 맛의 영역을 찾는데 있어서 중요한 인식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앞에서 살펴본 Meuleau Ponty의 인식주체로서의 신체라는 개념과 Sartre의 대자적인 신체의 존재분석은 체육 고유의 탐구영역이 되어야 할 체육적 맛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인식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 하겠다.

---

148) M. Polanyi, Harry Prosch, 김하자, 정승교 역, *지적자유와 의미*, 서울 : 범양사 출판부, 1992, p. 124

### 3. 암으로서의 운동수행

전술한 바와 같은 체육적 암의 개념과 그 인식 기반으로서의 인간 심신관과 암묵적 지식에 근거해 볼 때 체육의 세계는 하나의 암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리고 체육적 암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인간 움직임 그 자체의 실천이며, 이를 통해서 비로소 이론과 실기영역이 함께 수용될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운동수행이야말로 체육에 있어서 지식의 자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풍부해진다.

여기에서는 체육 고유의 탐구영역인 체육적 암과 그 사고의 중요성을 운동수행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파악하려 한다. 즉 체육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암의 인식론적 의미를 운동수행을 통하여 파악하려는 것이다.

#### 1) 체육의 기본 의미

지난 수십년 동안 체육학자들 사이에까지 유행해온 체육의 본성과 가치에 관한 원칙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신체건강과 기술(skill)교육으로서의 체육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체육의 본성 및 그 가치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에 대한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 철학이 없으므로 많은 곳에서 체육적 활동의 초점을 직접 참여하는 생산적 형태로부터 소비하는 방향으로 옮겨졌다. 즉 뛰어난 운동선수의 움직임과 같은 체육적 활동을 직접 실천하는 활동으로부터 그저 관중의 입장에서 보거나 아니면 단지 흉내내기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따라하는 수준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체육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식은 운동수행이라는 행동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신체활동에 대한 과학적 결과적 분석이나 체육적 심미 대상으로서의 심미성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운동수행과 함께 실현되는 체육적 창조력이란 하나의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어떤 것의 실현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현재의 체육학이나 체육교육

적 입장에서 보면 운동수행은 이차적 목적을 가지며, 그 상위 목적으로서의 교육에 보조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운동수행이 그 자체로서 체육의 목적이 되기보다는 부차적인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체육이란 단지 어떤 기구를 사용하거나 벽돌 위에 벽돌을 쌓는 의미의 신체적 기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견들은 대개 체육을 체육이게끔 만드는 인식론적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그것은 결코 체육이 가져야 할 그 고유의 깊이의 세계를 파악하지 못한다. 고립되고 사변적인 일련의 체육적 목적 때문에 과거의 체육적 지식이라 이름할 수 있는 세계에서는 ‘체육이란 현재 인간이 하고 있고 또한 지금도 만들어 가고 있는 어떤 것’이라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논리적인 보다 중요한 내용을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체육이라는 개념은 고정화된 명사적 개념이면서도 동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Nicholas Wolterstorff의 “음악이라는 작품이 있기 훨씬 전에도 음악은 존재했었다”<sup>149)</sup>라는 말은 체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사실 인간의 움직임을 인위적인 상황 속에서 하도록 만들고 그 움직임을 실제로 그 상황에서 다양한 기술로 실행하는 일은 인간의 운동수행능력의 발달과 관계가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전통적인 체육적 지식의 실패는 적어도 다음 세 가지 측면을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첫째, 체육은 의심할 것도 없이 확실한 하나의 깊이의 세계라는 것이다. 체육이란 인간이 자기 자신의 몸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일련의 행동과 지식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체육적 활동을 통한 가르침에 의해서 전달될 수도 있으며, 이것은 직접적으로 인간의 변화를 낳는다.

애초부터 체육이란 운동수행을 잘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운동의 내용 및 그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 때, 운동수행이란 일종의 지식의 자원이며,

149) Nicholas Wolterstorff, "The Work of Making a Work of Music", in *What is Music?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Music*, ed. Philip Alperson, New York: Haven Publications, 1987, p.187

그 자체로서 맑의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하겠다. 이미 누구나 타고난 체육적 발달 가능성은 운동기술을 배움으로써 확대, 심화되어간다. 그리고 야심에 차서 체육을 만들어내는 전문가들에게 있어서도 운동이란 그들이 알아야 할 맑의 자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지식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운동수행이야말로 모든 체육적 맑의 체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모든 체육교육자들에게 있어서 체육이라는 용어는 명사임과 동시에 동사적 의미를 지닌다. 체육활동을 하는 것은 모든 학생들의 실현가능한 목적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체육 그 자체를 위해서도 체육은 어느 누구나 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현 체육프로그램에서는, 운동수행중심의 프로그램에서조차도, 운동수행은 결코 수단적 가치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운동을 하는 것은 운동 프로그램에 있어서 체육적 체험을 하기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다. 일반적인 교육적 맥락에서 그것은 수단이라는 의미인것이다.

수단적 가치만을 인정하는 시각에서 볼 때 체육활동, 즉 운동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허용되지 않는다. 즉 체육적 활동을 하는 것이 모든 학생들에게 가치가 있는 사고나 맑의 형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이 암도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체육교육가들은 자기 자신이 여러가지 운동종목을 가르치는 전문인으로서 체육 고유의 탐구영역으로서 확보된 체육적 맑을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많은 교사들의 관심은 체육적 탁월함이 운동수행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도록 체육교육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운동수행을 강조하고 있는 체육은 사범계열의 체육과에서 가장 크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체육교육자들은 운동수행의 풍부하고 중요한 합리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한 채 체육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즉, '운동수행'이 체육에서 핵심적으로 추구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교사들은

합리주의적 그리고 과학주의적인 이론 중심의 지식관에 의해서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체육관련학교에서 열성적으로 제공하려 하는 교과과정이 흔히 체육의 실제상황과 무관하게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체육교사를 지망하고 있는 학생들이 배워야 할 중요한 것은 '체육을 하는 방법'과 다른 사람들에게 '체육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방법'이다. 물론 이 문제는 단지 사범 체육계열학과 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의학, 건축, 법학, 엔지니어링 등과 같은 전문직의 학교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면 이 문제는 도대체 어디에서 야기되고 있는 것인가?

Donald Schon은 이 문제를 아직 전문훈련의 토대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 근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sup>150)</sup> 예를 들면, 성공적으로 훈련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것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할 때 실제로 그가 알고 있는 것에 관한 이해가 결정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야구선수나 가수 등 자신의 일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삶을 구별하는 데에는 거의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을 봄으로써 실제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나타나는 삶의 질적 수준을 파악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수행수준의 본성에 관해서는 거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대부분의 문헌에서는 Kyle이 이야기하는 삶의 두 가지 방법중 하나에 속하는 실제로 '한다'는 방법적 지식을 대강 처리하는 곳으로 유도하고 만다. 마치 이것은 실제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을 다른 어떤 개념으로 취급하기가 모호하다는 것을 빌미로 하여 마치 아무런 생각이 필요하지 않는 기술이라는 표현으로 냉정하게 취급하거나, 단지 재능이나 직관 또는 영감 등과 같은 개념으로 취급해버리고 만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체육적 삶은 이러한 사고의 나약한 형태로 인하여 그 탐구

---

150) Donald A. Schon, *Education the Reflective Practitioner*, San Francisco: Jossey-Bass, 1987, p.8

의 길이 막히고 만다. 즉 과거의 체육학자들이나 교육연구가들은 단순하게 이 문제를 처리함으로써 그 길을 닫아버렸다. 이것은 우리들의 전통적 연구의 가정이나 방법을 곤란하게 만드는 어떤 중요한 체육현상을 단순히 파악하기 힘들거나 표현하기 힘들다는 평계로 이를 연구문제로 채택하지 않았거나 설사 문제로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 핵심이 아닌 주변에 집착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더구나 실제 운동수행으로 나타나는 신체활동에는 인식활동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가정 속에서 오랫동안 주로 과학주의연구가 지속될 수 있었다는 것이 체육적 맑의 세계에는 치명적이었다.

이상과 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의 지식형태와 지식의 자원으로서 흔히 우리가 운동을 한다고 할 수 있는 체육활동에서 체육 그 자체를 보여 줄 수 있는 움직임의 길로서의 '체육적 맑'을 생각하는 데에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 2) 맑의 형태로서 운동수행<sup>151)</sup>

만약 체육을 한다는 것이 어떤 종류의 재료에서 어떤 종류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운동을 하는 것에 포함된 행동들은 자연적이거나 우연적인 것이 아니다. 앞에서 살펴본 인간의 맑의 조건과 움직임의 의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이 자기 자신의 움직임으로 만들어내는 체육적 활동은 사려 깊은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때 의도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알고서 하는 것이다. 만약 황영조가 마라톤을 하고 있다면 그때 그는 그가 마라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황영조는 그 마라톤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마라톤경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안다. 그리고 일단 그 마라톤을 하기로 마음을 작정했다면 그가 선택한 독특한 행동의 과정(어떤 방식으로 달리며 경주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많은 선택

151) 김정명은 '체육'을 인간의 맑 또는 이해의 과정이나 그 결과로 파악하면서 맑의 형태로서의 운동수행을 'artful knowing'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다. (Gim, Jeong-Mung, Physical Education as 'Artful Knowing',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 1988, 참조)

가능성으로부터 그가 독특한 행동양식을 선택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선택과 결정은 먼저 선택의 자유와 판단의 자유가 고려되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움직임의 결정과 선택, 그리고 판단을 한다는 내용이 모두 사고(thinking)라고 하는 얼굴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정과 선택, 그리고 판단한다는 것은 어떠한 맥락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설명되어야 할 내용을 개념화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모든 체육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의도적인 행동들은 모두 사려 깊은 행동들이라고 하겠다. 특히 운동수행에 내포된 ‘사고하기’와 ‘행동하기’의 관계는 단순히 사고-행동, ‘사고-행동’ 등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다. 흔히 상식으로 판단되는 생각과는 다르게 이때의 운동행동이란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인 것 그 어느 쪽의 양자택일의 과정이 아니다.<sup>152)</sup> 만약 그렇다면 그 때의 사고(thinking)는 다음 과정에서 계속될 행동을 요구하는 행동 이전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체육연구는 그 모습이 사고와 행동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루어내는 하나의 모양 속에서 주제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sup>153)</sup> Saul Ross는 그 예로서 다음을 들고 있다.

한 환자를 수술하고 있으면서, 수술칼을 다루고 있는 의사는 동시적이라고 하는 이론적이면서도 실제적인 행동양식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행위는 바로 두 개의 분리된 요소도 아니며, 하나는 정신적이며, 다른 하나는 물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가 되어 있는 사고와 행동인 것이다. 하나의 행동은 그 행동을 일으키고 이끄는 사고로부터 따로 떼어내거나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sup>154)</sup>

John Macmurray는 이러한 총체적 자아가 통합되고 있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의도적인 행동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52) Gilbert. Ryle, *The Concept of Mind*, London : Hutchinson, 1949

153) Saul Ross, "Epistemology, Intentional Action and Physical Education," in *Philosophy of Sport and Physical Activity*, ed. P.J. Galasso, Toronto : Candian Scholars' Press, 1988, p.135

154) Ibid, pp.134-135

생각하는 자아와 행동하는 자아는 하나의 같은 자아이다. 행동과 사고는 그 활동하는 양식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자아라는 존재에 있어서 같은 지위를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정신만이 활동적지만 행동을 할 때는 사실 몸이 활동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마음 또한 마찬가지이다. 행동은 눈먼 것이 아니다. 우리가 행동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의식으로부터 무의식의 상태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우리의 감각과 지각과 사리판단은 신체 움직임에 따라 계속 활동적이다. 이때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모든 능력이 동원되고 있다는 면에서 자아의 가장 구체적인 활동이다.<sup>155)</sup>

체육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의도적 행동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행동을 연습하는 사람(외과의사, 조각가, 운동선수 등)의 얇은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때의 얇이란 행동 그 자체에 나타난다. Gilbert Ryle은 분명히 이 점을 “분명히 지적인 수행은 정신의 작업에 대한 단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정신의 작품이다”<sup>156)</sup>라고 지적하였다.

우리가 운동수행라고 부르는 의도적인 인간의 행동은 의식적이며 생각이 충만된 것이라는 단서야말로 바로 우리가 체육적 지식이나 체육적 얇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대하게 해준다. 이 생각을 기점으로 우리는 새로운 체육적 얇에 이르는 인식론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얇이란 것은 단지 언어의 세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것’으로도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론에서야 비로소 인간의 행동은 한 인간적 지성의 표현이 되는 것이다. 사실 얇의 세계는 개념화된 언어 표현에 국한할 수 없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환원시킬 수 없는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있다. 이러한 관점

155) John Macmurray, *The Self as Agent*, Atlantic Height, N.J., Humanities Press, 1957, p.86

156) Gilbert Ryle, op. cit, 1949, p.57

에서 볼 때 체육을 만들어가는 전문인들은 그들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암의 실제적 형태를 지성적이라거나 굳이 언어적 개념으로서 납득될만한 내용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 이러한 사고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체육의 고유한 암의 특징에 이를 수 있으며 운동수행은 그 암의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하겠다.

### 3) ‘아는 지식’과 ‘하는 지식’(knowing that and knowing How)<sup>157)</sup>

Gilbert Ryle이 ‘knowing that and knowing How’를 발표하고 난지 거의 40여년이 지난 지금도 과정적 지식(procedural knowledge)의 개념은 아직도 일반 철학에서 뿐만 아니라 체육의 영역에서 조차도 확고한 위치를 잡지 못하고 있다. 사고는 하나의 순수한 정신현상이며, 그 결과는 반드시 언어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아직도 인식론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실제적 지식의 본성은 Platon이 The Statesman에서, 그리고 Aristotle가 a Crasia라는 작품에서 그 정체를 증명한지 수세기가 지난 후에도, 그리고 William James, John Dewey와 Martin Heidegger에 의해서 그 주제가 중요하게 취급된지 수년이 지난 후에도 실제적 또는 과정적 지식이라는 것은 아직도 많은 교육자의 마음 속에 명제적 지식에 대한 부차적인 것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체육은 흔히 이러한 전통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정신 속에 순수하게 있는 어떤 것을 배우고 인식하거나 단지 신체의 단련만을 피하는 하나의 지식의 갈래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이 간파하고 있는 것은 훈련하는 몸과 이성적 행동 양식으로서의 지식이라는 개념이다.

방법적 지식과 명제적 지식의 분리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하나는 다른 하나를 함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테니스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테니스 라켓을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과정이 어떤 결과를 놓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암은 나의 행동이 그러한 바라는 결과를 놓게 된 이유와 방법을 설명할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Platon과 같이 권위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한 인간의 행위와 그 행위의 만듬이라는 끊임

---

157) Ibid, p.27

없는 항상적 성질이야말로 그 행동을 설명하는 능력이 있든 없든, 한 인간의 합리성을 파악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준거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 물론 효과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항상 암묵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성공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행동의 원리를 이해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어떤 것을 계속 성공적으로 하는 능력이란 우리가 소위 성공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구별하고 선택하며 이를 재생할 수 있음을 실제로 보여준다. 이때 이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오래된 내용과 새로운 도전 상황을 결합시켜야 하는 미래의 상황에서 우리의 효율적인 행동을 적용하고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체육적 맑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두 가지 내용에 도달할 수 있다.

첫째, 지식을 갖춘 행동의 구체적인 몸과 이해의 통합은 바로 동사적인 의미로 파악된 '체육함'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체육함이든간에 우리가 운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서 단지 일련의 행동과 그 이해 내용을 우리 자신의 몸으로 지니고 다닐 수 있다.<sup>158)</sup>

운동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모든 형식은 우리가 일련의 독특한 행동과 그 행동의 원리를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으며, 하나의 상황에서 다른 상황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따라서 모든 체육적 맑의 형식은 그 존재를 믿을 만하고 비판적이라는 충분한 의미에서 개발될 수 있는 행동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진정으로 테니스 라켓을 다루는 방법이나 무술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 움직임의 평가와 조절이라는 중요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확실히 능숙한 외과의사처럼 능숙한 운동선수는 여러 가지 운동의 원리를 자신의 움직임으로 실현해낼 수 있는 방법을 단련 또는 연습을 통해서 체득해야만 한다. Gilbert Ryle에 따르면 어떤 내용을 실제 상황에서 훈련할 때 동반되는 지능이란 언어적으로 그 내용을 파악할 때 동반되는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sup>159)</sup>

---

158) Cf. Sparshott, *The Theory of the Arts*, Princeton, N. J. Princeton Univ. Press, 1982, p.31

159) Gilbert Ryle, *op. cit.*, 1949, p.49

운동수행을 통해서 체육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은 확실히 마음 속에 인간의 움직임에 대한 어떤 규칙이나 원리를 간직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움직임을 만드는 적당한 도전이나 기회를 만날 수 있는 폭넓고 유연한 이해력을 갖고 있다. 부언하자면 운동수행을 이루고 있는 모든 동작들이 항상 어떤 운동상황에서 적용하고 이를 연구할 수 있는 원리는 있으나 이를 언어로 항상 환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체육적 노하우(know-how)를 근거로 우리가 체육을 연구하거나 그 활동을 만들어내는 것이 자동차의 바퀴처럼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우리의 행동과 이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기술(skill)과 지식, 명제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이 날카로운 차이를 나타내지만 이러한 구별은 사실 잘못 이끌어내진 것이다.

본 연구자는 과정적 지식이나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체육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의도하고 있는 능숙함과 효율성의 명백한 의미와 과학적 지식을 구성하고 있는 인간 움직임의 수평적 범위를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용어로서 앞에서 언급한 ‘체육적 깊이’를 제안하고 싶다. 이 관점에서는 체육적 깊이이나 운동솜씨의 완성된 수준은 숙련된 솜씨의 수준뿐만 아니라 체육인의 정신이라는 수평면에 나타난 능력의 깊은 범위에 의해서 구별될 수 있는 것이다.

#### 4) 운동수행의 개념

인지심리학자에게 체육적 활동은 인간의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인식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운동경기는 관중의 섬세한 정신적 재현능력에 일치하는 운동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Nigel Harvey이 말했던 다음의 내용은 이 개념을 잘 설명해 준다.

한 가수가 노래를 부른다. 그녀는 노래를 하는 동안에 그 노래를 예습 없이도 연주할 수 있을 정도로 배워야 한다. 여기에서 행동은 환경으로부터 직접 이끌어내진 기준에 의해서 직접 통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적인 재현이 바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 노래하는 능력을 돋는 기능을 조절하는 변수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바로 내적 상상력이다.<sup>160)</sup>

이상과 같은 Harvey가 누락시키고 있는 내용은 바로 운동수행과 같은 음악수행을 그 자체와 자연스러운 어떤 것으로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술한 체육적 맑은 단지 인체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 조직되고 전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의 몸의 움직임으로써 체육을 하는 것은 명백하게 말해서 움직임으로 꽂힐 수 있는 인간의 운동 가능성을 움직임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 그 이상을 포괄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스포츠 게임을 하고 있는 한 운동선수가 하고 있는 일을 연설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일과 비교함으로써 찾아볼 수 있다. Thomas Carson Mark는 이런 비교를 시도해왔다.<sup>161)</sup> 다음 내용을 살펴보자.

만약 내가 철수라는 친구와 테니스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세 게임 모두를 철수가 이긴 후에 철수가 나에게 “정석아, 이제 그만할까?”라고 말했을 때 나는 중얼거리며 “나는 아직 싸움을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대답했다고 하자. 그리고 내가 한 말은 누군가가 이미 사용했던 말을 나는 단지 어떤 상황에 맞게 인용했을 뿐이라고 생각해 보자. 여기서 내가 실제로 했던 일은 무엇일까?

첫째, 나는 누군가가 이미 사용했던 말을 인용한 것이다. 인용한다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양상을 보여준다. 즉, i) 다른 사람이 했었던 바로 그 말을 제시하는 것. ii) 자기 자신의 의도를 다른 사람의 의도와 같기를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전술이나 사건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한 사려 깊은 의도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철수에 대한 말대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나는 단지 “그래”, “아니”라고 단순히 대답하는 대신에 “나는 아직 싸움을 시작도 하지 않았어!”라고 말한 것은 내가 그 말을 사용했던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그 말을 내가 주장하고픈 어떤 것을 위해서 사용했다. 나는 정확히 내가 철수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160) Nigel Harvey, "The Phychology of Action : Current Controversies," in Growth Point in Cognition, ed. Guy Claxton, London : Routledge, 1988, p. 70

161) Thomas Carson Mark, "Philosophy of Piano Playing : Reflections on the Concept of Performance,"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41, 1981, pp. 299-324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인용문이 하나의 주장이 되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사용한 인용문이 계속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는 이해와 함께 이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사려 깊은 의도가 있어야만 한다.

인용한다는 것과 주장한다는 것은 운동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평행성과 같다. 우리는 어떤 농구선수가 다양한 기술로 농구게임을 풀어나가고 있을 때, 그 농구선수는 이미 농구 규정 및 규칙에 내포된 정확한 움직임과 함께 그가 만드는 움직임이 농구라는 게임을 이루고 있는 움직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셈이다. 농구선수가 게임에 임하고 있다는 것은 대화에서 인용문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게임을 하는 일에는 단지 우리가 필요할 때 인용문을 사용하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이 있다. 실제로 책에 지시된 움직임을 실제 게임의 움직임으로 만들어 게임을 하는 것은 단지 인용한다는 차원에서만 본다면 지시된 어떤 동작을 만들어내는 것 뿐이다. 여기에서 게임에는 더 많은 일이 있다는 의미는 단지 어떤 인용문을 인용하는 것과 그 인용문을 자기 의견을 주장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데 있다.

다양한 운동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움직임들이 하나의 게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운동선수는 단지 책이나 지도자가 지시한 것만을 인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게임에서 의도하는 맥락에서 그것을 자신의 동작으로 주장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가 어떤 게임상황에서 과거에 사용했던 어떤 동작 내지는 품을 인용하듯 사용하는 것은 먼저 그 동작이 그 게임의 상황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며, 그 움직임이 그 게임에서 어떻게 상황변화를 일으킬지를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단지 이해되지도 않고 상황에 맞지 않는 동작이나 품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그 게임에서 자신의 움직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게임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주장하기 위해 다른 누군가의 말을 인용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그 게임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해석을 표현하기 위해 이루어진 게임의 움직임을 연구한다. 어떤 경기이든지 그 경기를 수행한다는 것은 다양한 움직임만을 만들어내는 것만이 아니라 이해와 해석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운동수행이 요구하는 것은 단지 책에서 지

시하거나 전에 수행되었던 움직임을 재생하는 것만이 아니다. 체육활동은 단지 어떤 일정한 품을 재생하는 일과 같이 취급할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체육이라고 할 수 없는 행위일 것이다.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인용문을 활용하여 주장을 펼치는 것처럼 운동 수행은 단지 전에 습득했던 움직임을 독특한 자신만의 행동으로 만들어 게임상황에서 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체육적 맥에 있어서 운동수행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것이다. 활동 그 자체로서 초점을 잡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은 운동 선수의 의도적 행동을 통해 투사된 게임전체를 이루는 움직임의 개인적 개념이다. 그러므로 주어진 게임의 상황에서 수행되는 움직임의 방법에 덜붙여서 선수는 그가 하고픈 자기 자신만의 게임운영의 개념을 말로써가 아닌 그 자신의 체육적 행동으로 이루어내야 한다.

## 5) 지식의 자원으로서 운동수행

현재 체육교육에 있어서 추구하는 목적의 바탕을 이루는 가장 일반적인 첫번째 생각은 바로 ‘운동수행’이 어떤 목적에 이르는 수단인 것이다. 그 동안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생각에 따르면 만약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 들어오게 되면 좀더 나은 건강을 얻게 되고 자기 움직임의 지각과 반응이 풍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체육교육에 대한 생각은 다소 옳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일련의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움직임을 재생산하고 재구성함으로써 학생들은 자기 자신의 건강을 가꿀 수도 있고 움직임에 대한 지각과 반응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둘째는 운동을 실천하는 일은 비슷한 체육활동의 기본 구조나 체육활동이 아닌 움직임의 모습을 이해하는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단지 객관화된 대상물의 집합으로 오해된 채로 연구되었던 인간의 움직임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다.

불행하게도 수단적 가치로서 인정되고 있는 운동수행이라는 개념은 중요한 본질적 요소를 간과하였다. 게임 속에서 자신의 움직임을 전개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훈련규칙과 운동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러나 그는 또한 이러한

원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다고 하겠다. 게임을 하는 동안에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모든 행동이나 생각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심미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이며 실제적이고 역사적이므로, 예술적인 일련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모든 유형의 퍼포먼스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분야에 존재한다.

인간이 하고 있는 다양한 퍼포먼스에는 지난 동안의 자신의 한계와 예견을 초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실현하는 노력으로서 사려 깊은 의도와 행동이 동원된다. 그러므로 체육적 상황에서 운동동작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이를 훈련하는 사람이 훈련 수준이 지니고 있는 예전 가능한 절차와 수준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인 반면에 운동경기를 해석하고 연구하는 것은 실제 게임상황에서 선수 자신이 자신의 의사결정과 기회, 문제 등등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가르쳐준다. 간단히 말해서 진정한 운동수행이란 생산적인 사고와 평가적인 사고를 모두 포함한다.

운동수행이나 게임의 결과는 미리 보장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운동수행을 하면서 얻는 이해는 단지 과정의 복사가 아니라 총체적 자아의 살아 있는 나의 전개인 것이다. 체육을 하고 있는 사람은 체육적 행동 속에서 체육적으로 사고하고, 그 체육적 행동 속에서 체육적 맑을 알게 되며, 그 체육적 행동 속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살펴보았을 때 운동수행으로서의 체육이 갖는 교육적 가치는 체육이라는 것의 가치가 이차적인 것이 아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운동수행 그 자체로 옮기기만 하면 우리는 오히려 중요한 어떤 것을 실현할 수 있다. 우리는 운동을 함으로써 체육의 가르침과 학습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육적 활동을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체육에 있어서 전술한 체육적 맑을 기반으로 하는 운동수행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다. 주어진 체육적 활동에 내포된 체육적 맑을 이해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먼저 ‘체육적 활동’을 이루고 있는 ‘체육적 맑’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맑은 결국 체육적 활동을 학습함으로써 생기는 것이다.

Gilbert Ryle은 이와 같은 진술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이해란 방법적 지식

의 일부이다. 특별한 종류의 지적 수행을 위해서 요구되는 얇이란 일종의 퍼포먼스에 나타나는 능숙함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sup>162)</sup> 환언하면, 위에서 논의한 방법으로 ‘운동수행’을 배우지 않고 단지 개념적으로나 명제적 지식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또는 관중의 자격으로 구경하는 방법으로만 체육을 배운다는 것은 현재 수행되고 있는 상황으로서의 체육에 대한 간접적 지식만을 얻게 될 뿐이다. 우리는 ‘체육’을 아무런 운동수행 방법도 모르면서도 배울 수도 연구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진정한 체육의 세계는 직접 운동수행을 통해서 그 스스로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준다.

John Dewey는 체험으로서의 예술에 대하여 비슷한 주장을 하였다. Dewey는 “단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비추어 볼 때 진정으로 어떤 것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의 인지적 행동능력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보는 사람의 입장이든 직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건 더욱 정확하고 강렬하게, 그 깊이에 놓여 있는 의미 속에서 살아나게 한다.”<sup>163)</sup> 이러한 ‘운동수행’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것이 직접 요구되는 것을 Dewey는 학습자의 인지적 행동능력의 일부인 ‘준비성’<sup>164)</sup>이라고 불렀다. Dewey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자세히 표현했다.

숙련된 의사는 다른 의사의 수행능력의 예술적 경지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는 분명한 말로 표현할 수는 없으나 그 자신의 몸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피아노로 음악을 만드는 피아니스트의 연주와 피아니스트의 움직임과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서투른 초보자들이 인식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듣고 있는 것이다.<sup>165)</sup>

Dewey가 지적한 것처럼, 뛰어난 체육인들은 그 자신이 실제수행에서 자신들의 운동수행을 전개하는 것처럼 보는 자의 태도와 비평적 자질을 갖추고 있다. 뛰어난 체육인들은 주어진 게임속에 들어있어야 할 내용을 알고 있으며, 그 게

162) Gilbert Ryle, op.cit, 1949, p.53

163) John Dewey, Art as Experience, New York : G.P. Putnam's Sons, 1934, 1958, pp.97-98

164) Ibid, p.98

165) Ibid

임을 만들어나가는 선수들이 갖추고 있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관심을 좀더 오랫동안 체육적 맑에 기반한 운동수행으로서 체육에 유지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체육의 전망을 얻게 된다. 야구하는 것을 배우는 어린이가 만약 “당신이 이기든 지든 상관없어,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게임을 하는 방법이야”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을 그가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게임을 전혀 다르게 이해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자. 어떤 일을 수행하는 방법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자신의 지각과 이해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전술한 체육적 맑이 기반하고 있는 운동수행에 있어서 하나의 게임은 더 이상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이미 그 자체로서 중요한 것이며, 그것이 살아 있는 과정인 셈이다. 이때 게임을 한다는 것은 만약 그 게임을 참된 스포츠 정신과 새로운 전술 훈련 및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한다면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 것이 된다. 이런 인식의 맥락 속에서는 게임에 패배했을 때조차도 그 패배가 가치롭다. 이미 그 게임이 올바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운동수행이 어떻게 체육적 맑의 원천으로써 작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하도록 이끌어 준다.

## 6) 체육 그 자체를 위한 운동수행

인간은 어느 정도 ‘체육하는 인간’이라는 말로 정의될 수 있다. 많은 체육학자들은 우리들에게 시공을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이 세계의 모든 곳에서 현재 체육이라는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 맑의 양식과 체육활동을 만들어왔다는 것을 알려준다. 결국 ‘어떤 종류의 체육적 맑이나 태도가 중요한가’라는 문제와는 무관하게 사람들은 체육하는 것 그 자체가 즐겁고 매력적인 체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왜 그럴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과거의 공식적 입장에서 주장되어 왔던 체육의 교육적 입장보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즉 인간행동에 있어서 실존과 자아의 개념이 그것이다.

Michalyi Csikszentmihalyi에 의하면 개인적 의식의 진보는 의식을 조절하고

건설적인 지식을 증가시키는 활동적 탐구에 종사하는 것에 달려 있다. 이러한 탐구는 자아의 목표와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적 상황에서의 경험보다는 더욱 만족스러운 체험이 된다. 우리의 주의력과 기억을 생리학적이며 사회학적 만족을 위한 유목적적인 충동에 두지 않고 도전적 활동 그 자체에 투자함으로써 우리는 자아의 새로 생긴 구조를 이끌 수 있는 존재 지향적인 체험의식이 열리게 된다.<sup>166)</sup>

이러한 의식을 회복시키는데 요구되는 조건은 다음 2가지이다.

첫째는, 하려고 하는 어떤 일이며,

둘째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즉 '하는 지식'이다.

참으로 방법적 지식은 현재 수준의 방법적 지식에 필적할 수 있는 도전이라면 어떤 것이든 간에 참여자에게 건설적인 맑을 제공할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동시에 Csikszentmihalyi는 만약 이러한 도전과 그 도전에 필수적인 방법적 지식이 현재보다 더욱 복잡해지고 난이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건설적인 지식과 즐거움을 계속 제공하고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의 활동이 계속해서 건설적인 지식을 제공하려면 그 활동은 내적인 역동성을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그것은 그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계속적인 추구활동을 일으키는 방법적 지식의 발달수준에 걸맞도록 도전 수준을 높임으로써 계속적인 탐구활동을 하게 하는 요인인 것이다.

인간의 즐거움은 복잡성의 명확한 구조의 이해와 노력에 따른 진보의 과정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조건이야말로 도전상황과 이에 걸맞는 방법적 지식을 조절함으로서 체육적 맑에 이르게 되는 체육적 조건인 것이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운동수행은 체육적 맑이라고 할 수 있는 체육의 구조적 지식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운동수행은 체육적 도전이 만나는 체육적 자질이나 그 가능성을 현재성속에서 개선하는 방법과 함께 그 노력에 따르는 진보수준을 마련해주기

---

166) Mihalyi Csikszentmihalyi, *Introduction in Optimal Experience : Psychological Studies of Flow in Consciousness*, ed. Mihalyi Csikszentmihalyi and Isabella Csikszentmihalyi, Cambridge : Cambridge Univ. Press, 1988, p.29

때문이다. 운동수행은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그 자신의 행동에 관한 맑을 제공해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의 현재성을 파악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자기이해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sup>167)</sup>

행동하는 사람이 전개하는 움직임의 종류와 질, 그리고 그가 자신의 행동으로 만들어내는 변화들은 그 자신의 자아에 관한,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자아의 관계에 관한 건설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Csikszentmihalyi는 “건설적인 지식이란 움직임을 하는 사람의 힘(자신의 생명력을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의 힘)에 관한 지식이다. 이러한 지식이야말로 체육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취득해야 할 가장 의미 깊은 정보일 것이다”<sup>168)</sup>라고 말했다. 우리가 체육활동을 실천함으로써 습득하고 전개시킬 수 있는 체육적 맑은 바로 그러한 건설적인 참지식을 얻는 열쇠이다. 운동수행을 통하여 학생들은 그들 자신의 의도적 활동이 자신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그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결코 존재하지 못하고 말았을 그런 성취를 얻는다는 것을, 체득하게 된다. 체육적으로 행해진 운동수행과 그 이해의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전 존재를 인간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그 실체를 체험했던 모든 방법을 모델로 하여 탐구한다.

건설적인 지식의 패러독스는 사람들이 성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큰 흥미와 만족 뿐만 아니라 즐거움까지 준다는 사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체육교육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는 학생들 자신이 이미 개발 가능성을 갖추고 있는 체육적 맑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체육적 맑이란 과정적 지식 또는 방법적 지식의 독특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 지식의 자원으로서의 가치 또한 독특하다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체육 그 자체를 위한 체육교육이란 자아 그 자체를 위한 운동수행을 뜻하게 된다. 더구나 운동의 세계는 그것이 제공할 수 있는 건설적인 지식의 양과 질이 무한하므로 그것이 제공할 수 있는 즐거움 또한 무한하

167) Mihalyi Csikszentmihalyi, "Phylogenetic and Ontogenetic Function of Artistic Cognition," in *The Arts, Cognition, and Basic Skills*, ed. Stanley Madeja, St. Louis :CEMEL, 1978, p.122

168) Ibid, p.123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체육 고유의 탐구세계가 되어야 할 체육적 맑의 입장에서 볼 때 체육교육의 교과과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일반적 조건이 있다.

첫째, 운동수행 활동을 단지 취미나 재미삼아 가볍게 해보는 것으로는 자아에 관한 어떠한 가치 있는 맑을 체득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체육에 있어서 구조적인 체육적 맑의 성장은 명제적 지식과 과정적 지식의 성장과 관련이 있다. 한사람의 기술이 세련되고 다양해지면 그럴수록 그 사람이 결실해낼 수 있는 자기 존재에 관한 정보는 더욱 많아지며,<sup>169)</sup> 체육현상에 관련된 학문적 연구성과 또한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체육실기교육에 있어서는 ‘내용의 깊이’야말로 그 ‘폭’을 뛰어넘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로 체육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의미가 깊은 체육적인 움직임을 실천하고 이를 스스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각자의 운동능력 발달을 도모해야 한다. 학생들의 체육적 자질의 개발은 스스로를 해석할 수 있는 체육적인 기회가 제공되었을 때 가치로운 어떤 일을 하는 즐거움과 함께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본질적으로 학생들은 특별한 운동훈련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체육적 맑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학생 자신의 움직임을 만드는 절차와 주어진 운동훈련의 원리를 연결시킬 수 있는 체육적 자질을 개발시키도록 고무된다. 이 때 자신들의 체육적 맑을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체육적 사고와 체육의 독특한 활동을 이루는 움직임의 기준이라는 특별한 방법을 스스로의 움직임에 따라서 귀납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의 전체로서의 체육과 체육 그 자체가 지닌 각각의 이론 및 실기의 세계는 체육교사나 학생들에게 그들 자신과 과거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련 속에 체육적 활동에 관한 건설적 지식을 마련해 주고 있는 오랜 전통에 놓여 있다.

실제로 우리가 가치롭다고 평가하고 있는 체육적 활동은 그 자체가 훈련과 경기라는 오랜 전통과 연결되어 있다. 체육을 배우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체육

---

169) Ibid, p.124

학자와 체육학습자들이 이루어놓은 노력과 함께 그들의 탐구의지가 담긴 체육적 암의 세계를 함께 공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운동수행을 통하여 체육을 잘 실천하고 그 해석방법을 배울 때, 학생들은 객관적인 동작의 심미성만을 이해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셈이 된다. 그들은 현재와 과거의 운동선수와 지도자들의 노력과 상황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인간의 암의 조건과 체육에서의 암, 그리고 인식주체로서의 신체와 암묵적 지식이라는 개념과 함께 체육 고유의 탐구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체육적 암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인간의 움직임은 동물의 움직임과는 달리 유보적이며 사고가 깃든 것이다. 그 움직임의 변화 가능성은 인간의 미완성적인 몸의 개방성에서 기인하며, 그 개방된 움직임이야 말로 인간성의 표현이다.

인간 움직임의 개방성은 바로 인간의 암에 대한 욕구와 관계가 있다. 흔히 지식은 방법적 지식과 명제적 지식으로 구분된다. 체육에서의 암이란 인간의 움직임을 위한 암의 기능을 통해서 파악되어야 하기에 이론과 실기의 구분은 사실상 무의미해진다.

그러면 체육의 독자적 탐구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체육적 암의 세계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체육이라는 이름하에서 제공된 다양한 실기와 이론을 배움으로써 '체육적 암'을 체득했다는 말은 바로 우리의 움직임을 운동상황에서 이해하고 실천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다. 이는 체육이라는 활동을 기반으로 할 때 인간의 움직임 현상과 그 움직임의 길을 자신의 움직임에 깨어 있는 상태에서 체득하고 이를 실천하는 암의 상태이자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몸의 길'이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이상의 '체육적 암'의 인식 기반은 Merleau-Ponty의 인식주체적 신체와 Sartre의 대자적 존재로서의 신체, 그리고 암묵적 지식론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인식 기반에서 볼 때 체육적 암으로 주장되는 인간 움직임의 길이란 운동수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체육에서 독자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암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체육적 암의 영역을 탐구해 나가는데 있어서 그 지식 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바로 체육의 특성상 '운동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체육적 암과 관련하여 파악된 운동수

행의 영역은 단지 과학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접근되어 밝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술한 인식주체로서의 몸이라는 주체적 참여와 함께 개척될 수밖에 없는 깊의 세계이며, 그 세계는 무한히 넓은 까닭에 체육적 깊의 자원으로서의 운동수행이라는 영역은 연구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운동수행과 체육적 깊을 기반으로 하여 과거와 현재의 체육지도자와 연구자, 그리고 체육활동을 향유하는 자들은 모두 함께 체육의 세계를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체육적 지식 또한 그 정체성의 기반을 그곳으로부터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V. 체육적 앎과 체육의 재정립

앞에서 본 연구자는 우리가 체육이라고 이름하는 현상에 대한 연구의 기반으로서 다른 연구영역에서 추구하는 지식과는 구별될 수 있는 체육 고유의 탐구영역인 ‘체육적 앎’이 존재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러한 ‘체육적 앎’에 기초해 볼 때 현재의 ‘체육’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인가?

본 장에서는 먼저 앞 장에서 규명된 체육적 앎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하여 ‘체육’개념의 재해석을 체육의 본질적 가치와 함께 살펴보고, 다차원적으로 나타난 체육적 지식의 통합 가능성을 모색한 다음, 마지막으로 체육교육의 목적 및 목표, 그리고 그 교과내용의 재해석을 함으로써 체육교육의 전개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체육’ 개념의 재해석

흔히 사람들은 체육을 체력을 기르거나 운동기술이나 기능 또는 스포츠와 운동경기라는 의미로 해석하거나, 테크리에이션 활동이나 건강을 유지하는 수단쯤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체육이 뭐지요?”라고 질문하면 “뭐 그런 새삼스러운 질문을 하느냐”는 표정을 하면서 흔히 “심신을 단련하는 겁니다.” “운동경기요”, “스포츠요”, “건강을 위한 신체활동이요”라고 대답하는 것도 일반적인 체육에 대한 생각들이 학생들에 의해 표현되는 것이겠다.

이렇게 체육을 생각하는 것은 굳이 일반인들만이 아니라, 체육을 입안하고 행정관리하는 사람들이나 체육을 전문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또한 거의 대

동소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향은 아마 체육(Physical Education)이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체(體)’라는 말 때문일 것이다. 우선 체육하면 정신이라는 개념과 대응되는 ‘체(體)를 육(育)한다’는 의미가 가장 가깝게 해석되기 때문이다. 즉 ‘체(體)’를 ‘육(育)’한다는 말은 신체적 힘의 증대, 체격 발달, 신체적 건강, 신체적 기능이나 기술 등과 관련하여 생각하는 것이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운동경험에 비추어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체육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체육을 실천하거나, 가르치고 연구할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체육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체육은 신체발달만을 돋고, 체격을 보기 좋게 만들어주며, 근력을 강하게 함으로써,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거나 어떤 운동기술이나 기능을 연마하는 내용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만이 아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체육’이라는 것은 그 자체의 깊이의 탐구영역이 있으며, 그것은 바로 인간 움직임의 현상과 그 움직임의 길을 이해하고 깨달으며, 그 의미를 자신의 움직임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그것은 학문적으로 그것에 관한 연구이며 교육적으로 그 내용을 운동수행과 함께 가르치고 배우며 깨우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체육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건강이나 체력발달 등과 같은 개념해석에 갖혀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체육이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문제로부터 출발된 것 같다. 우리는 여기서 체육이라는 용어의 모호함과 그로 인한 외연과 내포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대체로 체육이라는 개념은 지금까지도 다소 혼란스럽고 애매모호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체육이라는 개념의 형성 및 정착과정의 역사성 문제이며,  
둘째는 체육이라는 개념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관의 문제이며,  
셋째는 첫째와 둘째와 관련된 ‘체육(體育;Physical Education)’이라는 개념  
의 한계성 문제이다.

먼저 체육이라는 개념형성 및 정착과정의 역사성의 문제를 살펴보자.

누구나 인간의 역사를 한번쯤 생각해 보면 오늘날과 같은 체육의 개념이 형성되기 훨씬 이전부터 체육과 유사한 형태의 신체활동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본래 의미의 신체활동은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그 필요에 의해서 인간의 움직임이 유형화된 것일 뿐, 오늘날과 같은 체육적 활동의 의미로 이해되지는 않았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실 ‘체육’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신체활동이 교육의 의미로 정착된 것은 19세기 초이다. 1881년 미국의 Hitchcock가 ‘A report of twenty years experience in the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and Hygiene in Amherst College to the Board of Trustees’를 발표한 후 체육은 미국 학교교육의 프로그램으로 인정되었고, 그 후 그것은 신체의 발달, 위생, 건강을 그 목표로 표방한 ‘Education of the Physical’이 그 이념이 되었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에 체육이라는 이름으로서 소개된 것은 20세기에 이르러서이다. ‘Physical Education’을 한자로 직역한 ‘체육(體育)’이라는 일본인들의 개념이 구한말과 일제시대를 거쳐 체조라는 개념과 함께 사용 정착된 것이다.

그리고 19세기 말부터 체육은 신체훈련(physical training), 체조(gymnastics), 스포츠, 그리고 운동경기, 유희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신체조’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것은 진보주의적 개념에 근거한 ‘Education through the Physical’<sup>170)</sup>이라는 하나의 운동형식을 떤 슬로건을 의미했다. 해방 이후 민주국가를 표방한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을 통해 아동중심의 유희적 활동과 스포츠를 교과에 도입하게 된 것도, 그리고 이를 ‘신체육’이라고 명명한 것<sup>171)</sup>도 이런 영향 때문이다.

170) J. F. Williams, *The Principles of Physical Education*, W. B. Saunders Company, 1957, p. 7

171) 김달우, 해방이후 학교체육의 재편 및 정착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2년 2월, p. 99

개념의 표현은 명사로 표현되며, 체육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체육연구의 중요한 출발점이다. 그러나 체육이라는 것은 학문적 연구를 기반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늦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오히려 주관적으로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동안에 그 개념이 모호한 상태로 굳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와서야 개념해석을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개념을 해석하려는 노력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그 개념의 한계로 인하여 그 개념을 다른 명칭으로 대체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도 이루어졌다. 그들은 체육은 학문성 문제와 관련하여 체육이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교육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차원에서 체육현상을 조명해 보려는 노력을 하였던 것이다. 그들이 새롭게 제안한 이름들은 “Movement Science”, “Kinesiology”, “Activity Science”, “Exercise Science”, “Sport Studies”, “Human Movement”, “Kinanthropology<sup>172)</sup>” 등이다.

이런 개념이 학문성과 관련되어 나온 것은 1970-1976년에 걸친 “체육은 신체운동의 예술이며 과학이다”라는 정의가 일반적으로 수용된 데에 있다. 신체운동의 예술은 운동기술의 예술적 우아미, 동작의 완벽성 및 아름다운 표현, 게임에서 이루어지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 절정감 등을 포함하며 운동의 과학은 운동을 하는 인간의 운동의 방향, 중심, 각도, 회전 등을 역학적 원리로 설명하거나, 운동하는 인간의 철학적, 역사적 해석과 그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연구하고 이를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대체적으로 Human Movement Phenomena<sup>173)</sup>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기의 학문적 개념은 상당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으나 아직도 체육적 의미에서의 Human Movement의 영역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

172) Roland Renson, "Homo Movens : In Search of Paradigms for the Study of Humans in Movement", in The Academy Papers NO. 24, Human Kinetics Publishers, 1991, pp. 100-114

173) Charles A. Bucher, Foundation of Physical Ed., The C. V. Mosby Company, 1975, p. 21

이 개념이 체육의 의미에서 교육적 영역을 완전히 불식시킨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여전히 쟁점을 남기고 있어서 확실히 결론내리기 곤란하다. 오늘날 체육이 아직도 역사적으로 애매모호하게 사용되어온 것은 바로 이런 까닭이다.

둘째는, 체육이라는 개념의 배경인 인간관의 문제이다. 체육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체육의 내용이 신체활동이라는 생각은 일반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물론, 체육을 연구하는 사람들 또한 자명한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 체육은 인간의 신체활동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살아 있는 인간을 몸과 영혼으로 구분하여 취급할 때 ‘체육’이란 단지 몸을 개발하고 단련하여 몸을 어느 정도 발육시키는 수단이나 신체기능을 효과적으로 발달시키는 정도의 영역으로 간주하기 쉽다. 오늘날 체육에 이용되는 도구와 교과내용과 그 방법, 학생들의 기계적인 움직임, 그리고 다른 영역과의 무관계성 등의 현상은 바로 이런 인간관의 영향 때문이다. 일반 학생들은 마음 속으로 이내 체육은 주로 체력을 육성하거나 운동기능 습득시간으로 그리고, 체육교사는 마치 치과의사가 치아를 바르게 정리하는 것처럼 사람의 신체를 보기 좋은 상태로 만드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누구나 한번쯤 자신의 운동경험을 되살려 보면 알 수 있듯이 인간의 활동은 편의상 신체와 정신으로 구별지울 수 있으나, 사실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정신과 신체로 나누어진 상태로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체험하고 삶을 영위해 나가기 때문에 이를 나누어서 본다는 시각은 사실 이해하기 힘들다. 바로 이 점에서 체육 즉, ‘체(體)’를 ‘육(育)’한다는 개념이 우리로 하여금 난처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문제는 체육이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을 신체와 정신으로 구분하는 이원론적 인간관에 잘못 근거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동양에서 바라본 일원론적 인간관에서 본 체육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하거나 현상학에서 제시한 내용을 통해 체육의 뜻을 다시 접근해 보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셋째, ‘체육’이라는 개념의 한계성의 문제이다. 우리는 흔히 체육교육이라는 말이 잘못되었음을 쉽게 느낄 수 있다. 이 용어는 국어교육이라는 말과 사뭇 다르다. 물리교육, 음악교육과도 다르다. 다른 용어들은 이미 ‘어떤 현상에 대한 주제를 갖고 그 내용을 교육한다’라는 의미로서 합성된 말이지만, 체육교육만은 체육이라는 말 속에 이미 교육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말은 덧붙이는 것은 사실상 사족(蛇足)과 같은 것이라고 판단되는 까닭이다. 이렇게 볼 때 체육이라는 말은 국어나 물리와 같이 구체적인 그 교육내용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음과 동시에 그 정체가 불분명한 만큼 사람들로 하여금 나름대로 주관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므로 급기야 혼돈을 야기시킨다. 뿐만 아니라 체육이라는 말 자체의 ‘육(育)’이라는 말 때문에 또다시 교육이라는 영역을 벗어나서는 그 뜻을 해석할 수가 없어진다. 이런 개념적 모호성으로 인하여 체육은 그 독자적인 영역을 찾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요즘 체육철학, 체육심리학, 체육교육학 등에 붙여 쓰던 체육이라는 개념을 모두 스포츠라는 말로 바꾸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문제점 때문일 것이다. 즉, 연구대상으로서 체육은 무엇을 지칭하는지 애매모호하므로 그 개념 대신에 체육에서 가장 광범위한 영역이며 그 대명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스포츠’라는 개념을 선택하고 그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것 또한 사회인식의 변화에 따른 체육영역의 변화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옛날에는 체육을 교육적 차원에서만 취급해왔으나, 시대와 사회의 발달 변혁과 함께 예전의 체육이라고 할 수 있었던 현상이 교육적 영역을 넘어 일반 사회현상으로서 그 영역이 확대되어버린 것이다. 따라서 교육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새롭게 해석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다음 두 가지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할 것 같다.

첫째는 체육이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되 우리 모두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해석을 하고 우리 모두 이를 공식화시켜 사용하는 것이다. 아직도 체육이라는

말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버리고 싶은 사람도 있겠으나 체육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든 오랫동안 사용되어온 만큼 그 단어는 그대로 사용하되, 지금까지 ‘체육’이라는 말을 사용해 오면서도 체육을 업으로 하고 있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개념적 정의가 없는 만큼 공동적 합의를 통해 이 개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고, 그 해석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모두 함께 똑같은 뜻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지금의 ‘체육’이라는 말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용어를 명확하게 전문가들의 합의를 통해서 만든 다음, 이를 사용자 모두 공유하도록 공식화하는 것이다. 물론 이때의 개념은 현재 체육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현상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면서도 체육 고유의 탐구영역인 체육적 맑의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념이어야 할 것이다. 전술한 체육적 맑은 바로 이런 영역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아마 지금까지 이 문제로 고민해온 많은 사람들이 제시한 Movement Science, Kinesiology, Activity Science, Exercise Science, Sport Studies, Sport Science, Human Movement나 Kinanthropology, 혹은 Somatics 등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아무리 체육의 개념을 변형시켜 봐도 항상 뭔가 아직도 허전함과 개운치 않음을 느낀다. 우리는 어쩌면 지나치게 지금껏 신체의 움직임이라는 외연적 현상에 기준을 두고 우리가 하려는 일을 대표할 수 있는 개념을 찾았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지금까지 그곳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물 속에서 하늘을 보는 것이다.

어쩌면 몸이든 마음이든 인간의 내면적, 외면적 움직임이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이를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이야말로 우리가 그렇게 목매이게 찾던 개념이며 그 뜻인지도 모른다. 아마 그것은 지금 혼히들 생각하고 있는 밖으로부터 보이는 신체적인 건강이나, 체력의 조화, 체력의 강화, 신체적 기능이나 기술,

운동경기, 레크리에이션이라는 목적론적 수단으로서의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때로는 구체적으로, 때로는 추상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일 것이다. 전술한 체육적 앎을 기반으로 하여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인간의 움직임현상과 그 움직임의 길을 이해하고 깨달으며, 그 의미를 자기 몸의 움직임의 길로 실천하는 것일 것이며, 학문적으로는 그것에 관한 연구일 것이며, 교육적으로는 그런 내용을 실천과 함께 가르치고 배우며 깨닫는 것이겠다.

## 2. 다차원적 지식의 체육적 앎으로의 통합

그러면 전술하였던 체육적 앎이라는 개념으로 다차원적 지식의 혼재로 나타난 현재의 체육적 지식은 통합될 수 있는가? 여기에서는 바로 이 내용을 살펴본다.

"이론은 실기를 이끌고, 실기는 이론을 수정한다"<sup>174)</sup> 1966년에 O'Conner가 한 말이다. 이 말에는 이론과 실기 양쪽으로 서로 교차하면서 흐르는 상호관련성이 존재함을 뜻한다. 신뢰할 만한 일련의 가정으로서 이론이 실기를 이끌고 실기는 현명하게 인간의 행동양상을 조절하거나 변경하는데 적용되는 일련의 이론을 정정한다는 것은 적절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 개념을 체육의 지식에 적용해 보자.

레크리에이션 활동에서 한 그룹을 가르치거나 지도하는 입장에 있다면 일련의 실기지도라는 것이 이론에 의해서 안내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론의 발달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실기라는 운동의 결과에 비추어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현재 체육적 지식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지식 및 이론과 학자들의 연구활동뿐만 아니라 체육실기에 있어서도 가히 체육적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균형잡힌 지식으로

174) D. J. O'Conner,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iphy of Education*, London : Routledge & Kegan Paul, 1966

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sup>175)</sup>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의 상황에서 볼 때 연구결과물의 형태로 나타나는 명제적 지식과 새로운 연구과정의 형태로서의 운동수행 사이에는 큰 틈이 존재하고 있다.<sup>176)</sup>

행동은 흔히 현재 상황의 수정을 요구한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연구라는 것은 실제적인 이용가치가 없다면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sup>177)</sup> 특히 체육분야에 있어서의 연구물이라 할 수 있는 이론적 지식의 활용 부족 현상은 명제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간의 단절 내지는 방법적 지식에서는 명제적 지식을, 명제적 지식에서는 방법적 지식을 서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이러한 문제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지적되어 왔으며, 이 문제로 하여 3가지 중요한 회의<sup>178)</sup>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Rothstein<sup>179)</sup>은 이러한 실기와 이론사이의 틈을 결정하는 요인 5가지를 아래와 같이 밝혔다.

첫째, 운동선수나 체육교사가 연구물을 읽을 시간이 없다.

둘째, 운동선수나 체육교사는 연구물에 쓰여진 전문용어를 모를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

셋째, 운동선수나 체육교사들은 연구물이 난해하며, 실기라는 차원에서 볼 때에는 무관하거나 정반대의 내용일 뿐이라고까지 생각한다.

넷째, 이론연구가들은 자신의 연구물이 쉽게 파악되는 것을 싫어한다.

다섯째, 운동선수나 체육교사들은 명확하게 자신들의 독특한 운동과 체육교육적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175) M.J. Eylor, "Prelude to Understanding Relationships". The Academy Papers, 1977, pp.6-14

176) J. Cheffers, "Teacher Educators and Researcher Talk to Each Other and Learn from Each Other". AAHPERD update, 1980, pp.1-2

177) J.R. Pierce, "When in Research the Answer?", Science, 1968, p.159

178) The American Academy of Physical Education, 1977, March 23-24, Seattle, Washington Alley, 1977 ; British Columbia Physical Education Conference, 1979, University of Victoria Jackson, 1979 ; and NASPE/EDA of the AAHPERD Professional Preparation Conference, October 14-16, 1979, Philadelphia : Cheffers, 1980

179) A.L. Rothstein, "Practitioners and Scholarly Enterprise", Quest, 20, 1973. pp.56-60

물론 이상의 요인 이외에도 다른 많은 요인들이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체육에 있어서 명제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론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대학교수들이며, 이 연구자들은 흔히 거의 실제로 운동현장이나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실기의 세계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Sheedy<sup>180)</sup>는 이론과 실기의 문제를 취급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지적하면서 학부수준에서도 연구논문습득이라는 강좌를 마련함으로써 전문가들이 서로 이론과 실기의 면에서 상호교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의 문제는 결국 추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론과 실기의 문제이기보다는 전술한 바와 같이 체육의 영역에서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지식의 문제, 즉 체육의 독자적인 탐구영역으로서의 체육적 맑의 부재라는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처음에는 교육방법으로서, 그리고 해부학과 생리학적 접근이 주종을 이룬 분야로서 시작된 체육은 아직도 그 뚜렷한 독자적 맑의 탐구영역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에 그 내부로부터 이론과 실기간의 각 영역에 대한 우월성 내지 차별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964년은 체육교육에 있어서 혁명적인 진보 또는 변화라고 할 만한 전환점이었다.<sup>181)</sup> 이때 발표된 Henry의 “체육 : 하나의 학문분야”라는 논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체육에 대한 영감을 불어넣어 줬으며, 결국 학문성이라는 주제와 함께 오늘날의 다차원적인 체육적 지식체계를 갖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결국 Henry가 주장한 체육의 학문적 지위와 체육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지식의 자원은 그 당시 학문성의 성격을 충분히 갖춘 타 학문으로부터 차용하게 되었고, 이런 지식들은 체육이라는 현상이 갖는 성격의 인문, 사회, 자연과학 영역의 포괄성으로 인하여 체육의 하위 학문영역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뿐

180) A. Sheedy, "Une Philosophie de L'education Physique un Embarras, un Luxe ou une Necessite?", Canadian Journal of Applied Sport Science, 1, 4 (a) 1976.

181) H.J. VanderZwaag, "Sport Studies and Exercise Science; Philosophical Accommodation", Quest 20, 1973. pp.73-78

만아니라 체육적 지식은 이러한 하위 학문적 지식을 토대로 개발 전개되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전술한 '앎으로서의 운동수행'은 점차 그 자리를 양보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내용을 Ross는 표 II-1<sup>182)</sup>과 같은 체육의 지식지도로서 제시하고 있다.

Alley<sup>183)</sup>는 Ross와 비슷하지만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서 하위 학문영역들간의 관계와 체육 프로그램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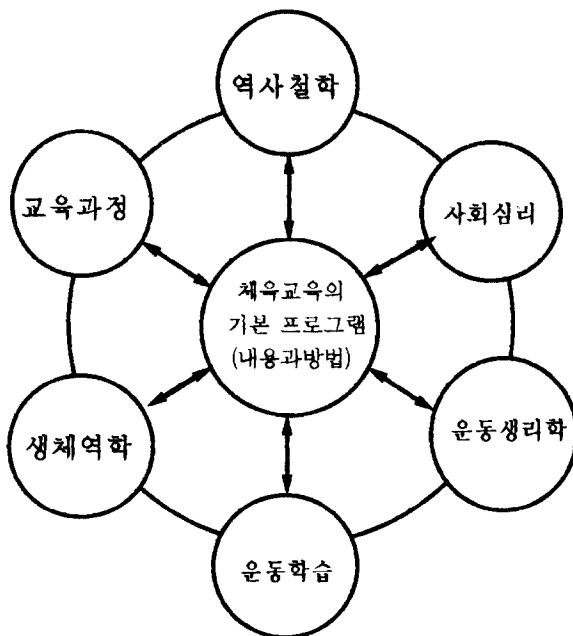


그림 V-1 체육지식의 관계구조

Alley의 도식은 어느 정도 하위 학문영역들간의 기본적 관련성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그러한 상호관련성의 복잡한 모습의 기반이 되는 구체적 지식은 나타내지 못한다. 각각의 하위 영역들은 하나의 체육을 이루기 위한 부분이기

182 본 논문 p. 21 <표 II-1> 참조

183) L.E. Alley, "A Search for Relationships", The Academy Papers 11, 1977. pp.2-6

때문에 서로 모두 관계가 있어야 하며, 실기가 강조되는 전문영역을 위해서도 모든 영역들이 다소나마 그 영역과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즉 명제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이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체육의 하위 영역들간에 발생하는 상호관련성을 Ross<sup>184)</sup>는 그림 V-2와 같은 도식으로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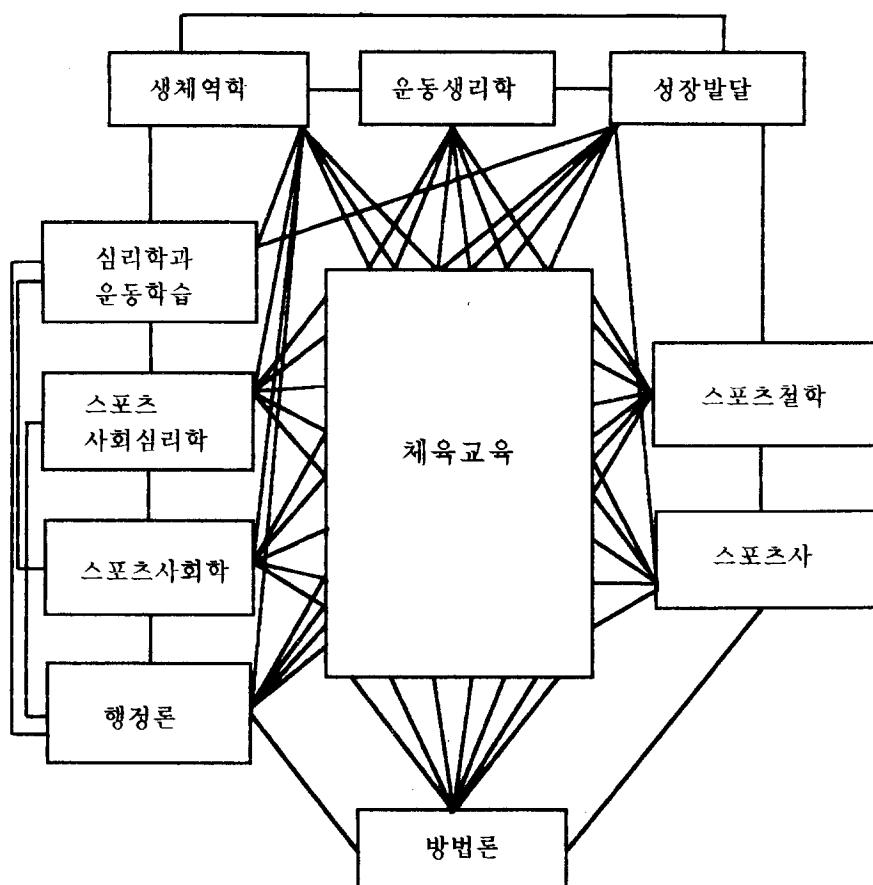


그림 V-2 체육지식의 관계

이러한 도식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 체육적 맘을 생산하고 있는 체육의 학

184) S. Ross, op. cit. 1981, pp. 42-54

문적 영역을 확인하고 둘째, 각 학문영역간의 상호관련성뿐만 아니라 실제 체육교육분야와의 관련성 또한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셋째, 다차원적인 체육적 지식의 복잡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넷째, 체육적 지식의 지도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체육적 맥락의 요구와 그 단서를 찾아낼 수 있다. 뿐만아니라 다섯째, 현재의 체육적 지식의 다차원적인 모습이 갖고 있는 구조적 모호성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체육적 지식의 지도를 살펴보면, 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결국 모두 ‘체육적 맥’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공통된 맥의 영역을 인정하고 있는 기본가정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체육을 전공하든 하지 않든 체육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모두 학사 교과과정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하위 영역의 지식을 학습하면 이 모든 지식을 학생 스스로 체육이라는 이름하에서 통합하고 이를 체육이라는 실제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가정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상에서 제시된 체육적 지식의 지도하에서의 이런 가정은 만약 이를 통합시킬 수 있는 독자적인 체육적 맥의 영역이 없다면 쓸모없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체육에서 독자적으로 출발한 것이 아닌 다른 학문들로부터 차용해온 지식일 뿐 아니라 더욱이 주어진 학문 내에서도 상충되는 지식을 통합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현재 체육을 학습하는 사람들은 모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기 자신의 수준에 알맞는 체육적 지식의 통합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볼 때 현재의 상황에서는 각 학생들이 각자의 수준에 알맞는 체육적 지식의 혼합물을 만드는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체육적 지식에 있어서 현재의 프로그램에서는 각 학생들이 개별화된 체육 프로그램에 따르고 있는 셈이 된다. 그러므로 체육적 지식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기본 정보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체육적 맥의 세계가 학생들마다 다를 수 밖에 없다. 각 학생들마다 다차원적으로 다양하게 제시된 체육적 지식이라는 혼합물을 기반으로 각기 다른 복잡한 이론적 맥락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인간의 체육적 활동과 관련시켜 볼 때, 체육적 지

식의 교묘한 성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불행하게도 심신이원론에 기반하여 전개되어온 전통적인 지식에 압도되어 우리는 이론과 실기의 관계성을 밝히는 '운동수행'으로서의 체육적 맑이라는 주제를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고찰을 하지 못하였다. 이론과 실기의 연결점은 체육의 연구분야 수준 및 방향을 볼 때 문제시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체육에서 선행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기본문제가 바로 체육의 지식세계를 결정하는 일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일은 상호배타적이지 않은 지식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Karl<sup>185)</sup>은 Ryle<sup>186)</sup>이 사용한 '아는 지식'과 '하는 지식'이라는 개념과 혼합하여 다음과 같은 체계를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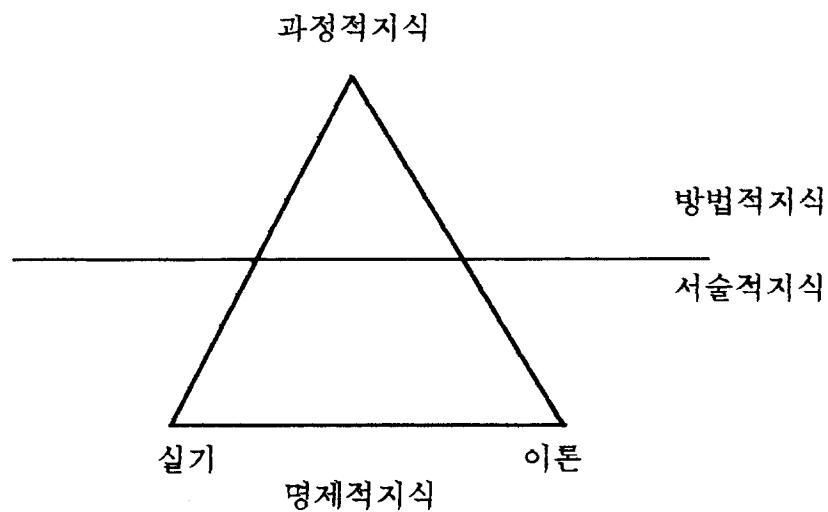


그림 V-3 체육적 지식의 기본 구조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육이라는 분야에서 가정하고 있는 것은 명제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이 상호간을 구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교의 체육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기본가정인 셈이다.

185) Karl M. Newell, "Physical Activity, Knowledge Types, and Degree Programs", in Quest, 1990, pp.243-268

186) Gilbert Ryle, op. cit., 1949

Best<sup>187)</sup>는 체육이라는 영역에서 볼 때 과정적인 운동수행지식이 명제적 지식의 발달에 기여한다는 주장에 강한 반대의견을 폄고 있다. 그는 체육의 각 지식유형이 모두 서로 다른 지식에 정보를 줄 수는 있어도 그 관계상 정보전달의 원리가 되는 방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 그림<sup>188)</sup>은 Best가 주장하는 방향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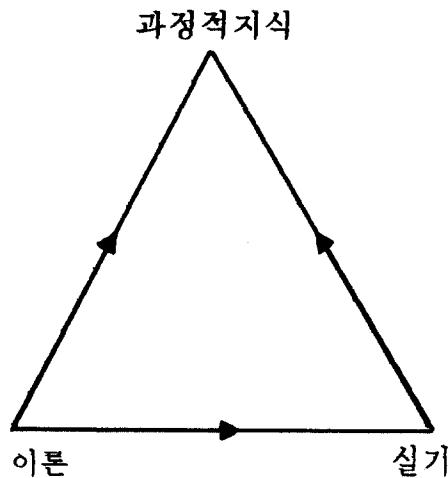


그림 V-4 지식의 관계 방향

결국 화살표 방향으로 정보가 방향지워질 때 이론적 지식이 체육적 지식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성으로 볼 때 비록 Best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론적 지식이었으나 그 지향점을 볼 때 과정적 지식, 즉 방법적 지식이라 이름하는 영역의 우위성을 역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방법적 지식이야말로 명제적 지식이나 운동을 하는 사람의 지향점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Polanyi의 암묵적 지식의 구조는 체육의 다차

187 David Best, "Degree Studies in Human Movement and Physical Education", *Journal of Human Movement Studies*, 1979, pp.119-128

188) Karl M. Newell, op.cit, 1990, p.259

원적 지식의 통합에 큰 시사점을 준다. 그는 우리가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눈으로 사물을 지각하는 것을 포함하여 운동감각지각도 수동적이거나 본질적으로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 세부요소를 전체로 어떻게 통합하느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지식은 하나의 실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알려진 사물의 능동적 파악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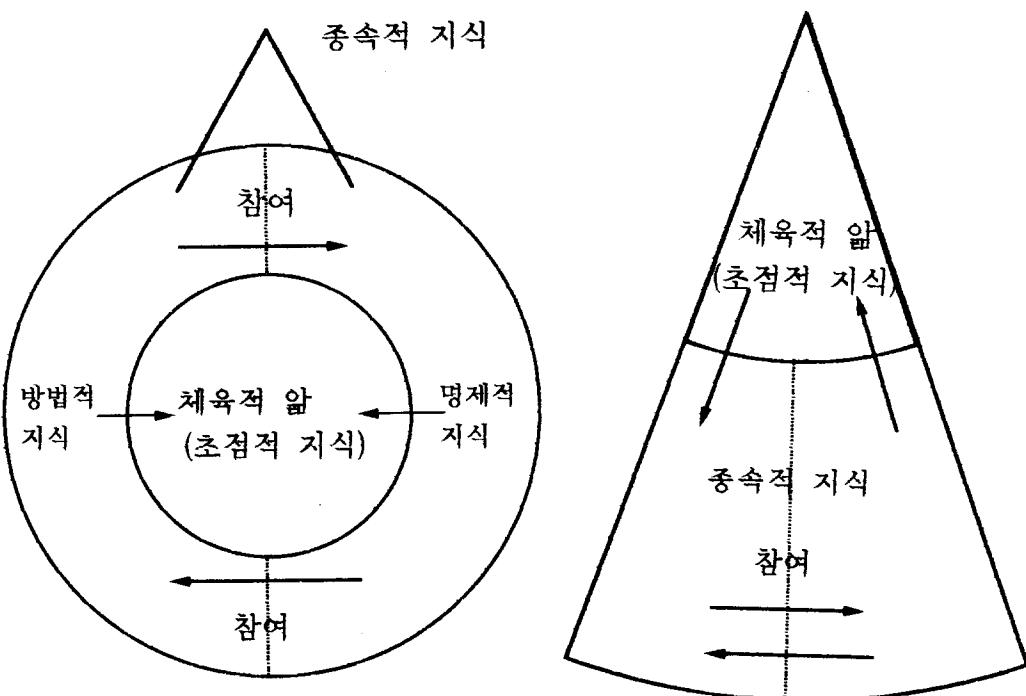


그림 V-5 체육적 암의 3가지 차원

여기서 우리는 체육적 지식의 두가지 차원을 볼 수 있다. 첫째는 종속적 지식이고, 둘째는 초점적 지식이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보태서 체육적 암의 세 차원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 세 번째 차원이 바로 체육적 암의 능동적 주체이다. 전술한 체육적 암을 현재의 체육적 지식과 관련하여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V-5와 같다.

종속적 지식은 초점적 지식으로 향해서 통합됨으로써 비로소 체육의 지식 전체는 합성되는 것이다. 초점적 지식은 그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하며, 반드시 종속적 지식들에 의해서만이 출현되는 것이다. 그리고 종속적 지식들의 병렬적 난립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고, 반드시 초점적 지식으로 통합되어야 온전한 체육적 맛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다차원적인 체육의 종속적 지식으로부터의 초점적 지식이라 이름할 수 있는 초점적 지식에의 통합이라고 부른다. 이것을 ‘--부터 --으로(from - to)’의 관계라고 부를 수 있겠다.

체육적 지식이 순조로운 통합을 이루고 있을 때, 만약 종속적 지식에 주의를 들린다면, 곧 종전의 체육적 지식은 파괴되고 파편의 한 조각만이 지식의 대상으로 남게 된다. 체육학의 종속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하위 학문분야 모두가 그렇다. 그러나 때로 부분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 피아노의 건반을 어느 정도의 세기와 지속도를 가지고 압력을 가하느냐에 따라 음의 크기와 울림이 달라지는가를 검토하면 좀더 폭넓은 변화를 가진 연주를 구성해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종속적 요소에 대한 검토와 전체에의 통합을 교대로 오가면서 점차 전체적 실체에 대한 좀더 깊은 이해를 가져 준다.<sup>189)</sup> 이 점을 들어 Polanyi<sup>i</sup>는 분석과 종합을 독립된 별개의 것으로 보지 않는다.<sup>190)</sup>

Polanyi<sup>i</sup>는 주체, 종속적 요소, 초점적 전체가 이루는 암묵적 지식구조의 특징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한다. 우리는 특정 기술의 수행에 주의하기 위해 근육적 활동의 조합에 종속적으로만 의존한다. 즉 목적 달성을 위해 세부적 운동에 종속적으로만 의존함으로써 그 조합이 이루어내는 목적을 달성한다. 이것은 지식의 첫번째 측면인 기능적 측면이다. 또한 이러한 지식의 구조는 주위를 하나로 끌어옴으로써 나중 것을 생성해낸다. 다시 말하면 종속적

---

189) M. Polanyi, op. cit. 1969, p.125

190) M. Polanyi, op. cit. 1985, p.115

의식은 초점적인 것의 ‘출현’을 가져온다. 이것이 둘째로 지적할 수 있는 현상적 측면이다. 우리가 외국어가 아닌 모국어로 쓰인 문장을 읽을 때 글자의 외형은 사라지고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만이 투명하게 남는 경우가 이러한 측면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이러한 체육적 지식의 세 차원을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의 예로서 수영의 예를 들 수 있다. 우리는 물에 떠서 일정한 거리를 가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물 속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한다. 무조건 허우적대보기도 하고 수영의 이론서와 함께 기본동작인 다리젓기와 팔젓기를 개별적으로 연습하여 동시에 연결시켜 보기도 한다. 처음에는 생각보다 잘되지 않는다. 겨우 몸이 떻다 싶어 다리와 팔을 젓다보면 다리 쪽이 어느새 가라앉는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동작들이 전체적인 균형을 잡고 이마 상당한 거리를 헤엄쳤음을 발견한다.

앞의 예에는 운동수행을 함으로써 체육적 깊이 형성되는 데 관계하는 세 가지 차원이 모두 나타나 있다. 먼저 지식을 형성하려는 주체의 의도가 있다. 어떤 지식이든 주체의 관여나 참여를 그 형성의 시발점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팔 다리의 부분동작이나 힘의 안배 등은 종속적 요소이며, 수영을 하는 그 전체적 동작이 초점적 지식으로 이끈다. 주체가 그 통합을 유지하는 동안 이 깊이의 작용은 지속된다. 주체는 종속적 요소에 의거하여, 그것을 도구로 사용 함으로써 초점적 전체를 출현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몸을 도구로 삼아 감각을 지각할 뿐만 아니라 몸을 확장하여 모든 지식을 받아들인다. 우리가 망치를 사용하여 못을 박을 때나 장님들이 막대기를 사용하여 주변을 인식할 때나 마찬가지로, 이러한 도구는 그것 ‘자체’에 대한 의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한’의식을 유도함으로써 우리가 신체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한다.

체육학자가 체육이론들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이론을 검증해 본다는 것은, 우리가 눈을 통해 세상을 보듯이 그것을 통해 세상을 보았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즉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하고 왜곡되어 보이던 것을 바르게 볼 수 있게 하는지를 시험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이론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인지는 전혀 그것에 의거하여 대상을 보는 시도를 해보지 않는다면 그 이론을 검증할 수는 없는 것이다. 몸과 정신의 관계를 보는 Polanyi의 관점은 Husserl, Merleau-Ponty도 주장하였던 관점으로서 이 관점은 근래에 이르러 Van Peursen에 의해 종합 정리된 바 있다. Van Peursen은 다음과 같이 Polanyi의 관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추상적이고 전문적인 형태의 체육적 이론도 결국은 인간의 육체적인 움직임의 관찰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관찰이란 육체적인 모습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현대과학의 가장 추상적인 공식마저도 그것을 성립시키는데 쓰인 도구의 요소가 그 내용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여러 과학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이 도구들이란 언제나 몸의 연장체이다(가령 망원경이나 현미경은 눈의 연장이다). 그뿐만 아니라 현대 자연과학의 세계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상대성 이론도 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구를 최종 휴식점으로 삼아 시작한다고 Husserl이 주장하였다. 운동의 변화는 관찰하는 ‘나’를 전제로 하며 ‘나’는 관찰의 범위를 확대, 전개해 나간다.<sup>191)</sup>

이러한 운동수행으로서의 체육적 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종속적 지식이라 이름할 수 있는 방법적 지식과 명제적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몸 움직임의 지각 조건 안에 내재해야 한다.<sup>192)</sup> 흥미가 없는 것에서는 그것에 관하여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 속에 우리 자신을 몰두해야 하며, 그것을 우리의 일부로 만들어야 한다. 그때에서야 우리는 우리 몸의 움직임을 알게 되고, 이런 맑에 의해 여러 움직임의 패턴들이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피어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때때로 불충분하

191) C.A. 반 페슨, 손봉호·강영안 역, *몸·영혼·정신 : 철학적 인간학 입문*, 서울 : 서광사, 1985, p.171

192) Michael Polanyi, op. cit. 1966, p.41

지만 인간 움직임의 구조라고 할 수 있는 체육 고유의 깊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움직임과 함께 심사숙고한 뒤에 얻게 되는 체육적 깊이란 단지 우리 마음이 만들어 낸것이 아니라 체육적 운동상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우리자신의 움직임이라는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우리가 체육적 깊의 발견에 이르는 방법에 관한 심리학적인 설명이다. 그러나 논리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분석은 바로 이 이론을 실기의 세계와 함께 체육적 깊으로 통합할 수 있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설명은 체육적 깊이라는 것이 개인적 판단과 신뢰를 포함하는 행동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또한 그것은 체육적 깊이 전통적 지식론에서 보는 것처럼 객관적일 수 없다는 이유를 뜻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놓여진 운동상황에 모든 주의를 기울인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설명은 거의 형태 심리학자들의 설명과 유사하지만 좀더 동적인 개념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떤 것에 참여함으로서 우리 자신의 움직임의 조건들을 알 수 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움직임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과 대상에 주의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몸의 움직임들에 참여함으로서 내 몸 전체의 부분들이 나의 움직임 전체를 형성하게 됨을 깨달을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체육적 깊에 있어서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이르는 중요한 단서로서 참여(indwelling)라는 개념에 이를 수 있게 된다.<sup>193)</sup>

우리는 우리 몸 전체의 움직임 지식을 주는 각각의 조건에 참여한다. 이것은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내 몸의 어느 일정 부분들에 집중하거나 어느 이론에 집중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느 신체의 부분에 집착하거나 이론에 머무를 때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 따라서 체육적 깊은 참여 행위적 성격을 갖는다고 하겠다.

우리는 참여를 통해 체육적 지식에 관한 새로운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참여라는 개념은 체육지식에 관한 자연과학적 접근이나 사회과학적, 인문과학

---

193) Ibid, p.44

적 지식 및 그 방법론의 한계를 지적하는 개념이다. 우리가 전통적인 체육적 지식의 통합을 위한 체육적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체육적 이론에 의존하는 것은 그것을 나의 움직임과 함께 내면화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파악된 지식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실제 움직임의 상황과 함께 이해하게 될 때 그 내용은 나의 움직임의 조건과 함께 체육적 삶으로 환원되기 때문이다.

모든 연구는 문제가 좋은 것일 때만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연구는 문제 가 좀더 근원적일 때 그 답 또한 근원적일 수 있다. 체육에서의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누가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다차원적인 지식과 그 연구방법을 통해서 발견해 왔던 체육적 지식으로 인해 가리워졌던 체육고유의 삶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하여 기존의 다차원적인 양상의 체육적 지식은 체육 고유의 탐구영역이 되어야 할 체육적 삶의 향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 3. 체육적 삶과 체육교육의 존재 지향적 전개

전술한 바와 같이 명제적 지식이나 암기식의 실기 기능만이 주가 되어버린 오늘날의 체육교육에서 이론은 운동수행이라는 실천적 의미의 체험과 깊은 단절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어떤 이유에서건 이것은 본 연구의 주제인 체육적 삶과 관련하여 우리 체육교육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서는 체육교육의 문제와 그 해결방향을 전술한 체육적 삶과 인간의 삶의 양식과 관련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인간의 삶이란 삶의 한 모습이며, 인간은 자신의 삶을 아는 만큼 영위하게 되어 있으므로 오늘날 우리가 체육교육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는 문제도 결국 체육교육에서 추구하는 삶의 세계와 삶의 방식에 의해서 결정되며, 그 지도내용과 방법 또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1) 삶의 양식과 체육적 삶에 기반한 체육교육의 방향

삶의 방식에 관해서 E. Fromm은 소유를 지향하는 소유적 양식(having mode)과 존재를 지향하는 존재적 양식(being mode)<sup>194)</sup>을 제시한 바 있다. 소유 지향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삶에 있어서도 소유 양식적일 것이며, 존재 지향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존재 양식적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삶의 방식은 삶의 방식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삶의 태도는 소유 지향적 삶과 존재 지향적 삶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삶의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의 차이는 '나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와 '나는 알고 있다'라는 두 가지 문장으로 표현된다. 지식을 '가지는 것'은 이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을 손에 넣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며, '아는 것'은 기능적이며 생산적인 사고의 과정에서 하나의 방법으로만 도움이 된다<sup>195)</sup>.

삶에 있어서 소유 지향적 태도를 지닌 사람은 자신의 지성적인 능력을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이때의 삶은 소유를 위한 기술(technique)로서 역할을 한다. 이런 점에서 소유 지향적 지성은 기술적 지성이다. 이것은 인간이 생존을 위해 자연을 이용하고 정복할 수 있는 도구를 발명해내고, 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데 필요한 갖가지 기술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 삶에 대한 존재 지향적 태도를 지닌 사람은 '존재의 의미, 삶의 의미를 찾고 음미'하는데 노력한다. 따라서 존재 지향적으로 아는 것은 밑뿌리까지, 더 나아가서는 원인에 이르기 위하여, 표면을 뚫고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아는 것은 진실에 보다 더 가까워지기 위해 표면을 뚫고 들어가서 비판적

194) Erich Fromm, 한완상·마상조 역, 소유냐 존재냐 ; 서울 : 전망사, 1978.

195) 상계서, p. 64

이며 능동적으로 알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존재 지향적 맑의 주요개념은 과정(process), 능동성(activity), 운동(movement)이다<sup>196)</sup>. 이 점에서 소유적 삶의 태도와 존재적 삶의 태도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아무것도 소유함이 없이 기쁨에 넘쳐서 자신의 능력을 생산적으로 사용하여 세계와 하나로 되는 삶의 양식'이다.

소유적, 존재적 삶의 태도는 인간의 정신성이 갖는 두 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마치 뇌의 좌뇌와 우뇌에 비유할 만하다. 인간 두뇌의 이러한 두 부분은 각기 독특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상호작용을 하며 상호보완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체육에서의 진정한 맑이란 두 성격의 균형적 조화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시각에서 살펴본 현대 체육의 문제는 소유 지향적 삶의 방식 즉, 자신의 지성적 능력을 소유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적 의미로서 활용되고 있는 체육에 있다. 따라서 존재 지향적인 삶의 방식에 봉사할 수 있고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체육의 성격 또한 발달되어야 한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체육교육이 사뭇 빠지기 쉬운 기술지향적·이론지향적 편향이라는 체육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존재적 맑의 회복은 왜 체육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그 이유는 존재의 의미는 체험적이고 표현적이며 전술한 체육적 맑에 입각한 체육은 이러한 존재의 의미에 반응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Arnheim에 의하면 인간이 취하는 동작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sup>197)</sup> 하

---

196) 상계서, p. 45

197) Rudolf Arnheim, *Art and Visual Perception*, London : Faber and Faber, 1954, p. 228

나는 관상학적 행동이고, 다른 하나는 숙고적 행동이다. 관상학적 행동은 예컨대 아이들의 손놀림, 발놀림, 사람들의 습관적 버릇 같은 행동을 말한다. 즉 몸에 배인 기질적, 태생적 몸짓들이다. 이에 비해 숙고적 행동은 생각과 판단을 요구하는 동작에 나타나는 동작 형태이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의미를 나타내는 고개짓이나 모든 운동동작의 정형화된 품이 그렇다. 관상학적 행동은 좀더 표현성이 직접적이고 원초적인 반면에 숙고적 행동은 유보적인 특성을 갖는다. Arnheim에 의하면 유아, 원시인, 동물들은 관상학적인 행동양식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언어는 인간의 표현성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하나의 산물이다. 그러나 인간의 움직임은 언어보다도 더 원초적인 표현성을 지니고 있다. 언어는 하나의 정해진 약속으로서 제약성이 강하다. 이에 비해 인체의 움직임은 미리 정하지 않아도 풍부한 표현성을 지니고 있다. 인간이 그 자신을 드러냄에 있어서 언어보다 자신의 몸 움직임에 더욱 의존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존재의 본질적 표현에 좀더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 체육이 재인식되고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한 체육은 인간 존재의 본질에 좀더 접근된 깊이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교육과 존재의 진실된 모습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체육은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체육이 갖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체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이다.

## 2) 체육에서의 체험, 상상력, 그리고 깨달음

이미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체육활동은 단순한 인간의 신체적 움직임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가진다. 즉 눈으로 보아야 하고, 생각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지각체계가 통일성 있게 작용해야 하기 때-

문이다. 이런 점에서 체육에서 존재지향적인 삶의 의미를 터득하기 위해서는 체육적 앎을 가르쳐야 하며, 이것은 주도면밀한 교육적 의도하에서 교육되어야 한다. 이때의 체험은 운동의 환경과 자신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보고 실천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그 발달이 미약하므로 체육이라는 의도적인 가르침과 배움이 필요로 하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체육활동에서 체육적 앎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진지한 통찰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숙련된 교정자가 미숙한 교정자보다 오자를 더 빨리, 더 많이 교정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숙련된 교정자는 같은 교정을 하더라도 주의집중이 더욱 잘된다. 이런 훈련은 초기의 진지한 훈련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명확한 체험을 위해서는 정교한 주시의 태도가 필요하다. 정교한 주시를 통하여 움직임 체험의 의미를 터득하지 못하면 관찰은 체험적 직관에 진입하지 못하고 단순한 관망 수준에 머무르고 말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교한 체험을 돋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상상력'이다. 상상력은 움직임의 예시나 변용의 방법과는 다른 차원에서 인간 움직임의 체험을 명료화한다. 상상력은 직접적인 움직임의 체험을 좀더 높은 단계에서 열매를 맺게 해준다. 상상력은 지각의 단편들을 연결하여 하나의 움직임 체계와 의미체계로 엮어주는 힘, 즉 인간 움직임의 원리를 찾게 해주는 것이다. 상상된 내용이 우리가 진지하게 체험한 움직임의 대체물이 아니라 그것의 연장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상상력에 의해서 사실상 우리의 신체적 제약으로부터 연속적인 인간 움직임의 본질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체육교육이란 인간 움직임이 내포된 의미와 그 체험을 올바르게 터득하는 노력이며, 이러한 작업은 자연적인 성장과 성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체육활동을 통해서 좀더 잘 발달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체육을 가르칠 때 나타나는 체험이란 ‘나 스스로 보는 것’이지 누가 지시해서 보게 되는 기계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체험은 가르쳐질 수 없는 것이다. 학생이 그 스스로 자신의 몸을 의도한 대로 움직임으로써 배우는 것이다. 이것은 ‘자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Socrates의 교육방법인 산파술은 바로 이러한 자각을 유도한 것이다. 특히 체육적 깊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깊의 세계라는 것은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깨우칠 수 없고 자신에 의해서 자각되고 각성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이런 점에서 체육의 본질은 인간 움직임을 통한 각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각성, 즉 깨달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있는 것’에서 ‘있어야 할 것’을 보는 힘을 얻었을 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운동경기에 참여했다. 어떤 학생은 운동을 잘하여상을 받고, 어떤 학생은 패배를 맛본다. 패배의 쓴맛을 본 학생은 승리한 학생의 운동능력에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못함을 느낀다.

여기서 그 학생은 수치심을 느낀다. 그리고 좀더 운동을 잘하는 학생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린다. 그때부터 그는 좀더 운동에 가까워진다. 이 학생은 한 학기를 마감하는 순간에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았고, 거기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움직임으로 이루어져야 할 좀더 커다란 전체’를 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우리는 그 학생이 ‘자각을 했다’고 말한다. 이렇게 어떤 계기에 의해서 내가 ‘내 속에서 새롭고 좀 더 커다란 맥락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스스로의 깨달음이요, 각성인 것이다.

체육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몸을 움직임으로써 갖는 체험을 통해 스스로 깨닫는 것에 그 본질이 있다. 스스로 깨닫는 것은 존재하는 것에서 ‘초월’을 직관하는 것이다. Phenix가 말한 것처럼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질적으로 현재의 존재를 초월하는 것이다.<sup>198)</sup> 여기서의 초월이란 ‘현 존재의 어떤 주어진

상황이나 구체성을 무한히 극복하는 체험'을 가르킨다. 이러한 고유의 인간 움직임의 성질과 구체적인 실체를 가능성의 맥락에서 체험을 뜻한다. 이러한 초월적 자아에로의 지향행위는 그 자체가 하나의 자아표현이다. '있어야 할 인간 움직임의 모습으로 진정한 자아를 드러내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곧 자아실현이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아의 표현, 자아실현을 가장 잘 반영시켜 주고 촉진시켜 주는 체육교육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학생이 스스로를 자유롭게 지각하고 표현하며 각성하는 신체활동이 강조되는 체육이다. 즉, 도구적이거나 법칙적 이해나 지식이 보류된 관점에서 움직임의 세계를 개방적으로 지각하고, 발견한 움직임과 그 의미를 표현하는 일련의 신체활동을 통하여 스스로 성장해가는 깨달음을 촉진하는 교육으로서의 체육인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체육교육이란 '학생이 자신의 움직임을 통하여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깨달음, 즉 각성을 돋는 교육'을 말한다. 이러한 체육교육의 방식은 다음 세 가지 점에서 다른 접근들과 구별될 수 있다.

첫째, 체육적 활동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신체활동을 발현하는 체험적 활동을 강조한다. 요컨대 학생의 체육활동 속에 직접적인 체험의 과정을 포함시키며 이를 중요하게 취급한다는 의미이다. 즉, 체육학습 주제가 제시하는 경험 활동을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학생으로 하여금 살아 있는 자신의 움직임을 체험하게 하고 이를 강화 내지 승화시킨다는 것이다.

둘째는 표현적 의미의 강조이다. 표현적 의미란 다양한 운동형태를 구별하는 운동의 기본적 특성과 그 고유의 항상적 특질을 말한다. 그것은 인간 움직임의 특성이 나에게 느껴지는 감정이요, 의미이기 때문에 표현적이라고 말

198) P. Phenix, "Transcendence and Curriculum", in W. Pinar(ed.), *Curriculum Theorizing : The Reconceptualists*, Berkeley : McCutchan Publishing Co., 1975, pp. 319-337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 운동상황에서의 다양한 움직임의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실천함으로써 살아 있는 감동적인 움직임의 의미를 지각하고 표현해내는 데 초점을 둔다는 뜻이다. 따라서 존재 지향적 접근에서의 체육학습은 어떤 주제에 대한 ‘넓은 접근’ 보다는 ‘깊이 있는 접근’을 강조한다.<sup>199)</sup>

셋째는 ‘체육적 사고’의 강조이다. 체육에서 몸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미분 통합적인 앎의 방식이다. 인간이 운동을 해낸다는 것은 단지 지력(智力)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운동행위는 정신도 몸도 아닌 인간 그 자체이다. 인간의 운동은 이성과 감성, 주관과 객관, 지각과 사고로 양분되어 있는 ‘인간적 본성을 통일시켜 주는 체험적 앎의 통로’이다. 이런 점에서 체육적 사고는 현상학적 앎의 방식이며 체육적 앎의 방식이다. 체육은 특히 인간의 움직임 가능성에 주로 의존한다는 점에서 다른 체험과 구별되기 때문이다. 체육적 사고는 완전한 하나의 사고이며, 체육은 이러한 통합적이며 폭넓은 지성으로서의 체육적 사고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존재 지향적 앎을 그 목적으로 한다.

### 3) 체육교육의 목적 및 목표

#### (1) 목적의 설정

그러면 전술한 체육적 앎에 근거하여 존재 지향적으로 접근하는 체육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러한 목적은 바로 생활세계에서 우리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를 인격으로 형성화해 나가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생활세계에서 체험을 하며 그것을 표현하는 일은 삶의 상황 속에서 독특한

---

199) ‘깊이 있는 접근’은 어떤 주제에 대하여 장기간 집중적으로 다양하게 접근하는 지도 방식이며, 반면에 ‘넓은 접근’은 잘 선정된 많은 주제를 조금씩 폭넓게 지도하는 방식이다.

의미를 발견하고 인격화하며, 사회화해 나가는 길이다. 따라서 체육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체육활동을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인간 존재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자신의 생활세계를 가꿔나가는 데 있다. 기계문명 속에서 야기되고 있는 현대 인간의 자아와의 단절, 인간과 자연과의 단절 등을 극복하는 길은 바로 이러한 체육활동을 통해서 가능하다. 인간 존재를 체험하고 그것을 몸의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체육의 성격은 초월적인 힘을 가진다. 이것은 용암이 활화산에서 터져나오는 것처럼 어떤 내적 활동에 의해서 인간화된 움직임을 밖으로 표출되는 것을 말한다. 밖으로 솟구치는 이 힘을 통찰력(vision)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통찰력은 솟구치는 움직임을 놓는 힘이며, 현실로부터 의미의 세계를 즉, 인간 움직임이 갖고 있는 좀더 깊고 넓은 가능성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초월의 힘인 것이다. 바로 체육교육의 존재 지향적 목적이 지향해야 할 점은 바로 위에서 말한 인간 움직임의 인간화와 그 초월적인 성격인 것이다. 즉, 우리들의 인간세계에 가로질러진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영역과 주관과 객관의 틈과 시간성 등의 장벽을 허물고 우리를 인간적으로 소생시키고,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는 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계적 문명에 예속되고 소유의 개념으로 소외되고 있는 인간성의 본래 모습찾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체육의 모습일 것이다.

## (2) 목표의 설정

그러면 체육교육의 목표는 어떤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까? 많은 체육교육자들은 앞에서 살펴본 체육교육의 목적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총체적인 입장에서 현상학적 입장의 체험이라는 개념을 지지하고 있다. 이들은 인간의 움직임은 신체에 관한 지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체적인 몸의 움직임을 통한 인식을 통하여 습득되며, 이로 인하여 그 움직임이 값진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우선적으로 체육에서의 체험의 범위를 깊이 있게 확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Fraleigh는 인간 동일성이라는 의미의 기본 원천으로서 자아의 생생한 체험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한 인간이 하고픈 동작의 상과 함께 어우러져서 자신의 몸을 움직일 때, 그들은 자신의 의도와 행동이 일치된 존재로서 객관과 주관이 즉, 몸과 마음이 일치된 존재로서 자신을 체험한다. 이러한 체험은 자유로운 자아의 실현이다.”<sup>200)</sup>

이러한 움직임의 체험은 단일적 존재로서의 자아를 고양시킨다. 그러므로 확실한 개인의 자기 확신은 자기 존재가 총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상황에서 성취된다. 스포츠와 춤은 이러한 신체적 자아의 체험을 고양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교육이 몸과 함께 시작되어야 함은 몸과 마음의 연속성이 바로 인간실존의 실체이기 때문이다.<sup>201)</sup> 이때의 ‘체험’이란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행동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그 자체에 완전히 침잠함으로써 우리 자신과 함께 편안하게 있게 되는 것’을 나타낸다.<sup>202)</sup> 여기에서의 ‘편안함’이란 우리의 신체자체에 대한 전의식적이고 전반성적인 친밀한 의식의 결과’이다. 체육교육과정은 학생으로 하여금 소외감을 더욱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편안함을 중대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체육교육의 과정을 정적인 위치에서 파편적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인식주체의 생생한 신체 속

200) Warren P. Fraleigh, "The Moving 'I'", Robert G. Osterhoudt(ed), *The Philosophy of Sport*, Springfield, Illinois : Charles C. Thomas Publisher, 1973, p. 116

201) Ellen W. Gerber, "My Body, My Self", Unpublished Manuscript Presented to the 50th Annual Convention of Texas Association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and Recreation, Dallas, December, 1973, p.21

202) Seymour Kleinman. "The Comtemporary Philosophies of Pragmatism, Existentialism and Phenomenology", in R. N Singer, D. R. Lamb, M. Malina and S. Kleinman, *Physical Education :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New York : Macmillan Company, 1972, p.367.

에서 신체가 펼치는 실험적 과정으로 파악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인간의 움직임은 신체에 관한 지식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바로 자아의 이해와 자기인식을 기본으로 하고 격려하고 성숙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자아의 이해와 자기인식에 도달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체육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

과거의 신체에 대한 태도는 양면성을 띠고 형성되어 왔다. 대부분의 신체는 정신이나 영혼이 거주하는 곳으로 인식되었으며, 그것은 소외와 부끄러움의 대상이었으며, 참된 인식의 방해물이었다. 따라서 인간의 신체를 억압하게 되었고 기계적으로 취급한 결과, 인간은 현대 산업주의의 목적에 종속되게 되었으며, 신체를 마치 연료가 있는 한 계속 달릴 수 있는 자동차인 것처럼 생각하였고, 조종될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하였다. 여기서의 건강에 대한 태도는 신체를 자신의 것으로서 체험하는 그것이 아니다.<sup>203)</sup> 지금도 우리의 신체가 어떻게 주체적으로 움직이며, 체험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 만약 주체적 인식이 우리의 몸에 없다면 우리는 긴장이 우리의 근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떻게 일상적인 행동들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sup>204)</sup>

전통적인 체육의 목적은 힘, 유연성, 그리고 약간의 건강을 마련해 주는 것 이외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러한 목표는 한계가 있는 가치들이다. 신체의 주체적 체험의 핵심이 되는 인간의 신체가 무시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체육활동은 사전에 처방된 일련의 움직임이나 계절운동, 무용 또는 수중활동 등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때 연습은 격렬하지만 지루하다. 춤을 마치 책과 노트를 통해서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

---

203) R. May, *Man's Search for Himself*, New York : The New American Library, 1967, p.93.

204) R. Master, "The Psychophysical Experience", in *Saturday Review*, February 22, 1975, p.30.

하며, 수영은 자기의 생명보호에만 치우쳐 있다. 뿐만 아니라, 게임은 자기인식이나 체험의 방향이 아니라 승리에 치우쳐 있다. 이러한 시각은 현재의 체육을 인간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체육은 그 궤도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 4) 체육교과내용의 선정

전술한 바와 같이 체육은 어떤 ‘명제적 지식’을 학습하기보다는 주로 자기 자신의 몸을 움직이는 신체활동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적 지식’의 영역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염밀히 말한다면 명제적 지식의 이해도 인간의 능동적 인식 활동이 없이는 학습될 수 없다. 체육에서 취급하는 학습내용 또한 명제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깊이의 영역을 다분히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상의 구분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하겠다. 그러나 체육은 확실히 다른 교육영역에 비해서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학생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느낀 것을 인간의 운동형태로 만들어내는 실천학습형태가 주된 특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체육의 교과서나 그 실천내용을 분석해 보면 체육 교과내용의 편성은 대체로 운동의 특성이나 종목에 따라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체육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운동종목이나 기술별로 체육교과내용이 편성된 것은 체육의 성격과는 달리 그 전제가 체육을 일종의 주지주의적 관점에서 본 방법적 지식으로 간주하고 있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즉, 학생들은 여러 가지 운동종목이나 그 기능을 배워야 한다는 전제인 것이다. 결국 이러한 운동 기능이나 종목 그리고 어떤 기록 등을 학생 위에 군림하게 되고 교사는 그 내용을 가르치는 입장이므로 학생은 체육교사와 지식으로서의 운동종목이나 그 기술에 이중으로 압박받는 입장에 놓여지게 된다. 이런 방식의 체육교과운

영은 체육을 할기차고 생동감 있고 힘있는 배움의 장으로 전개해 나가는데 있어서 큰 장애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체험과 의식의 세계가 강조되고 체육과 더불어 학생과 생활세계라는 세 가지가 대등하게 상호작용하는 내용선정의 틀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셋을 균형 있게 배합조직하려면 먼저 포괄적이어야 하고, 그것이 융합될 수 있는 통합성과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역동성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학생들의 움직임을 통한 생활체험의 중심으로 좀더 의미 있는 체육학습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이 세 가지 기준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면 생활세계에서 인간 움직임의 의미를 음미하고 이를 생활에 반영함으로써 좀더 참되고 아름다운 인간의 삶을 지향할 인간을 양성하려는 것이 체육교육이라고 간주해 보자. 그리고 포괄성, 통합성, 역동성이라는 세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좀더 폭넓고 살아 있는 체육적 활동을 실천하고 이를 체험할 수 있는 내용설정의 방향을 생각해보기로 하자.

먼저 '포괄성'을 살펴보자. 자신과 자신의 움직임과 그 세계에 대한 참된 삶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접하는 신체 움직임의 체험이 어떤 실재적 목적을 위한 편파적인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학습자의 의식세계와 자신의 움직임의 세계, 그리고 자신의 주위 환경의 다양한 면모를 접하게 됨으로써 인간 움직임의 독특한 의미를 터득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선 기존의 체육에서와 같은 '건강만을 위한, 체력만을 위한, 기능만을 위한' 체육교육의 고착적 안목에서 벗어나는 일이 필요하다. 여기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바로 '활동의 측면'이다. 즉, 학습자가 어떤 수준의 체육적 활동을 하느냐에 따른 내용선정의 기준이다. 여기서의 활동 수준이라는 것은 움직임의 '지각 - 실천 - 체험 - 이해'라는 일련의 운동체험을 활동의 형태로 구분하여 생각해보는 것을 말한다.

다음은 ‘내용의 측면’이다. 이것은 “인간 움직임의 ‘지각 - 실천 - 체험 - 이해’에서 무엇을 취급해야 하느냐”하는 주제 또는 그 내용의 측면이다. 인간의 운동형태는 개인적인 수준에 기반하고 있으나 결코 그것만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타인과 세계로 향해 열려 있는 것이다. 「체육사회학」 또는 「스포츠 사회학」이 가능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끝으로 ‘형식의 측면’이다. 즉, 체육의 다양한 형식(구기, 투기 등)을 어떻게 포함시키는 것이 포괄적이고 대표적이겠느냐는 문제이다. 요컨대 형식이라는 선정기준의 틀이 의도하는 것은 좀 더 폭넓게<sup>205)</sup> 생활세계에의 체육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체육내용의 성격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통합성’이다. 기존의 체육내용을 살펴보면 체육활동영역이 각 운동종목별로 대단히 세분화, 분리화되어 있어서 그러한 다양한 운동방법을 맛보기 삼아 한번씩 체험해보는 것만으로도 수업시간이 모자랄 정도이다. 즉, 다양한 운동종목을 중심으로 진열장을 눈요기하듯 맛만 보고 지나가는 식의 체육지도는 체육의 근본목적을 달성하는데 하등의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체육내용의 심화와 구조화가 제기되는 것이다. 그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전술한 체육적 깊이 것이다. 이것은 오랜 관습적인 인식으로 만들어진 체육종목간의 낡은 고정관념적인 벽을 허물고 생동감 있는 체육의 기본 종목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세 번째는 ‘역동성’이다. 교육내용 및 학습의 방법에 대한 의사결정의 문제는 현재도 교육과정이론에서 중요한 논점거리다. 과거의 교육과정은 아동이나 학부모의 요구와는 관계 없이 누군가에 의해 미리 결정되고 설계되어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부과되어 왔다. Soliman은 교육현상학적 시각에서 이 점을

205) 체육지도내용과 방법에는 두 가지 접근이 있을 수 있다. 즉, 운동체험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폭넓은 접근법과 체험의 깊이를 강조하는 깊이 있는 접근법이다. 이 두 접근법은 특히 지도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 가장 좋은 길은 운동체험을 ‘폭넓게’ 그리고 ‘깊게’ 접근하는 길이긴 하지만 현실적 제약 때문에 추구하기 어렵다.

다음과 같이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교육과정이 학생들에게 수동적이기를 요구하는 것은 이제는 중단해야 하며, 교육과정의 의사결정은 학생들의 다양한 용구에 응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선택적이 되어야 한다”<sup>206)</sup>

이제는 학생과 교사가 서로 만나서 약속되고 계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과거와 현재의 체험, 교육과정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좀더 긴밀한 대화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움직임의 체험을 중시하는 체육에 있어서 특히 적절한 시사점을 준다.

체육수업은 지역사회의 문화와 각 학생들의 개성에 따라 체육적 활동에 대한 욕구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괄적으로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학습내용과 그 방법을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체육교과의 내용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역동성의 기준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만나서 적절한 체육적 활동을 합의 결정하고 그런 뒤에 활동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 융통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융통성 또는 유연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인간의 움직임과 그 의미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미리 일방적으로 계획된 고정적이고 폐쇄적인 내용이 아니라, 가르치려는 목적과 그 가능성에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학생의 욕구와 입장이 최대한 고려되어야 하며 살아 있는 체육적 내용을 설정하고 운영함으로써 체육의 역동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체육의 내용설정 기준이 포괄적이고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학생들의 선택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이다. 역동적인 체육의 내용을 역동적으로 학습하도록

---

206) I. K. Soliman, *Interactive Curriculum Development in Secondary School : A Phenomenology Perspective*, Curriculum Development Centre of Canberra, Australia, 1981, pp. 28-29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조건들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렇게 보장하도록 노력하는 가운데 체육교육의 가능성이라는 영역이 열려가는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체육교과내용의 선정에 요구되는 개념인 ‘포괄성’, ‘통합성’, 그리고 ‘역동성’이라는 개념의 실천을 체육적 암과의 관련 속에서 전개해야 한다는 본 연구의 시각에서 볼 때 이것은 인간의 신체를 하나의 객관적 대상으로 취급해온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포괄성과 통합성, 그리고 역동성의 실천을 위하여 현상학적 입장과 크게 관련된 소메틱스<sup>207)</sup>에서의 ‘소마’라는 주제는 체육교육에 큰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주제와의 관련 속에서 현대 체육교육에서는 인간의 깨달음과 연결하여 소마의 교육을 체육교과내용으로 채택할 수 있는 가능성<sup>208)</sup>을 찾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양의 스포츠와 함께 동양적인 체육의 영역<sup>209)</sup>까지 확장하여 체육교육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겠다.

## 5) 체육지도와 평가의 방향

### (1) 체육지도의 방향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육이 체육적 암에 기반한 인간 움직임의 체험을 통하여 인간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는 중요한 교육적 사명을 갖고 있다면 그러한 체육은 어떻게 지도되어야 할까? 여기서는 체육의 현상학적 지도

207) Thomas Hanna에 의하면 'Somatics'는 'Soma'즉, 내적으로 지각된 몸을 연구하는 것이다. 인간은 외적으로 관찰될 때, 객관적 대상으로 취급될 수 있는 신체로서 지각되지만, 내적으로 체험된 신체 즉, 'Soma'의 시각은 동양적 인간관인 '심심 일여'의 관점과 유사하며, 신과학운동에서 새기되는 새로운 유기체적 세계적 내지는 인간관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Thomas Hanna, "The Field of Somatics", in Somatics, Vol.1, Autumn, 1976, pp.30-34 참조).

208) Somatic Education에 관해서는 정응근, 오정석, 박현우의 "Somatic Education으로 서의 체육의 가능성", 한국여성체육학회, 제 6권, 1992년 12월, pp. 21-31을 참조

209) 동양적 체육에 관해서는 정응근, 오정석, "동서양 체육사상의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체육연구소논집, 제 12권 2호, 1991년 12월, pp. 13-28 참조

방법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는 기본 성격을 고찰할 수 있다.

체육을 현상학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가? Wagner는 이를 ‘안으로부터의 접근(an inside approach)<sup>210)</sup>’이라고 하였다. 즉, 현대문명을 주도해온 실증과학은 인간의 의식을 밖으로부터 이해하려고 노력해 왔음에 비해, 현상학은 이와는 반대로 ‘안으로부터의 접근’은 밖의 세계의 실제에 대한 우선적 수용에 의해서 조정되는 하나의 변증법적 접근이다.<sup>211)</sup> 이러한 안과 밖의 변증법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체육교육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열매와 과일’<sup>212)</sup>의 비유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과일은 그 나무 즉, 한 인간의 지적, 정서적, 심동적인 것 등의 모든 것이 투영된 결정체로 보아야 한다. 체육은 인간의 모든 것이 하나로 집결, 표현된 결정체인 것이다. 따라서 체육은 지적, 정의적, 심동적이라고 할 만한 모든 면이 잘 반영된 조화적인 인간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

둘째는 ‘안으로부터의 형성’이다. 과일은 나무 자체의 내적인 힘에 의해 생성되어 무르익은 결정체이다. 그러나 과일은 ‘안’의 요소와 가능성만으로 ‘열매’를 결실할 수는 없다. 식물은 ‘~에로부터 ~에로’ 자란다는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지향성을 갖는다.

그래서 식물은 태양과 지구의 중심을 향해 뻗어 나간다. 그리고 그 식물은 그것을 내면화하면서 자란다. 열매는 그런 과정을 반영하는 결정이다. 열매는 태양과 수분과 양분 등 나무 밖의 힘과 요소를 필요로 한다. 즉, 안과 밖의 변증법적 통합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밖을 향해서, 그리고 밖의 힘을 통해서 성숙되는 그러나 안으로부터의 소지가 바탕이 되는 형성과정의 귀결이다.

셋째, 열매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감각 실체이다.

210) H. Wager, *Phenomenology of Consciousness and Sociology of Life World*, Canada, The University of Alberta Press, 1983, p. 10

211) Ibid., pp. 19-20

212) J. Chiari, *Art and Knowledge*, London : Paul Elek Limited, 1977, p. 119

이 실체는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하나의 '세계 속에 존재'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몸이 이루어내는 움직임이라는 열매는 하나의 결과요, 가능성이면서도 추상이나 관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될 수 있는 실체'로서 존재한다. 이것은 개념, 상징, 추상의 수준에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살아 있는 직접적이고 감각적인 접촉이나 움직임에 의해서만 온전하게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열매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의 생명체로서 '생성-성장-결정'이라는 과정에 의한 하나의 결과이지만, 내일의 시작에서 보면 또 다른 하나의 시작이며 하나의 가능성이다. 열매는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내일의 가능성으로의 '열림'에 그 의미가 있다. 열매는 그 열매가 열렸던 나무의 지향성이다.

마지막으로 열매는 맛있는 과즙과 과육을 풍부하게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열매가 지향하는 것은 그 과육과 과즙을 제공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씨앗의 전수 즉, 종의 확산이라는 종의 지향성을 파악하는 일이 존재의 근원적인 이유를 묻는 하나의 삶의 방식이다. 따라서 인간이 자신의 몸으로 만들어낸 운동이라는 형태의 움직임의 체험은 존재 지향적 접근의 한 방식이며 이런 점에서 체육은 다른 어떤 체육방식보다도 우리 인간의 삶의 본질에 적합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예컨대, 체육교육은 이상에서 말한 열매에 비유될 수 있다. 열매는 내적인 통합, 안과 밖의 결합, 안과 밖의 통합, 그리고 구체적인 실재성과 현 존재의 초월성 등의 현상학적 성격을 갖는다. 열매는 이와 같은 체육지도방법의 현상학적 전개에 단서를 제공한다.

이상의 열매의 현상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체육지도방법을 실천적이며 가시적인 실제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우리는 여기서 미술교육 연구가로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려는 현상학적 시작에 상당히 접근된 수업의 실제<sup>213)</sup>를 보

여주는 Barkan의 설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는 체육은 아니지만 소위 이론과 실제가 서로 부옹하는 좀더 훌륭한 미술지도의 특징을 살아 있는 모습에서 파악하였다. Barkan은 이론과 실제를 분리하지 않는다. 그는 이론과 실제가 하나로 융합될 때 비로소 훌륭한 미술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중요시한다.

그러면 이상에서 말한 열매의 현상학적 함의나 Barkan의 주장 등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시사하는 체육지도방법의 기본 방향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것은 존재의 본질적 의미가 '움직임으로 지각되는 깨달음의 체험성'이다. 즉, 좀더 체험성이 강조되고 그것에 초점이 주어진 체육의 지도가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움직임으로 지각되는 깨달음의 체험성 이란 인체의 운동지각과 그 표현과 이해와 그 실천이라는 체육활동의 성격을 뜻한다. 따라서 여기서의 '움직임으로 지각되는 깨달음의 체험성'이라는 말은 첫째, 움직임 지각의 체험성, 둘째, 깨달음의 체험성, 그리고 체육적 앎의 체험성을 강조한다는 의미이다.

먼저 '움직임 지각의 체험성'이란, 인간이 운동하는 데 있어서 지각활동의 체험성을 강조하는 것은 인간운동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움직임의 지각으로 나타나는 체험의 의미를 판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지도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움직임의 체험이란 체육적 활동이 갖는 지각의 요소 또는 그 단서가 의식과 작용하여 '하나의 유의미한 형태로 체험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유의미하다는 것은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움직임 속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운동의 참된 모습과 고유의 가치를 의식함을 말한다.

이러한 움직임 지각의 체험적 의식을 고수하는 체육지도방법을 좀더 구체화해 보자. 우리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체육지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피상적이고 흥미없는 소위 '개념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판에 박힌

---

213) M.Barkan, Thought Art to Creativity, Allyn and Bacon, 1960.

듯한 체육적 활동들로부터 어떻게 탈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체육을 개념중심으로만 하고 끝내거나 실기중심의 체육활동에 흥미를 잃는 이유는 '운동하고픈 충동의 결여'에 있다. 즉, 운동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 같은 무엇이 가슴과 온몸에서 스스로 밀고 올라오는 충동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충동은 인간 움직임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존재의 진실을 목격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자기체험으로 만났을 때 강하게 일어난다. 그러나 대부분의 체육수업에서는 흐릿한 기억이나 일상적이고 기계적인 개념을 배경으로 해서 운동을 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운동이 피상적이거나 상투적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기 움직임의 체험적 운동'은 그것을 자신의 몸으로 실천하는 활동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체육을 학생들의 움직임 즉, 운동능력뿐만 아니라 그 체험의 영역까지도 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길이다.

두 번째로 '깨달음의 체험성'에 대해 살펴보자. 여러 가지 운동상황을 대면하고 그 속에서 움직임을 실천하는 가운데 다양하게 나타나는 나의 움직임에 대한 깨달음을 체험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소위 보다 바람직한 운동형태를 만들어가는 체육적 사고력이라는 말로 그 뜻을 설명할 수 있겠다. 이 말은 체육적 활동에 있어서 좀더 '의식이 깨어 있는' 체육적 활동이 되도록 체육을 지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전술한 움직임 지각의 체험적 활동과도 관련된 내용이겠으나, 무수한 운동동작을 행하고 수정하면서 이루어지는 연속적인 움직임에 대한 판단과 선택과정에서의 지각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운동선수들은 자신이 이루어야 할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수많은 움직임에 대한 탐색과 시도와 개작이라는 진화적인 변천과정을 거친다. 운동선수들은 하나의 완벽한 동작을 완성하고 이를 실제에 활용할 수 있는 살아 있는 동작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무수한 예견과 시도와 선택, 그리고 판단을 수행한다. 이것이 바로 지각적 깨달음의 체험으로 추구해가는 지성의 탐구이다.

이 과정은 이미 인식, 그리고 지각과 더불어 깨달음의 연속으로 나타나는 체육적 맑에 이르는 체육적 사고의 과정이기도 하다.

우리는 인간의 신체적 움직임으로 이루어지는 운동이라는 과정이 바로 감각적 양상을 띠는 정신적 작업임을 이제는 충분히 알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체육활동에서의 체험성을 충분한 움직임의 지각과 깨달음으로 열리는 체육적 사고과정을 통한 직접~~역~~이고 감동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지도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체육적 맑의 체험성'을 알아보자. 맑이란 어떤 현상에 대한 안목을 갖는 것이며, 안목을 갖는 것이란 그 현상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다. '체육적 활동에 대한 이해'라 함은 인간이 어떤 운동상황에 놓였을 때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에 알맞는 자신이나 타인이 만들어 내는 움직임 즉, 운동의 의미를 파악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이를 능숙하지는 않지만 내 몸으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첫째, 체육적 활동을 하는 사람의 '움직임 의도가 그 운동상황과 함께 만난다'는 점과 둘째, 이해 활동은 이러한 '의도의 실천과 운동상황의 만남이 바로 어떤 맑에 도달하고자 하는 탐구작업'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체육지도의 활동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체육의 존재방식을 교육적으로 수용한다는 점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체육은 직접적인 자기 자신의 움직임을 창출하는 활동으로,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의 생활 속으로 내면화하는 산 활동으로 전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육적 활동의 이해라고 할 수 있는 체육적 맑의 지도란 인간운동의 본질에 대한 발견과 그 발현의 과정을 언어나 실기와 또는 대화나 움직임으로 제시하는 활동이라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즉, 지도자가 발견한 동작이 갖는 의미를 학습자와 함께 공유하는 '나눔'의 활동인 것이다. 이런 이해활동은 그냥 이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몸으로 해보는 체육적 활동과정에서

앎을 체득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논리를 취해야 한다. 그러므로 체육을 이해하도록 하는 지도는 체육이론가들이 연구를 통하여 추구하는 가치와 의미를 학생들이 추구하고 탐구하도록 도와야 하는 작업인 것이다.

이상에서 말한 움직임의 지각, 깨달음, 그리고 체육적 깊이 체험성이란 상호 침투적인 한 속성의 유기적인 활동요소와 형태임을 유념하여 통합적으로 지도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통합적으로 지도되어야 한다는 것은 세 활동의 강조 점과 특성을 유지하면서 유기적인 성격이 위축되지 않도록 수업이나 체육적 활동들을 계획하고 지도하며, 또한 전체가 하나로 운영되는 활동을 가급적 많이 계획하고 지도하여야 겠다는 의미이다.

## (2) 평가의 방향

그러면 체육교육에서의 평가는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까? 체육교육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평가의 문제는 소위 교육평가이론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객관성, 타당성, 신뢰성의 보장문제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방편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교사 자신의 임의적, 주관적 판단에 의한 판정보다는 체육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가급적 객관성있는 평가자료를 많이 확보하고 그 자료를 종합평가하여 성적을 내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자가 후자보다 체육 교육의 평가에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체육이 운동선수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양인으로서의 균형잡힌 인간 양성을 돋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즉, 한두 가지의 객관적 기능이나 기술이 좋은 기능인보다는 체육적 활동내용이 내포하고 있는 이해, 기능, 태도를 폭넓게 지니는 인간을 기르는 것이 보통교육으로서의 체육교육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현재 우리나라의 체육의 문제점은 체육행동의 특성을 수학이나 과학 등의 교과에서와 같은 단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체육수

업은 다른 교과의 수업하고는 달리 복합적인 성격들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다의적인 체육수업을 단순히 계량적인 평가기준으로서만 파악하려는 것은 편협한 접근이라 하겠다.

체육의 평가방법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교육의 과학화나 평가의 과학화라는 교조적인 접근이 아니라 체육의 본연과 그 특성에 입각해서 강구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때 체육교과의 특성상 체육의 평가는 체육지도의 결과로 나타나는 과정과 그 결과의 질을 평가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체육에서의 평가는 학생들을 판정하고, 등급짓고, 점수화하는 태도와 방식을 버리고 학생들을 이해하고, 그가 되려고 하는 바를 도와주는 고무적인 이해와 지도의 과정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논평식 방법은 그 본질상 체육에서 중시하는 체험의 양식과 그 본질적인 맥을 같이한다. 교사는 운동상황과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학생들의 운동세계를 이해하고, 그가 의도한 것을 간파하여 잘한 점은 고무하고, 모자라는 점의 극복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이상의 평론적인 방법을 체육에 적용하는 것은 어떤 간단한 기준이나 간편한 측정이나 검사도구를 소정의 항목에 걸쳐 학생들의 운동세계나 그 개성을 규정하고 평가하려는 규격화된 방식을 지양하고, 그와는 반대 입장에서 개인마다의 특성과 비규정적인 창의적 움직임의 본연을 열어주고 이를 고무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평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지 몇 개의 표준적 측정치에 의한 평가기준이나 검사도구에 의해서 학생들을 체육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반드시 재검토되고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의 개선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단지 배운 체육적 내용을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운동세계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인간 움직임의 의미와 그 체득이 이루어지도록 지도되어야 하며, 그 평가에 있어서는 체육을 통하여 한 인간이 체육적으로 '되어감

(becoming)'이라는 성취과정을 면밀히 관찰하고, 학생들의 개성과 그 가능성 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앞에서 규명된 체육적 암과 그 지식자원으로서의 운동수행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하여 '체육'개념을 재해석하고 다차원적으로 나타났던 체육적 지식의 통합 가능성을 모색한 다음, 체육교육의 존재 지향적 전개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체육'이라는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생기게 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많은 학자들은 'Movement Science, Kinesiology, Activity Science, Exercise Science, Sport Science, Human Movement, Kinanthropology' 등의 새로운 명칭을 들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체육적 암에 비추어 볼 때 첫째, '체육'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되 우리 모두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해석을 하고 이를 공식화시켜 사용하든지 둘째, 공동적인 합의를 통해 '체육'개념에 대체 가능한 용어를 만들어서 사용자 모두가 공유하도록 공식화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명칭이 선택되든 그 바탕 되는 세계는 전술한 체육적 암이 되어야 한다.

앞 장에서 살펴본 다차원적인 체육적 지식의 통합 가능성은 현 체육적 지식이 이론이든 실기이든 간에 그 모두가 지향하고 있는 세계가 있음을 상정함으로써 제시될 수 있다. Saul Ross가 제시하고 있는 지식지도나 Alley의 체육지식의 관계구조모형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차원적인 체육적 지식의 지향점이다. 이것은 체육적 이론과 실기의 세계가 추구하고 있는 체육적 암의 세계이다. 따라서 현 체육적 지식은 체육적 암의 세계를 통해서 비로소 모학문으로 환원되지 않고 체육의 영역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체육적 암의 영역은 체육의 하위 학문영역을 전제로 하여 더욱더 그 세계를 확대, 심화해 나아갈 수 있다 하겠다.

체육적 암에 근거한 체육교육은 존재 지향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체육의 특성상 체육교육은 인간 움직임의 주체적 체험과 그 상상력과 깨달음으로 점철되는 까닭이다. 따라서 체육교육의 목적은 인간의 본래 모습찾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그 목표는 자아의 깨달음과 체험의 고양에 두어야 하며, 이것은 움직임의 실천에 따른 자

아의 이해와 자기 인식의 도달로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그 교과내용은 지각-실천-이해라는 '포괄성'과 체육적 앎이 체계적으로 구조화된 통합성, 학생의 참여가 가미된 역동성이 담겨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동양의 무예나 소메틱스의 영역은 큰 시사점을 준다.

그리고 끝으로 체육의 지도는 '움직임 지각의 체험'과 '깨달음의 체험', 그리고 '체육적 앎의 체험'이 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평가는 체육의 특성상, 과학적이거나 교조적인 접근이 아니라 개개인의 체험이나 깨달음을 운동수행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안목과 '되어감'이라는 성취과정의 수준을 고려하는 논평식 방법이 바람직하다.

## VI.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다른 분야와는 달리 체육의 독자적인 탐구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체육적 깊이'의 문제를 규명하고, 이를 통해 현 체육학의 지식체계와 체육교육의 목적 및 목표, 그리고 그 교과내용을 재해석해보려는 것이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현 체육학이나 체육교육에서 탐구되고 가르쳐지고 있는 지식은 어떤 종류의 지식이며, 그것은 체육이 아닌 다른 영역의 지식과 구별할 수 있는 고유한 깊이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가?
- 2) 다른 분야와는 다르게 체육의 독자적인 탐구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체육적 깊이의 세계는 존재하는가?
- 3) 만약 체육적 깊이의 세계가 인정된다면 그 깊이에 근거하여 볼 때 지금까지 인정되어온 체육학의 지식체계와 체육교육의 목적, 목표의 재해석은 가능한가?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살펴보았으며 연구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체육학 지식체계와 체육 교과내용의 지식유형과 그 인식 기반을 파악함으로써 현 체육에서 추구하고 있는 체육적 지식의 실상과 그 문제점을 규명하였다.

둘째, 현재의 체육분야에서 추구하고 있는 지식을 양산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전통적인 연구방법의 정체를 살펴보았다.

셋째, 우리 인간의 삶의 조건과 함께 체육 고유의 탐구영역이 되어야 할 체육적 삶을 밝혀보았다.

넷째, 상기의 체육적 삶의 인식 기반을 규명하였다.

다섯째, 이상의 체육적 삶을 토대로 하여 '체육'개념의 재해석과 함께 체육의 본질적 가치를 규명하였다.

여섯째, 앞에서 밝혀진 체육적 삶과 함께 전통적인 체육적 지식의 통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일곱째, 이상의 체육적 삶을 기반으로 하여 기존의 체육교육의 목적 및 목표, 그리고 그 교과내용을 재해석함으로써 체육교육의 이상적 전개방향을 인간의 삶의 양식과 상상력,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1960년대의 학문화 운동으로 제기된 체육의 학문성 문제에 대한 Henry의 학문적 정당성 논리와 함께 체육은 체육학과 체육교육으로 나뉘어졌다. 그리고 각각의 영역은 독자적인 연구내용이나 방법을 개척해나가기보다는 각각 인간 움직임을 설명하는데 용이한 다른 학문의 내용을 차용하여 그 전문성이 나 학문성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해왔기 때문에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이라는 다차원적인 지식으로 다양하게 채워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다차원적인 지식은 하나의 체육현상에 대한 하나의 체육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리로서 새롭게 엮어지지 못한 채로 머물고 있다. 이러한 체육적 지식의 혼재현상은 인간 움직임이라는 연구주제의 특성 때문에 야기되는 체육적 지식의 다학문적이고 교차학문 지향적이며, 학제 지향적인 성격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전체는 단순한 부분의 합이 아니라는 점에서 볼 때 현재의 지식 체계와 혼재된 구조로서는 체육의 정체성을 찾을 수도 없고 다양한 현 체육적 지식을 하나의 체육이라는 삶의 영역으로 탄생시킬 수 없다. 따라서 개별

과학의 지식내용을 통합하는 방법과 체육의 정체성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체육연구자들이 기반으로 삼았어야 할 탐구영역이라 할 수 있는 핵심적 맑의 영역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를 위해서는 현 체육학의 지식세계가 근거하고 있는 Descartes적인 인간관을 극복할 수 있는 인식론적 근거가 요구되며, 이것은 체육의 특성상 이론과 실기를 통합할 수 있는 맑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것이다.

앞 장에서 알아본 다차원적인 체육적 지식을 양산하게 된 결정적 역할을 해온 전통적인 체육의 과학주의적 연구방법론의 정체와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문제해결의 가능성은 살펴보자.

체육은 초기의 학문화 과정에서 그 당시의 과학적 연구방법을 그 학문적 기준으로 삼고 발전하였으며, 그 방법론의 양상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그리고 인문과학이라는 다차원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전개과정에서 지나친 과학주의의 편향적 수용으로 인하여 체육 고유의 탐구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 움직임이라는 맑의 내용을 밝혀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때문에 모학문으로의 환원을 자초하고 있는 결과를 냉고 있다.

과학주의의 기본 가정 및 방법은 어떤 연구대상이든 이를 객관화함으로써 인과론에 의해서 설명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그러한 객관적 관찰과 실험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근대적인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부정적인 결론들이 터져나왔다. Popper의 비판적 합리주의, Kuhn의 패러다임론, Feyerabend의 방법론적 무정부주의 등이 그것이다.

이제 체육현상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연구방법론의 변화를 토대로 연구방법론의 현 주소를 재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참된 체육적 지식을 찾을 수 있는 연구 방법론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 연구방법이란 연구문제에 의해서 결정되는 까닭에 현재 다차원적인 지식의 집합체로 보이는 체

육적 지식들이 지향하고 있는 체육 고유의 탐구영역의 마련이 선행된다 하겠다. 아마 이 영역은 모학문으로 환원되어 버리고야 말 그러한 체육적 지식이 아니라, 다른 학문영역에서 추구하는 지식과 구별될 수 있는 앎의 세계일 것이며 참된 체육현상으로서의 인간 움직임을 규명해낼 수 있는 내용일 것이다.

인간의 앎의 조건과 체육에서의 앎, 그리고 인식주체로서의 신체와 암묵적 지식이라는 개념과 함께 체육 고유의 탐구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체육적 앎의 모습을 살펴보자.

인간의 움직임은 동물의 움직임과는 다르며 유보적이며 사고가 깃든 것이다. 그 움직임의 변화 가능성은 인간의 미완성적인 몸의 개방성에서 기인하며, 그 개방된 움직임이야 말로 인간성의 표현이다. 이상의 움직임이라는 개방성은 바로 인간의 앎에 대한 욕구와 관계가 있다. 흔히 지식은 방법적 지식과 명제적 지식으로 구분된다. 체육에서의 앎이란 인간의 움직임을 위한 앎의 기능을 통해서 파악되어야 하기에 이론과 실기의 구분은 사실상 무의미해진다.

그러면 체육의 독자적 탐구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체육적 앎의 세계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체육이라는 이름하에서 제공된 다양한 실기와 이론을 배움으로써 ‘체육적 앎’을 체득했다는 말은 바로 우리의 움직임을 운동 상황에서 이해하고 실천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다. 이는 체육이라는 활동을 기반으로 할 때 인간의 움직임 현상과 그 움직임의 길을 자신의 움직임에 깨어 있는 상태에서 체득하고 이를 실천하는 앎의 상태이자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몸의 길’이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이상의 ‘체육적 앎’의 인식기반은 Merleau Ponty의 인식주체적 신체와 Sartre의 대자적 존재로서의 신체, 그리고 암묵적 지식론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인식 기반에서 볼 때 체육적 앎으로 주장되는 인간 움직임의 길이란 운동수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체육에서 독자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앎의 영역이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체육적 앎의 영역을 탐구해 나가는데 있어서 그 지식 자원을 제공

하는 것은 바로 체육의 특성상 ‘운동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체육적 맑과 관련하여 파악된 운동수행의 영역은 단지 과학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접근되어 밝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술한 인식주체로서의 몸이라는 주체적 참여와 함께 개척될 수밖에 없는 맑의 세계이며, 그 세계는 무한히 넓은 까닭에 체육적 맑의 자원으로서의 운동수행이라는 영역은 연구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운동수행과 체육적 맑을 기반으로 하여 과거와 현재의 체육지도자와 연구자, 그리고 체육활동을 향유하는 자들은 모두 함께 체육의 세계를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체육적 지식 또한 그 정체성의 기반을 그곳으로부터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규명된 체육적 맑과 그 지식자원으로서의 운동수행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하여 ‘체육’개념을 재해석하고 다차원적으로 나타났던 체육적 지식의 통합 가능성을 모색한 다음, 체육교육의 존재 지향적 전개방향을 살펴보자.

먼저 ‘체육’이라는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생기게 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많은 학자들은 Movement Science, Kinesiology, Activity Science, Exercise Science, Sport Science, Human Movement, Kinannthropology 등 의 새로운 명칭을 들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체육적 맑에 비추어 볼 때 첫째, ‘체육’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되 우리 모두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해석을 하고 이를 공식화시켜 사용하든지 둘째, 공동적인 합의를 통해 ‘체육’개념에 대체 가능한 용어를 만들어서 사용자 모두가 공유하도록 공식화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명칭이 선택되든 그 바탕이 되는 세계는 전술한 체육적 맑이 되어야 한다.

앞 장에서 살펴본 다차원적인 체육적 지식의 통합 가능성은 현 체육적 지식이 이론이든 실기이든 간에 그 모두가 지향하고 있는 세계가 있음을 상정함으로써 제시될 수 있다. Saul Ross가 제시하고 있는 지식지도나 Alley의 체육지식의 관계구조모형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차원적인 체육적 지식의 지향점이다. 이것은 체육적 이론과 실기의 세계가 추구하고 있는

체육적 맑의 세계이다. 따라서 현 체육적 지식은 체육적 맑의 세계를 통해서 비로소 모학문으로 환원되지 않고 체육의 영역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체육적 맑의 영역은 체육의 하위 학문영역을 전제로 하여 더욱더 그 세계를 확대 심화해 나아갈 수 있다 하겠다.

체육적 맑에 근거한 체육교육은 존재 지향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체육의 특성상 체육교육은 인간 움직임의 주체적 체험과 그 상상력과 깨달음으로 점철되는 까닭이다. 따라서 체육교육의 목적은 인간의 본래 모습찾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그 목표는 자아의 깨달음과 체험의 고양에 두어야 하며 이것은 움직임의 실천에 따른 자아의 이해와 자기 인식의 도달로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그 교과내용은 지각-실천-이해라는 ‘포괄성’과 체육적 맑이 체계적으로 구조화된 통합성, 학생의 참여가 가미된 역동성이 담겨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동양의 무예나 소메틱스의 영역은 큰 시사점을 준다.

그리고 끝으로 체육의 지도는 ‘움직임 지각의 체험’과 ‘깨달음의 체험’, 그리고 ‘체육적 맑의 체험’이 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평가는 체육의 특성상, 과학적이거나 교조적인 접근이 아니라 개개인의 체험이나 깨달음을 운동수행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안목과 ‘되어감’이라는 성취과정의 수준을 고려하는 논평식 방법이 바람직하다.

이상과 같이 살펴보았을 때 체육에는 다른 분야와는 다르게 독자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맑의 세계, 즉 체육적 맑이 존재함을 알 수 있으며, 현 체육적 지식은 ‘체육적 맑’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체육이라는 영역에 속할 수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내용을 출발점으로 하여 이제는 더 이상 표류하는 체육이 아니라 새로운 영역으로 발전 도약해 나아가는 체육 전체를 위한 하나의 체육적 맑과 체육 하나를 위한 체육지식의 구체적인 구조와 내용이 마련되길 바란다.

## 참 고 문 헌

### <국내서>

- 강신복·최의창, “체육학문화 운동과 체육교과의 성격 : 학문성 강조 체육교과 교육 모형의 탐색”, 서울대학교 체육연구소 논집 제 12권 제 2호, 1991
- 김경린 역, Wessells, M. G. 인지 심리학, 서울 : 중앙적성 출판사, 1984
- 김명자 옮김, 토마스 쿤, 과학혁명의 구조, 서울 : 정음사, 1984
- 김용옥, 태권도 철학의 구성원리, 서울 : 통나무, 1990
- 김용환, 국민학교 교육과정 해설, 서울 : 교육과학사, 1993
- 김인용 외 역, 포프케비츠, 교육연구의 패러다임과 이데올로기, 부산 : 광야, 1988
- 김정명, “체육학과 과학주의”, 서울대학교 체육연구소보 제 23호, 1989
- 김종선 외 1인, 체육원리, 서울 : 동화문화사, 1979
- 김진, 생활속의 철학, 서울 : 자유사상사, 1990
- 김태길 외 1인역, Lamprecht, 서양철학사, 서울 : 을유문화사, 1992
- 김하자외 1인 역, 마이클 폴라니, 해리 프로시 지음, 지적 자유와 의미, 서울 : 범양사 출판부, 1992
- 문교부, 5차 국민학교 교육과정 해설, 서울 : 문교부, 1989
- 박병철·공국진 옮김, 프레드 A. 울프, 과학은 지금 물질에서 마음으로 가고 있다, 서울: 고려원 미디어, 1992
- 박종홍, 인식논리, 서울 : 박영사, 1972
- 박희준 옮김, 오오키 고오스케, 알고 싶었던 뇌의 비밀, 1991
- 박희준 옮김, 湯淺泰雄, “현대과학과 동양적 심신론”, 과학기술과 정신세계, 서울 : 범양 출판사, 1988
- 신중섭, 브라운, 새로운 과학철학, 서울 : 서광사, 1988

- 서울교육대학 부설 초등교원 연수원, 국민학교 1, 2급 정교사 자격 연수교재, 1992  
소홍렬, 과학과 사고, 서울 : 경문사, 1983  
손봉호·장영안 역, C. A. 반퍼슨, 몸·영혼·정신; 철학적 인간학 입문, 서울 : 서광사,  
1990
- 신중섭 역, 브라운, 새로운 과학철학, 서울 : 서광사, 1988  
신일철, 신중섭, 앤런 차머스, 현대의 과학철학, 서울 : 서광사, 1988  
유상건, ‘체육학 패러다임과 그 전환의 의미’,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3  
이규호, 교육과 지식, 서울 : 교육과학사, 1974  
이규호, 앎과 삶 : 해석학적 지식론, 서울 :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8  
이명현 역, 브라이언 매기, 칼 포퍼, 서울 : 문학과 지성사, 1983  
이종구 역, 브로노브스키, 인간 역사, 서울 : 삼성문화재단, 1976  
이정모, “과학적 물음의 본질 : 과학철학적 관점들과 그 시사점”. 실험심리 연구법  
총론, 서울 : 도서출판 성완사, 1988  
이홍우 역, Dewey, 민주주의와 교육, 서울 : 교육과학사, 1987  
이홍우, 교육의 목적과 난점, 서울 : 교육과학사, 1981  
임의도 외 2인 역, B. S. Bloom, 교육목표 분류학, 서울배영사, 1972  
전영삼 역, Helmat Seiffert, 학의 방법론 입문 I, 서울, 교보문고, 1992  
정웅근, ‘체육학의 학문성과 그 문제점’, 서울대학교 체육연구소보 제 23호, 서울대학교  
체육연구소, 1989  
정웅근, “메를로 퐁띠의 인식주체적 신체가 갖는 체육적 의의”,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1990  
정웅근·오정석, “동·서 체육사상의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체육연구소 논집,  
제 22권 2호, pp.13~28, 1991.  
정웅근·오정석·박현우, “Somatic Education으로서의 체육의 가능성”, 한국여성  
체육학회, 제6권, 1992, pp.21~31

정웅근, “체육학의 새로운 접근”, 1991학년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야외 세미나 특강자료, 1991

정웅근·오정석, 동서 체육사상의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연구소 논집 제 12권 제 2호, 1991

중완역, 일리인, 인간의 역사, 서울, 동서문화사, 1978

한완상·나상조 역, Erich From, 소유냐 존재냐, 서울, 전망사, 1978.

한전숙 외 1인, 현대철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1

한전숙, 현상학의 이해, 서울, 민음사, 1979

#### <국외서>

Alley, L. E. “A Search for Relationships”, The Academy Papers, 1977

Arnheim Rudolf, Art and Visual Perception, London, Faber and Faber, 1954.

Barkan M., Thought Art to Creativity, Allyn and Bacon, 1960.

Brownell C. L., E. P. Hagman, Physical Education Foundations and Principle, McGraw-Hill book Company, Inc. 1951

Bucher Charles A., Foundations of Physical Education, The C. V. Mosby Company, Saint Louis, 1975

Cheffers, J. “Teacher Educators and Researcher Talk to Each Other and Learn from Each Other”. AAHPERD update, 1980

Chiari J., Art and Knowledge, London, Paul Elek Limited, 1977.

Chu, D., Dimensions of sport studies, New York : John Wiley, 1982

Conant J. G., The Education of American Teachers, New York : McGraw-Hill, 1963

Csikszentmihalyi Mihalyi, Introduction in Optimal Experience : Psychological Studies of Flow in Consciousness, ed. Mihalyi Csikszentmihalyi and Isabella Csikszentmihalyi, Cambridge : Cambridge Univ. Press, 1988

Csikszentmihalyi Mihalyi, "Phylogenetic and Ontogenetic Function of Artistic Cognition", in the Arts, Cognition, and Basic Skills, ed. Stanley Madeja, St, Louis : CEMEL, 1978

David Best, "Degree Studies in Human Movement and Physical Education", Journal of Human Movement Studies, 1979

Dewey John, Art as Experience, New York : G.P. Putwam's Sons, 1934, 1958

Eylor, M. J. "Prelude to Understanding Relationships". The Academy papers, 1977

Fethe C. B., "Hand and Eye-The Role of Craft in R. G. Collingwood's Aesthetic Theory", British Journal of Aesthetic zz, winter, 1982

Fraleigh, Warren P., "The Moving 'I'", Robert G. Osterhoudt(ed.,) The Philosophy of Sport, Springfield, Lllinois, Charles C. Thomas publisher, 1973.

Francis Sparshott C., The Theory of Acts, Princeton, N. J. Princeton Univ. Press, 1982

G. Ryle, The Concept of Mind, London, Hutchinson, 1949

Gerber, Ellen W., "My Body, My Self", Unpublished Manuscript Presented to the 50th Annul Convention of Texas Association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and Recreation, Dallas, December, 1973.

Gulick, L., "The Biological Aspects of Athletic Specialization", American Physical Education Review, 1903

- Haag H., "Development and Structure of a Theoretical Framework for Sport Science ("Sportwissenschaft")", Quest Vol. 31, 1979
- Hanna Thomas, "The Field of Somatics", in Somatics, Vol.1, Autumn, pp.30 ~34, 1976.
- Hartwell, "Physical Training : its Foundation and Place in Education", American Physical education Review, 1987
- Harvey Nigel, "The Phychology of Action : Current Controversies," in Growth Point in Cognition, ed. Guy Claxton, London : Routledge, 1988
- Henry F. M., "Physical Education : An Academic Discipline", Journal of Health, Physical Education and Recreation, Vol. 97, No. 7, Sempember, 1964
- Henry F. M., "The Academic Discipline of Physical Education", Quest, 1964
- Holbrook, D., Furthur Studies in Philosophical Anthropology, Aldershot : Gower Pub. Co., 1988
- Inoue Seiji, A Phenomenological Approach of the Sport Experience, Dotoral Dissertation, the Ohio University, 1984
- Jeong Myung Gim, Physical Education as Artful Knowing,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 1989
- Howard V. A., Artistry : The Work of Artists, Indianapolis Hackett, 1982,
- Kenyon G. G., "On the Conceptualization of Sub-Disciplines within an Academic Discipline Dealing with Human Movement", Proceedings, National College Physical Education Association for Men, 1968
- Kenyon, G. G., "A Conceptual Model for Characterizing Physical Activity", Research Quarterly, 39, 1968

- Kleinman Seymour, "The Significance of Human Movement : Phenomenological Approach", in Sport and the body, edited by Ellen W. Gerber & William J. Morgan, Philadelphia : Lea & Febiger, 1979
- Kleinman Seymour, The Contemporary Philosophies of Pragmatism, Existentialism and Phenomenology". in R.N.Singer D.R.Lamb. M.Malina and S.Kleinman, Physical Education :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New York, Macmillan Company, 1972.
- Kroll W. P., Graduate Study and Research in Physical Education, Champaign, Illinois : Human Kinetics Publishers, 1982
- Kroll, W. P. Perspectives in Physical Education, New York and London : Academic Press, 1971
- Lawson, H., Invitation to Physical Education, Champaign, IL: Human Kinetics, 1984
- Lawson H & Morford, "The Crossdisciplinary Structure of Kinesiology and Sports Studies", Quest 31, 1979
- Macmurray John, The Self as Agent, Atlantic Height, N.J., Humanities Press, 1957
- Master, R., "The Psychphisical Experience", in Saturday Review, February 22, 1975.
- May. R. Man's search for Himself, New York, The New Americal Library, 1967.
- Merleau-Ponty Maurice, Phenomenology of Perception, Trans. by Colin Smith, New Jersey, The Humanities Press, 1978
- Metheny Eleanor, Moving and Knowing in Sport, Dance, Physical Education, Library of Congress Catalog, 1975

- Molinraux, E., "Military Drill", Proceedings of the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Physical Education, 1987
- Moore A Charles, Essays in East-West Philosophy, Honolulu, Univ. of Hawaii Press, 1991, p. 28
- Newell Karl M., "Physical Activity, Knowledge Types, and Degree Programs", in Quest, 1990
- O'Conner D. J.,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phy of Education, London : Routledge & Kegan Paul, 1966
- Phenix P., "Transcendence and Curriculum", in W. Pinar(de.), Curriculum Theorizing : The Reconceptualists, Berkeley, McCutchan Publishing Co, 1975.
- Pierce, J. R., "When in Research the Answer?", Science, 1968
- Polanyi M., Knowing and Being, edited by Marjorie Green,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 Polanyi, M., Personal Knowledg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5.
- Polanyi, Michael, The Tacit Dimension,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66.
- Renson, Roland, "Homo Movens : In Search of Paradigms for the Study of Human in Movement", in the Academy Paper No. 24, Human Kinetics Publisher, 1991
- Ross Saul, "Epistemology, Intentional Action and Physical Education,"in Philosophy of Sport and Physical Activity, ed. P. J. Galasso, Toronto, Candian Scholars Press, 1988
- Ross Saul, "The Epistemic Geography of Physical Education: Addressing the Problem of Theory and Practice", Quest, 1981

- Ross, Saul, "Physical Education : A Pre-discipline in Search of a Paradigm",  
International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1978
- Rothstein, A. L. "Practitioners and Scholarly Enterprise", Quest 20, 1973
- Ryle, Gilbert, The Concept of Mind, London : Hutchinson, 1949
- Sargent, "Physical Training in School and College, Shall it be Compulsory?",  
American Physical Education Review, 1908
- Sartre J. P., Being and Nothingness, Trans. by Hazel E. Barnes, New York,  
Washington Square Press, 1956
- Sartre J. P. The Transcendence of Ego, Transl by F. Williams & R. Kirk  
Patrick, New York : Noonday Press, 1957
- Schon Donald A., Education the Reflective Practitioner, San Francisco:  
Jossey-Bass, 1987
- Sheedy, A. "Une Philosophie de Leducation Physique un Embarras, un Luxe  
ou une Necessite?", Canadian Journal of Applied Sport Science, 1976
- Shea, T. J., "Sport as a Theoretical Base for Physical Education", The Academy  
Papers, 7, 1973
- Siedentop, D., An Introduction to Physical Education, Sport and Fitness,  
Mountain View, CA : Mayfield, 1990
- Siedentop, D., Physical Education : Introductory Analysis, Dubuque, IA :  
Wm. C. Brown Company, 1980
- Soliman I. K., Interactive Curriculum Development in Secondary School : A  
Phenomenology Perspective, Curriculum Development Centre of  
Canberra, Australia, 1981.
- Sparshott, The Theory of the Arts, Princeton, N. J. Princeton Univ. Press, 1982

- Spielgelberg Herbert, "The Phenomenology of Jean-Paul Sartre", In The Phenomenological Movement, Vol. III,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65
- Thomas Carolyn E., Sport in a Philosophic Context, Philadelphia, Lea & Febiger, 1983
- Thomas Carson Mark, "Philosophy of Piano Playing : Reflections on the Concept of Performance,"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1981
- VandenBerg, "The Human Body and the Significance of Human Movement," In Psychoanalysis and Existential Philosophy, H. Ruitenbeek(ed.), New York, E. P. Dutton, 1962
- VanderZwaag, H.J. "Sport Studies and Exercise Science ; Philoslpical Accommodation", Quest 20, 1973
- Wangner H., Phenomenology of Consciousness and Sociology of Life World, Canada, The University of Alberta Press, 1983.
- Whittack Arnold, "Toward Precise Distinctions of Art and Craft", British Journal of Aesthetics 42, Winter 1984
- William Haper A., "Man Alone", Quest, Vol. 12, May, 1969
- Willams J. F., "Education through the Physical", Journal of Higher Education, 1, 1930
- Williams J. F., The Principles of Physical Education, W. B. Saunders Company, 1964
- Wolterstorff Nicholas, "The Work of Making a Work of Music", in What is Music?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Music, ed. Philip Alpersin, New York : Haven Publications, 1987

Wood T. O., "The New Physical Education in Western", The Making of American Physical Education, New York : A Pplton-Country Croffs, 1962

Zeigler E. F. & K. J. McCristal, "A History of the Big Ten Body-of-Knowledge Project in Physical Education, QUEST, No. 4, 1967

Zeigler E. 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 an Introduction, Lea & Febiger, 1982.

# **ABSTRACT**

## **On Knowing in Physical Education**

Oh, Jeong-Seok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is dissertation which sets it apart from much of the other research in Physical Education is that it is an original investigation the nature of "Physically derived knowlege". In the course of this investigation the aims and objectives, as well as the current core content of the field of physical education wil be re-interpreted.

For the sake of these objectives, the following problems were considered :

1. What is the nature of the body of knowlege currently being pursued and taught in the field of physical education and ; what, if any, are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is knowlege by which physical education can distinguish itself from other bodies of knowlege?
2. Does, in fact, this unique area of investigation termed physically derived knowlege actually exist?
3. If it can be shown that this field of knowlege does exist, is a re-interpretation of the traditional field of physical education's aims and objectives possible?

In the persuit of the above research objectives the following procedures and

methods were utilized :

- A) After examining the current structure and system of knowledge in physical education, as well as the content of the curriculum, the current direction being pursued in physical education was examined.
- B) Examination of the traditional research methodology which has been determined by the mass produced knowledge sought in current physical education disciplines.
- C) An attempt was made to clarify physically derived knowledge under the premise that it should be centered as the unique domain of physical education.
- D) While re-interpreting the concept of physical education based of the premise of physically derived knowledge, the essential value of physical education was examined.
- E) An investigation was made into the possibility of combining the traditional body of knowledge in physical education with physically derived knowledge.
- F) Through a re-evaluation of existing physical education's aims, objectives, and curriculum, the ideal course of development of physical education in relation to the mode of physically derived knowledge and the human originality and realization inherent in this were examined.

In the 1960s, based on Henry's logic regarding academic appropriateness, there was a movement to boost the academic credibility of physical education which resulted in physical education being bifurcated into the science and education fields. As a result, physical educator identified and treated its related subject matter through the academic logic and techniques of existing disciplines such as the natural scienc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his dependency on existing disciplines was adopted in lieu of investigating and developing original methods based on the content of physical education's existing body of knowledge. This has resulted in a shift in the direction of the mother discipline of physical education away from any earnest consideration of knowledge derived from physical motion toward an objective, scientific treatment of the

phenomenon of human movement and it's attendant considerations.

Therefore, ultimately, this dissertation, through a re-evaluation of the current state of physical education has attempted to illuminate the estrangement of physical education from it's core concern, that is the value derived from movement by the human being. Furthermore, an attempt was made identify that aspect of physical education which is unique only to physical education, that is knowlege derived from human movement or from the physical dimension of human existence. And through this attempt to seek to restore to physical education a clear concept and direction as to it's mother discipline and research methodology.

This is done in the hope that this type of research might help physical education recover it's original birth right which was the harmorization of human knowlege with human movement through understanding and enhanc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eywords : physical education, physically derived knowledge, The traditional body of knowledge in physical education, The way of Mom(몸), The lived experience of enlightenment, performance**

## < 부 록 >

### ‘체육적 앎’을 기반으로 진행했던 강의 계획서와 수강생들의 리포트

운동을 할 때 우리는 당연히 우리 자신의 앎과 연결하여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해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우리는 왜 운동을 우리 자신의 앎과 연결지어 생각하고 실천하지 못하는가? 대다수의 학생들이 체육을 단지 단순한 운동기술만을 익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자신의 앎의 세계로까지 확대시켜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 그리고 체육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설명해내려 하는 영역은 과연 무엇일까? 지금 체육이 직면하고 있는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묘안은 없을까? 이런 저런 질문을 던지다 보니 작게는 한 운동종목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이 크게는 체육전반에 걸쳐 있는 고유의 탐구영역으로서의 앎의 세계라는 문제로 생각이 모아졌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나는 ‘겉도는 연구, 겉도는 강의’를 하지 않기 위해 상기의 문제를 연구하고 강의해야 했다. 체육에 관한 한 어떤 내용을 공부하든지 체육 고유의 앎의 영역은 항상 본격적인 연구나 논의를 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왔다. 이 문제는 나만의 고민이 아닐 것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체육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관한 근본 내용이라는 점에서 체육교육에 관한 핵심적 문제를 생각해 본 결과이다. 지난 4년 동안 체육적 앎을 생각하고 그 내용을 강의하기로 한 나의 결심이 본 연구에서 취급하고 있는 체육적 앎의 영역에 대한 ‘배움’으로 나를 이끌었고, 여기 실린 학생들의 리포트와 그들의 진지한 몸의 움직임들 또한 나에게 체육적 앎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다.

1991년 가을 학기부터 실제 테니스 강의는 다음 강의 계획서와 같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실린 학생들의 리포트는 ’92년도, ’93년도 여름방학 때 실시했던 계절학기 테니스 강좌를 수강한 학생들의 글 중에서 선택한 것이다.

먼저 강의 첫날은 오리엔테이션으로서 체육이라는 이름하에 개설되고 있는 각 운동종목의 관련성과 함께 ‘개념적 암’(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안목)과 ‘체험적 암’(개념적 암의 직접 체험으로 얻는 이해의 세계)과 ‘체육적 암’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를 배우는 목적을 설명하였다.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테니스라는 운동현상에 대한 설명과 실기가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에게는 두 가지 성격을 띤 리포트가 부과되었다. 테니스 책에 나온 내용과 학생들 스스로 직접 실천하면서 느끼는 자기 자신의 느낌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다. 이 과제를 함으로써 학생은 스스로 자기 몸 움직임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갖게 되고 자기행동의 주체가 되어간다.

체육적 사고의 틀, 체육적 상상력, 그리고 자연스러운 나의 움직임(몸의 길)으로 표현될 수 있는 ‘체육적 암’이 내가 그 동안 가르치고 싶었던 내용이다. 지난 4년 동안의 강사생활을 돌아보건데 이러한 내 목표는 상당한 정도로 성공을 한 듯싶다. 적어도 내가 가르쳤던 학생들은 자기가 지금껏 가졌던 잘못된 체육에 대한 편견을 버리게 되었고, 운동을 못하는 것이 힘이 없다거나 재능이나 기능이 뒤진다거나 하는 변명을 하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이제부터 깨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연습을 하기만 한다면 체육적 상황에서 스스로의 움직임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

내가 지금껏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체육적 사고의 틀’과 ‘체육적 상상력’ 즉 ‘체육적 암’이었다. 물론 이것은 이론과 실기가 자기 자신의 움직임으로 실천되면서 비로소 가능하다. 요 며칠 내게 배웠던 학생들을 만나 이야기하면서, 또는 리포트를 읽으면서 느낀 것은 이미 그들이 체육현상이나 암의 내용을 자신의 태도와 관련시켜 보는 단계에서 바로 내가 가르쳐왔던 사고방식과 태도로 해석하고 접근하려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를 만나기 전에는 단지 소비자였던 그들이 이제는 체육적 상황 속에서 자기 움직임과 관련된 생산적 사고를 해내기 시작한거다. 기쁜 일이다.

## 【 강의 계획서 】

강의명	테니스 1	담당 교수	오정석	연락처	
강의일시	199 . . . . .	매주 요일	: - :	장소	테니스장(우천시 )
강의목적	<p>첫째 : 테니스라는 운동을 통하여 우리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몸의 움직임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고의 틀과 안목을 갖게 한다(개념적 암).</p> <p>둘째 : 자신의 움직임에 늘 주체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에서 테니스라는 움직임을 실천학습하여 운동의 참맛과 우리 몸의 움직임 원리를 체득하게 하며, 스스로의 움직임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 그리고, 이상의 과정에서 우리 몸의 움직임 의미를 깨닫게 한다(체험적 암).</p>				
성적평가방법	출석 20%, Report 30%, 이론 20%, 실기 30%				

※ 사전준비사항 : 반드시 Tennis 책 한권을 통독하고 강의에 임할 것.

일시	강의내용(이론 및 실기)	Report(표지논 사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할 우선적 상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육과 테니스의 관련성</li> <li>- 깨어있음의 중요성과 반복 훈련의 의미</li> <li>- 일반학습과 운동학습의 차이와 유사점</li> <li>- 테니스장에서 지켜야 할 일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ennis는 힘으로 치는가?</li> <li>• form이란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rip과 form의 관계</li> <li>- 반복 점과 회전</li> <li>- 둔제와 담</li> <li>- 테니스를 잘치면 볼링을 잘 할 수 있다??!</li> </ul> </li> </ul>	- 우선적 상식과 나의 생각 나의 느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orehand strok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볼과 나의 관계 이해</li> <li>- 원시적 forehand stroke</li> <li>- 현대적 forehand stroke</li> </ul> </li> </ul>	- forehand stroke과 나의 움직임, 나의 느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ackhand strok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ackhand stroke가 더 쉽다?!</li> <li>- 원시적 backhand stroke</li> <li>- 현대적 backhand stroke</li> </ul> </li> </ul>	- backhand stroke과 나의 움직임, 나의 느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비자세와 Ground Stroke의 관계</li> </ul>	- 준비자세와 Ground Stroke 그리고 나의 움직임, 나의 느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간 실기 및 이론 테스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olley(forehand + backha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시적 Volley</li> <li>- 현대적 Volley</li> </ul> </li> </ul>	- Volley와 나의 움직임, 나의 느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mash(forehand + backha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시적 Smash</li> <li>- 현대적 Smash</li> </ul> </li> </ul>	- Smash와 나의 움직임, 나의 느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erv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oss와 Swing</li> </ul> </li> </ul>	- Service와 나의 움직임, 나의 느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말실기 테스트</li> </ul>	- 자유주제(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하고픈,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얘기를 아낌없이 적어내는 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강 및 이론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ame에 이르는 길</li> </ul> </li> </ul>	- Report 용지 3매 이상

### 첫번째

이번에 테니스를 배우게 되었다. 사실 테니스는 접수나 대강 계산할 줄 알고, 텔레비전에서는 유명한 경기를 보여주면 어쩌다 보는 정도이고, 처분 적은 없었다. 그러나 테니스를 쳐보고 싶은 마음은 많았다. 다른 사람들이 치는 것을 보면 나도 금방 배울 수 있을 것 같았고, 매우 재미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도 시간이 나지 않고, 또 배우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배우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여름방학 동안 친구의 권유로 배우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겨우 몇 시간 배운 것을 가지고는 얼마나 칠 수 있을까 의심이 들었다. 그러나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운동이라는 게 그저 뛰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고, 어떠한 운동이라도 그 원리를 알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비록 잘 치지는 못할지라도 나는 다른 사람이 무조건 연습하는 것 보다도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처음 수업으로는 운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셨다. 즉 운동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개념적 맥과 체험적 맥에 대해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욱 흥미를 느꼈던 것은 품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자신을 얹매었던 정형화된 틀에 대한 우리의 맹목적인 믿음을 알기 쉽게 깨뜨려 주었다. 우리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의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뿐더러, 도리어 자기 자신을 얹매여 창조성을 상실된다는 쉬우면서도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문제에 대해 다루었다. 그렇다고 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나온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답은 도리어 우리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집에 와서 수업시간에 들은 그림을 한번 잡아보았다. 콘티넨털 그림, 웨스턴 그림, 이스턴 그림을 잡아보고 수업시간에 들은 대로 이것이 무엇에 편하고 이것이 무엇에 불편한지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내가 잡은 그림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알지 못하여 수업시간에 테니스채가 없어서 구경만 했다. 그리고 손바닥에 있는 V자의 모양이 과연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 약간 불안하지만 나름대로 연습해 보았다. 지금 채이 없어서 내일 예습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 두 번째

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처음 하신 말씀은 운동을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즉 올바른 자세를 가지면 누구나 쉽게 배울수 있고, 부상도 잘 안 당한다는 것이다. 실습은 테니스 공을 손으로 바닥에 튀기는 것이었다. 즉 테니스는 힘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이 날아온 방향으로 우리가 가볍게 벽을 만들어주면 공은 쉽게 넘어간다는 것이다. 그것이 아주 기초적인 발리인 것이다. 우리는 억지로 손목을 꺾어 무리하게 힘을 들일 필요가 없을 뿐더러, 팔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발리에서는 콘티넨털 그립을 사용하면 백도 편하게 넘길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은 쉽지만 손목을 꺾고 벽을 만든다는 것도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다. 벽을 만든다고 생각하다 보면 엉뚱한 테다 쳐보내기 일쑤였다. 그 후 배운 것이 포핸드이다. 먼저 백핸드와의 비교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백핸드에 대한 어떤 알지 못할 공포의 이유를 설명해주셨다.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자세이기 때문이지 결코 어려운 자세는 아니라는 것이다. 포핸드는 공의 위치를 잡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테니스에서 공을 앞에 두고 치라고 할 때, 이 앞이라는 뜻은 배꼽의 앞이 아니라 어깨에서 앞으로 한 발자국, 왼쪽으로 옆이라는 뜻이었다. 이 자리에 공을 떨어뜨려 우리가 쳐야 할 공의 위치에 대한 감각을 익혔다. 그 후 손으로 공을 치는 것을 훈련했는데, 사실 보기에는 쉬워 보였는데 도대체 내가 어떤 자세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자꾸 하면서 잊어 먹어서 당황하고, 그러다 보면 더욱 잊어먹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약과였다. 테니스채를 잡아보고, 쳐보니 진짜 장관이었다. 도대체 내가 춤추고 있는 건지, 아니면 테니스를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손 따로, 발 따로, 허리 따로 움직이며 갑자기 원시인이 되어 버렸다. 그중 가장 잘 안 익혀지는 것이 벽을 만든다는 개념이었다. 쭉 올리라고 하는데 잘 안 되었다. 가끔은 잘되는 것도 같아서 친구를 보면 재미있다는 듯이 웃고 있어서 실망을 한다. 그 후 포핸드의 자세를 배웠는데 기존의 사람들이 가르치던 방식과는 다르게 설명하였다. 선생님께서는 그 이유를 자동차 축으로 설명하셨다. 기존의 가르치는 방법은 단순히 팔힘만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힘을 낭비하고 더욱이 효과도 없는 방법이었다. 선생님께서 가르치시는 방법은 의외로 쉬워보였다. 그래서, '자 이젠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데 막상 해보니 이것이야말로 진짜 춤이었다.

처음에 테니스를 신청할 때에는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한번 배워보니 결코 우습게 볼 수업이 아니었다. 이젠 하루하루 수업이 지나가는 것을 손꼽으며 수업을 들을 것 같다. 그러나 그만큼 뭔가 아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정말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그런데 어깨를 벌리지 않는다는 것은 보기에는 쉽지만, 해보면 가장 잘 안되는 것인 것 같다.

### 세 번째

어제 저녁에 리포트를 썼어야 하는데 술을 새벽 4시까지 마시는 바람에 그만 쓰지 못하고 잤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틀린 것이 있으면 너그럽게 웃어 주었으면.....

수업은 홀로서기로 시작했다. 그 후 마주서기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저번 시간과는 달리 서로 잘되는 것을 느꼈다. 저번 시간에는 너무 안 되어서 답답했는데 이번 시간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되어 시작을 기분좋게 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포핸드를 연습했다. 뭔가 어색한 것이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와서 지적해주셨다. 뭐냐하면 손목을 꺾지 않은 것을 몰랐기 때문이었다. 선생님께서 테니스를 잘 치는 비법을 말씀해주셨다. 첫째, 이것이 아리송한데 아마 ‘자기 가슴 안에서 공을 치라는 것’이었을 것이다. 둘째, 이것은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공을 빨리 치려하지 말고 미리 치라는 것’이었다.

여러 차례 연습을 하고 난 후, 백핸드를 배우게 되었다. 먼저 타점을 잡는 연습을 하였다. 타점은 당연히 오른쪽 어깨 앞이 된다. 공을 손으로 잡는 연습을 하고 나서, 손으로 치는 연습을 하였다. 그때 자꾸 실수를 한 것이 팔을 겨드랑이에 붙이지 않아야 하는 것이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불어버리는 실수를 하곤 하였다. 그리고 채를 가지고 직접 치는 연습을 하였는데, 그립은 콘티넨털 그립에서 약간 옆으로 잡았다. 실제 칠 때는 포핸드에서 백핸드로 옮기는 순간 원손으로 채를 돌려 그립을 잡거나 오른손으로 직접 돌려잡는 방법이 있으나 그건 생략하고 직접 치는 동작을 연습하였다. 여기서도 손목을 칠 때 꺾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중요한 것인데도 잊어 먹기 쉬운 것인 채를 허리에 갖다대는 것을 연습하였다. 공을 칠 때 힘을 준다고 몸이 먼저 회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팔이 먼저 회전해야 한다. 그리고 무리하게 힘을 주어 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원손을 놓아주면 팔이 뻗는 힘을 이용하여 자연스레 치는 것이다. 이렇게 품을 잡고 공을 쳤는데 내가 생각한 것과 달리 공이 전부 땀 곳으

로 날아가 같이하는 친구에게 너무 미안했다. 하지만 백핸드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번 수업은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마 햇빛을 저번시간에 비해 적게 받았기 때문인 것 같고, 중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 네 번째

수업하기 30분 전에 친구와 함께 와서 미리 연습을 하였다. 저번 시간에 배운 백핸드와 포핸드를 직접 쳐보았다. 다른 사람들이 치는 것이 너무 부러웠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곧 더 연습해야겠다는 것을 깨달았고, 오늘도 2군에서 머무르기로 했다. 그리고는 홀로서기부터 연습을 시작하였다.

선생님께서 각자 스스로 오늘은 안 되는 것 한 가지를 꼭 익히도록 연습을 하라고 하셔서, 내가 가장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았다. 물론 어제부터 잘 안 됐던 손목에 무리하게 힘을 주는 것도 문제가 있었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테니스채를 뒤로 뻗 때 테니스채를 밑으로 뻗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물론 시작할 때는 이런 것을 중심으로 연습을 해 나갔는데 하다보니 또 다른 문제점도 발생하게 되었다. 즉 내가 임팩트 순간에 공을 평면으로 맞추지 못하고 비스듬하게 맞춘다는 것, 공을 쪽 밀어 올리지 못하고 뚝 끊어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타점을 아직도 정확히 잡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은 손목을 바로 하고, 뒤로 뻗는 자세를 고침으로써(선생님께서 라운드스윙을 가르쳐 주셨다) 어느 정도 해소는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정확한 타점을 잡지 못하여 자세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았다. 백핸드에서는 역시 타점을 잡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공을 맞추는 순간 테니스채가 위를 바라보는 것과 쪽 밀어 올리지 못하는 것 등의 문제점이 떠올랐다. 이것 역시 잘못된 그립을 바로 쥐고, 손목을 꺾어주며, 무리하게 힘주어 치지 않고, 정확히 타점을 잡아 팔을 자연스레 휘두름으로써 어느 정도는 자세를 잡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번 시간을 빨리를 배웠다. 예전에 배웠던 기본적인 자세에서 좀더 발전한 것이다. 선생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보니, 공이 쪽쪽 뻗는 것이 시원시원스러웠고 쉬워보였다. 공을 잘 맞추고, 스텝만 정확히 밟으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스텝잡는

것은 둘째치고 공을 제대로 맞추기도 힘들고 맞추더라고 힘없이 슬슬 날아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니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또 테니스를 잘 치는 방법이 나올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역시 선생님께서는 2가지의 비법을 가르쳐 주셨다. 첫번째 것은 ‘공에 힘을 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쪽 밀어치는 것’하고, ‘몸의 운동에 두 가지 방향을 만들어 파괴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발리에서는 꽉하고 터지는 힘이 중요하기에 상반되는 방향을 이용한 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공을 칠 때 발앞꿈치가 먼저 땅에 닿지 말고, 뒷꿈치가 닿아야 한다는 것이다. 몸을 부드럽게 계속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 비법을 들은 나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곧바로 가서 쳤는데, 이 비법이라는 게 보통 힘이 드는 것이 아니었다. 그 중 특히 몸에 두 가지 방향의 운동을 만든다는 것이 힘이 들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셔서 어느 정도 흥내는 낼 수 있었다. 하지만 공을 칠 때 움직여야 하는 것은 손목이 아니라 채였는데 힘을 준다고 팔만 움직여 내가 봐도 우스웠다. 그러니 내가 꼭 오랑우탄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

수업이 끝난 후에 선생님께서 치는 것을 보았는데, 너무 쉽게 쳐서, 옆에서 넋놓고 구경하느라고 내가 쳐야 할 공을 자꾸 놓치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것은 나는 죽어라고 하고 달려야 공을 겨우 치고, 그래서 자세도 영망이 되는 데 선생님은 그저 가만히 몇 발자국만 움직이면서 공을 치니 신기하기 짝이 없었다. 저 정도까지는 칠 수야 없겠지만, 다른 사람과 칠 때 다른 사람이 자기가 잘 치는 것처럼 느끼도록 공을 치고 싶다.

#### 다섯 번째

오늘은 포핸드, 백핸드를 중심으로 반복연습하였다. 어떻게 보면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도 중요한 시간이기도 했다. 즉 우리가 단순히 느끼기에는 배운 것이 없는 것처럼 느끼기도 했지만 사실 어느 시간보다 힘든 시간이었다. 넘어갈려고 마음을 먹으면, 대충 배우고도 넘어갈 수 있지만 자기가 잘못하는 것을 고치고, 더 옳바른 자세를 익히기 위해서는 너무도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너무도 재미있게 들었다. 포핸드에서는 내가 여지껏 모르고 있었던 손목에 너무 힘을 주어 손목이 위로 올라간다는 것, 그리고 정확한 타점의 위치를

잡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힘을 주려고 몸이 팔보다 먼저 돌아간다는 것 등을 알았다. 물론 알았다고 고친 것은 아니지만 몰랐을 때보다는 훨씬 더 공을 칠 때 손에 맞는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백핸드에서는 역시 내가 몸을 너무 빨리 움직인다는 것, 즉 손보다 허리가 먼저 돌아간다는 것, 공을 바로 보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힘을 주지 않고 쪽 공을 밀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알고 보니 백핸드가 매우 재미있는 자세였다. 힘을 들이지 않고 공을 그렇게 멀리 보낼 수 있는 것이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했다. 그리고 공을 칠 때 때리는 것이 아니라, 벽을 만든다는 느낌, 즉 쪽 밀어 올리는 느낌이 들 때는 너무도 좋았다.

그리고 오늘 테니스를 잘 치는 방법 세 번째를 배웠다. 회전축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힘을 준다고 몸을 움직이면, 도리어 회전축이 앞뒤로 이동하여 파괴력이 약해진다는 것이다. 즉 몸을 움직이지 않고 팔을 휘두르면서 팔이 회전하는 회전력으로 인하여 몸이 자연스레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리하게 몸을 꺾지 말고, 팔이 돌 때, 그저 뒷다리나 구부려 주면 된다는 것이다. 정말 선생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도 부드러워 아주 힘을 안 들이고 치는 것처럼 보였다.

오늘 날씨가 은근히 더웠다. 하지만 그만큼 얻는 것도 많았다. 다음 시간에는 공을 좀더 준비해 와야겠다. 공이 자주 넘어가서 주우러 가려고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너무 무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가끔은 내가 뭘하는지도 모르고 칠 경우도 있다. 좀더 한번 한번의 연습을 정성껏 해야겠다.

### 여섯 번째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토요일, 일요일에 연습을 하지 않은 것을 매우 후회하였다. 미리 와서 백핸드나 포핸드를 쳤으나, 공따로 몸따로 움직여서 역시 훌로서기부터 시작하였다. 수업시간에는 타점을 정확히 잡는 것을 연습하였다. 약간 감(感)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발리를 너무 못하였다. 눈이 갑자기 침침하여 공이 보이지 않아서 도저히 공을 맞출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발리는 거의 실력이 증가한

것 같지 않고, 도리어 실력이 후퇴한 것 같았다. 너무도 못해서 같이 하는 친구에게 매우 미안했다.

그리고 이러한 복습을 한 후 드디어 스매싱을 배웠다. 그렇게 까마득하게만 보이던 스매싱이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배울 시기가 왔다. 여지껏 배웠던 것도 잘 하지 못하는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무리인 것 같게 느껴지기도 하였지만, 새로운 것을 배워 간다는 호기심과 즐거움에 나도 모르게 선생님 말씀에 빠져 들었다. 스매싱은 콘티넨털 그립을 사용하는 게 편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머리 위에서 치게 된다. 이것도 역시 발리에서 배운 것과 마찬가지로, 힘을 주기 위해서 원손을 올렸다가 내릴 때, 오른 손으로 공을 치게 된다. 즉 방향이 다른 두 힘을 이용한 것이다. 그리고 공을 치면서 손목을 위로 올리며 꺾는다(손목을 그냥 꺾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네트에 가까이 있을 때 쓰는 경우이다). 그리고 점프 스매싱을 배웠는데, 우리가 흔히 공이 뒤로 갔을 때 엉거주춤한 자세로 가게 되는데, 그런 자세는 옳지 않고 공을 보면서 몸을 뒤로 돌리고 달려가면서 공을 친다. 그런데 공이 높이 떴을 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점프를 하게 된다. 점프를 할 때 오른발에 체중을 실었다가 몸을 돌리며 뛰어오르는데 이때 오른발을 앞으로 해주면 보다 고정된 자세에서 공을 칠 수가 있다. 스매싱은 가볍게 던지는 공을 가지고 연습을 하였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듯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게 된다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남들이 공을 우리가 연습한 높이로 주지 않을 뿐더러 방향과 속도로 훨씬 다양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스매싱을 하려면 공이 올 방향과 거리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감각을 익히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벌써 내일이면 끝이다. 어떻게 지내왔는지도 모르게 바쁘게 지내왔다. 매우 많은 것을 들었는데 사실 내가 얼마나 소화해낼 수 있는지 모르겠다. 다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조금이라도 많이 기억하고 싶을 뿐이다.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지만 사실 계절수업이 아니면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을까 의심도 해본다. 그리고 선생님께 배운 것이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껏 운동이라면 그저 열심히 뛰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무의적으로 행하는 동작에 대해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테니스라고 하는

운동을 내가 과연 얼마나 배웠는가 알 수는 없지만 테니스라고 하는 운동에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내일 배우게 되는 서브에 대해 보다 많은 것을 알았으면 한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기 몸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일곱 번째

비가 오는 것을 보고 체육관으로 갔다. 오늘도 공이 잘 보이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있었다. 하지만 수업이 시작되면서 불을 켜주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말끔히 사라졌다. 처음부터 배운 것을 차근차근 연습해 보았다. 발리에서는 공을 약간 앞에서 쳐야 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내 몸 옆에서 치게 되었다. 팔을 좀더 앞으로 내밀고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벽을 만들어야 하는데 잘 안되었다. 포핸드에서 손목을 무리하게 꺾으려고 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손목에 힘이 들어가 라켓이 부자연스럽게 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내가 잡은 그립이 웨스턴 그립이었기 때문에 손목을 자연스럽게 꺾어주었어야 했다. 그리고 팔꿈치를 약간 불이게 되어 동작이 너무 작아지는 경향도 있었다. 백핸드에서는 자세가 느려서 폼이 엉거주춤해지는 현상이 자주 일어났다. 동작을 미리 해야 자연스럽고 타점도 정확히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스매싱에서는 공을 잘 보고 머리 위 앞에서 쳐야 했는데 타점이 느려져서 내 머리 위에서 치는 때가 많았다. 그리고 칠 때 손목을 공 위로 꺾어 주어야 했는데 바로 그냥 꺾기가 일쑤였다. 그리고 연습할 때 새로 백핸드 스매싱을 배웠는데 아직도 공을 바로 보지 못하고 채를 휘둘러 정확한 타점을 맞추지 못하여 공이 바로 나아가지 않았다.

오늘은 드디어 서브를 배웠다. 텔레비전에서 보면 그렇게 멋있게 보이던 서브였다. 서브는 토스가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토스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몸이 기울어지고 공을 제대로 칠 수 없기 때문이다. 토스는 공을 집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손에 쥐고 가볍게 손을 위로 올리며 끝에서 손을 놓아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공만 던질 때는 괜찮았는데 채를 들게 되면 공이 다른 데로 날아가기 일쑤였다. 즉 채를 드는데 신경을 쓰느라고 공을 던지는 것에 주의하지

못하고 대충 던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공을 던지면서 원발에 체중을 실어야 하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채를 어깨에 지고 기다리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공을 충분히 높이 올려야 그런 여유가 생기며 보다 정확하고 강력하게 칠 수 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공이 앞으로 날아가지 않고 옆으로 날아가거나 위로 날아가기 일쑤였다. 그리고 어깨에 걸치고 준비하는 자세도 보기보다 힘들었다. 어느새 공이 앞에 와 있으므로 몸이 엉망이 되었다. 그래서 토스를 높이 올리고 공을 제대로 바라보니 공이 날아가기 시작했다. 조금 더 연습을 하면 공을 제대로 앞으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공을 세게 친다고 좋은 것이 아니었다. 정확히 맞추고 손목을 꺾어주어야 했다. 오늘 이것으로 수업이 끝났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이 배운 것 같기도 했지만 보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는 아쉬움도 있었다. 하지만 그건 나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내가 좀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했다면 보다 알찬 수업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선생님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덟 번째(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자유주제로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얘기를 아낌없이 적어내라고 하였는데 참 고민이다. 그렇다고 이 수업을 생각없이 들었다는 것은 아니고 리포트 용지 3매 이상이라는 말이 고민이다. 하지만 말은 하다 보면 나오게 되어 있으니 할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적어보겠다. 먼저 하고 싶은 말은 리포트에 관한 말이다. 처음 수업을 들었을 때 리포트를 내라는 말에 굉장히 놀랐다. 그것도 매일 내라는 것이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고 의심을 하였다. 그날 밤 처음으로 리포트를 써보았는데 쓸 게 없어 보였던 리포트가 써보니 너무나 쓸 게 많았다. 고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으로 복습을 해보는 것이었다. 이렇게 리포트를 쓰게 되니 수업이 재미있어 지기 시작했다. 선생님 말씀 하나하나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수업을 들으면서 좋은 말이 나오면서 말은 오늘 리포트에 써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주의해서 들으니 기억이 잘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나오면서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을 잊지 않기 위하여 다시 한번 벤치 같은 곳에 앉아 중요한 말을 재검토했다. 이렇게 하니 리포트를 그날 저녁에 쓰지 않으면 잊어 먹을까봐 걱정이 되어 매일 쓰게 되었다. 술을 먹

어도 꼭 쓰고 공부하기 전에 언제나 쓰고 하였다. 이렇게 복습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으나 예습은 거의 하지 못하였다. 예습을 한다고 테니스책을 샀지만 이번 토요일, 일요일에 사진이나 훑어보는 정도밖에 못하였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진이 많은 것을 샀는데 용어가 너무나 틀릴뿐 아니라 일본책을 그대로 배낀 것 같아 그리 기분이 좋지 않았다. 시중에 책이 너무도 무성의하게 나온 것 같아 안타깝게 느껴졌다. 예습뿐만 아니라 실제 연습도 그다지 많이 하지 못하였다. 집이 부천인 관계로 아침에 테니스 채를 들고 타면 너무도 힘들어서 테니스채를 학교에 두고 다녔다. 그래서 수업 시작하기 약 20분 전에 와서 연습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리고 가장 아쉬운 것이 가정학습을 하지 못한 것이다. 테니스채를 학교에 깜박 잊고 두고 가는 바람에 토요일, 일요일에 집에 앉아서 놀기만 했다. 사실 맘만 먹으면 학교에 와서 가지고 갈 수 있었지만 학교에 왔다가 가는 시간이 아까워 도저히 갈 마음이 안 생겼다. 마음 속으로는 꺼림직해서 월요일날 새벽에 가서 연습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마음뿐 몸은 따르지 않아서 아침 수업에 지각할 뻔했다. 테니스를 처음 실습했을 때 너무도 힘이 들었다. 그리고 첫시간에 선생님이 연습하는 사람들을 한바퀴 돌고 나서 연습하는 사람을 교체하는 줄 알고 선생님이 다 돌 때까지 공을 몇 백 개 던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던지고 선생님께서 다 돌고 나서 자리를 바꿨는데 몇 번 연습하니까 선생님께서 모이라고 하시는 바람에 기운이 쑥 빠졌다. 친구는 그날 음료수를 나에게 몇 개나 사주었다. 하여튼 테니스를 쉽게 보았다가 나와 친구는 한 3일 동안은 너무 힘이 들어서 수업이 끝나면 기진맥진해서 앞으로 며칠 남았는가 세어 보았다. 우리가 힘이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테니스가 이렇게 힘이 드니 앞으로 들을 탁구, 볼링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힘이 들긴 들지만 하나하나 배워 나가는 것이 너무도 재미있어서 시간은 예전과도 달리 빨리 가게 되었다. 그리고 은근히 비가 오기를 바라는데 사실 테니스장에서 연습하는 것보다 체육관에서 연습하는 것이 훨씬 쉬웠다. 단지 공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결점이 있지만 어제는 불을 켜주어 너무도 좋았다. 가끔 수업시간에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낀다. 조그만 더 적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느끼지만 그건 나의 이기주의의 같다는 생각이 듈다. 사실 테니스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매우 많을 것이다.

학기중에 수강신청을 하면 체육은 거의 들어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들어가야 좀 이상한 것만 남아서 들어갈 뿐이다. 하지만 수업을 듣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보다 사람이 적기를 원한다. 강좌수를 늘리면 좋겠지만 그럴 만한 인력이나 장소로 보아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러한 이중성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잘모르겠다. 수강신청을 빼리하는 수밖에..

수업을 정리하면서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특별히 기억이 남는 것이 운동에서 힘의 쓰임 문제였다. 우리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운동을 못한다고 말하지만 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몸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것이다. 우리가 슈퍼맨이 아닌 이상 힘으로만 운동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힘을 들이지 않고 힘을 만들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그런 각도에서 선생님께서는 테니스의 동작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무작정 내가 왜 이러한 자세를 취하는지도 모르고 운동하는 것보다 내가 취하는 자세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나중에 다른 운동을 할 때도 응용할 수 있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운동의 관점에서 야구를 며칠 전에 봤더니 예전과는 달리 타자나 투수의 공을 치고 던지는 자세가 나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그들 자세에 하나하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수많은 타자들이 타격폼에서 어느 정도 같은 요소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타점에 관한 것에서 테니스와 어느 정도 비슷한 점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젠 테니스 게임을 보게 되면 매우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나중에 배우게 될 볼링에서 선생님 말씀대로 볼링을 다른 사람보다는 잘 치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강의를 마치면서 특별히 선생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없고 그저 다음에 배울 사람들이 이번에는 더 많이 배울 수 있게 되었으면 한다. 우리는 토요일, 일요일을 배우지 못해 너무 아쉽게 느껴진다. 그리고 운동은 학기중에 듣는 것이 더욱 힘이 들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번에 들은 것을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아쉬운 것은 테니스를 실전에서 어떻게 치는지 모르고 실제 다른 사람과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 응용하는 면에서 많은 무리가 올 것 같다는 것이다. 하지만 직접해 보면서 고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또 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많이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선생님의수업을

들은 어느 형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 저 선생님께 수업을 듣는 것을 행운인줄 알아라. 다른 선생님에게 두 학기 수업을 받는 것보다 저 선생님께 한 학기 수업을 받는 것이 배우는 것이 훨씬 많다. 배울 때 열심히 배워라.” 나도 다른 사람이 묻는다면 역시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선생님께 미안할 따름이다. 수강생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될테니까. 선생님 잘 배웠고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대 사법학과 주성

### 첫번째

테니스라는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작년 가을이었다. 그때 룸메이트가 테니스 강의를 듣고 있기에 나도 따라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때도 이름은 몰랐지만 얼굴을 기억할 수 있는데 그 담당교수가 지금 이 강의를 하시는 오 정석 선생님이셨다. 친구 따라서 무작정 그리고 몰래 들어 본 강의 중에서 나는 지금도 기억나는 말이 있다. “자네 아직 사랑을 해보지 않았구만, 공을 그렇게 거칠게 다루는 걸 보니” 하시면서 사랑을 해봐야 테니스를 잘 칠 수 있다는 말씀을 내 친구에게 하시는 것을 듣고 난 테니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을 미뤘다. 왜냐하면 그때 난 아직 테니스를 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때 난 사랑을 해보지 않았었기에 테니스를 잘 칠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사랑을 해봐야 공을 부드럽게 칠 수 있다는 것은 내게는 이제 좀더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말이다. 사랑이란 대상에 대하여 깨어 있음이다. 그리고 사랑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깨어 있어야 한다. 대상이 어떻게 다가오는가, 그리고 그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는 대상과 나 자신에 대한 깨어있음이 없이는 결코 올바로 알아내어 판단할 수가 없다. 결국 사랑을 함으로써 부드러움과 깨어 있음을 알게 되고 그것을 테니스에 적용시킬 때 테니스도 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느 스포츠든지 그러하겠지만 테니스는 더욱 내게 사랑을 연상시키는 스포츠가 되어버렸다. 그 자체가 풍기는 귀족적 이미지는 내리쬐는 여름햇빛과 클레이코트의 먼지 속에서 많이 사라지겠지만 사랑의 이미지만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사랑은 그것에 온 관심과 정성을 쏟아부어야 만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사랑은 수동적으로 자

기에게 어디선가 다가오리라고 가만히 있지 않고 능동적으로 깨닫고자 자신을 그것에 대해 깨어 있게 해야만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사랑은 인내를 가지고 계속하여야만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사랑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방식이나 방법에 의존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깨어 있는 상태에서 옳다고 느껴지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은 테니스에도 해당되는 말들이다. 그러므로 난 이 사실에 의해 테니스를 사랑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는 스포츠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여름에는 사랑하는 기분으로 테니스를 해야 겠다. 사랑하듯 부드럽게 공을 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여름 동안 테니스라는 운동을 마음껏 사랑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테니스를 잘하게 되는 것은 그러나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테니스에 깨어 있으면서 지내다 보면 아마도 서툴지만 조금은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 두 번째

웨스턴 그립을 잡으면서 헤드를 내려가지 않게 들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서 깨어 있는 것의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전에 무작정 헤드가 내려가서는 안 된다고 배웠던 사실에 대해 당혹감을 느꼈다. 헤드를 들고 내리는 것의 필요함이 어디에서 생기는 것인지를 알려면 내 팔의 움직임에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만 콘티넨털 그립에서 헤드를 들어야 한다는 것과 웨스턴 그립에서 헤드를 내려야 한다는 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스트로크를 위해서는 문제설정에서부터 자신의 신체와 다가오는 공의 움직임에 깨어 있어야 한다. 다가오는 공을 맞받아 치려면 자신의 신체의 체중을 실어 그 힘을 공에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시킬 수 있는 타점에 라켓으로 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 사실도 품을 위한 품으로 내게 제시되었더라면 난 진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여 늘 그것을 상기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다가오는 공을 내가 원하는 타점에서 타격하여 상대방에게 보내려면 공이 라켓에 맞는 순간까지 라켓을 주시하는 것은 품을 위한 품이며 올바른 문제해결이 방법이 아닌 것이다. 자신의 체중을 라켓에 실어 공을 막아내는 벽을 만들자면 벽을 만드는 위치가 내 원발과 원어깨보다 앞쪽이라는 것도 내 몸의 움직임에 깨어 있음으로 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공이 라켓에 부딪

하는 순간에 공을 때리는 것은 공을 후려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자신이 만든 벽을 그대로 상대방을 향해서 밀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공을 때리기 위한 준비도 언제나 고정된 위치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트로크하기에 가장 적절한 위치에 라켓을 가져가서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백스윙이고 백스윙을 해서 스트로크할 준비를 갖출 때 공의 높이에 수평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백스윙도 팔로 라켓을 돌려 때는 것이 아니라 원손으로 라켓의 목을 잡은 상태에서 몸을 회전시키면 자연스럽게 빠진다는 것을 알았다. 공을 치기 위한 준비자세도 형식적으로 구분하여 익히는 것은 올바른 문제설정에 대한 적절한 답의 제시가 아니라 답을 위한 답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몸을 돌려 백스윙을 하고 원발을 내딛어 힘이 앞으로 쏠리는 순간에 라켓을 타점에 가져가 힘의 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내 몸에 대해서 깨어 있다는 것은, 그리고 테니스라는 운동에 깨어 있다는 것은 즐거운 것이다. 한시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깨어 있다는 것처럼 나의 움직임과 공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깨어 있는 상태가 괴이하게 하는 것은 즐거운 것이며, 이렇게 지내는 동안 난 테니스를 정말 사랑하고 잘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 세 번째

포핸드 스트로크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모두 한 가지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 그 한 가지란 다가오는 공에게 자신의 힘과 체중을 실은 강한 벽을 만들어 그 벽을 상대방을 향해서 밀어 줄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다가오는 공을 어떻게 상대방에게 되돌려보내느냐가 가장 기본적인 테니스의 문제이므로 모든 품은 이 기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으로 제시되어온 것들 중 어느정도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것들이다. 내가 생각한 문제해결을 위한 올바른 손목동작은 백스윙(물론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에서 뒤쪽으로(지면에 수평으로)젖혀서 공을 기다린 다음 스윙 도중에도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하고 타점부근에서는 공을 밀어치는 느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젖혀지는 느낌이 들도록 해야 하는 것 같다. 그러나 강의내용에 의하면 타점부근에서 밀어주며 손목을 더 젖혀주지 않아야 된다. 그러자면 공이 다가오는 정면으로 수

평하게 라켓의 헤드를 밀기 위해서 어디를 써야 하는가? 어깨를 더 앞으로 밀어넣어야 하는 것이라면 팔이 지나치게 돌아간 것 같고, 허리를 돌려야 하는 것이라면 앞쪽으로 밀지 못하고 허리 회전방향으로 밀게 될 것 같은데 결국 팔을 앞으로 밀며 손목을 젓혀 주어야 하는 것 같다. 또 한 가지 애초에 임팩트 순간에 팔을 완전히 뻗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아래쪽으로 접힌 팔을 조금 펴면서 손목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올바른 폼이라는 확신이 서질 않는다. 좀더 생각해보고 연습한 뒤에 아무 단점을 발견할 수 없고 문제해결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면 유지해야겠다.

포핸드 스트로크에서 또 까다로운 것은 어깨의 움직임이다. 공이 몸쪽에 붙어오거나 높게 바운드되어 오면 어깨가 앞쪽으로 들리면서 비틀린다. 하지만 어깨동작에 대해서 지적받는 바가 없고, 선생님의 폼에서도 어깨가 들리는 것을 보았으니 발동작을 빨리해서 정확한 타점을 찾아 움직이고 갑작스럽게 몸쪽으로 오는 공은 다음에 발리를 배워서 해결하면 될 것 같다. 뒷무릎을 굽히기는 아주 쉽다. 뒷발꿈치를 들면 쉽게 무릎이 굽어지면서 뒷다리가 앞다리에 붙게 된다. 하지만 앞무릎을 굽히는 것은 잘 되지 않는다. 무릎을 굽히는 것이 체중을 공에 전달키 위한 것이라면 치는 순간에 무릎을 굽혀야 되는데 무릎은 준비자세에서 백스윙까지만 굽히고 있다가 치는 순간에는 오히려 몸을 일으키면서 그 반동으로 힘을 얻게 되는 것 같다. 물론 뒷무릎을 떨구어 앞다리에 붙히는 것이 허리 회전과 함께 체중을 실은 힘의 전달에 효과적임은 틀림없는 것 같다.

#### 네 번째

어려워 보인다고 해서 시도하기를 주저하거나 용감히 시도한다고 해서 방식과 정도를 벗어나 무모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백핸드인 것 같다. 물론 내가 강의를 한 시간 들었다고 해서 백핸드를 잘하게 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백핸드이며 어떤 식으로 익혀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는 깨어 있다. 결국 난 백핸드에 대해서 깨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백핸드를 할 때의 나의 몸의 움직임과 그에 따른 힘의 전달 원리를 역시 깨닫고 있는 것이다. 손목은 포핸드에서의 반대로 젓혀야 하기 때문에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다. 백핸드 역시 타점부근에서의 강한 힘의 벽과 그 벽의 유지를 위해서 손목을 충분히 젓혀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백핸드에서 팔꿈치

는 준비자세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팔꿈치를 몸에 붙히거나 너무 높이 쳐들거나 하면 라켓이 정확한 위치에서 스윙의 준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다. 포핸드에서 가장 먼저 도는 부분이 하박인 것 같았는데 백핸드에서 가장 먼저 도는 부분은 팔꿈치인 것 같다. 팔꿈치가 가장 앞에서 돌며 어깨와 함께 공을 향하고 있는 부분이다. 어깨가 공을 향하는 것은 스윙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뒤에 공을 향해야 한다. 백핸드의 백스윙 때에는 어깨를 충분히 뒤쪽으로 집어넣어야 하며 등이 상대에게 보일 정도이어야 한다. 뒷 무릎은 포핸드 때와 같이 굽혀 앞다리에 붙여야만 체중을 앞다리에 실어 강한 힘을 공에 전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포핸드 때와 마찬가지로 앞무릎을 굽히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앞무릎을 굽히는 것은 타격의 순간이 아니라 스윙 시작 때까지의 과정에 앞무릎을 굽혀서 몸을 낮추다가 타격의 순간에는 꿈면서 일어나는 반동으로 공을 치는 것이 강한 스트로크를 구사할 수 있게 될 것 같다. 타점도 역시 앞발의 약간 앞에서 타점이 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듯 백핸드의 타점도 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어깨와 허리를 충분히 집어넣었다가 스윙을 하여야만 몸에서 벗어나지도 않고 따라서 힘도 전달할 수 있는 타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다섯 번째

준비자세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양발을 어깨넓이로 편안히 벌린 상태에서 무릎을 굽히고 오른손은 그립을(아마 포핸드 그립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쥐고 왼손은 헤드를 쥐고 몸을 약간 좌우로 흔들면서 포핸드이든 백핸드이든 처리해야 하는 문제를 향해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엔 공이 다가온다면 재빨리 그 지점을 향해 달려간 다음 타점을 포착하여 포핸드의 경우 우선 오른발을 내딛으며 몸을 90도로 틀고 다시 원발을 내딛으며 45도 더 틀어준다. 처음 90도 틀 때에 왼손이 라켓을 뒤로 젖혀 주어야 하고 그것이 포핸드 백스윙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같다. 백스윙이 끝나면 헤드를 자신이 포착한 타점과 수평의 위치로 맞추고 스윙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시 45도 더 틀어줄 때 아직 원발은 뒤꿈치로만 지면을 밟고 있어야 하며 타격의 순간에 몸의 체중을 앞다리에 실기 위해 발끝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백핸드에서도 준비자세는 같고 타점에서 적당한 거리에 이르면 원발을 내딛으며 어깨를 위로 돌려 등이 앞을 향할 정도가 되

게 하여야 한다. 몸을 더 틀어주면서 오른발을 뒤꿈치로 땅에 내딛을 때 백스윙은 끝나고 거기에서부터는 스윙이 시작된다. 오른팔을 뒤로 많이 감아주기 위해서는 왼팔이 라켓의 목을 잡아 몸을 틀 때 뒤로 가져가야 오른팔이 충분히 감긴다. 스윙을 시작하기 직전까지 포착한 타점과(즉 공의 높이와) 라켓의 헤드가 수평이 되도록 하고 오른팔꿈치가 들려야 되는 것도 백스윙에서 주의할 점이었다. 포핸드와 백핸드의 백스윙은 단지 대칭적일 뿐이므로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손목을 뒤로 젓히는 것은 포핸드에 신경을 쓰다 보면 백핸드가 잘 안 되고 백핸드에 신경을 쓰다 보면 포핸드가 잘 안 되었다. 라켓 밑면의 상표가 상대방에게 보일 정도여야 한다는 것을 계속하여 되새겼으나 손목을 젓히는 것을 백스윙 때부터 밀 준비하는 것은 꽤나 힘이 들었다. 그래서 계속해서 '손목, 시선, 밀기' 세 단어를 머릿속에 넣고 외우면서 쳤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쉬 늘었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계속하여 그것을 생각하는 동안 나의 정신은 나의 육체에 대해 확실히 깨어 있었음을 느꼈고 그것이 운동의 목적 중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는, 나의 느낌에도 큰 만족을 얻었다.

## 여섯 번째

어느덧 빌리까지 배우게 되었구나 생각하며 체육관을 향할 때 무척 흐뭇했다. 지난 며칠간의 아주 작은 수고로 테니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작은 수고만으로 이 많은 것을 알게 된 것은 우리 스스로 좀더 확실히 이해하는 속에서 올바른 폼을 가르치시려는 선생님의 경제적인 강의방식때문이 아니었나한다. 진도가 어떠냐고 물으시기에 딱 알맞다는 말을 하면서도 계속 흐뭇했다. 나의 몸의 움직임과 다가오는 공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깨어 있음으로 해서 테니스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되었고 여기에 나의 반복된 연습을 더하면 잘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비록 연습이 부족해서 익숙하지 못하고 따라서 몸이 마음을 따라주지 않지만 마음은 테니스에 대해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빌리의 기본문제는 스트로크가 불가능한 갑작스런 문제이다. 즉 갑자기 다가오는 공을 백스윙을 해서 스트로크할 시간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이다. 답은 아주 쉽다. 준비자세에서(이것은 테니스를 하는 동안 내내 잊지 않고 취해야 하는 자세이다. 특

히 발리에서 그 진가를 알 수 있는 자세라는 생각이 든다) 라켓을 아주 조금 뒤로 펜 다음 위에서 아래로 밀어내리는 느낌으로 힘의 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 의해야 할 것은 힘의 벽을 만든 다음 그것을 스트로크할 때처럼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벽을 만드는 순간에만 힘을 주고는 멈추는 것이다. 또한 밀지 않고 멈추고 순간적인 강한 힘의 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대방향(발리의 반대방향)으로도 힘을 분산시켜야만 한다. 스텝도 스트로크의 약식 스텝을 간단히 밟으면 되고 백스윙이 없으므로 몸은 많이 돌아가지 않고 약간 비틀어 줄 뿐이다. 약간 비튼 몸을 펴면서 발을 내딛는 순간의 체 중과 짚과 순간적으로 멈추는 스윙에 의해서 생기는 힘을 합하여 강한 발리의 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스트로크는 회전하는 기분으로 하게 되는데 비해서 발리는 전진하는 기분으로 하게 된다. 그리고 라켓이 몸의 정면에서 움직이므로 콘티넨털 그립을 하고 손목을 세워야 한다. 발리 역시 이제 남은 것은 복습뿐이었다. 즉 나는 발리에 대해서 깨닫고 깨어 있으며 그 상태를 유지하고 강화시킬 복습이 필요한 것이다.

### 일곱 번째

스매시로 테니스 강의가 끝이 났다. 7일만에 라켓을 잡는 방법부터 스매시까지 배우 게 된 것이다. 깨어 있기 시작한 지 7일째 되는 오늘 스매시에 대해서 깨어있었다. 결코 스매시를 마스터했다는 것이 아니다. 단지 스매시에 대해서 느껴보았다는 것이다. 느낌이 테니스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강의를 시작하던 날부터 알게 된 진리이다. 품을 위한 품은 필요가 없으며 답을 위한 답도 필요 없는 것이다. 문제에 대해 올바로 인식하고 답을 찾기 위해서 몸의 움직임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스매시는 높이 날아오는 공을 상대방에게 강하게 보내기 위한 동작이다. 문제는 날아오는 공을 강하게 보내기 위해서 어떤 준비자세를 취해서 어떻게 팔과 손목을 사용하여야 하는가이다. 우선 받침점의 위치를 생각해보면 머리의 위쪽으로 약간 앞이어야 한다. 머리 뒤로 젖어지듯 접어두었다가 퍼야만 강한 스윙을 할 수가 있다. 또한 허리와 몸을 뒤로 젖혀 체중을 뒷다리에 실었다가 앞다리에 옮기면서 허리와 몸을 이용한 힘을 타격의 순간에 공에 전달시켜야 한다. 손목은 아래로 꺾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공이 바닥으

로 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면을 향해 받침점을 이루고 그 순간에 타격을 하면서 공을 위에서 감싸듯 눌러주어야 하고 그때 손목을 써야 한다. 즉 손목을 꺾을 때 공의 윗부분을 감싸서 눌러주는 느낌이 들어야 한다. 일반적인 스매시의 백스윙은 원손으로 라켓의 목을 잡은 준비자세에서 원손으로 라켓을 오른쪽 어깨 뒤로 보내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 백스윙이 끝난 원손은 약간 비스듬히 공을 향해 뻗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공을 치면서 원손을 내려야 한다. 공을 치고 난 오른손은 그대로 두면 왼쪽 무릎을 비껴 지나게 된다. 그러면 스매시가 완성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인체의 구조적 조건 때문에 손목을 몸 안쪽으로 꺾는 것이 아니고 몸 바깥을 향해서 꺾어야 한다. 그래야만 손목의 힘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손목의 힘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스매시를 제자리에서 항상하게 되리란 보장은 없다. 문제는 항상 여러 가지 방향에서 제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뒤로 달려가며 스매시를 하거나 백 스매시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상황에 적응하여 적절한 해답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백스매시는 둉뒤로 손목을 충분히 젓히는 연습을 해야만 하고 점프 스매싱을 해야 할 경우 뒤로 달려갈 때에는 마지막에 오른발을 크게 딛고 점프하여 스매시하면 된다.

## 여덟 번째

지금부터 8일 전에 정식으로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했다. 아무 생각 없이 단지 테니스가 나의 사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작했었다. 정말 테니스가 나의 도움이 되어 줄까 하는 의문에 두려운 마음도 있었다. 괜히 선불리 시작하여 제대로 끝맺지도 못하게 될 정도로 어렵고 까다로운 운동이면 나의 사랑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감을 잃게 되어 사랑도 잘 못하게 되는 게 아닐까 했다. 테니스가 내게 어떻게 사랑을 연상시키게 되었는가는 전번 리포트에 쓴 적이 있다. 하지만 내가 보아왔던 테니스는 매우 남성적인 운동이었고 비록 멋있어 보이기는 했지만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될 운동 같아 보이지는 않았다. 테니스를 배워서 내가 멋있어진다면 사랑받기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사랑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내가 바라든 목적이 아니

므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테니스를 하고 싶지는 않았다. 테니스가 어느 점에선가 나의 능동적 사랑에 도움이 되기만을 바랬을 뿐이다. 내가 믿어온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었다. 사랑은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먼저 생각해 주는 것이며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고 상대가 원하는 것은 이루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능동적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것 없이 받기만 하는 사랑은 가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는 바로 그 능동적 사랑에 테니스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테니스 강의를 신청했던 것이다.<sup>1</sup> 솔직히 말하자면 테니스를 배우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 내 사랑의 대상이 테니스를 좋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나와는 테니스를 칠 수 없으므로 다른 사람들과 테니스를 치기 때문에 나로서는 테니스를 배우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나는 테니스에서 두 가지를 얻고 싶었던 것이다. 테니스에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었고 테니스를 잘 치게 되어 내 사랑의 대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뺏기지 않게 되길 바랬다. 사랑이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번 사랑에 실패하고 서야 사랑을 제대로 하여 결혼하고 어떤 경우 결혼을 하고서도 사랑에 실패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다. 즉 사랑은 쉬운 것이 아니어서 단번에 성공하는 사람은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 몇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야 사랑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랑을 배우려는 사람은 몇 안 된다. 아니 거의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사랑을 하려다가 실패하곤 한다. 사랑을 배우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어려운 일도 아니며 몇 번의 시행착오 후에는 깨닫게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랑을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온 나는 사랑에 실패하기 전에 사랑을 배워서 결코 실수로 인하여 실패에 이르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랑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봄으로써 사랑하는 방법을 체득하길 원했다. 그가 테니스를 다른 사람들과 치는 것이 싫는 것도 큰 이유가 되었다. 물론 그와 내가 늘 함께 있고 모든 일을 같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많은 일들을 함께 하며 같이 지내고 싶은 것이 내 심정이다. 그가 테니스를 좋아하여 테니스를 자주 치는데 나와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불만스러웠다. 그래서 내가 테니스를 배워서 그와 테니스를 칠 수 있을

정도가 되기를 기대하고 테니스를 시작했다. 그렇다면 테니스 수업이 끝난 지금 나는 원했던 두 가지를 얻었는가? 그렇다. 난 사랑에 도움이 되는 점을 테니스에서 발견하여 내 몸에 익혔으며 그 동안 선생님의 빠른 진도와 경제적 강의로 인하여 테니스를 어느 정도 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나는 테니스를 통하여 대상에 대하여 깨어 있음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즉 사랑을 하려면 대상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려하고 대상의 모든것을 책임지려하는 깨어 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상의 모든 것을 숙고하여 대상에 대한 지식을 갖춘 다음 그것들을 이해하여 받아들여 나갈때에야만 진정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대상을 이해하고 대상에 대해 늘 깨어 있어야만 대상을 위한 일들을 해줄 수 있고 대상의 행복을 지켜주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야만 진정한 능동적 사랑이 가능하고 사랑에 실패하게 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된다. 테니스를 하는 동안 나는 다가오는 공이라는 문제와 그 문제의 다양성, 그리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한 나의 몸의 움직임에 깨어 있어야 함을 배웠고 이제는 그 깨어있음을 나의 사랑에 유용히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물론 테니스를 잘할 수 있는 방법과 가능성을 터득했다. 결국 8일간 내가 원했던 두 가지를 모두 얻었다. 내겐 돌이켜 보면 보람으로 가득찬 기간으로 회상된다. 이 커다란 만족감 속에서 깨닫게 된 또 하나의 사실이 있다. 난 테니스를 사랑하게 됐다는 것이다.

### **서울대 사회학과 93205-023 이 쪼 호(수업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이번 계절학기를 통해 테니스를 배움으로써 나의 교양을 넓히려고 하였다. 단지 테니스라는 게임 기술을 배우게 되리라 예상했는데 예상 외로 체육계에서는 당연한 '힘의 개념'을 가르침받게 되었다.

이는 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이었고 - 그것을 이용했다는 느낌은 있는데 인식하지 못했음 - 테니스 1이라는 교양 선택 수업에서 테니스 기술만을 기대했던 나로서는 - 잘못된 나 - 정말 기분이 좋았고 나의 무지를 새삼 깨달았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7일 동안(하루는 결석함) 배운 테니스 동작 하나하나가

동양에서의 힘의 개념인 '발현'을 위한 동작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힘 안 들이고도 큰 힘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전에는 모르고 무조건 힘을 내려했던 나로서는 나름대로 굉장한 것을 알았다고 즐거워했다.

이번 테니스 강좌를 통해서 모든 스포츠는 가장 효율적인 품이 있고, 그것이 없이는 발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러한 것은 이 강좌를 신청하면서 내가 기대했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기분이 매우 좋다.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통해 힘을 내야 한다는 큰 주제 아래 지금까지 Grip, forehand stroke, backhand stroke, volley, smash, service 등을 배웠다. 전에 원리를 모르고 마구잡이로 했던 철부지 시절을 생각하면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대학교육이 역시 좋은 것 같다.

지금 보면 아직 백핸드 스트로크와 스매시를 못하니까 서비스 등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 전에는 너무 못해서 테니스를 할 의욕이 별로 없었는데 움직임의 원리와 그 원리를 통한 기술을 배우고 나니 연습을 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이 자꾸 든다. 비도 안오고 컨디션만 좋으면 언제라도 테니스를 잘 치는 친구들을 불러내어 한판 붙나고 하고 싶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게 된 가장 이유도 역시 선생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던 '발현'이라는 힘의 개념 즉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통한 힘의 실현의 인식 때문이다.

자기 말에 의하면 꽤 친다는 친구들을 보면 그러한 원리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러한 원리를 알고 있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들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선생님께서 처음 시간에 나누어 주셨던 강의계획서를 다시 꺼내어 다시 한번 읽어보니 처음 시간에는 형식적으로 써놨다고 생각되었던 강의목적이 결코 형식적이 아니라 생각이 들었고 지난 7일 동안 배운 것을 생각해 보니 93학번으로 1학기 동안 이렇게 강의계획에 충실한 수업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선생님께서 역시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난다. 잘치게 할 수는 없어도 어떻게 테니스를 쳐야 한다는 것은 가르쳐 줄 수 있다고. 물론 8일 이라는 기간동안 잘 칠 수 있으리라 기대는 힘들지만 그 나름대로 나는 전에 비해 잘 치게 된 것 같고 아직 부족

한 데는 어떻게 쳐야 한다는 것이 생각이 난다. 계속 연습하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번 수업을 받으면서 또 하나 느낀 점은 고등학교 체육교육과 대학 체육교육의 차이점이다. 대학에 들어와서 여유가 생겨서 인지 무언가 느낌이 달랐고 하려는 의욕이 대단했던 것 같다. 나는 이번 테니스 수업을 가장 큰 목적으로 테니스 기술을 배우는 것으로 정하고 수강신청을 했다. 그런 목적이 지금 보면 거의 성취된 것 같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고 그동안 테니스를 가르쳐 주신 오정석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서울대 산업공학과 3학년 안 광 모(수업을 마무리하면서)**

평소에 테니스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도 칠 수 있다고 여겼다. 공이 맞는 부분도 큼지막하고 공도 잘 튀는 것이니까 생각 없이 그냥 맞추기만 공이 제대로 뻗어 나갈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공을 마주해보면 그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손목을 쪽아 공을 쳐내려고 하는데 공을 라켓의 중앙에 맞는 것이 아니라 테두리에 맞아 툭툭 소리를 내며 야구공처럼 붕 떠버리곤 했다. 중학교 때 테니스장 청소당번을 맡으면서 테니스를 치러오신 선생님들이 잠시 쉬는 틈을 타 아이들과 번갈아 가면서 벽에다 공을 친 기억이 난다. 벽에 오래 맞추면 다행이고 만약 공이 벽을 넘어버리면 내 순서는 끝나고 다른 사람에게 라켓을 전네 주어야 했다. 그 후 텔레비전에서 테니스 경기를 보면서 선수들의 동작을 눈여겨 보았었다. 하지만 눈썰미가 없어서 스트로크 동작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다. 물론 그때는 스트로크가 무엇인지도 몰랐다. 단순히 라켓을 수직으로 세워 공을 정면으로 맞춘다는 것만 알았으며 손목을 제치고 친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지 못했다. 그래도 서비스 동작은 품이 멋있어서 자꾸 생각을 더듬어 보고 흉내를 내보고 해서 어느 정도 따라 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공이 라켓에 맞는 부분이었다. 분명히 라켓을 뒤로 제치고 치면 공이 정면으로 맞지 않고 비스듬히 맞아서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는 데 선수들은 잘도 공을 쳐내는 것이었다. 1학년 때 테니스를 들어볼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그때만 해도 운동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이전과 체력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여겼다.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운동은 안하게 되고 생활은 불규칙적으로 변해갔다. 그래서 혼자라도 할 수 있는 운동에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평소 돈드는 운동에 대해 이유없는 반감을 가지고 있던 나에게 테니스는 아주 적합한 운동으로 다가왔다. 단순히 기술을 요구하는 운동보다는 더운 태양 아래서 땀을 흘릴 수 있다는 점은 더욱 강한 유혹이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운동신경이둔해서 남들보다 진도가 느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 보는 사람이 있으면 몸이 굳어져서 부족한 실력도 다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도 안다. 그래도 땀흘려서 몸의 동작을 익히고 운동을 하는 것은 이후 나의 몫이고 우선 수업을 통해서 공을 라켓에 제대로 맞출 수 있게 되기만을 바랬다. 그래서 아무런 기대도 없이 단지 몇 가지 공을 치는 기술만을 배워가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수업에 임했다.

중학교 때 운동부가 있었는데 대부분 성질이 나빠서 운동선수라고 하면 우선 나쁜 생각부터 들었다.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 전체를 다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수업에서는 그런 내 기억이 아주 잘못된 것이고 그때 그 아이들이 대다수 운동선수들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선수들의 이미지를 왜곡한 게 아니었나 싶다. 수업은 시작되었고 첫 시간에 운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다면 내게는 큰 수확이었다. 그리고 욕심은 버리고 그냥 남들보다 못하더라도 꾸준히 동작을 배워보겠다는 생각은 변함없이 가지고 있었다. 아마도 그 생각이 내가 수업하는 내내 지루해하지 않고 열심히 수업에 임하게 해주지 않았나 싶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가르치는 사람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나도 과외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잘 이해하고 나를 잘 따를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한다. 그리고 내 말을 믿고 따르도록 내가 지도할 수는 없을까하고 생각해 본다. 둔하다고 생각한 내 몸이 일주일의 수업 동안 몰라보게 달라졌다. 공도 곧잘 쳐내고 어려운 동작들도 해내곤 한다. 지금까지 남들보다 2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남들과 같은 수준이 되었기에 그냥 못하는 것을 선천적인 것으로 여기고 말았다. 하지만 공을 쳐내면서 몸에 땀이 배자 몸이 전보다 더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이것은 잘 배웠기 때문이다 싶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몸의 깨어나는 게 아닌가 싶었다. ‘깨어 있음’!. 깨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혼자 고개를 갸웃거려도 보았다. 내게서 깨어 있음의 의미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것은 내 몸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과 별다를 게 없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했는가 하면 그건 아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만큼 유연하고 자연롭게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단순히 몸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만도 대단한 행복이리라. 움직일 때마다 뼈가 부딪치는 소리가 나고 몸이 빠거거린다면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내가 늙었나’라고 여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수업은 재미있었다. 땀 흘린다는 것은 언제나 진한 감동으로 내게 다가왔다. 비록 많은 땀을 흘리지는 않았지만 내가 그 동안 흘린 땀은 나를 흥분시키고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는 힘이 되기에 충분했다. 앞으로도 계속 테니스를 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 학기에는 테니스 수업을 또 들을지도 모른다.

욕심 같아선 선생님이 가진 모든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나 흘린 땀의 양을 본다면 그것은 결코 노력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으리라. 아마 내가 똑같은 능력을 지니게 되려면 나는 두 배의 노력을 해야 하리라. 그래서 나는 단순히 ‘누구만큼 했으면...’ 하는 목표와는 다르게 나의 목표를 잡았다. ‘테니스를 즐길 수 있는 수준’.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나도 알 수가 없지만 정말로 내가 땀을 흘릴 수 있고 테니스를 통해 생활 속에서 쌓인 근심을 덜어낼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역시 나는 땀을 흘려야 그 의미를 찾았다고 하는 것 같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 일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일을 하는 동안 땀에 흠뻑 젖었다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했다면서 미련을 두지 않는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많은 미련이 남았다. 이번 수업은? 솔직히 말해 수업시간 말고 따로 연습을 한 것은 딱 한 번뿐이다. 그러나 이번 수업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는 건 시작이 반이라고 내가 새로운 운동을 시작했다는 것과 그 동안 내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으며 앞으로도 이 운동을 계속해야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데 있다.

아무래도 나는 운동에 대해서 콤플렉스가 있었나 보다.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얻는 기쁨보다도 운동을 하고 난 후에 얻는 기쁨이 더 크니까. 나는 운동을 생활의 일부로 만들고 싶다. 테니스가 끝나면 지난달 내내 소홀히 했던 검도를 다시 시작해야 겠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운동이므로 더 열심히 해야 겠다. 그리고 마음 맞는 놈을 골라 같이 테니스도 치러 다녀야 겠다.

끝으로 선생님의 지도력에 찬사를 보낸다. 이건 단순한 아부가 아니라 정말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데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분 같다. 덕분에 내가 많

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 **서울대 건축학과 91401-007 김현주(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작열하는 여름의 태양 아래서, 흐리고 시원한 회색 구름과 더불어서, 그리고 운치있고 후련한 비를 배경으로 우리의 사랑, 아니 정화하는 만남은 펼쳐졌었고 이제 유월의 마지막 날을 끝으로 일단락의 막은 내리게 된다.

리포트를 쓰려다, 날짜를 세어보니 딱 7일. 와! 7일만에 그래도 나름대로 테니스가 어떤 운동이고 기본적인 동작은 어떻게 하는가를 알게 되다니. 혼자 컴퓨터를 앞에 두고 빙그레 웃는다. 남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7일만에 스트로크에서 서비스까지 내몸으로 익히고 그 동작들의 원리를 알게 되었다는 것은 나에겐 참으로 즐거운 일련의 사건이었다. 보람된 시간이었다.

지난 겨울 학기, 알지도 못하는 탁구를 탁구2 수업으로 이번 강사님께 들었었다. 그 수업을 들은 동기와 이번 수업을 듣게 된 동기는 같으나 그 결과는 정반대다. 그 동기라는 것은 이러하다.

누군가가 나에게 “운동 좋아하세요?”라고 물으면 나는 선뜻 “예”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나서 무슨 운동을 특히 좋아하며 잘하며 관심이 있는가를 물어온다. 난 특히 좋아하는 운동도 뾰족히 잘하는 운동도 유달리 관심이 있는 운동도 없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 이 얼마나 답답한 현실인가!

여고 때까지 난 거의 모든 운동을 열심히 했고, 잘했고 무엇보다도 체육시간을 좋아했다. 뛰고 소리치고 땀을 흘리는 그 시간을 사랑했다. 그래서 난 서슴없이 운동을 좋아한다고 얘기했다. 그중에서도 몸으로 하는, 달리기와 수영 같은 것을 좋아했고 특별히 공을 이용하는 구기종목은 잘하지 않았다.

그렇게 약간의 운동을 하고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공부를 하면서(특히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운동하는 시간이나 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없었던 것 같다) 학교를 마쳤고 대학이라는 곳에는 운동은 단합과 유대와 친목의 의미로 무척이나 좋게 여겨짐을 느꼈고 남학생들과 어울려(난 공대이기 때문에 남자 학우들과 늘 같이 지낼 수

밖에 없다) 다니기 위해서라도 운동을 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운동을 하면서 땀에 흠뻑 젖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 적이 많았다. 하지만 내가 잘하는 달리기보다는 탁구, 농구, 배구, 축구, 야구, 테니스, 볼링, 당구 등 온갖 구기 종목이 실질적이었다.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당연히 배워서 어울려야지 혼자 구경만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런데 두 가지 큰 장애가 있었다. 하나는 난 옛날부터 공을 다루는 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민첩하고 재빠르게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다(둔하다는 소리를 무엇보다도 싫어하는 데 배우는 과정에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듣게 되는 것이 싫었다).

여하튼 축구, 야구, 농구까지는 욕심내지 않고 난 탁구, 테니스, 볼링, 당구에 과감히 도전(?)해 보기로 하고 하나씩 공략전을 펼쳤다. 그래서 듣게 된 강의가 탁구였고 이번 테니스였다.

기본적인 동기는 이러하고 부차적으로는 기본 체력단련으로 무엇이든지 땀흘려 운동을 해야겠다는 위에서 언급한 장애에 대한 콤플렉스의 해소,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겠다는 동기로 난 이번 강의에 임했다. 지난 탁구 강의도 그랬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이지 못했으므로 재기의 뜻을 품고서.

첫 시간에 우리 강의를 맡으신 강사님께서 들어오시는 데, 아! 많이 뵐 분이었다. 순간 '리포트'와 '생각하는'이라는 두 어휘가 머리를 때리고 약간의 쑥스러움과(왜냐하면 지난 번에 썩 좋은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가움으로 7일의 첫날을 보냈다.

힘의 성격과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제어, 활용할 수 있는 이론과 방법에 대한 탄탄한 설명과 힘과 나와 도구-라켓, 볼이라는 삼자간 관계에 대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역학적인 설명은 라켓을 처음 쥐는 나에게 점차적으로 흡수, 소화되어 초반에는 다소 움츠렸던 태도에 작은 변화의 기운을 주었다. 느끼고, 생각하고, 시도하고, 수정하고, 다시 느끼고, 생각하고, 시도하고, 수정하고. 솔직히 이전에도 강사님으로부터 그렇게 하라고 들었지만 가슴으로 그것을 느끼고 실천한 것은 몇 번에 불과했고 그저 관심에 젖어 잘못된 동작을 반복했다.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어쩌다 잘 쳐지는 것에 만족하면서.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라켓에 공이 맞는 위치와 면과의 관계에 대한 현상파학과

시도와 수정을 거치는 것을 기점으로 난 가슴으로부터 그러한 과정을 이해했고 그렇게 하나하나 고치고 시도하는 과정은 상큼한 즐거움을 주었다. 물론 아직도 연습량의 절대적 부족으로 동작이 내 몸에 딱 맞지는 않다. 그래서 강사님이나 다른 학우들의 눈에는 어눌하게 비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내가 하는 행위에 집중하여 계속적인 수정을 위해 7일을 보냈다. 처음에는 그립부터 어색했는데 이제는 그럭저럭 흉내는 별 수 있게 되었다.

‘7일간의 사랑’. 7일은 맞는데 내가 과연 테니스를 사랑했던가?

난 ‘그렇다’라고 단언하지 않겠다. 하지만 난 배워나가는 그 과정을 사랑했다. 순간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의도한 행위를 내 몸으로 직접 실험해보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해 무엇을 하는 동작인지 내가 알고 내가 제어하는 법을 배운 그 과정을 사랑한다. 그러므로 난 계속 아무런 두려움 없이 다음 단계로 더욱더 자신있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수업을 듣게 된 동기는 다 충족시키기에는 짧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무척이나 가슴 설레이던 배움의 시간이었다. 타성이나 관성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깨어 있는 삶을 위하여, ‘생각하고 현상을 파악하고 그리고서 행동하는’ 법을 알 수 있게 해주신 선생님께 끝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글을 맺는다.

### **서울대 치의예과 92332-098 어 영준(수업을 마무리하면서)**

‘form이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것이 테니스 첫 수업 때부터 가장 인상깊던 질문이다. 첫 수업 당시 내 생각은 ‘form은 당연히 있는 것이다’ 였다. 지금의 생각도 역시 ‘form은 있다’. 그러나 첫 수업과는 다른 의미의 ‘있음’이라는 것을 느낀다. 그냥 남의 흉내만 내던 form과 몸의 움직임 원리를 체득한 form은 분명 다르다는 것이다.

테니스를 다른 곳에서 배울 때, 이런 말을 들었다. 테니스에서 form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가르쳐준 form을 3시간 정도 거울을 보고 연습했던 기억이 있다. 그때 나를 지도해 주었던 사람이 왜 그런 form으로 쳐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면서 가르

처 주었다면 그 당시 테니스를 며칠 치다가 그만 두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 당시 내 생각은 계속 form연습을 하면 가장 좋은 form이 몸에 익혀지리라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3일 동안 오로지 forehand stroke form만 연습했다. -- 그 후 테니스 자체에 지쳐버려 흥미를 잃었지만 -- 분명히 남의 흥내에 불과한 form이었다. 요즘 생각해보면 그때 배운 form이 몇 군데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몸의 움직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form이라는 생각에 근거한 것이다. 이번 테니스 수업에서 몸의 움직임의 원리를 배우면서 몸이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form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테니스를 수강신청 할 당시 그저 남들이 대부분 테니스를 치니, 테니스에 관심이 생겼고, 건강을 위해서 테니스를 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수강신청을 했다. 그러나 첫 수업을 받는 동안 분명히 지금까지 받아왔던 체육수업과는 전혀 다름을 느꼈다. 우리의 몸의 움직임의 원리 ? 그것을 과연 내가 체득할 수 있을까? 받침점을 만들어 주어야 볼을 쉽고 강하게 효율적으로 칠 수 있다는 강의를 들었을 때, 몸의 움직임의 원리를 조금 알게 되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그후 stroke를 배우면서 직접 연습을 하게 되었을 때, 타점은 몸 앞쪽에서 잡아주고 받침점을 만들어서 임팩트하는 것이 매우 편안하게 볼을 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 그대로 '체득'할 수 있었다. 계속되는 테니스 수업에서 여러 가지 기술을 배웠다. 그러나 기술만을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곧 알게 되었다. 테니스라는 운동을 통해서 인간 몸의 움직임의 원리를 배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생각을 수업시간마다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어렵게 느껴졌던 volley, smash, service 등을 배울 때 몸의 움직임의 원리를 배우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운동은 머리로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번 테니스강좌를 통해서 그 말이 진실이었음을 깨달았다. '생각을 하면서 하는 운동' 그것은 분명히 움직임을 창출하는 과정이다. 첫 강의 강의계획서에 써여 있던 '자신의 움직임에 늘 주체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에서 테니스라는 움직임을 실천 학습하여 운동의 참맛과 우리 몸의 움직임의 원리를 체득하게 하며, 스스로의 움직임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는 구절을 이제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앞으로 테니스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에서도 '생각하는 운동'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 **서울대 고육학과 91701-016 이 철재(수업을 마무리하면서)**

불과 일주일의 무척 짧은 기간이지만 테니스 수업을 통하여 많은 동작과 기술을 배웠고, 특히 몸의 움직임에 대한 원리를 조금이나마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전에는 TV로만 유명 선수들의 테니스 경기하는 모습을 명하니 바라보다가, 실제로 라켓을 가지고 공을 다뤄보니, 테니스란 것이 결코 쉬운 운동이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당초에 테니스 수업을 들고자 수강신청했을 때에는, 일반 학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감질나게 듣는 것보다 집중적으로 매일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였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기본 동작도 늘어갈 뿐더러 차츰씩 내 몸이 내 몸 같지가 않았다. 상상외로 격한 운동이어서 그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신사들의 스포츠란 얘기는 아예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나중에는 조금씩 공을 다루는 요령이 생겨서, 처음에 그토록 힘들었던 원인이 쓸데없는 데에 힘을 소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선생님 말씀대로 무슨 동작이든지 억지로 할 때만 힘이 들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자연스러운 몸의 움직임을 통하여 힘을 만들어내지 않고 억지로 있지도 않은 힘으로 해결하려는 심리도 그렇고, 라켓을 들고 이동할 때나 준비자세 때나 원손을 사용하는 습관의 미정착도 힘을 배로 들게 했다. 그리고 공을 주우러 다닐 때 허둥대며 왔다갔다 하는 것도 불필요하게 힘을 낭비한 원인 중의 하나였다. 결국 그러한 불필요한 체력소모 때문에 정작 중요한 기술습득에는 충분한 집중을 하지 못한 게 매우 아쉬웠다.

그리고 테니스 수업에 임할 때의 마음가짐 또한 매우 중요했다. 선생님께서 목표를 가지고 수업에 들어오라고 하셔서 목표를 가지기는 가졌지만, 처음에는 욕심이 다소 지나쳐서 목표를 산더미처럼 갖고 가서 결국 아무것도 얻어오지 못하곤 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주로 라켓을 미리 빼는 것과 공을 친 후 타점률을 옹시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처음보다는 다소 나아지기는 했지만 일찍 관심을 가지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다.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의 필요 또한 절실히 느꼈다. 대개 공이 날아오면 땅에 튀기까지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를 견지했었는데 적극적으로 공쪽으로 접근해서 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았다. 재빨리 이동하는 것이 더욱 안정된 자세를 취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테니스 기술을 익히면서 선생님께서 강조하셨거나 나에게 중요하게 느꼈던 것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공을 항상 자기 가슴 앞에 두고 쳐야만 안정된 공을 칠 수 있고, 둘째, 몸의 중심 또는 체중을 이동함으로써 힘을 전달한다는 기본적인 역학적 원리, 셋째, 공을 친 후 타점에 계속 시선을 두는 것이 안정된 몸의 축을 유지해 팔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해 준다는 사실, 넷째, 그립은 신속하게 바꾸고 라켓도 적절하게 미리 빼어 두어야 상대방의 타구에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고, 다섯째, 공을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을 때린 후의 자세 또한 중요해서, 공이 스스로 관성운동을 하기 전까지는 몸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 여섯째, 힘을 만들어내기 위해 행했던 모든 동작이 연속적이어야 하고, 공을 치는 순간에 라켓을 꽉 잡아야만 그 때까지 만들어 놓은 힘이 공에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다는 것, 일곱째, 손목을 뒤로 젖혀야만 공의 충격에 밀리지 않으며 손목부상도 예방할 수 있고, 여덟째, 공이 항상 기본자세에 맞게 날아오는 것은 아니므로 변화난측한 공의 상황에 따라 몸의 자세의 변화를 통하여 공을 치고 난 후에는 최초의 준비자세를 취해서 새로운 공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 아홉째, 항상 연습이 끝나면 반성하는 자세를 가진다는 것 등이었다.

이중에서 특히 마지막 아홉째 부분의 반성하는 자세는 리포트를 내면서 많이 배우게 되었다. 예전에는 운동은 하고 나면 그냥 그 순간뿐 잊어버리곤 했었는데, 수업을 하고 난 후 선생님께서 가르쳐주는 내용이나 나 자신의 동작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니, 지금까지는 그냥 지나쳤던 몸의 동작 원리나 나의 움직임의 미숙한 부분을 감지할 수 있게 되었다. 마치 장애인 같은 나의 몸의 움직임에 다소 당황되기도 하고 화도 났지만, 이론상으로만 배웠던 물체의 움직임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현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키울 수 있었다.

운동신경이 둔해서인지 몸이 생각대로 움직여 주지는 않지만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극복되리라 믿는다. 운동부족의 해결이나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주고 사교에도 큰 역할을 하는 테니스는 많은 매력을 지닌 운동이고, 평생을 두고 할 수 있는 운동이라 애착이 간다. 일주일간의 테니스 수업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처럼 좋은 운동의 기초를 체험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감사함을 금할 길이

없다.

### **서울대 산업공학과 성재원(소업을 마무리하면서)**

어제의 강의로 파란만장했던 93학년도 강좌번호 004 테니스 1 계절수업은 끝이 났다. 강사님을 잘 만난 덕분에 동네 테니스장에서는 1년이 지나도록 다녔어도 배웠을까 말까 한 여러 동작과 테니스를 잘 치는 비법, 기타 점프 스매시, 백핸드 스매시까지 배울 수 있었던 절호의 찬스였다. 원래는 테니스 1 001강좌를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그 강좌가 빨리 마감되는 바람에 테니스 1 004 강좌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전화위복일까? “테니스의 정석”이신 오정석 강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졸업 이전에 내 생애에 가장 알찬 체육 과목을 들은 계기가 되었다. 1주일 정도의 시간에 포핸드 스트로크, 백핸드 스트로크, 빌리, 스매시, 서비스까지 배웠고, 물론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일단 배우고 나니 “뭐 별거 아니네”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명강의였다. 실제로, 라켓을 처음 잡아 보는 광모도 꽤 팬찮은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동네 테니스장에서 갈고 닦여진 내 개풀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았다. 테니스 강의를 마치면서 그 동안 배웠던 사항들을 종정리해보면, 포핸드 스트로크시에 타점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 자신의 오른발 앞쪽에 즉, 벽에 손을 기대면 넘어지지 않을 곳에 타점을 잡고, 우선 공이 날라오면 손목을 젓하고 우향우, 우향우를 하여 타격 자세를 만든 뒤 스윙을 하는데, 타점은 앞에서 위치가 되도록 한다. 그리고 오른발을 약간 들어줘서 허리가 자연스레 돌아가 완벽한 피니쉬 동작이 되도록 한다. 이때 시선은 계속 타점에서의 볼의 위치를 보고 있고, 볼이 위로 오면 라켓을 위로 빼고, 볼이 밑으로 오면 라켓을 밑으로 빼 유연성이 있는 스윙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라운드 스윙이란 것도 있다고 하지만, 이보다는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볼에 따라 라켓을 빼는 것이 내게는 더 적절해 보였다.

백핸드 스트로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우선은 그립을 이스던 백핸드 그립으로 바꿔 잡고, 손목을 젓힌 뒤 좌향좌, 좌향좌하여 타격 자세를 만든 뒤, 타점에 맞는 위치에서 볼을 치도록 한다. 이때 타점도 포핸드 스트로크와 마찬가지로 앞쪽에 두도록 한다. 그리고 볼의 높이에 따라 라켓의 높이를 조종하고, 이 때에도 허리를 돌려 피니시 동작

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한다. 포핸드 스트로크, 백핸드 스트로크시에 언제나 볼이 자기 가슴 앞에 있도록 하며, 자기 가슴 높이에서 타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발리의 경우, 콘티넨털 그립을 사용하며, 포핸드 발리는 오른발을 조금 뒤로 빼고 원발을 앞쪽으로 가져간 후 라켓을 들어 볼에 살짝 대준다. 볼이 라켓에 맞을 때에는 살짝 임팩트를 넣어 주어 볼이 잘 튀어 나가도록 한다. 이때 팔은 쪽 펴고, 아래로 떨어지는 볼은 윗방향으로, 위로 날아오는 볼은 아랫쪽으로 치도록 한다. 백핸드 발리의 경우에는 등이 보이도록 오른발을 약간 앞쪽으로 짚은 뒤 포핸드 발리와 마찬가지로 발리를 한다.

스매시의 경우, 머리 위로 떠오른 볼을 세게 밑으로 치는데, 재빨리 라켓을 어깨에 맨 뒤, 우선 허리를 돌리고 팔을 펴고, 마지막으로 손목을 꺾어 볼을 치는데, 이때에 그립은 콘티넨털 그립을 사용해 손목이 밖으로 꺾어지도록 한다. 이러한 스매시의 일련의 동작들은 볼을 더욱 힘있게 나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할 때에는 어깨를 약간 앞으로 내밀어 라켓이 원발 앞으로 갈 수 있게 한다. 점프 스매시의 경우에는 날아가는 볼을 따라 뛰어가 오른발로 짚고 점프를 하여 던을 한 뒤 볼을 친 후 원발로 차지한다. 백핸드 스매시의 경우 등이 완전히 보일 정도로 몸을 돌린 후 뒤에서 앞으로 손목을 꺾어 볼을 친다. 백핸드 점프 스매시의 경우 역시 볼을 따라 뛰어가 이때에는 원발로 짚고 점프해 볼을 친 후 오른발로 차지한다. 스매시를 할 때에는 항상 머리 위의 볼을 보도록 시선을 위쪽에 둔다.

서비스의 경우에는 스매시의 동작과 비슷하지만, 라켓을 뻗 때, 밑으로 돌려 크게 빼어 어깨에 묶고 동시에 볼을 토스시켜 스매시와 같은 동작으로 친다. 그리고는 준비자세를 빨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다.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듯하나, 실제 내가 안 되고 있다고 느끼는 동작은 우선 타점을 좀더 앞으로 이동시켜야 겠고, 포핸드 스트로크, 백핸드 스트로크시에 손목이 완전히 젖혀지도록 하며, 발리시에 발을 45도 앞쪽으로 디디도록 하고, 스매시할 때에 손목이 밖으로 꺾이도록 해야 겠고, 서비스시에 볼을 정확한 방향으로 토스해야 겠다. 그리고 시선은 언제나 볼을 향하게 하고, 헤드 업은 가능한 하지 말고, 언제나 볼은 자기 가슴 앞쪽에 두도록 노력해야 겠다. 그리고 라켓을 빼는 동작을 빨리해 타점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겠다. 그리고 스윙 후 허리가 완벽하게 돌아가는 피니쉬 동작만 신경쓰면 동네 테니스장에선 어느 정도 행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름방학 때, 우연한 기회에 똑바른 테니스 품을 배워 그리고 이론적으로 빠삭하게 알게 되었다.- 많은 발전을 이루해 뿐듯하기만 하다. 하지만 강의기간이 왜 이리 짧게만 느껴지는 것일까? 작년의 수영 계절학기 강좌는 길게만 느껴졌는데, - 그 이유는 아마, 수영은 원래 잘 했기 때문에 지겨웠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테니스는 늘어가는 실력에 점점 흥미를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테니스의 정석'대로 꾸준히 연습하여 어느 정도는 완벽한 플레이를 구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금의 계획은 주말에 한번씩이라도 꼭 테니스 라켓을 잡도록 하고, 게임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정도로 해 이번 테니스 강의의 보람을 느끼도록 할 것이다.



## 감사의 글

오늘날 체육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이런 저런 질문을 던져보던 중 체육학 및 체육교육의 핵심적인 탐구영역이 되어야 할 ‘앎’의 문제로 생각이 모아졌다.

이제서야 미약하나마 그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했다. . . . . 아니 이제서야 그 문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세심한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노희덕 선생님, 정성태 선생님, 김동진 선생님, 정웅근 선생님, 김정명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또한 학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학자와 교육자로서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신 모든 온사님들께 감사드린다.

지난 수년 동안 항상 사랑과 격려와 질타로 이끌어준 전세일 선생님, 나영일 선생님, 김달우 선생님 등 여러 선생님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뿐만 아니라, 항상 가까이에서 필요할 때 친구로서 대화의 상대가 되어준 김성국, 유상건, 김홍식 선생님, 무더위 속에서도 기꺼운 마음으로 연구과정을 지켜보고 도와준 후배 윤승평, 최선철, 문태섭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한다.

그리고 연구 문제와 해결 방법을 찾는데 있어, 작지만 구체적인 단서들을 제공하여준 교양체육 강좌 수강생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날까지 막내아들 뒷바라지에 온갖 정성으로 공력을 들이신 어머님과 장인, 장모님께 이 논문을 바친다. 또한 지난 동안 끊임없는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큰형님, 작은 형님 내외분에게 감사를 드린다.

끌으로 오늘날까지 별 불평없이 기다려준 영애, 지수에게 남편과 아빠로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1994년 8월

오 정 석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A standard linear barcode is centered within a rectangular frame. The barcode represents the number 101 0762449 4.

동양서 101 0762449 4

# 국 문 초 록

오 정 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본 연구의 목적은 체육의 독자적인 탐구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체육적 맑'의 영역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현 체육학의 지식체계와 체육교육의 목적 및 목표, 그리고 그 교과내용을 재해석해보려는 것이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1) 현 체육학과 체육교육에서 탐구되고 가르쳐지고 있는 지식은 어떤 종류의 것이며, 그것은 다른 영역의 지식과 구별할 수 있는 고유한 맑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가?
- 2) 체육의 독자적인 탐구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체육적 맑의 세계는 존재하는가?
- 3) 만약 체육적 맑의 세계가 인정된다면 그 맑에 근거하여 볼 때 지금까지 인정되어온 체육학의 지식 체계와 체육교육의 목적, 목표의 재해석은 가능한가?

이상과 같이 설정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진행된 연구내용 및 연구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 체육학의 지식체계와 체육 교과내용의 지식유형, 그리고 그 인식 기반을 파악함으로써 현 체육학과 체육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체육적 지식의 실체와 그 문제점을 규명하였다.

둘째, 현 체육학 분야의 지식을 양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전통적인 연구방법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셋째, 인간의 맑의 조건과 체육학 고유의 탐구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체육적 맑을 그 인식론적 조건과 함께 밝혀보았다.

TDR  
310.51  
Se61a  
5859

넷째, 상기의 체육적 앎을 근거로 하여 ‘체육’ 개념의 재해석과 함께 체육의 본질적 가치를 알아보았다.

다섯째, 체육적 앎의 개념 정립 및 본질 인식을 통하여 전통적인 체육적 지식의 통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여섯째, 이상의 체육적 앎에 관한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현 체육교육의 목적 및 목표 그리고 그 교과 내용의 한계를 알아보고, 체육교육의 이상적 전개 방향을 인간의 앎의 양식과 상상력,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주제와 관련시켜 살펴보았다.

현 체육학은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이라는 다차원적인 지식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결과 체육의 정체성 확립 및 독자적인 체육적 앎의 영역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체육학자들이 탐구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 체육고유의 앎의 영역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면 체육의 독자적 탐구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체육적 앎의 세계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체육이라는 이름하에서 제공된 다양한 실기와 이론을 배움으로써 ‘체육적 앎’을 체득했다는 말은 바로 우리의 움직임을 운동 상황에서 이해하고 실천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다. 이는 몸 움직임의 길을 자신의 움직임에 깨어 있는 상태에서 체득하고 이를 실천하는 앎의 상태이자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체육적 앎과 관련하여 체득된 운동수행의 영역은 인식 주체인 몸의 참여와 함께 개척될 수밖에 없는 앎의 세계이다. 그리고 운동수행은 체육적 앎의 자원으로서 연구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

이상과 같은 ‘체육적 앎’에 비추어 기존의 ‘체육’ 개념을 재해석하고, 다차원적으로 나타난 체육적 지식의 통합 가능성과 체육교육의 존재 지향적 전개 방향을 살펴볼 때 나타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육’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되 우리 모두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해석을 하고 이를 공식화시켜 사용하든지, 공동적인 합의를 통해 ‘체육’ 개념에 대체 가능한 용어를 만들어서 사용자 모두가 공유하도록 공식화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명칭이 선택되든 그 바탕이 되는 세계는 전술한 체육적 앎이 되어야 한다.

다차원적인 체육적 지식의 통합 가능성은 현 체육적 지식이 이론이든 실기이든 간에 그 모두가 지향하고 있는 세계가 있음을 상정해야만 비로소 제시될 수 있다. 이러한 지향의 구심점이 바로 체육적 맑의 세계이다. 따라서 현 체육적 지식은 체육적 맑의 세계를 통해야만 모학문으로 환원되지 않고 체육의 영역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체육적 맑의 영역은 체육의 하위 학문영역을 전제로 하여 더욱 더 그 세계를 확대, 심화해 나아갈 수 있다.

체육의 특성상 체육교육은 인간 움직임의 주체적 체험과 그 상상력과 깨달음으로 점철된다. 따라서 체육교육의 목적은 인간의 본래 모습찾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그 목표는 자아의 깨달음과 체험의 고양에 두어야 한다. 이것은 움직임의 실천에 따른 자아의 이해와 자기 인식의 도달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체육 교과 내용은 지각-실천-이해라는 ‘포괄성’과 체육적 맑이 체계적으로 구조화된 ‘통합성’, 학생의 참여가 가미된 ‘역동성’이 담겨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끝으로 체육의 지도는 ‘움직임 지각의 체험’과 ‘깨달음의 체험’, 그리고 ‘체육적 맑의 체험’이 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평가는 체육의 특성상, 과학적 이거나 교조적인 접근이 아니라 개개인의 체험이나 깨달음의 운동수행을 통한 파악과 ‘되어감’이라는 성취과정의 수준을 고려하는 논평식 방법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의 내용을 출발점으로 하여 이제는 더 이상 표류하는 체육이 아니라 새로운 영역으로 발전 도약해 나아가는 체육 전체를 위한 하나의 체육적 맑과 체육 하나를 위한 체육 지식의 구체적인 구조와 내용이 마련되길 바란다.

**주요어 :** 체육, 체육적 맑, 체육적 지식, 몸의 길, 깨달음의 체험, 운동수행



# 목 차

## 국문초록

<b>I. 서론</b>	<b>1</b>
1. 연구의 목적 및 문제	1
2. 연구의 필요성	2
3. 연구방법 및 절차	8
4. 용어의 정의	9
5. 연구의 제한점	10
<b>II. 전통적인 체육적 지식의 구조와 내용</b>	<b>11</b>
1. 체육의 학문화 운동과 체육의 분할	11
2. 학문성과 전문성에 따른 체육적 지식	19
3. 다차원적인 체육적 지식의 혼재	27
4. 전통적인 체육적 지식의 인식 기반	33
<b>III. 전통적인 체육의 연구방법</b>	<b>40</b>
1. 체육의 학문화에 따른 체육 연구방법의 과학화	40
2. 연구방법의 편향적 수용과 환원주의	42
3. 다차원적인 연구방법론의 통합 가능성	49
<b>IV. 체육적 앎의 재발견</b>	<b>54</b>
1. 인간의 앎의 조건과 체육적 앎	54
2. 체육적 앎의 발견을 위한 단서 : 인식주체로서의 신체와 암묵적 지식	81
3. 앎으로서의 운동 수행	108

<b>V. 체육적 앎과 체육의 재정립 -----</b>	<b>129</b>
1. ‘체육’ 개념의 재해석 -----	129
2. 다차원적 지식의 체육적 앎으로의 통합 -----	136
3. 체육적 앎과 체육교육의 존재지향적 전개 -----	149
<b>VI. 요약 및 결론 -----</b>	<b>174</b>
 참고문헌 -----	180
Abstract -----	190
부    록 -----	193

## 그 림 목 차

II - 1. 체육(체육학, 체육교육)의 지식체계도	20
II - 2. 체육학의 학문적 변화의 5단계	28
V - 1. 체육 지식의 관계구조	139
V - 2. 체육적 지식의 관계	140
V - 3. 체육적 지식의 기본 구조	142
V - 4. 지식의 관계 방향	143
V - 5. 체육적 맘의 3차원적 구조	144

## 표 목 차

II - 1. 체육학의 하위 학문영역	22
----------------------	----

